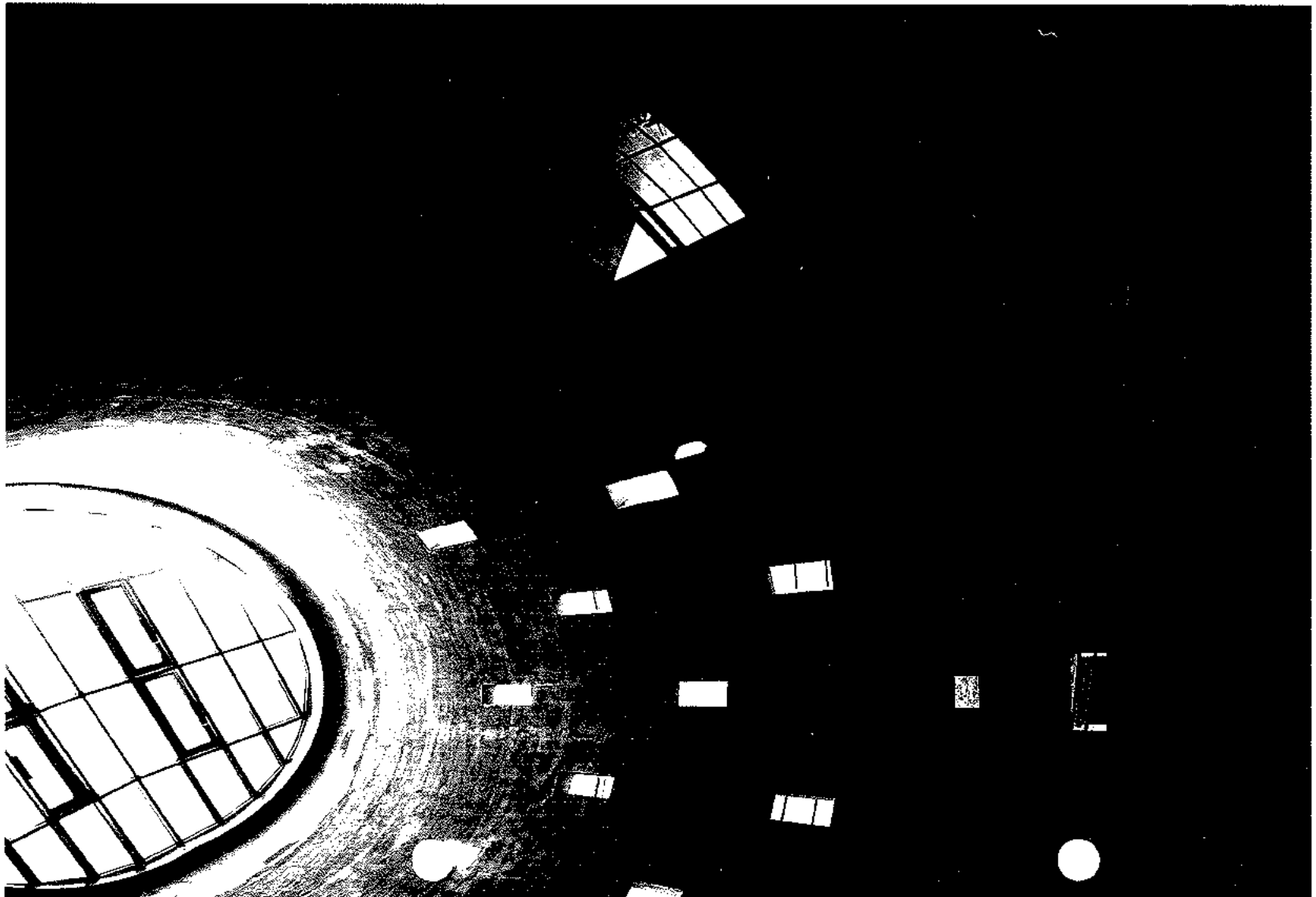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19 / March / 2004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 137-070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korea@kira.or.kr
http://www.kira.or.kr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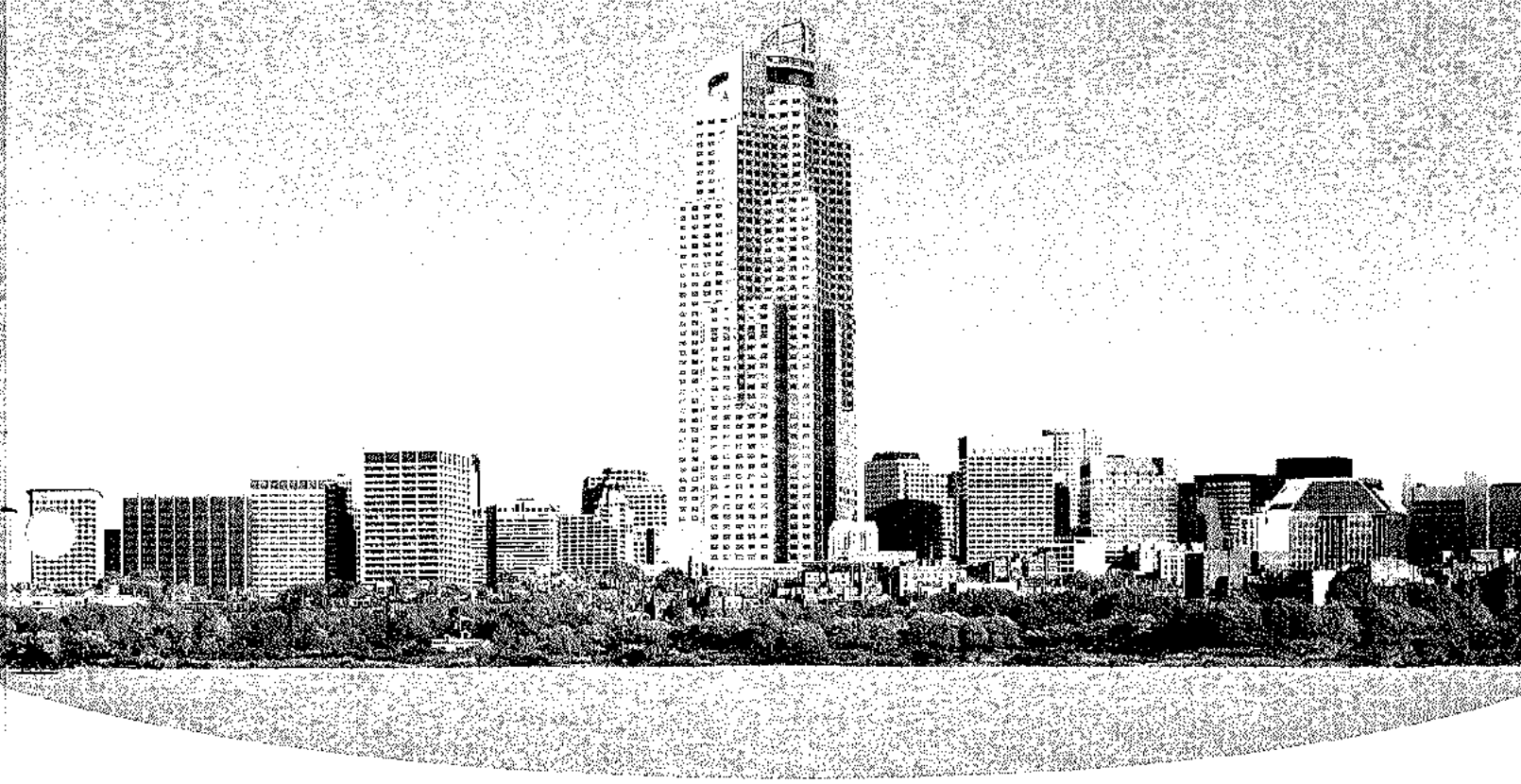
LG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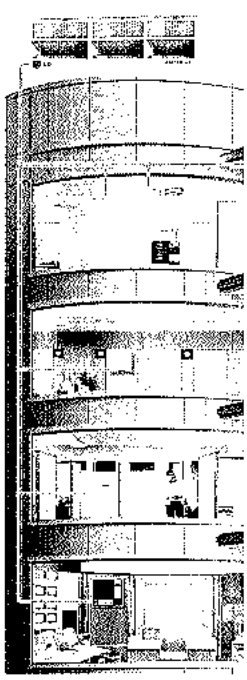
4년 연속 세계 판매1위 WHISE

큰 건물에 강한 첨단 시스템에어컨

MULTI V™ PLUS

경제성에서 첨단 기술까지 성능도 편리함도 더욱 커졌습니다





(기존 실외기 설치 대비 설치면적 44%, 슬리브 관경 50%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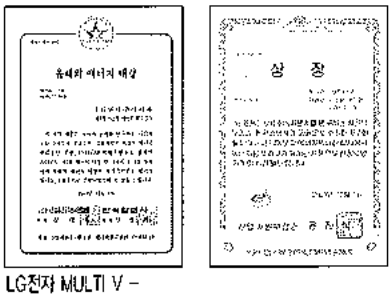
MULTI V™ PLUS

최대 46마력의 대용량 시스템에어컨으로 중대형 빌딩 공조에 적합한 에너지 절약형 인버터 냉난방 시스템입니다

- 실외기 용량 : 최소 5Hp에서 최대 46Hp까지
- 120m 최장배관, 50m 수직배관
- 고급 중앙제어, PC/인터넷 중앙제어, 적산전력 분배 등 다양하고 편리한 첨단 Network Solution 시스템
- 국내 최초 KTL(산업기술시험원) 공식 인증
  : LRP-N4600BH, LRP-N5800B, LRP-N5800BH

KTL(산업기술시험원) 공식 인증서

★ 소비자와 정부로부터 동시에 인정받았습니다



LG전자 MULTI V –
제7회 2004 올해의 에너지 대상 수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

시스템에어컨 제품 구입 문의 · 건설사 영업팀 02)2005-3052 · 강남 02)2005-3596 · 강북 02)727-4183 · 경기 031)267-0873 · 인천 032)321-9162 · 호남 062)510-5842 · 충청 042)388-0633 · 부산 051)807-3242 · 경남 055)264-7494(제주포함) · 경북 053)257-0808 ※인터넷 홈페이지 www.systemaircon.com

세계(8개국) 발명특허 획득!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스웨덴, 한국, 중국, 캐나다)

심야전기 보일러 난방비보다 시설비 및 유지비가 저렴!

난방비 걱정끝!

온돌전용

유류비의 70%, 가스비의 30% 절감 초절전 온수관 보일러로…

원 리	상온에서 방열관의 내부기압을 대기압보다 낮은 부기압(Negative Pressure)으로 만들어 이러한 핵비등(Nucleate Boiling) 현상이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게 함으로서 예열시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증기로 인한 비축열을 증가시켜 순환이 아닌 제자리에서 방열되도록 System화 하여 적은 열량으로 열효율을 높였다.

● 안전한 난방

축열식 히터온돌의 취약점을 없애기 위해 두가닥의 80℃의 정온 열선과 열매수를 사용하여 과열방지 장치 없이 고열에 의한 코일단절 보안과 함께 화재 위험을 없애고 전자파 차단 효과를 가져왔다.

● 에너지 절약

특허기술로 밀폐한 온수관 내에서 1평당 1.9ℓ 정도의 온수를 열이동에 의한 열손실 없이 직접 가열하기 때문에 평당 소비전력 190W부터 난방이 가능해 여름철 냉방용 전력을 겨울철 난방용 전력으로 절체사용할 수 있어 종설비용 및 기본요금 절감. 일반 니크롬선 및 시트형 발열체보다 70%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고효율 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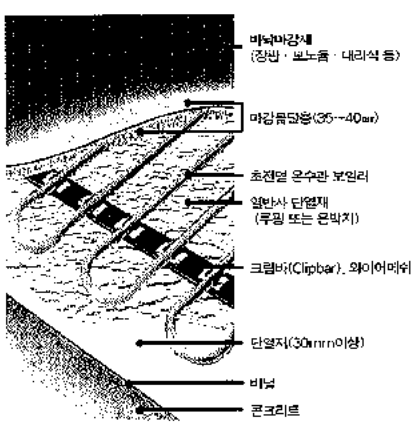
● 보일러실과 관리비 없는 개별난방

별도의 보일러실 없이 안내실 조작 판넬에서 ROOM별 온도를 따로따로 조절(ON/OFF)과 원격제어가 가능하며 일정한 실내온도 유지로 난방할 수 있다.
유지보수 및 관리비 불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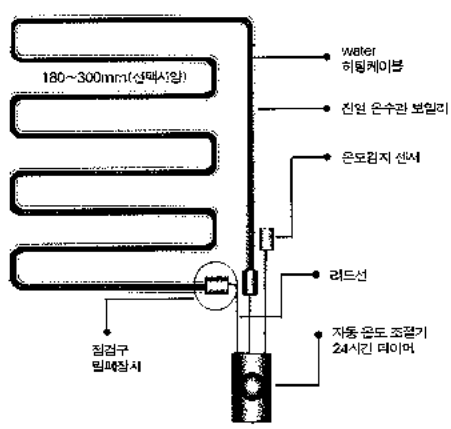
● 기존배관 재활용으로 A/S기간 10년

기존 배관이 있는 경우 바닥을 뜯지 않고 가구이동 없이 전열선 삽입 및 관출 특허 공법으로 간단하게 재활용하여 당일 시공 당일 난방이 가능하다.
기계적 장치가 없어 고장이 거의 없다.
(차단기 무상A/S 1년)

온돌 몰타르 시공방법



초절전 온수관 보일러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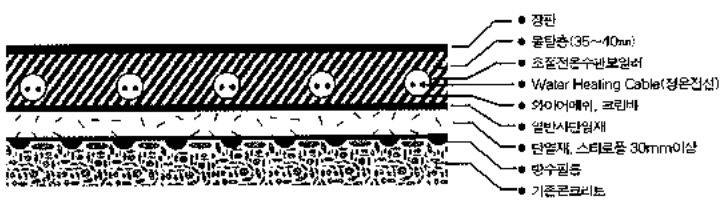


소비전력 용량비교표

시공선택사양 방열관간격(㎜)	평당시공 길이(m)	평당소비 전력(kw/h)
300	10	0.19
275	11	0.21
250	12	0.23
230	13	0.25
200	14	0.27

※ 주택용 전력 수용가 제외
※ 건축법 제59조 규칙 단열시공건물 기준

온돌 몰타르 시공방법



제품 주 수요처

호텔, 숙박업소, 콘도, 오피스텔, 연구소, 교도소, 실버타운, 사찰, 종교시설, 기숙사, 연수원,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군 · 경내무반, 병원,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작물 일정온도 유지, 지중난방 등

▶ 경향전기에너지 절약 부문 산업자원부장관 수상제품
▶ 정부 각 부, 처, 도, 시, 군, 구 우수 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
▶ 중소기업청 「신기술 개발 벤처 기업」 인증
▶ ISO9001:2000 인증획득업체 ▶ 품질보증인증(Q마크)획득업체

※ 당사 온수관 보일러는 **특허기술**이므로 무단사용시 **특허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계약시 필히 본사에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본사 사칭 유사 제품**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A/S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열에너지(주)
Chunyul Energy Co.,Ltd.
대표전화 02)928-1090
팩스번호 02)925-5353
본사공장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12-1
서울본부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3가 234 성신빌딩 3층
홈페이지 www.chunyul.co.kr
E-mail : 1010cy@korea.com

Let's KT

bizmek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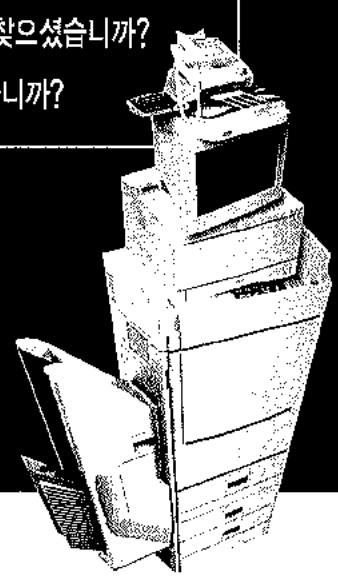
예비사장님을 위한 빌려쓰는 IT서비스

"비즈메카 IT통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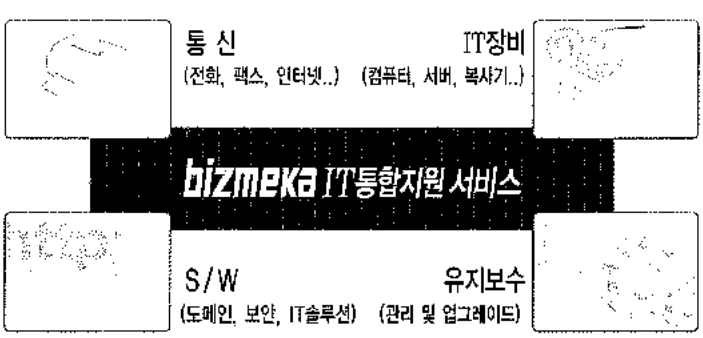
비즈메카 IT통합지원이 드리는 창업 체크리스트!

창업을 준비 하신다면 꼭 확인해 주십시오!

1. 창업계획과 입지분석은 끝났습니까?
2. 점포, 사무실은 준비되었습니까?
3. 컴퓨터와 복사기, 스캐너와 프린터 등 OA기기는?
4. 구내는 물론, 각종 전화회선 가설과 유지, 관리는?
5. 초고속 통신망과 무선인터넷 네스팟은 준비되셨습니까?
6. 싸고 저렴하게 빌려쓰는 IT솔루션을 찾으셨습니까?
7. 비즈메카에서 IT를 통합해서 지원받습니까?



좋은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십니까?
인터넷에서 전화, 컴퓨터, 팩스, 복사기, 스캐너까지.
그 많은 회선관리와 OA기기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렴하게 빌려쓰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며
앞서가는 무선 네트워크, 네스팟으로
보다 편리한 오피스 환경을 구축해 드립니다.
비즈메카 IT통합지원에 맡겨주십시오.
당신의 창업을 위한 성공파트너입니다.



지금 http://itall.bizmeka.com에서 만나보십시오. ☎비즈메카 고객지원 : 080-2580-612

세·계·최·초·의·독·자·모·델·로·대·한·민·국·을·대·표·하·는·주·차·기·가·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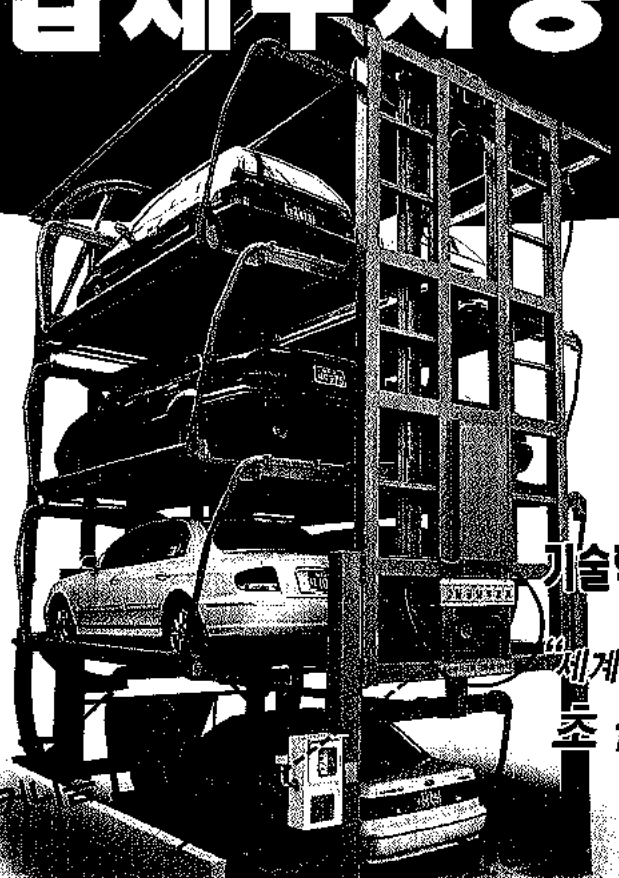
스카이파크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SKY PARK

PL법명업배상책임보험 3억 현대해상화재

전문건설업등록업체
인정번호 대구 제1-15호
인정번호 대구 제1-16호
실용신안등록 제20-0190325호
실용신안등록 제20-02463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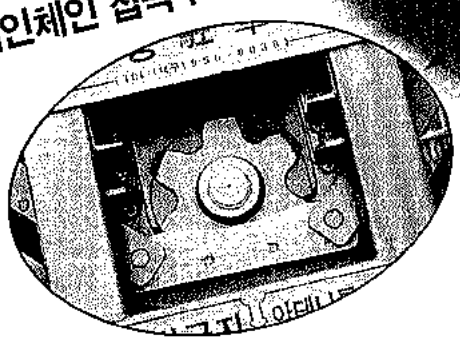


10年이상 쓸 수 있는 주차장치
"자신있습니다"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세계최초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한 초슬림형"

세계적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접속구동의 新메커니즘



■ 이렇게 다릅니다

- 엄청나게 간단해진 구동부 만큼 가격은 대폭 내렸습니다.
- 지상자주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인터넷 주소창에 '주차'를 입력하십시오.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자재정보(www.Archidb.com)의 '주차'를 검색하십시오.

☞ 자매품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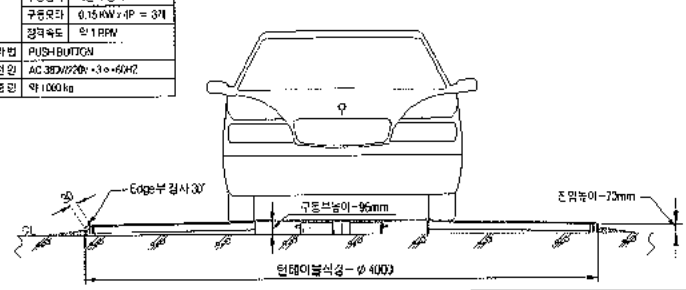
■ 사양(뉴그랜저급 진입가능)

모델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 (最小)	주차기 길이 (最小)	소요높이 (最小)
SKY PARK- 5	5 대	4570	6090	6830
SKY PARK- 6	6 대	4570	6090	7720
SKY PARK- 7	7 대	4570	6090	8600
SKY PARK- 8	8 대	4570	6090	9380
SKY PARK- 9	9 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 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 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 대	4570	6090	13060

신제품 **지상설치형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0mm!

실용신안등록 제0233726호

밀 창	창공턴테이블(신형)	
수용 차종	중소형 승용차(무게 2000kg 이하)	
구동장치	구동방식	배찰 구동식
	구동모타	0.15KW×4P = 3개
	정격속도	약 1 RPM
조작 방법	PUSH BUTTON	
인원 전원	AC 380V/220V ·3φ·60HZ	
자체 중량	약 1000 kg	



(株)창공駐車産業
www.juchagi.com
한글도메인 : 주 차
SINCF 1989

본사·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전국대표전화 (상담·A/S) 1544-3335
• E-mail : cgp210@kornet.net
• F A X : 054)973-0067
• 서울지사 :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67-29, FAX : 02)333-4442
• 부산사무소 : 051)784-6721 • 광주연락소 : 062)942-6923

디지털 프론티어 - 삼성

건축사의 신용, 대출名家의 자존심을 약속합니다

보험으로 쌓은 신뢰, 대출로 이어가겠습니다.

고객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을 위해
이젠, 보험뿐만 아니라 대출도 삼성생명과 상담해 주세요.

내일을 위한 희망설계 - 삼성생명 대출

삼성생명 대출 특선!!

신용대출 안내 (무담보 무보증 원칙)

대출자격 건축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교사, 기타 공무원

대출금액_ 1천만원~1억 5천만원

예상금리_ 연 6.4%~7.2%

기 간_ 1년~5년(수시상환, 연장,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가능)

대출기관_ 삼성생명, 제1금융(은행), 제2금융(보험사, 금고 등)

- 창업자금 특별상담
- 담보대출 : 최저금리, 설정비 면제
- APT 소유자, 구입예정자 : 6.0%~7.0%(10년, 15년, 20년, 30년형)
- APT, 단독주택 등 주거용 전세자금이면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상가, 빌딩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질권설정)로 설정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라이트 플러스 대출 : 최저 6.0%
- 스피드 학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최고액 대출

최저의 금리

삼성생명 Seed Bank

신속한 처리

상담문의

삼성생명 강남 AM
Seed Bank

Tel_ (02)545-8853~4
Fax_ (02)545-4939
HP_ 011-9738-0087

내일을 지키는 힘 SAMSUNG LIFE INSURANCE

건축물의 가치를 생각하신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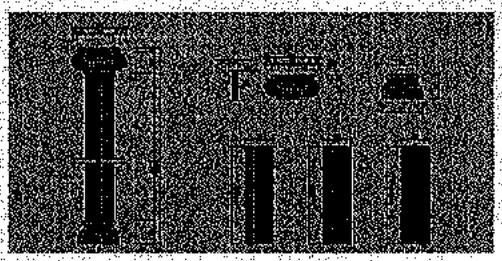
ZHUAI ST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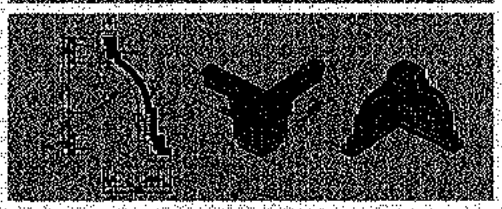
건축물의 가치는 단순히 설계상의 디자인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건축가의 의도에 부합되는 색상과 질감이 시공 및 유지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주아이스톤®은 정제된 세라믹과 엄선된 자연석을 신중하게 형상화한 금형을 사용하여 자연석의 섬세한 질감과 색상까지 재현할 수 있으므로 어떤 설계에도 시공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최첨단 과학 소재로 귀사 건축물의 가치를 높여 드립니다.

이것이 요즘 수 많은 건축 자재 중 고급 건물에 주아이스톤® 이 선택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자유로운 조형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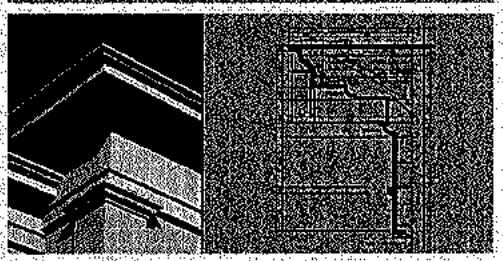
ZHUAI STONE®은 정제된 세라믹과 엄선된 자연석을 섬세하게 형상화한 금형을 사용하여 자연석의 섬세한 질감과 색상까지 재현할수 있으므로 시공도면과 스케치 사진 등에 의한 어떤 형상의 설계에도 제한 없는 시공이 가능합니다. ZHUAI STONE®은 건물 처마의 길이가 3.5m 이상 대형건축물에 시공이 가능합니다. 천연소재의 색상 채용을 통해 자연스럽고 변질되지 않는 아름다움이 유지됩니다. 하중부담을 고려한 건축공법으로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 비해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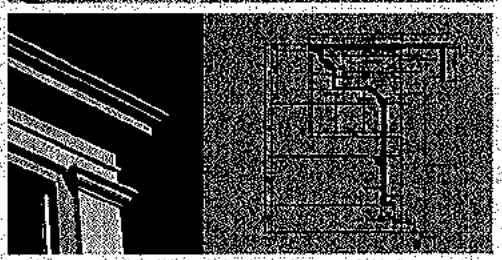
환경 친화적인 첨단 과학 소재로 인체에 무해합니다.

유리섬유, 세라믹 등의 혼합재로서 석면과 알카리에 의한 공해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방수가 가능하면서도, 세라믹과 같이 공기의 투과성이 있어 조형물 자체가 숨을 쉽니다.



백년 이상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완전불연성 특성을 통해 시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이 없는 고신장력을 갖고 있어 일반 건축 내 외장재와 비교시 탁월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일반 시멘트보다 3배 이상의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MOLDED MILLWORK & 에렌하우스 참세도

TONE

대리점 모집

상담문의 02) 785 182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 대영빌딩 11 [illegible] Fax 02/785/5501 www.zhuaistone.com

스타폼(STAR FOAM)은 상압식 압출발포 폴리스티렌 보온 단열재입니다.

상압에서 발포해서 제조하므로 타공법에 비해 같은 체적내에서 독립기포의 수가 적고 치밀하여 단열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내습, 내수성과 탁월한 압축강도를 나타내는 최고급 품질의 난연성 방수단열재입니다.

1 [illegible]

상압발포 공법으로 생산되는 스타폼은 미세한 독립기포내에서 기체중 열전도율이 가장 낮은 불화탄소를 충진하였기 때문에 단열재중 가장 뛰어난 단열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독립기포의 미세한 기포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로 인한 열전도율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2 [illegible]

독립기포구조를 가진 스타폼은 압출보드 중 최고인 최대허중 60Ton/m2까지 견디는 다양한 압축강도를 지니고 있어 각종 건축물의 시공부위에 따라 알맞은 압축강도를 지닌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빌딩, 주택, 주차장, 활주로, 옥상층, 고속도로, 냉동창고 바닥, 아이스링크바닥 등 하중에 대한 부담이 있는 곳에 사용됩니다.

3 [illegible]

다른 단열재와는 달리 미세한 연속독립기포로 형성된 스타폼은 흡수량이 거의 없어 기존의 단열재에서 쉽게 관찰되는 흡수나 흡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단열효과를 지속적으로 나타냅니다.

4 [illegible]

난연제를 투입하여 불꽃을 제거하면 자기 스스로 소화되는 자기소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연재는 아니지만 불연재로 마감을 할 경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5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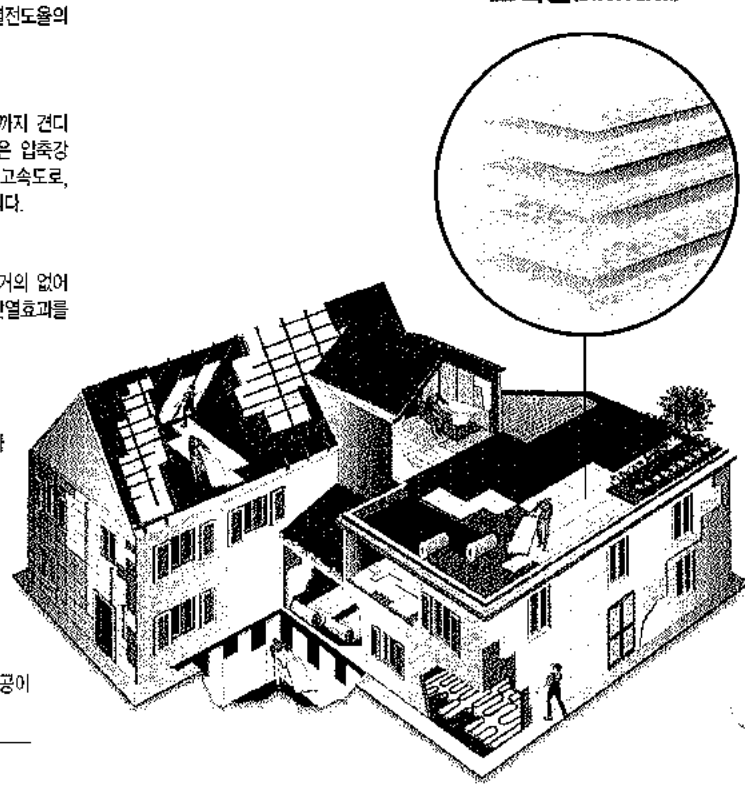
시공시 인체 유해물질이 없으며, 칼, 톱, 열선 등으로 쉽게 규격대로 절단되며 가볍고 강도가 높아서 작업이 편리하고 시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6 [illegible]

두께 20-120mm 까지 생산 가능하며, 다양한 모서리 처리가 가능하여 시공이 훨씬 편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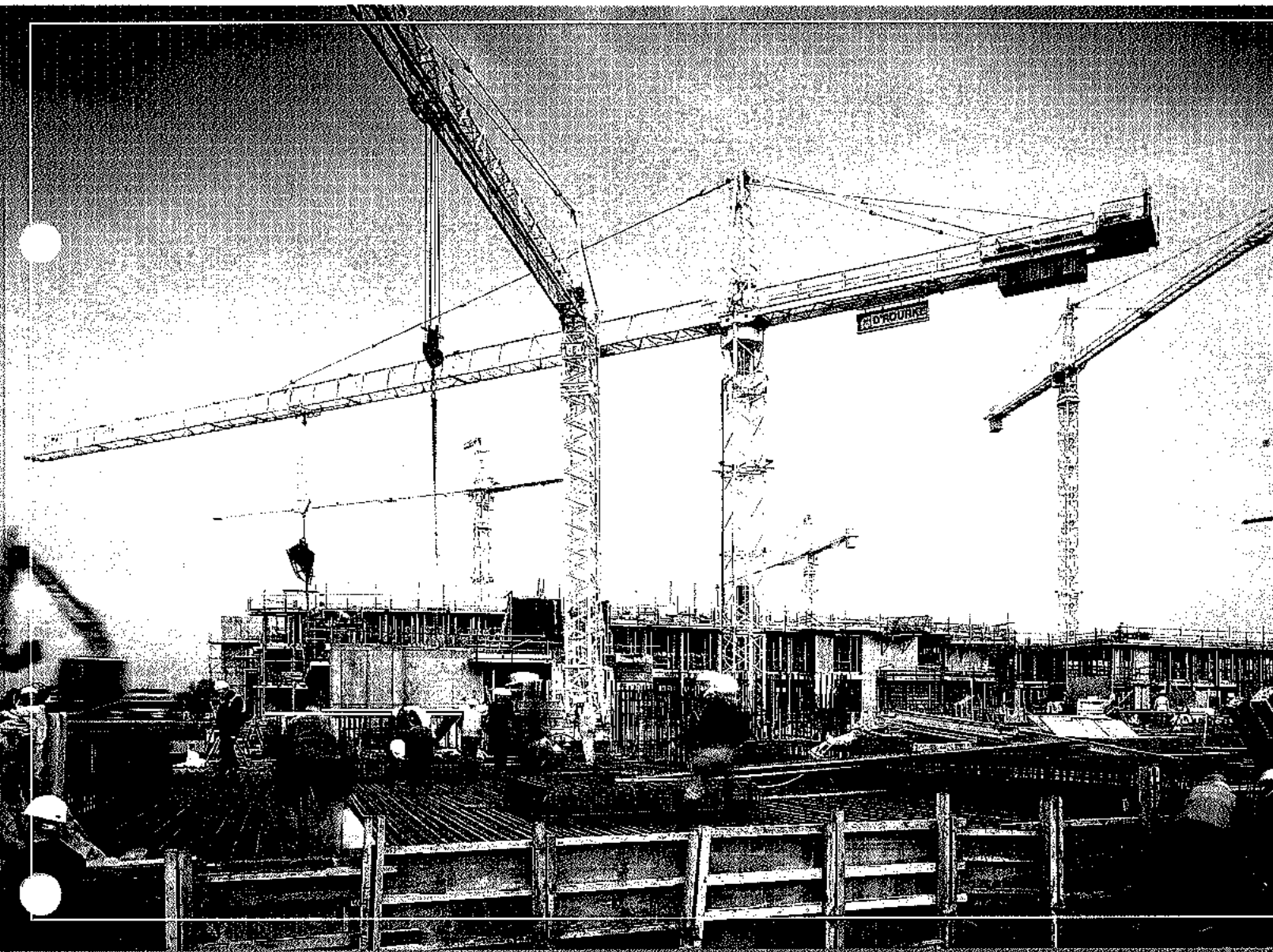
① ② ③

스타폼(STAR FOAM)



本社 · 工場:韓國 大邱廣域市 達西區 月岩洞 927-3(城西工團 2次 2地區)
Tel :(82-53)586-3911(直通) 582-3911~4(代表) Fax :(82-53)582-3915
E-mail : myungil@chol.com Web-site : www.starfoam.co.kr

명일폼테크
MYUNG-IL FOAMTEC



건 축 자 금 대 출

■ 대출대상 : 제한없음(공사진척도 50% 이상 된 건물에 우선 대출됩니다.)

■ 대출금액 : 2억원 이상, 상한금액 제한없음

■ 대출기관 : 시중 금융기관(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대출

■ 그 밖의 대출상품

- 부동산담보대출
- 경매취하자금대출
- 하자정리대출
- (근)저당권부 채권 담보대출
- 경락잔금대출
- 부동산매입자금대출
- 건축관련 Project Financing

(주)한성브릿지

TEL : 02-535-9773 FAX : 02-535-9774
Mobile : 018-359-1472 (담당 : 이동욱)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실 이전

우리협회(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3-55) 회관 신축에 따른 협회 사무실을
아래와 같이 이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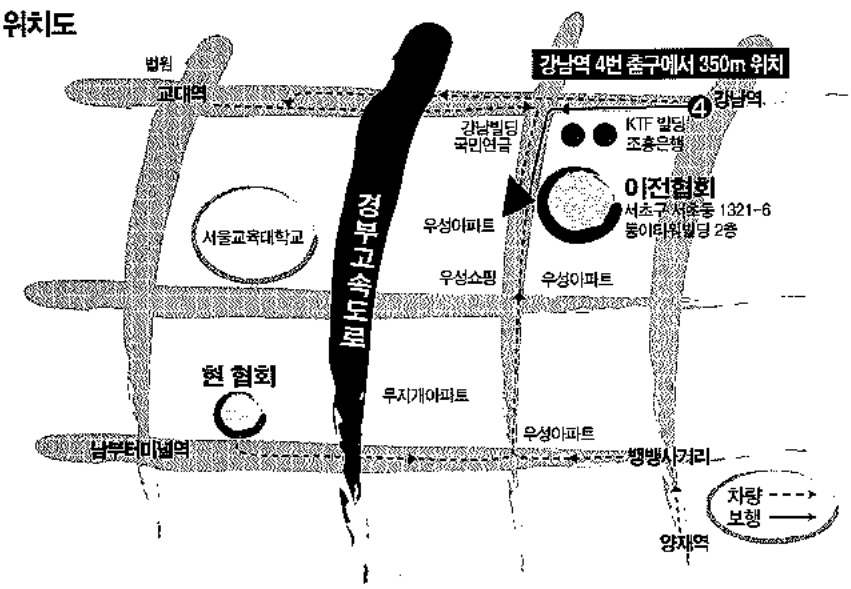
■ **일 시**
- 2004. 3. 27. ~ 28.(2일간)

■ **임차이전 건물**
-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6호 서초동아타워 2층 (2호선 강남역 4번 출구)

■ **사무실 이전대상**
- 본협회 및 서울건축사회, 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

■ **전화 및 팩스번호(전과 동일)**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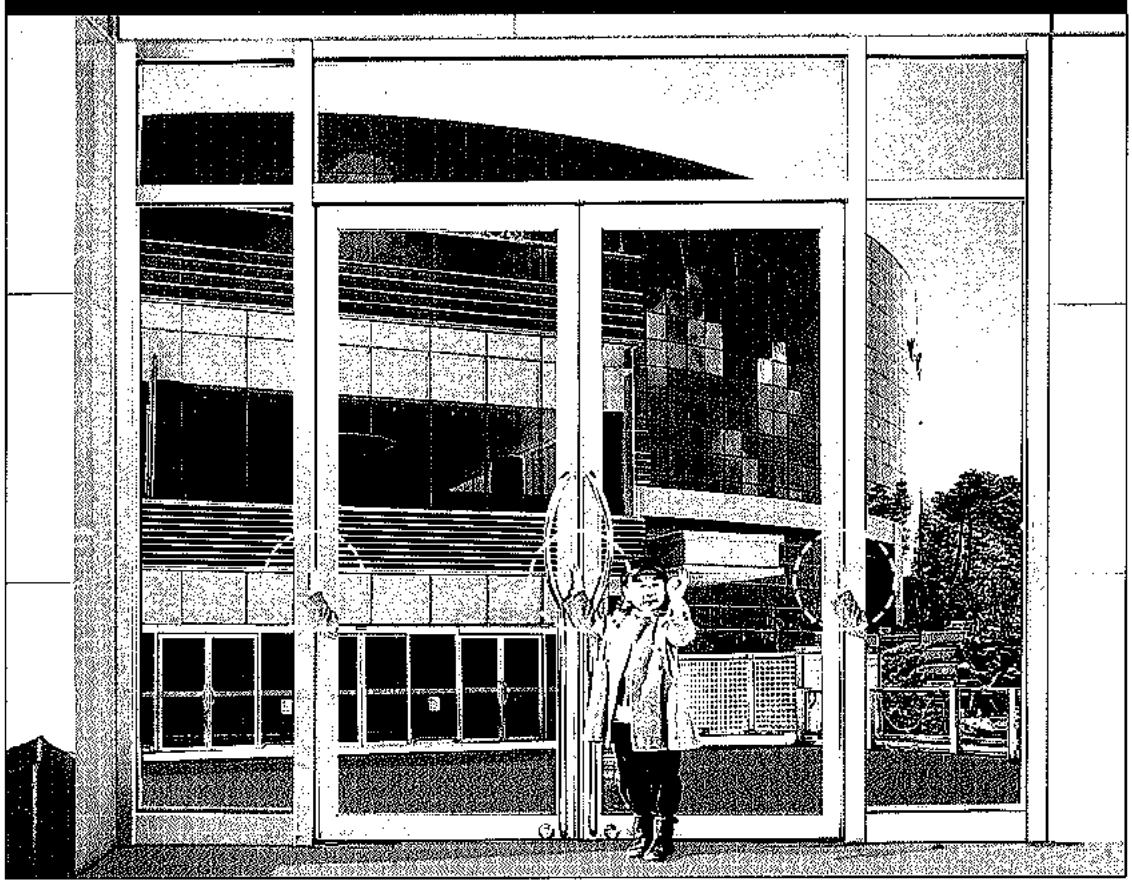


실용신안 제0003710호
의장등록 제2888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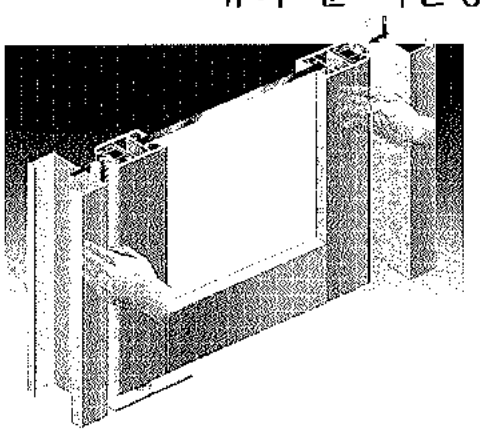
제조물 책임보험 2 억원 가입업체

세이프강화도어

제조물 책임(PL)법에 의해 제작된 안전한 문. 세이프 강화도어! — 정우는 안전한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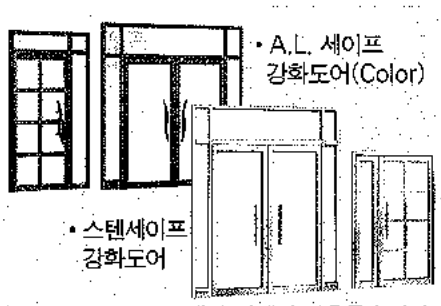


어린이 "손"을 보호하는 도어,
유리 "문" 파손방지 및 에너지 절약, 방음, 방풍이 완벽한 도어!



단면 상세도

사용시에는 방풍, 방음, 단열이 완벽하고 손가락이 끼었을 시에는 이송케이스가 유연하게 작동하여 손가락을 보호하여 줍니다.



• A.L. 세이프 강화도어(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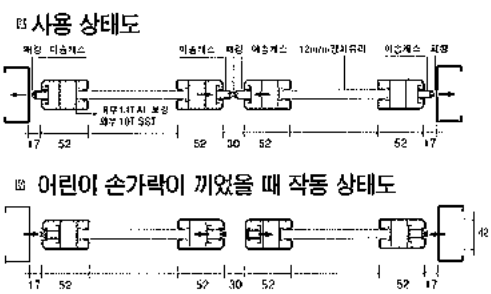
• 스텐세이프 강화도어

• Gold, Black 등 색상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설치 장소

• 오피스텔 • 공공건물 • 은행
• 아파트 • 학교 • 스포츠시설 건물
• 백화점(마트) • 병원 • 호텔

평면 상세도(홈페이지 설계 다운로드 참조)



기존의 일반 강화도어는 안전사고 및 에너지 손실이 많아 수요가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단가표: 한국물가 자료집 432p 참조
유통물가 자료집 387p 참조

공장출고가격: 900×2100mm 기본, 투명유리
₩ 218,000(전국배달)

신자재 공모등록업체 인증 (현대건설 2003. 4)

어린이 「손」 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정 우 산 업

www.safedoor.co.kr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234-77
전 화 : (053)325-9800/325-9801~2
FAX : (053)325-9802
E-mail:jungwoo9800@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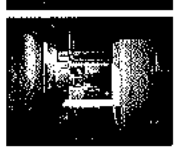
벤 처 기 업 등 록 업 체

대한건축사협회발행, 2004년 3월호 통권 419호

Contents

24

35


43

건축사
Korean Architect

차례 2004 03 419호

칼럼	건축대학 신입생들에게 못다 한 이야기	최왕돈	16
건축만평		유원재	19
회원작품	IBIS 서울호텔	박영건 - 김관석	20
	옥전유물전시관	한현호 · 지승선	28
	조린헌(照隣軒)	김효만	36
	안진당	임해인	46
	분당 벤즈 유진 앤 컴퍼니 사옥	홍순전	54
작품노트	구봉교등학교	조도연	60
연재	공간 클럽 - 10	이재훈	64
건축기행	평양 방문기 - 01	안길원	72
해외건축	몽골건축	BATRAYAR.Ts	76
기고	공간이 주는 여유	이상역	88
	다람살라와 달라이라마	김영수	90
건축마당	협회소식		94
	건축계소식		96
	현상설계		100
	해외잡지동향		116
	보고서		120
	법령		125

발 행 인 이제훈
편 집 기 획 김선양, 장양순, 김종복, 권승열, 박영순, 손기찬, 윤상기, 윤시덕, 이상림
취재 · 편집 홍보편찬팀(조한국 과장)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 편 번 호 137-070
전 화 대표 (02)581-5711~4
팩 시 밀 리 (02)586-8823
인 터 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 쇄 인 김종식 / 제이아트 (02)2269-7619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이창식 팀장)

■월간 '건축사'는 한국건축문화위원회의 편리강령 및 상호호감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기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44

52

58

Korean Architect

Vol. 419
March 2004

Column

Some Additional Words to the Freshmen of Architecture — Choi Wang-Don — 16

Cartoon — Yoo Won-Jai — 19

Works

IBIS Seoul Hotel — Park Young-Kern + Kim Kwan-Seck — 20

Okjeon Relices Exhibition — Han Hyun-Ho & Ji Seung-Sun — 28

Jorinhun — Kim Hyo-Man — 36

Anjindang — Lim Hae-In — 46

Bundang Benz Eugene & Company B/D — Hong Sun-Jeon — 54

Design note

Gubong High School — Cho Do-Yeon — 60

Serial

Space and Rooms — Lee Jae-Hoon — 64

Architecture Travel

A Visit to Pyeong-yang — Ahn Kil - Won — 72

Overseas Architecture

Mongolia Architecture — BATRAYAR.Ts — 76

Feature

Spatial Reserve — Lee Sang - Yeok — 88

Dharamsala & Dalai Lama — Kim Young - Soo — 90

Architects' Plaza

Kira news 94

Archi-Net 96

Competition 100

Overseas Journal 116

Report 120

Laws & ordinances 125

Publisher : Lee Se-Hoon
Assistant Editor : Kim Sun-Yang, Chang Yang-Soon, Kim Jong-Bok, Min Seung-Ryeol, Park Young-Soon, Son Ki-Chan, Yoon Sang-Ki, Yoon Si-Deok, Lee Sang-Leem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4
Fax : (02)586-8823
Printer : Kim Jung-Sik (J-art)

최왕돈 /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by Choi Wang-Don

건축대학 신입생들에게 못다 한 이야기

Some Additional Words to the Freshmen of Architecture

신입생을 맞이하며

매년 3월 초가 되면 필자는 건축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건축이 무엇인지, 건축사라는 직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5년제 건축대학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 어떠한 과정을 거쳐 건축사라는 전문직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한다. 신입생을 마주하는 그 순간은 늘 그렇듯이 마음이 설렌다. 이십 수 년 전 필자의 모습을 그들의 눈동자에서 발견한다. 고등학생 티를 채 벗지 못한, 미래의 위대한 건축사를 꿈꾸는, 희망에 부푼 건축학과 1학년 학생들에게 건축에 대한 첫인상을 어떻게 심어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건축이란 폭넓은 문화적 가치관과 투철한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창의와 실험정신을 강조하는 조형예술로서... 건축대학은 현대사회의 건축문화를 이끌어갈 엘리트 건축가의 양성을 목표로 하며'... 필자가 몸담고 있는 대학의 요람에 나와 있는 건축과 건축대학에 관한 설명을 구태여 끌어대지 않더라도 결국 건축에 대해 상당히 그럴듯한 이야기를 반복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연극이 끝난 후 화장을 지우면서 회한에 젖어드는 배우처럼 필자는 강의실을 나서며 자괴감에 빠져들었다. 올해도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5년 동안 '야작(철야작업)'을 밥 먹듯 하고, 주당 수십 시간을 작품 제작에 몰두하면서 애면글면 건축대학을 수료한 후에 맞닥뜨리게 될 현실에 대해서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은 졸업 후 운이 좋으면 연봉 2000만원 내외, 운이 나쁘면 1,000만원 내외의 건축사사무소에 취직할 것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중 은행에 취업한 친구들의 초임이 얼마인지, 또는 제조업체에 취업한 고졸 사원의 초임이 얼마인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UIA 인증이다 뭐다 해서 새롭게 출범한 5년제 건축대학을 졸업했지만 그 전에 비해 바뀐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야근 수당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밤을 낮 삼아 상당한 기간을 건축사사무소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사장님, 소장님들은 봉급을 주기보다는 월사금을 받으면서 일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도대체 대학에서는 가르치는 게 전혀 없다고 불평하면서 말입니다. 그분들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결혼은 당분간 미루어두십시오.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몇 시에 퇴근하는지 아는 순간 대부분의 영악한 배우자 후보들은 등을 돌릴 것입니다. 결혼 적령기에는 대규모 건설회사에 잠시 몸담아 여러분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느덧 우리 대학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 여학생들은 특히 명심하십시오. 결혼까지는 문제없지만 출산과 더불어 건축계를 영원히 떠나기가 쉬울 것입니다. 육아를 전담해 줄 이해심 많은 시어머니나 희생적인 친정어머니가 계시더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후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중견으로 활동하거나, 혹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 됐든 모든

물가가 올라만 가는데 끝이 안보이게 자꾸만 떨어지고만 있는 설계비와 나날이 치열해지는 수주 경쟁 때문에 마음고생 깨나 할겁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막상 전업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동창회에 가더라도 의사나 변호사가 된 고소득 전문직 친구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건축사는 고소득 전문직인가?

『국세청이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변호사와 변리사 등 부가가치세를 내는 개인 전문직 사업자 2만4,408명은 총 4조2,903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1인당 소득이 1억7,500만원인 셈이다. 사업자별로는 변리사가 1인당 평균 5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려 전문직 종사자 중 수입액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관세사(3억6,300만원), 변호사(3억4,000만원), 개업의사(2억9,400만원), 회계사(2억4,700만원), 세무사(2억1,300만원), 법무사(1억3,500만원)의 순이었다. 그러나 평가사(1억1,000만원)와 건축사(6,600만원)는 평균을 밑돌았다. 또 개업의들은 지난해 5만 3,788명이 15조8,277억 원의 수입을 올려 4만9,653명이 13조7,654억 원의 수입을 기록한 2001년보다 1인당 수입액이 2억7,700만원에서 2억9,400만원으로 1,700만원 늘었다.

의사를 제외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수입은 2001년 2만6,733명, 9조127억 원에서 지난해 2만9,772명, 11조3,759억 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수입액도 3억3,700만원에서 3억8,200만원으로 4,500만원 늘었다. 이들이 낸 부가세는 올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 신고실적 기준으로 회계사가 1인당 6,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변호사 2,060만원, 변리사 1,493만원, 세무사 1,330만원, 관세사 1,180만원, 건축사 498만원, 법무사 454만원의 순이었다. 병 · 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변호사 등 6개 전문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수임사건 내용을 기재한 수입금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003년 9월 21일자 파이낸셜 뉴스)

위의 인용문은 작년 각 일간지에 소개된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 내역이다. 과세 자료가 누락되기 쉬운 직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종이 있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드나 건축사와 같이 모든 수입원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직종에 관해서는 신문기사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어서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이 기사를 본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우선 타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을 확인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맛보았을 것이다. 게다가 건축사 평균 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올렸거나 폐업위기에 몰린 이들의 심정이야 오죽할까. 건축이라는 결코 녹록치 않은 공부를 하고 몇 년의 실무를 거쳐 건축사라는 자격을 취득하여 전문적인 직능을 수행하

지만 그 보상은 결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여러 전문직 중에서 최하위 수준의 수입이 이를 대변한다. 물론 조물주의 뒤를 잇는 창조자로서의 역할, 문화 엘리트로서의 소명의식, 예술가로서의 자긍심이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바이지만 상당수의 건축사들에게는 자신과 상관없는 공허한 이야기일 뿐이다. 문어 제발 잘라먹기 식의 과도한 수주 경쟁, 조만간 본격화될 건축시장의 개방, 개발시대가 마감되면서 시작된 업무량의 대대적 감소, 개발업자, 혹은 대기업의 고용인으로 그 사회적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건축사의 지위 등 건축사가 전문직으로서 응분의 대우를 받기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은 너무도 많다. '이용사, 미용사 다음이 건축사...'라는 자조를 한낱 우스개 소리로만 흘려들을 수 없다는 게 건축사들의 아픔이다. 건축사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이 아닌 듯하다.

해결책은 없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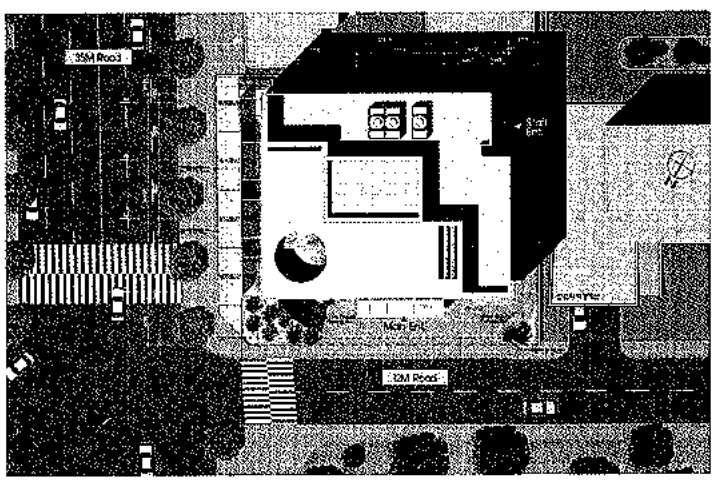
2004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5년제 건축학부와 건축전문대학원을 합쳐 70여 개의 대학이 건축학사 혹은 건축학석사를 표방하고 나섰거나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건축공학 전공을 제외하고 건축설계 전공 학생 수를 한 대학에 40명씩 계산해도 어림잡아 매년 3천명 가까운 건축가가 배출된다는 계산이다.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미국,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보아도 터무니없이 많은 인력이 쏟아지는 셈이다. 오늘날의 열악한 건축사사무소 현실의 주범은 뭐니뭐니 해도 인력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인 불균형이기 때문이다. 이를 심화시키게 될 학제 개편은 시장의 여건과 졸업생들의 미래를 고려하기보다는 각 대학들의 이해와 자존심에 좌우된 탓이다. 시장기능에 모든 것을 내맡기고 도태되는 이는 도태되고 살아남는 이는 살아남기를 기다리는 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이던가. 그동안 우리가 길러내고 있는 수많은 미래의 위대한 건축사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대학에서 그리고 업계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

우선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시도되고 있는 건축대학들 간의 통합 논의에서 그 가능성을 본다. 다수의 대학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건축대학 단위를 구성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패컬티를 갖추고 엄선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70여 개의 대학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알맞은 20개 내외의 대학으로 개편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수반될 것이지만 건축대학의 활로를 모색하고 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건축사사무소 체제 역시 개편되어야 한다.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은 사무소에도 적용된다. 대형 건축사사무소와 아틀리에 사무소가 나름대로의 장점을 살리면서 생존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만성적인 과당경쟁, 저가경쟁을 지양하려는 범 건축계의 단결이 요구된다. 제 값을 받고 제대로 서비스를 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화로서의 건축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로서의 건축을 인정하는 사회적 토양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말자. 그것도 건축사들이 노력할 문제다. 이래저래 건축사는 비범한 능력을 지녀야 하나 보다.

박영건 + 김관석 / (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by Park Young-Kern + Kim Kwan-Se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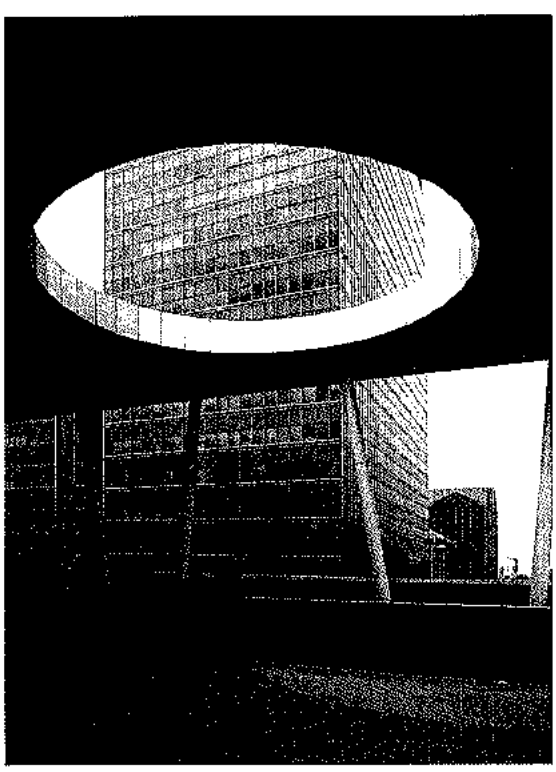
IBIS 서울호텔
IBIS Seoul Hotel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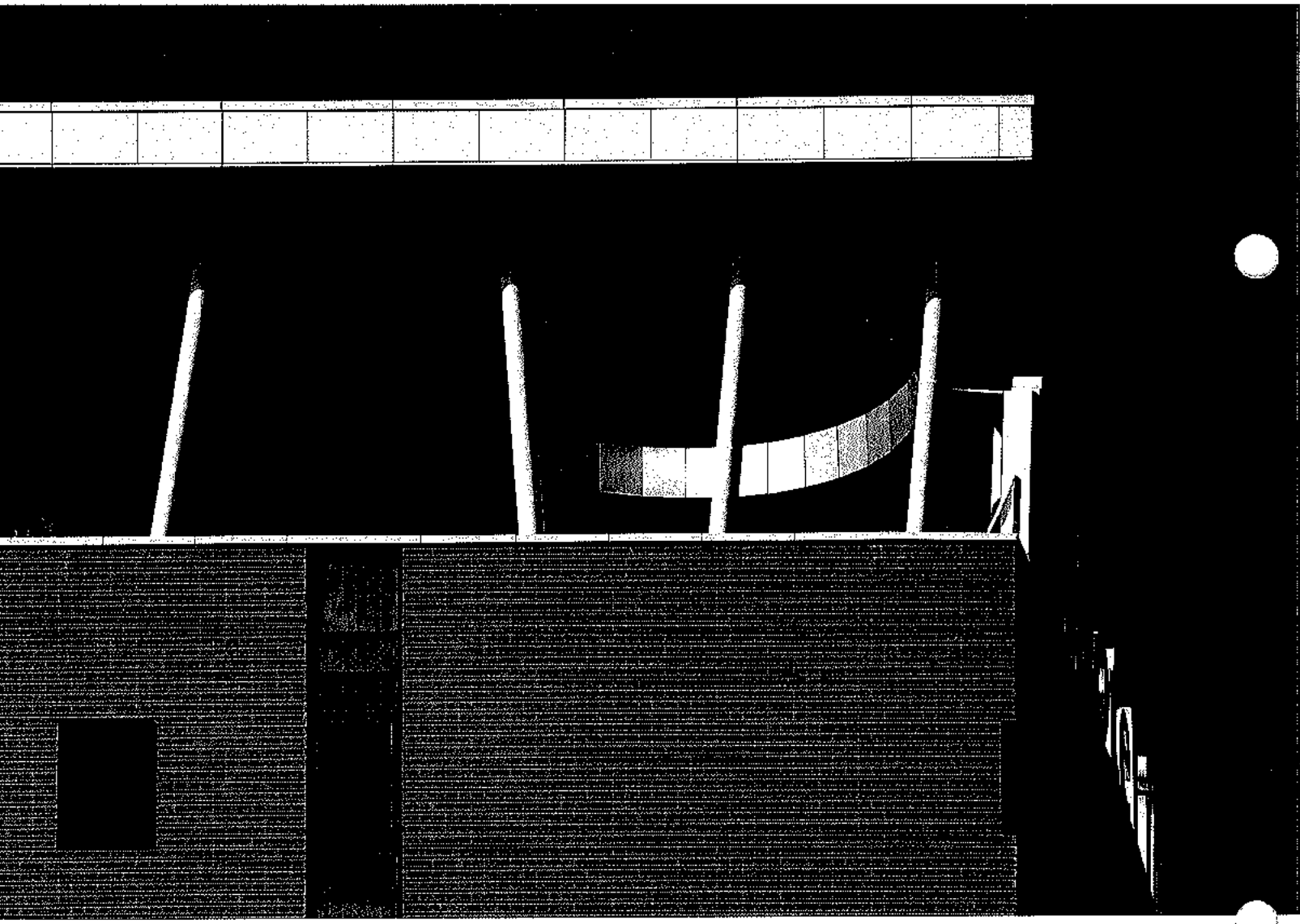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3-1
용 도	관광숙박시설
대지면적	1,559.60㎡
건축면적	929.08㎡
연 면 적	17,831.52㎡
규 모	지하 6층, 지상 14층
주유마감	콘크리트마감위 자기질 페인트, 자기질 패널, 그린마블, 화강석
감 리	(주)예건축
공 사	(주)쌍용건설
건 축 주	(주)엠베스텔
설계담당	김추연, 천성호, 최정원, 김기영, 고영선, 진주희, 유승원, 이홍선 외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이비스 서울 호텔은 우리나라에는 처음 생긴 것이지만 이비스는 세계 최대 호텔 체인업체인 아코르 그룹의 비즈니스급 호텔 브랜드 이름이다. 빠리 시내에는 전철역 주변마다 있는 2, 3층의 비즈니스 호텔이지만 외국의 경우는 규모가 꽤 커진다. 서울의 1호인 이 호텔은 316객실로 구성된 작지 않은 호텔이다. 2주간의 설계 기간을 거쳐 선정된 후에는 건축 부분은 건축가의 개념과 의지가 최대로 존중 받고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또한 실시 설계과정에서 아코르측의 프로그램 지원과 기타 기술적 협조가 많았다. 호텔 건설을 세계 여러 곳에서 많이한 노하우가 회의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미리 많은 부분이 검증을 받고 진행이 된 것이다. 그래서 건축주인 엠베스텔과 아코르 측으로부터 완공된 시점이나 현재까지도 만족할 만한 건축 디자인 품질, 과정과 시공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소박한 측면도 있겠으나 이비스 스탠다드보다 고급스럽게 디자인되고 잘 시공되었다고 자평한다.

진정한 비지니스 호텔은 일반 호텔의 1/2~1/3되는 숙박비로 고품질의 건축 공간을 제공하는데 있다. 그 유니트 플랜은 아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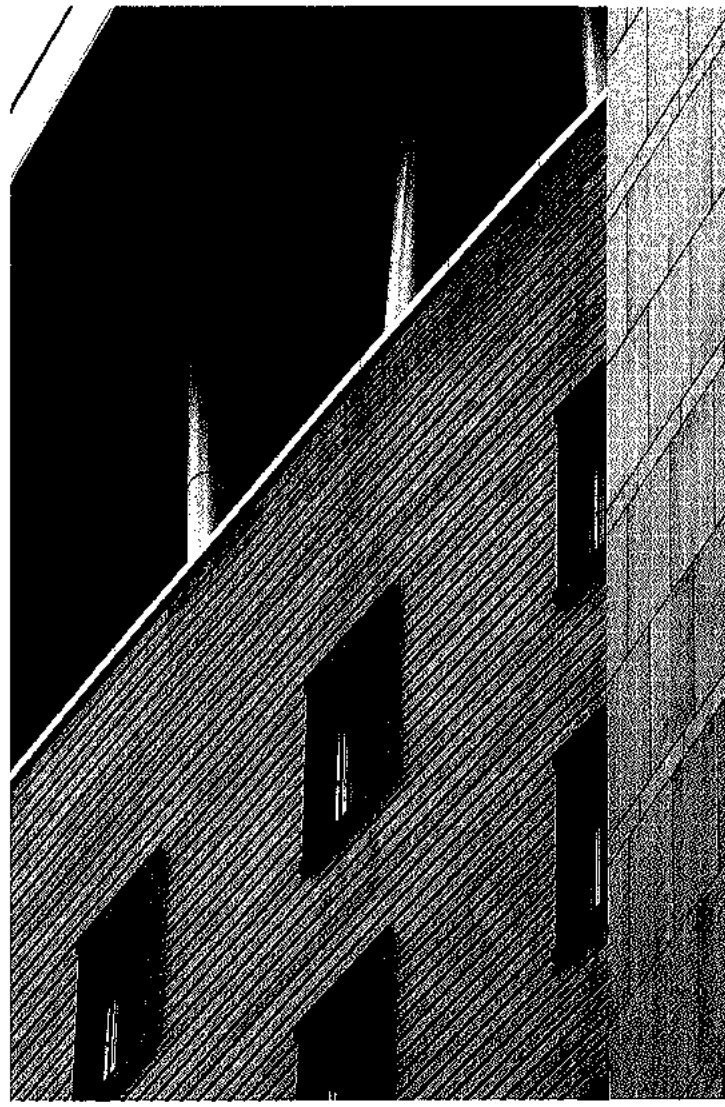


르 그룹에서 제공되고 있다. 1/4 원과 닮은 곡선형의 화장실+샤워 공간이 특징이며 타이트하게 디자인 되었지만 층고가 2.4~5미터로 일반 호텔보다 20~30센티미터 색다르게 느껴지는 디자인이다. 선정된 사이트는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포스코 건물 남쪽 길 건너에 위치하여 포스코에 부속된 소나무 정원이 정겹게 느껴지는 곳이었다. 지하 6개층은 이미 다른 디자인의 호텔로서 골조가 완성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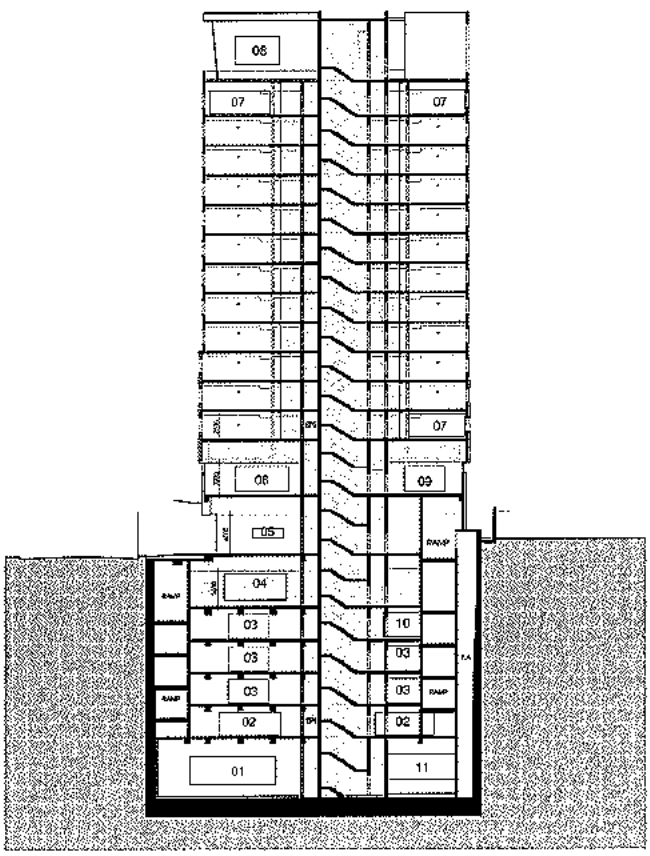
전체적으로는 1, 2층 공용시설위에 2-14층의 객실 상자가 마치 분리되어 떠 있는 입체디자인을 시도하였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디자인이 거기에 어울리게 느껴졌다는 말이 솔직한 표현인 것 같다. 그래서 저층부의 그린마블 상자위에 하얀색 프레임의 주 몸체인 객실 상자가 올려지고 사이에 투명한 유리창이 둘 사이를 분리해 놓도록 되어있다.

일반적으로는 건축물을 설계하면서 외부와 내부가 개념적으로 통하는 디자인을 한다. 여기서는 이미 룸 유니트의 모델하우스가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룸 디자인을 발전시켜 건물디자인을 만들었다. 즉, 화장실 공간의 곡선벽의 형태와 색채가 투사되어 건물 전면 디자인을 만들게끔 하였다. 다음은 길건너에 있는 포스코의 소나무 조경을 2층 식당 공간의 창밖의 기준 배경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스카이라운지는 아니지만 2층 식당에서는 바깥을 소나무 조경이든 도로이든 키높이의 창으로 내려다 본다. 상부 상자의 지붕에 커다란원형 구멍이 있다. 햇빛이 잘 들어와 15층의 옥상 조경에도 햇빛을 잘 들게 하였고, 거리에서도 이 건물을 랜드마크적 요소로 바라보게끔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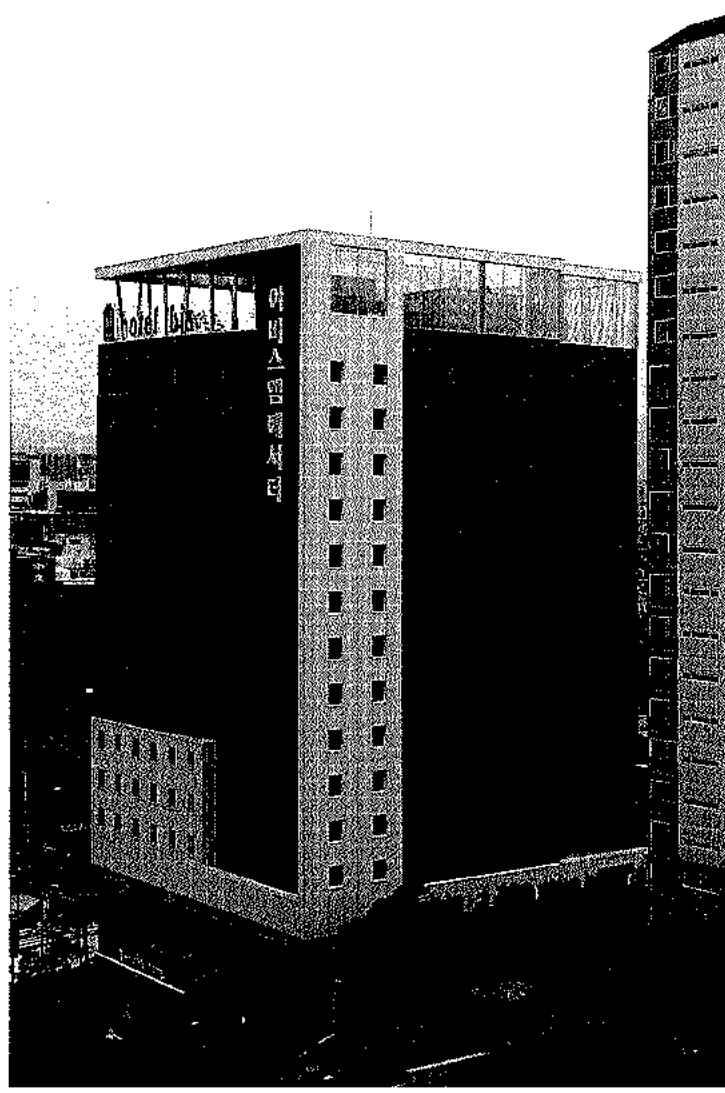
평면을 구성함에 있어서 유니트야 정해진 것이었지만 모두들 같은 모습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창쪽의 부분이 조금씩 넓어질 수도 있게 만들었다. 일부분은 벽이 곡선형을 띠게도 되었다. 그것은 유니트의 자체 논리에서가 아니라 전체 박스 구성원리에서 영향을 받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복도이다. 전기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위치에서든 외부의 창쪽으로 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다. 비상사태를 맞이해서 정전인 때를 생각해 보라. 또한 환경적으로 내부 복도에서 방향감각을 찾는데도 좋지 않은가?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비상시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



01_ 기계실
02_ 호텔후방시설
03_ 주차장
04_ 부대체육시설
05_ 로비
06_ 레스토랑
07_ 객실
08_ 옥상정원
09_ 주방
10_ 창고
11_ 전기실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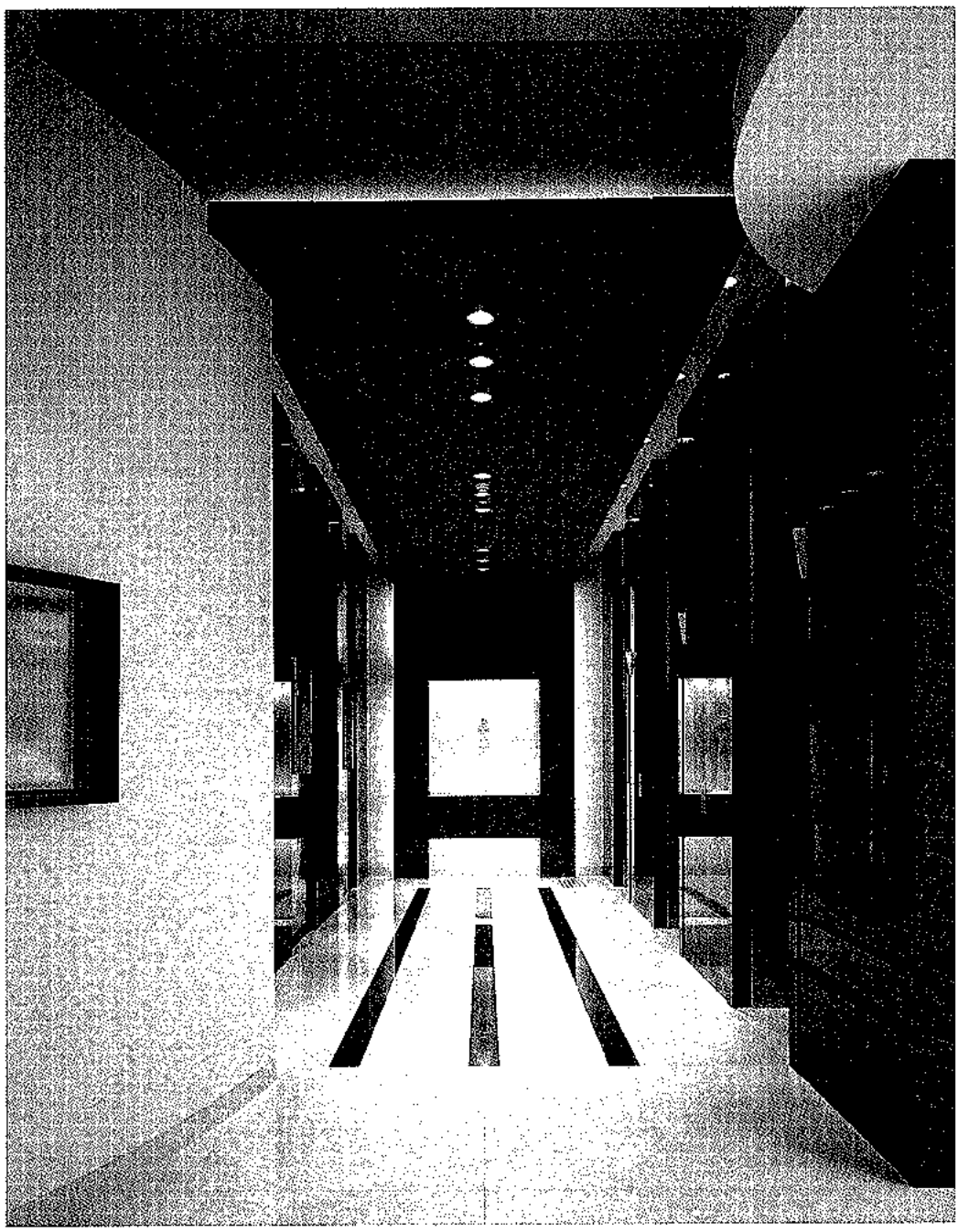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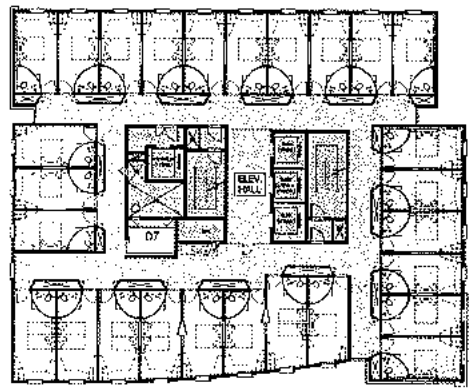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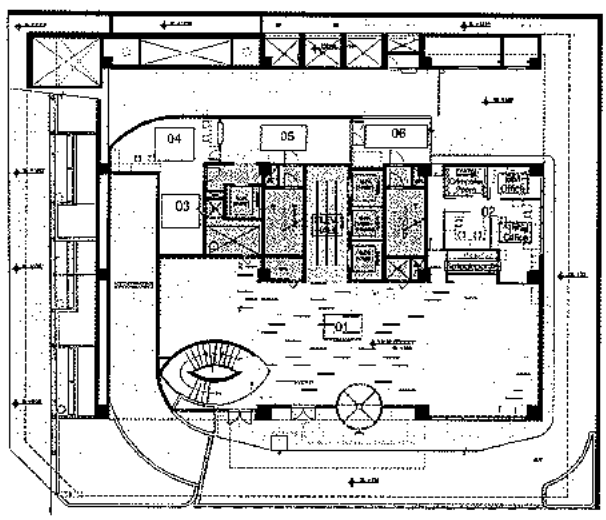


table
table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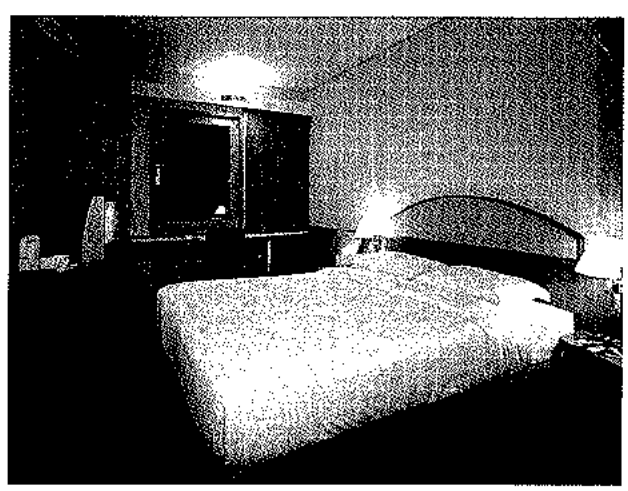


6~1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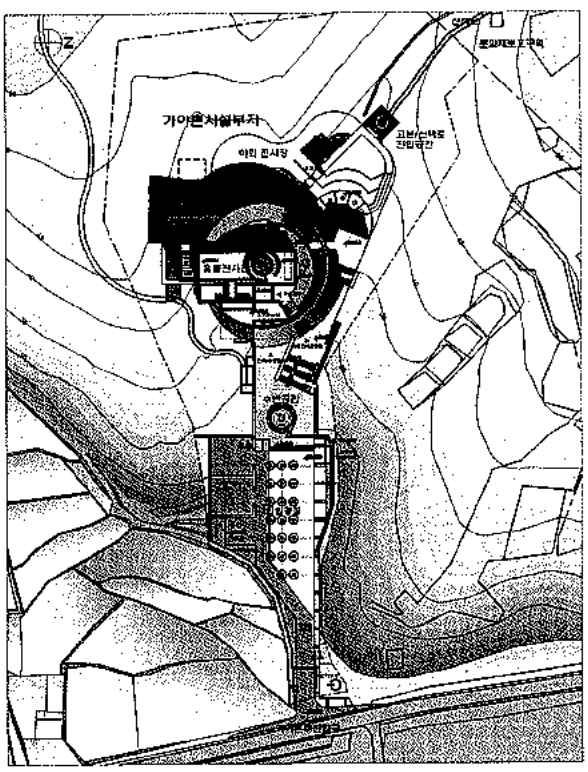
01_ 로비
02_ 사무실
03_ 방재센터
04_ 보안실
05_ 검품창
06_ 심하창
07_ 린넨실



한현호 · 지승선 / GNI종합건축사사무소
by Han Hyun-Ho & Ji Seung-Sun

옥전유물전시관
Okjeon Relices Exhibition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남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옥전일원
대지면적	전체부지 130,000㎡, 시설부지 25,433㎡
	문화재보호구역 104,216㎡
건축면적	1,344.23㎡
연 면 적	2,338.69㎡
건 폐 율	5.28%
용 적 률	7.13%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설계담당	허정행, 김기호, 조진희, 정재희, 이정석, 홍문선
사 진	건축사 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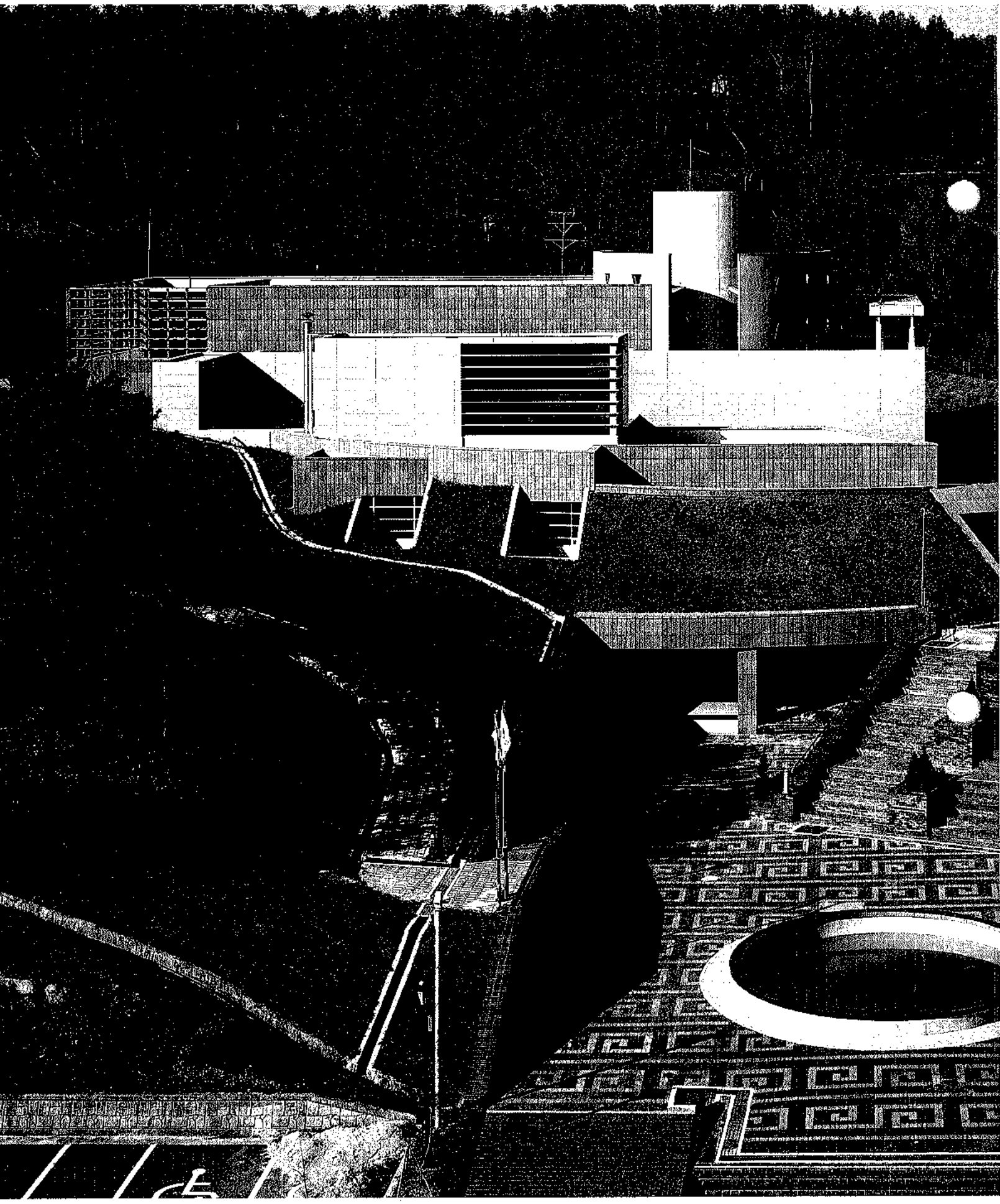
옥전 유물 전시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경남 합천 지역은 옛 가야 땅이다. 대부분의 가야 유적들이 일제강점기를 절정으로 무차별적인 파헤쳐짐을 당한 상황에서 옥전 고분군의 발굴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가야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키며 옥전 유물 전시관 건립 현상설계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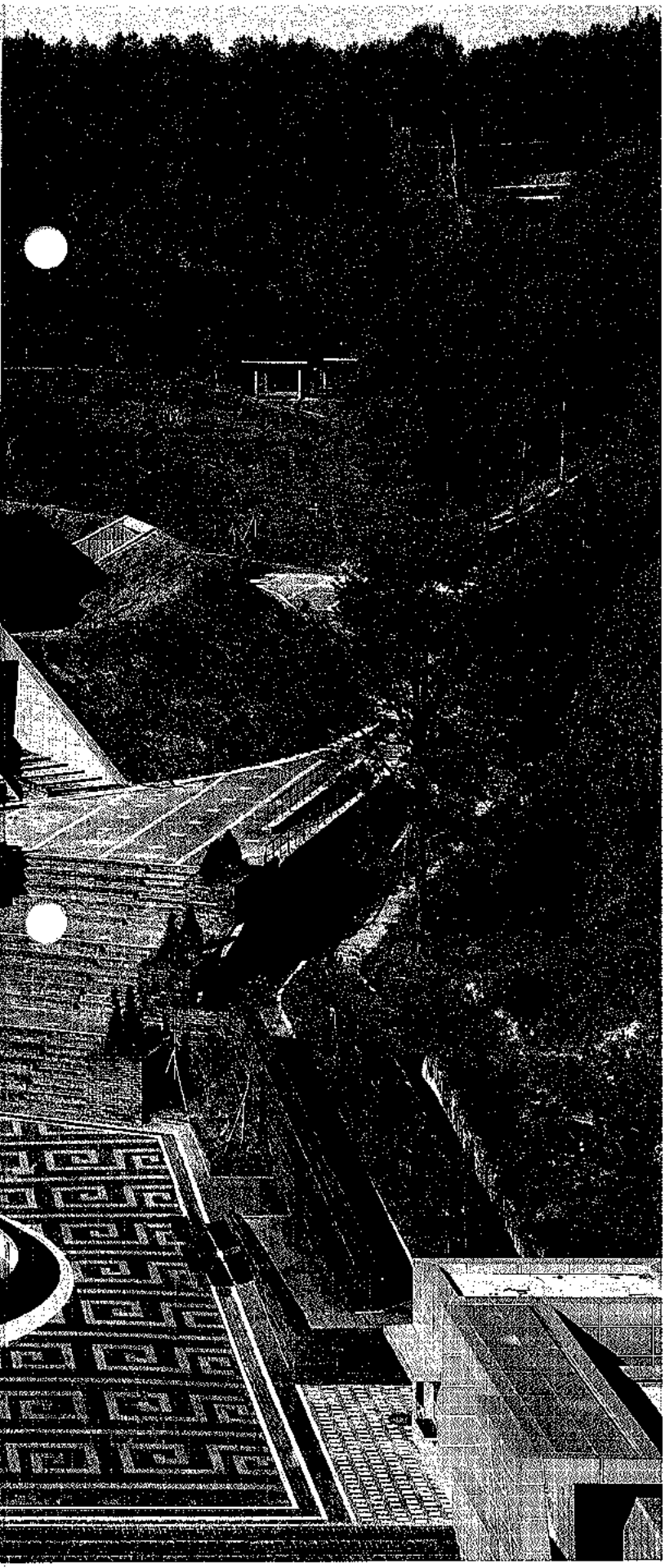
발굴된 고분과 유물, 역사적 내용들이 고스란히 건축계획의 중요한 배경요소가 되었음은 물론이고 계획 목표 또한 발굴문화의 체계적 정비, 보존, 연구 및 전시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시관은 고령 I · C에서 907호 지방도를 타고 달리다 보면 오른 편에 나지막하게 앉아 있다. 북서쪽으로는 고분군, 서측으로는 황강, 남동측으로 너른 들이 둘러져 있는 대지는 역사와 자연을 동시에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끌어 들여 유적의 보존과 정비를 위한 공간인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과 전시관을 찾는 이 모두에게 좋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대지 형상에 따른 긴 approach는 몇 가지 물리적 해결과 함께 자연스런 깊이감을 주고, 지형의 최소한의 훼손과 복원에 대한 초기 생각은 다양한 level로 나타나며, 여러 가지 시각적 변화를 느끼게 한다.

건물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둔덕은 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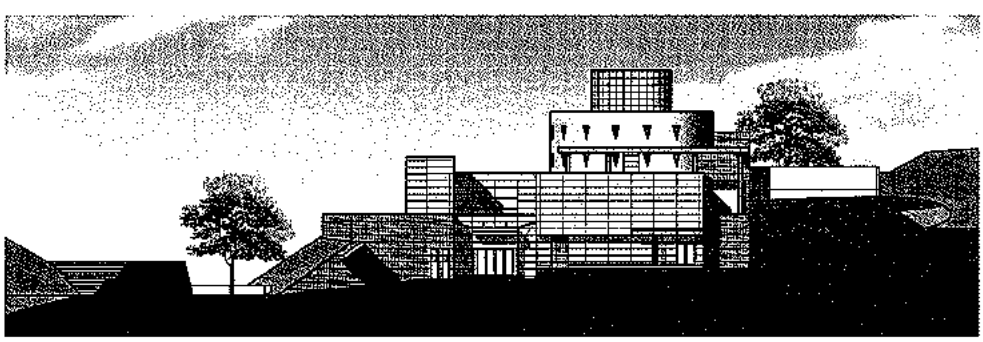


을 모티브로 전체 조형 개념을 설정한 데에서 만들어진 공간적 요소이다. 그 안으로 만들어진 원형의 터는 영역성을 확고히 하고 중심공간으로서 전시관을 두드러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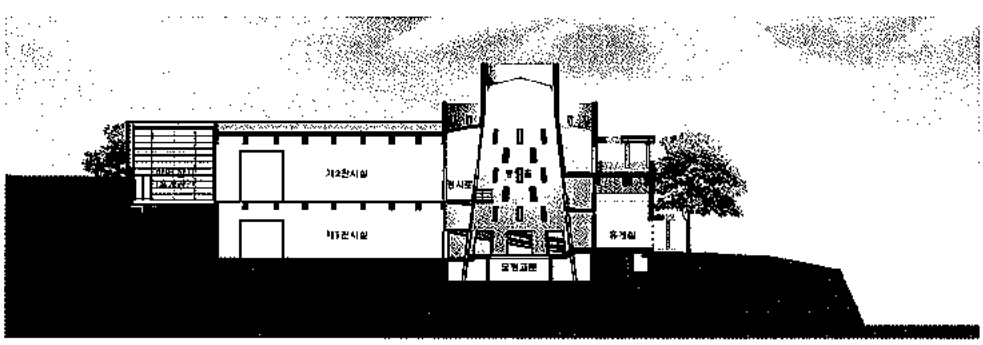
둔덕을 관통하는 기본매스는 시간의 흐름 또는 과거의 흔적을 대신하고 있으며, 둔덕으로 만들어진 영역과 기본매스를 묶어주는 원형의 오픈 스페이스는 공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경험의 축을 이루면서 가야의 유구한 문화를 암시한다.

공간의 흐름은 천 · 지 · 인 사상이라는 전통문화의 철학적 근간을 토대로 풀어놓았으며, 과거와 현재,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문화 공간으로서 사람들의 발길을 끌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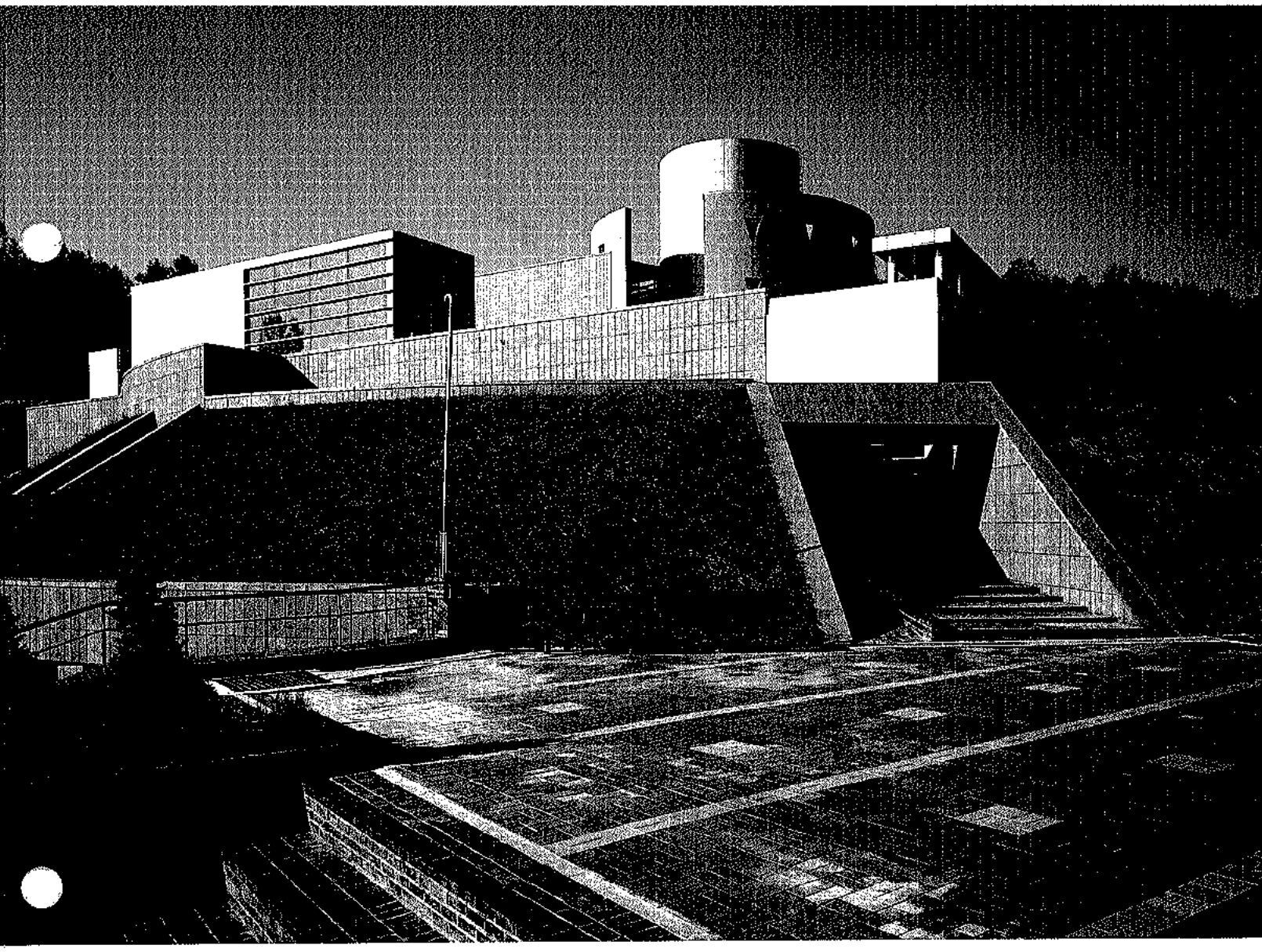
유물들을 담아내는 그릇 즉, 건축공간에 차별성을 두어 작지만 특별한 매력이 느껴지는 전시관, 단순한 진열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전시관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으며, 가야 문화의 계승이라는 큰 화두를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 작은 역할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활성화에도 기여하리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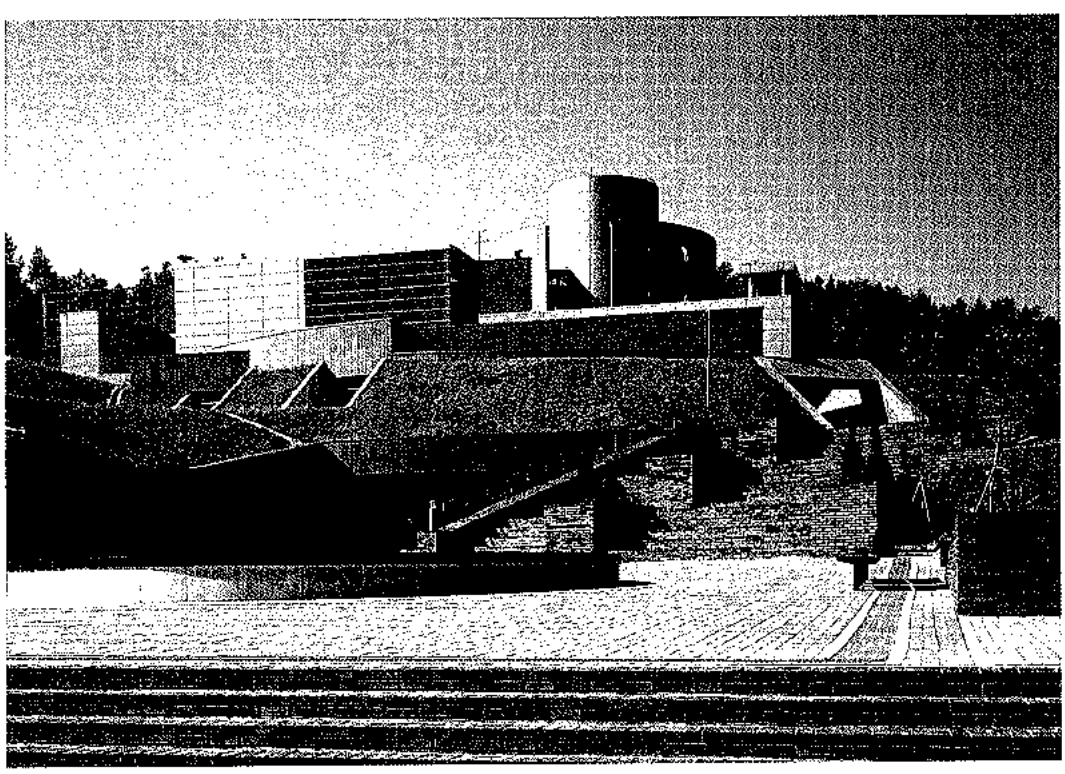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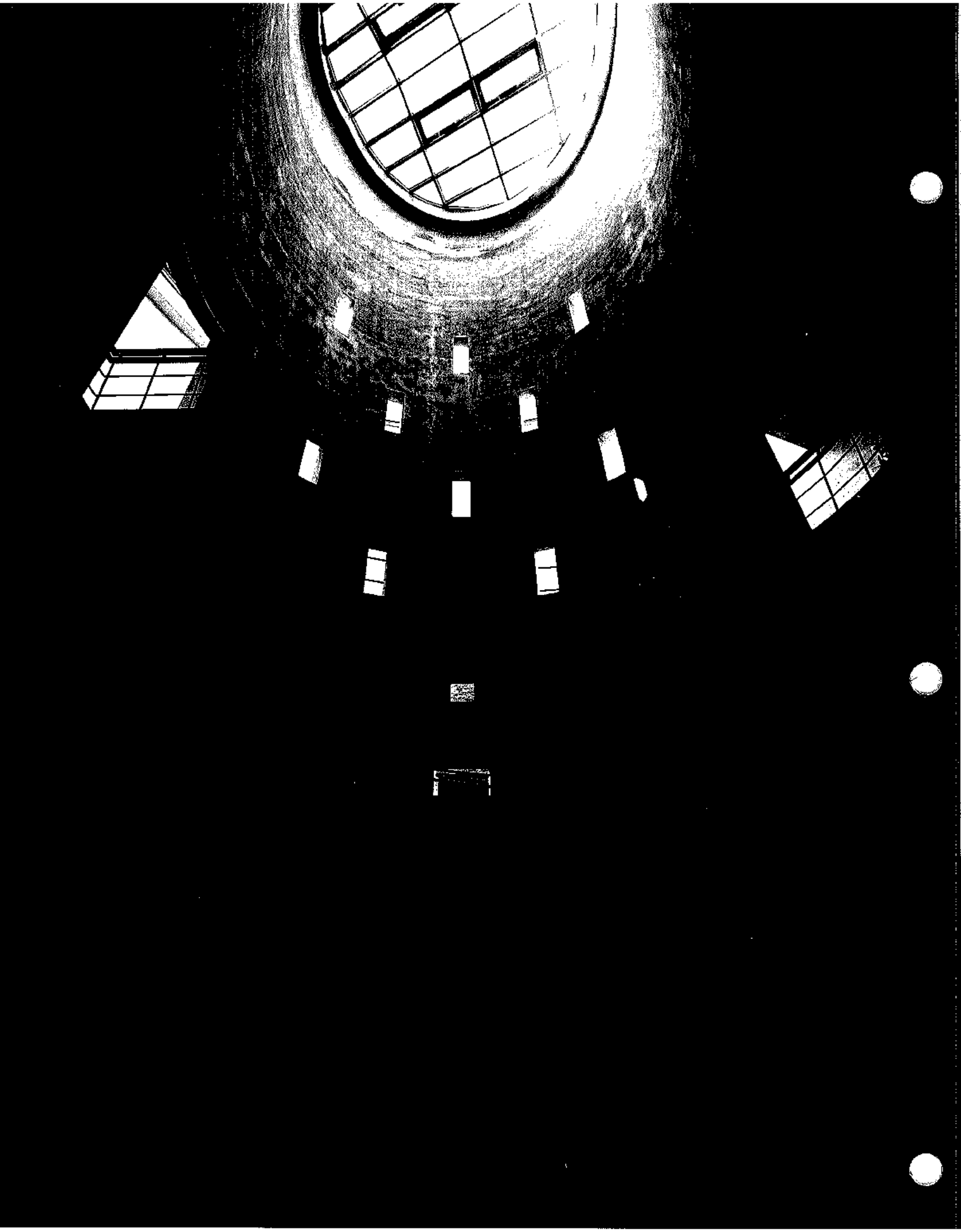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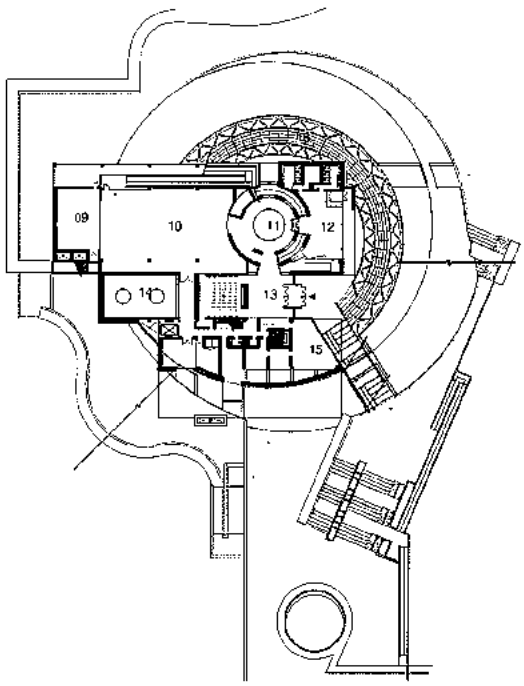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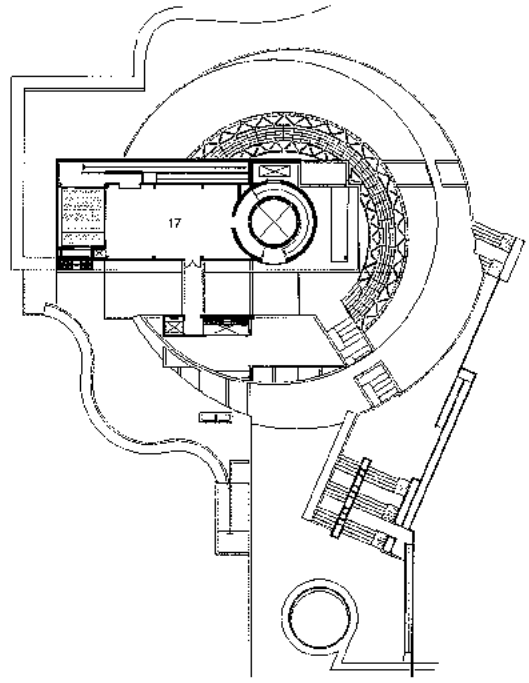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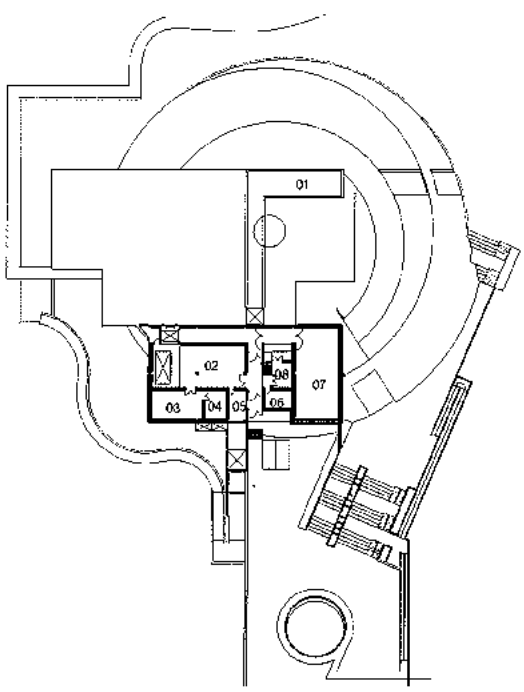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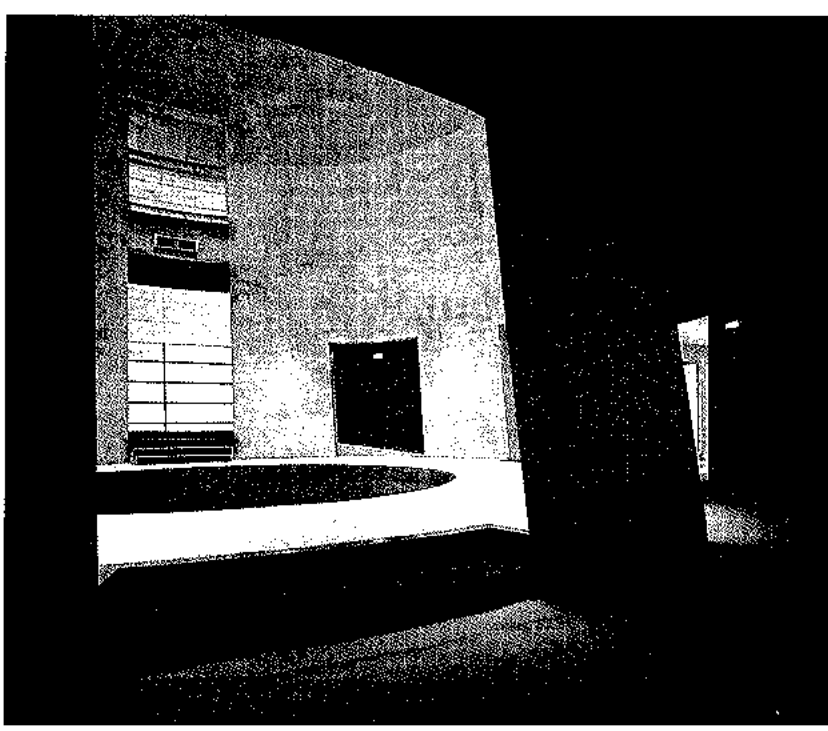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01_ 설비 PIT
02_ 기계실
03_ 전기실
04_ 발전기실
05_ 하론실
06_ 항온항습실
07_ 수장고
08_ 유물전시실
09_ 공조실
10_ 제1전시실
11_ 중앙홀
12_ 휴게실
13_ 로비
14_ 관람타워
15_ 사무실
16_ 가야치험실
17_ 제2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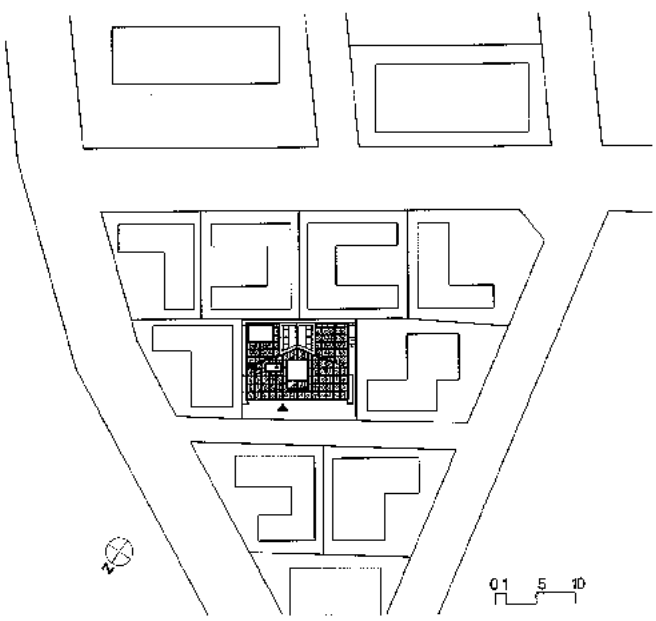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김효만 / 이로재김효만건축사사무소
by Kim Hyo-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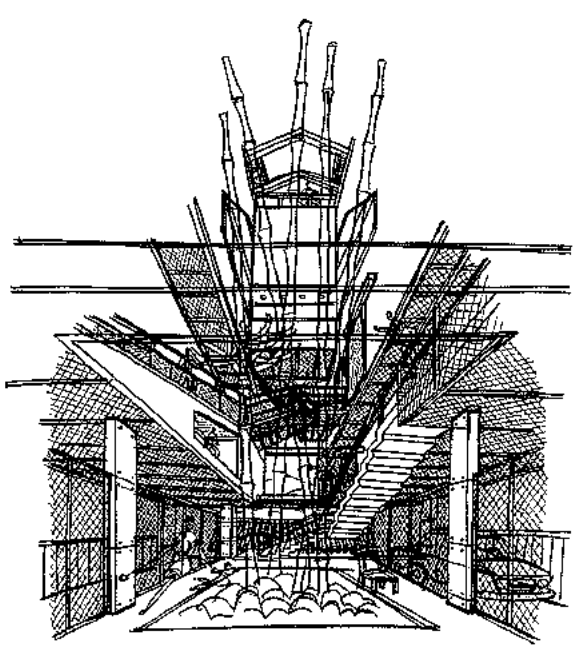
조린헌(照隣軒)
Jorinhun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5-152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문화재주변지역
용 도	다가구주택, 사무실
대지면적	169.67㎡
건축면적	100.28㎡
연 면 적	447.85㎡
건 폐 율	59.10%
용 적 률	190.51%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익스펜디드메탈, 노출콘크리트, 드라이비트
내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석고보드/V.P.
설계담당	정수미, 박미영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 김종오)



다가구 주택의 태생과 도시

다가구 주택은 십여 년 전 정부 정책으로 주도되어 공동주거화의 붐을 이루며, 수많은 단독주택이 철거되고 과다하게 졸속 건설되기 시작 했던 당시에 급조된 주거 유형으로서, 그것은 단순 면적만의 제조, 자본과 경제논리만에 의한 답답하고 피폐한 도시 개조의 시작이었으며, 그 행위는 과거역사, 이웃, 도시와의 단절, 획일적이며 국적 불명인 양식, 과밀화 등 종합적으로 비문화위생적 도시를 조성해 왔음은 건축가들이 지금도 전문적 관심을 기하여야 할 대중건축의 현실인 것이다.

전통과 현대의 대치 그리고 대지의 개발

대지는 서울 성벽과 혜화문, 김상협가 등 서울시 지정문화재와 근접해있는 북촌의 외곽으로서, 주변에는 아직 다수의 한옥이 살고 있었으나, 지난해 다시 일은 다가구 주택개발 바람을 타고, 그나마 남은 한옥들이 철거되고 키 큰 한옥으로 현대화(?)되고 있

는 중의 동네이며, 고층화된 이웃에 의해 위협받고 있던 이 조린헌도 그 경우의 하나로서, 기존한옥을 철거 할 수밖에 없었음은 마치 문화파괴자적 입장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었다.

공간적전통의 계승과 '동네'로서의 수직주거와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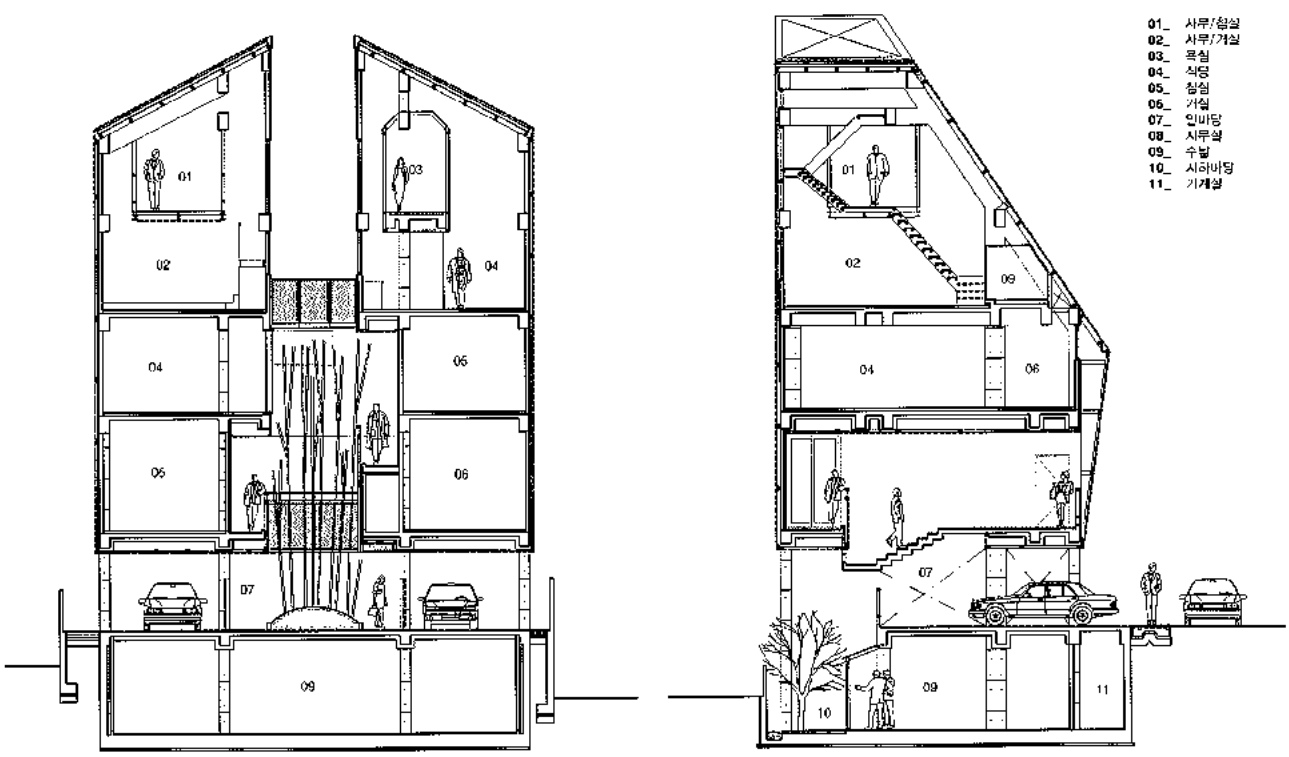
이 기존한옥의 '마당'을 조린헌의 '마당'으로 재구성하여, 과거 한옥의 역사성, 장소성을 공간적으로 계승하면서, 이 마당은 이제 이집을 사는 여러 세대가 스스로 각 독립채의 주인임을 짐짓 인식하게 하는, 그들의 영역권과 소유권을 만족시켜주는 공간요소가 되고 있으며, '길'로서의 외부계단으로 연결된, 여러 채의 단독주거들이 수직으로 연계 구성되어 있는 '동네'의 개념을 실현시켜주면서 이 작은 외부공간은 도시와 건축을 강하게 연계하는 '도시의 숨통'이 되어 줄 것이다.

반투명 SKIN의 다기능성과 MASS의 비건축화

주변이웃의 풍경을 익스펜디드메탈의 반투명막으로 끌어들이며, 각 세대에 의해 둘러싸인 수직의 작은 중정을 통한 빛, 바람, 소리의 유입은 유효한 것이며, 정적 내향적 공간환경을 조성하면서, 인접건물과 접하고 있는 외피부분은 익스펜디드메탈의 반투명성 스킨을 덮어, 이웃과의 차면, 주변풍경의 여과, 빛의 조절 등을 기능하게 하려하였다.

흐릿하게한 동네풍경, 투명하게 보이는 한옥의 고즈넉한 모습, 남산타워가 보이는 서울의 전경과 그 축제적 야경 등이 이 조린헌의 풍경프로그램이 되었으며, 이것은 도시와 건축에 강한 교감을 부여해 주었고, 결국 이 매스는 내향적으로 투명함, 외향적으로는 반투명한 비건축적 물성을 띠게 되었다.

아직 남아있는 한옥들이 이루고 있는 수평 안정적 풍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수직적이며 상대적으로 거대한 매스인 이 조린헌을 '비건축적'인 물성으로 느껴지게 함으로써,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맥락을 구성하려 하였으며, 그것은 도로사선, 일조권사선, 문화재보호사선 등에 의해 잘려지고 남은 매스에 내부 식재를 함으로써 생태적 덩어리로 인식하게 되며, 그 전체가 익스펜디드메탈망이 씌워진 반투명, 불투명의 비건축적 물체로 느껴지게 함과 동시에, 그 스킨의 조직에 주변한옥의 이미지와 조화되는 형태적 감성 부여를 의도했다.



단면도

NOMADIC 프로그램과 자연의 도입 그리고 공사비의 절감

크고 작은 세대가 모여 살며, 작지만 풍요로운 공간의 이야기를 잠재하고 있는, 그리고 자연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자연친화를 지향했다.

은밀한 사생활의 프로그램들 즉 샤워, 욕조, 변기, 세면대 등의 은폐적 행위 장치들을 NOMADIC하게 OPEN, 노출하여 설치함으로써 스스로 은밀함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삶의 행위를 연출하게 함으로써 자연이라는 원초적 환경 속에서 본능적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복선을 깔아 놓음으로서 자신의 모든 행위가 스스로의 볼거리가 되고, 관심의 대상으로서 사건화 됨으로써 삶의 흔적을 항상 의식하게 되는 시간성과 이야기가 있는 '장소'를 기획함은 훌륭한 작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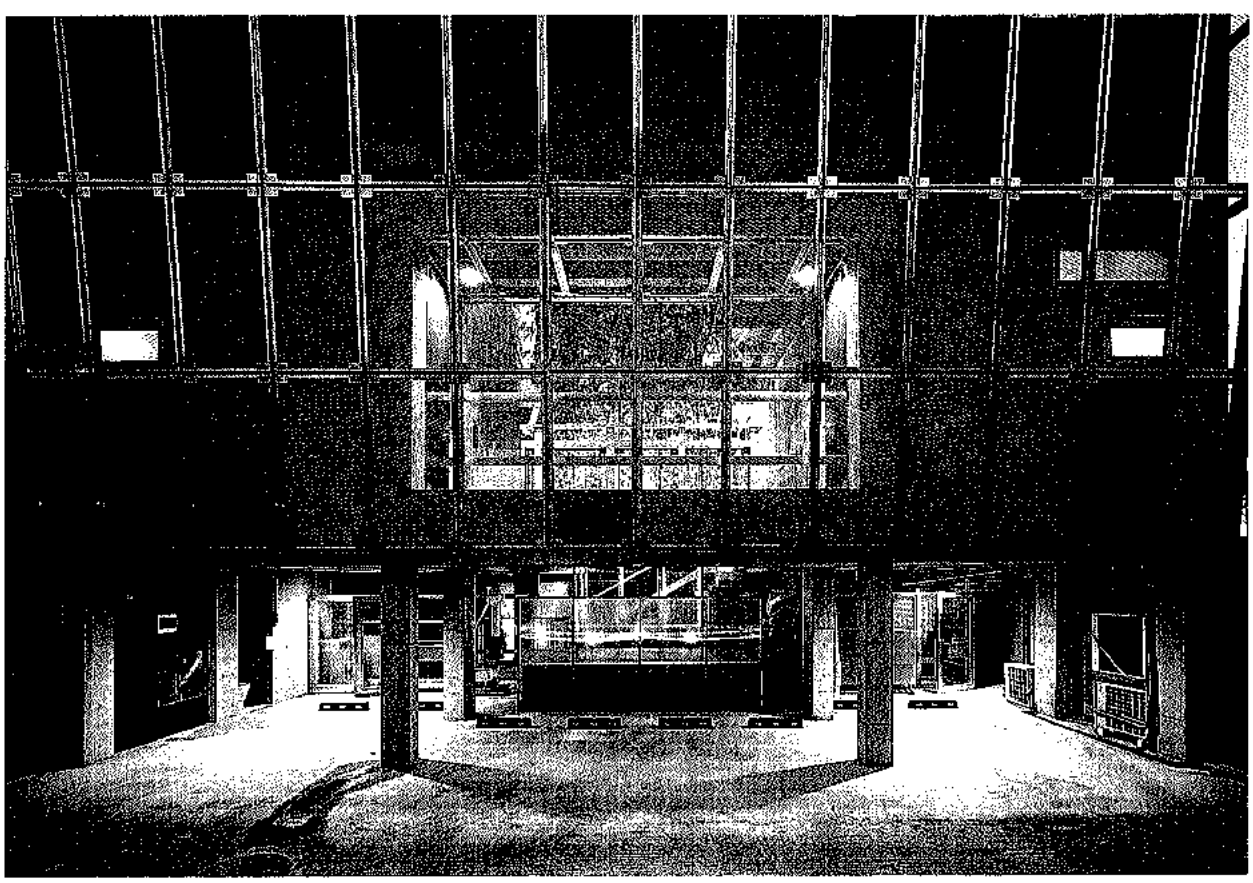
이러한 프로그램은 작지만 크게 체감되는 공간, 다양하고 극적인 공간의 생성을 그리고 공사비의 절약 등에 역시 기여한 바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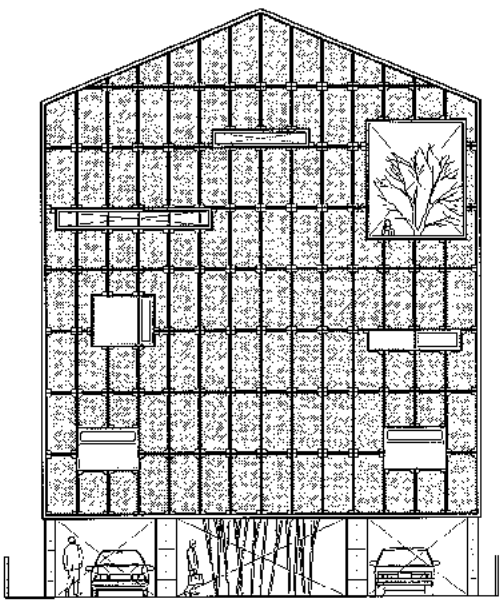
공사비는 항상 넘어야 할 산이다. 콘크리트로의 바닥, 벽의 마감, 마감재를 뺀 드라이비트, 조립식 샌드위치패널 등 저렴한 재료의 사용, 공정의 단순화 등의 노력으로써 경비를 최소화하려 했음은 COST관리에 유효한 것이었다.

삶의 등대

이 조린헌은 역사성 깊은 도시중심부의 소규모주거지에서 최대한의 용적을 확보하면서 역사성, 장소성, 도시성 등을 생각하며, 현대인의 본능적 주거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직주거에 관한 공간적 연구이었으며, 반투명막의 공간적, 시각적 투과성과 모호함의 위력, 은폐된 행위를 노매딕하게 노출함의 프로그램이 주는 외외성 있는 삶의 흥미, 건축내부의 자연화를 통한 본능적 주거로서의 접근 등을 생각케한 프로젝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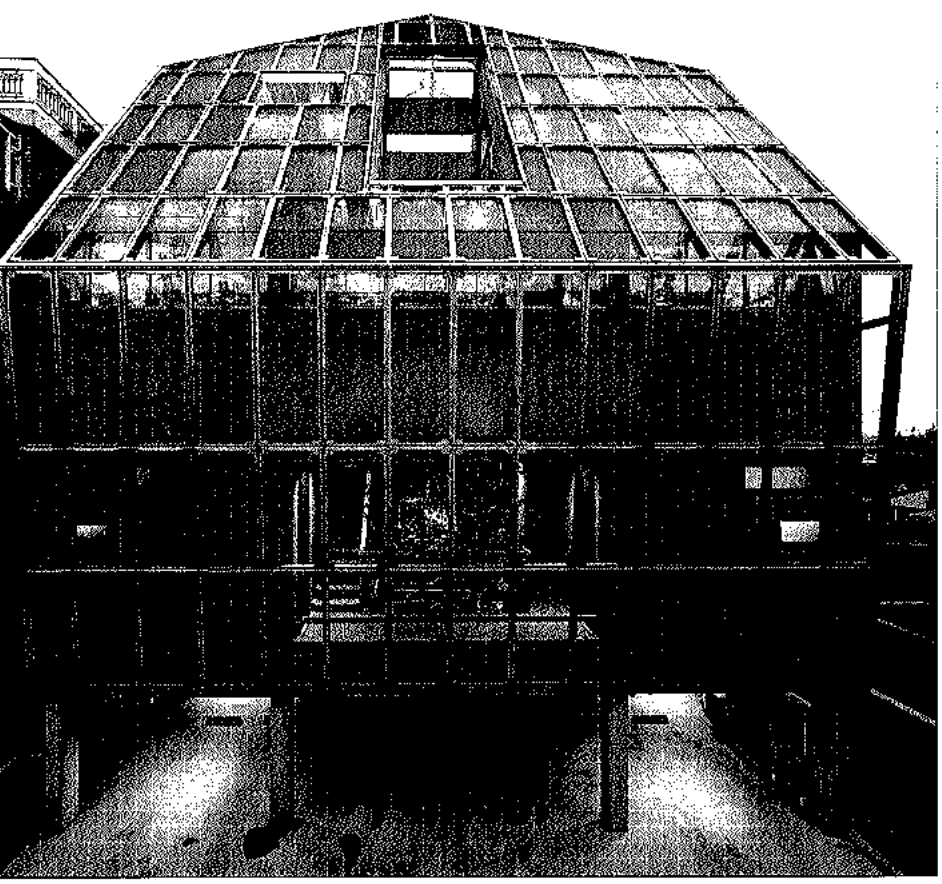
이 비건축성 건축 조린헌이 이 곳의 역사성을 기록 보존하는 '장소'가 되며, 항상 이웃을 밝히는 '도시의 등대'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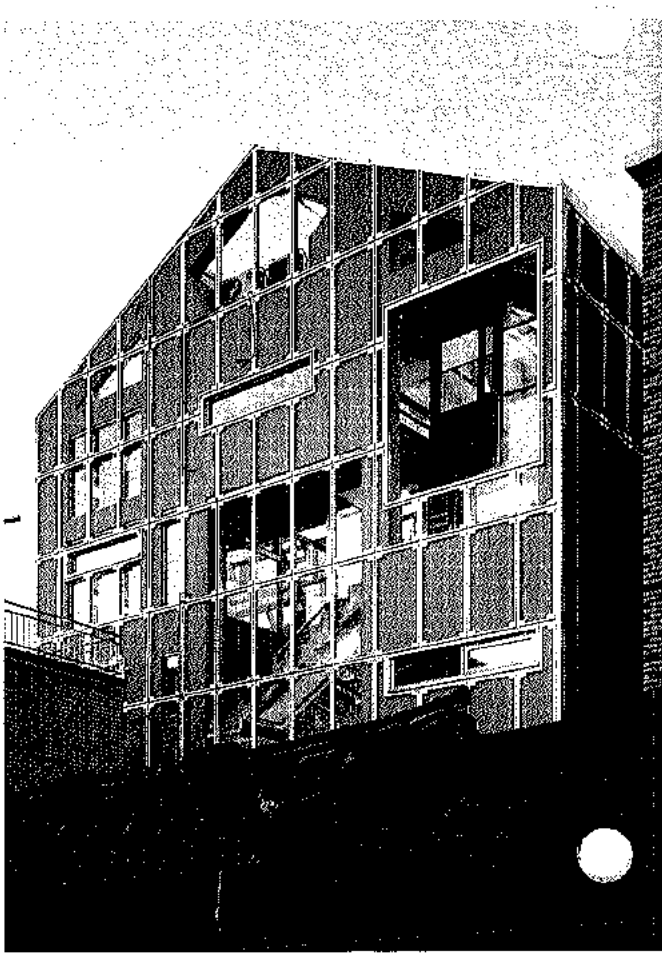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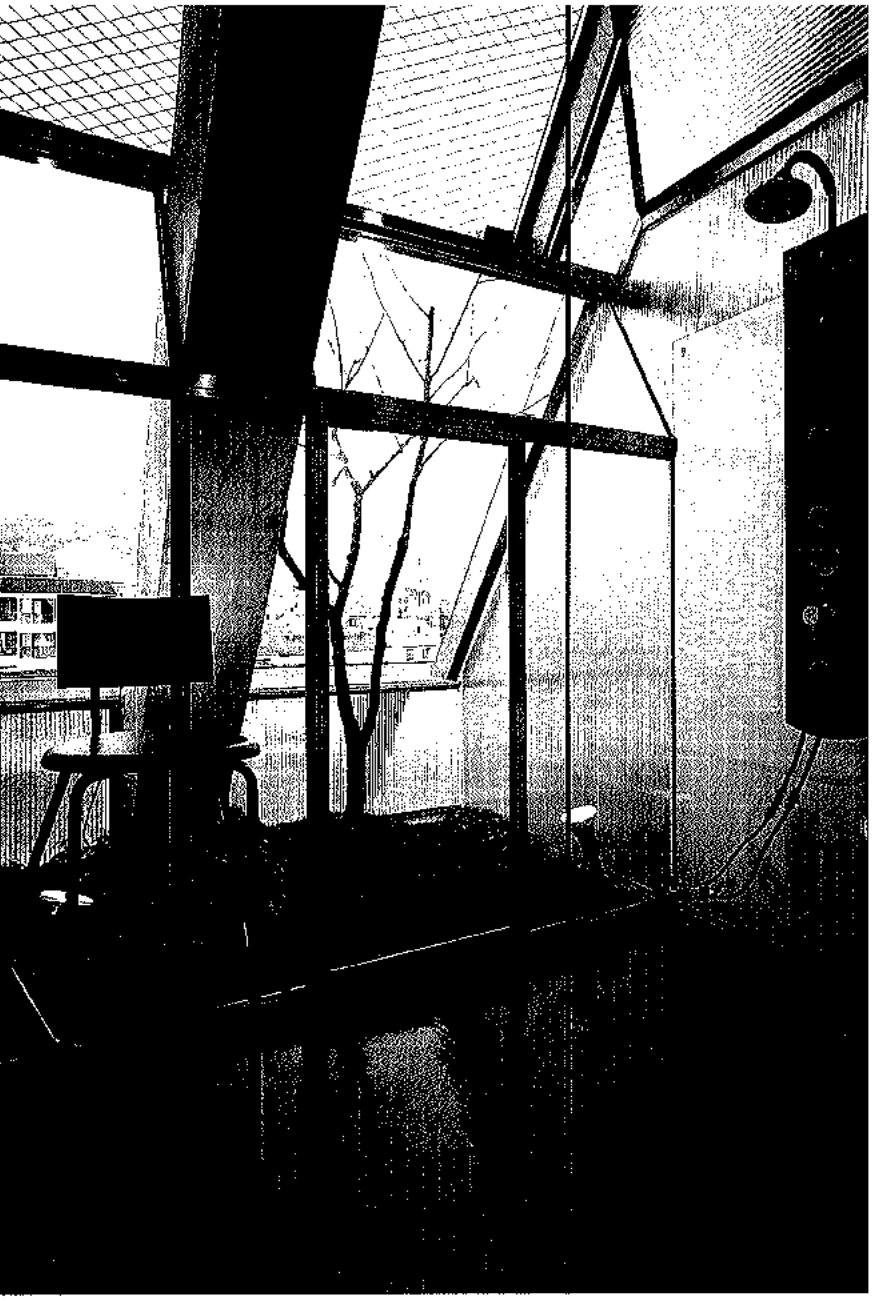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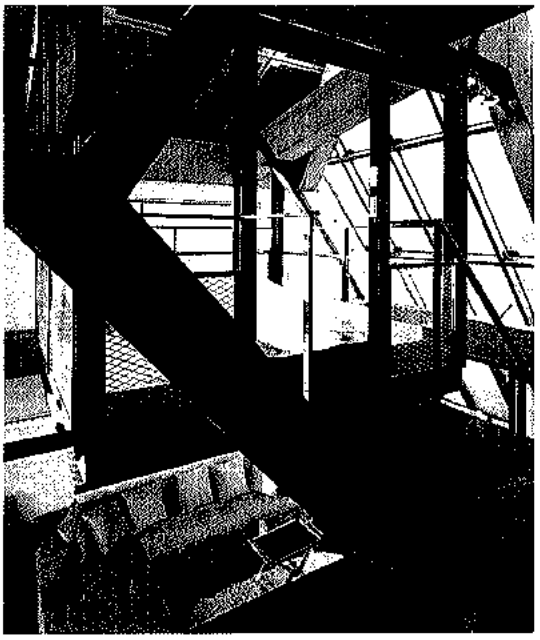
0 1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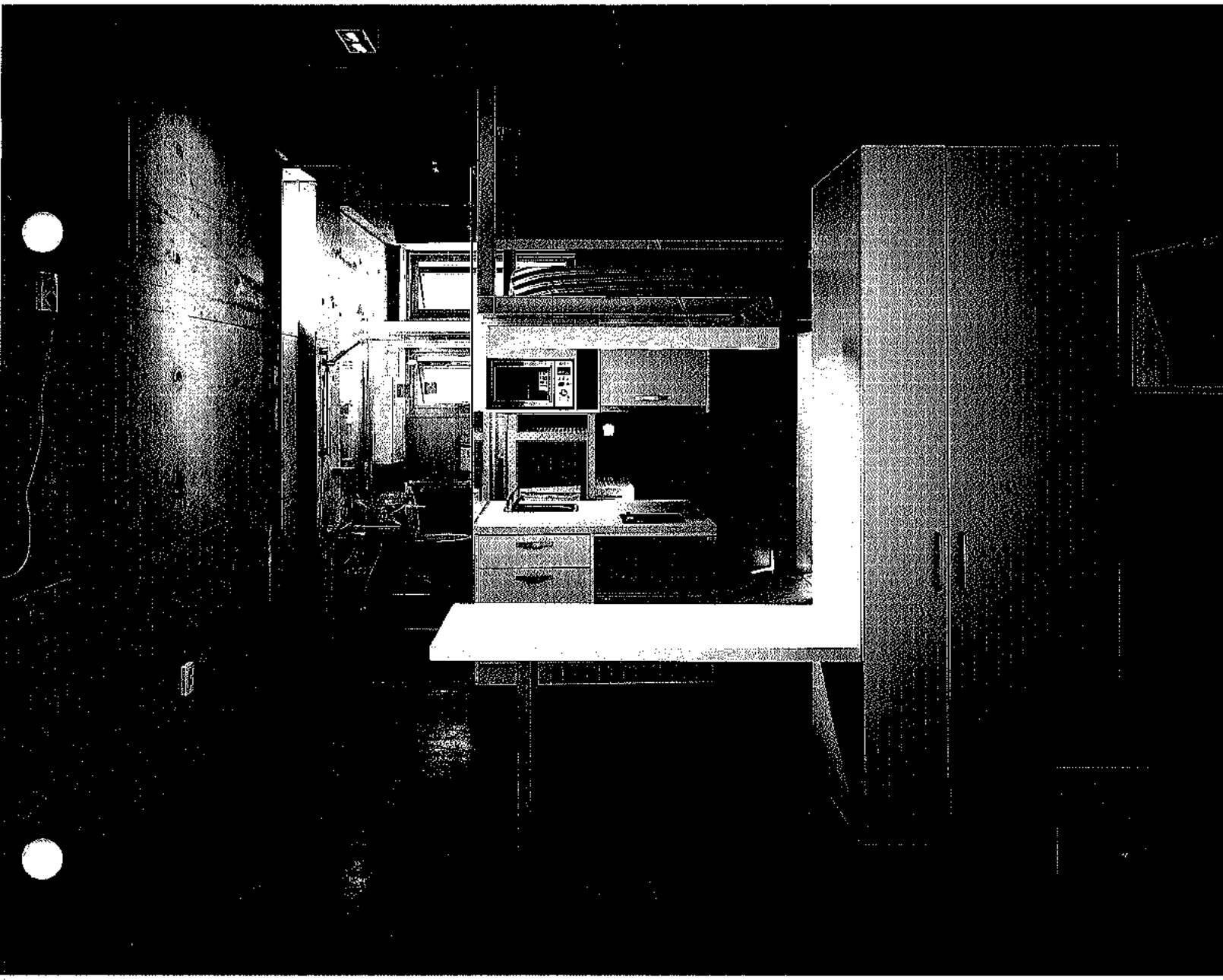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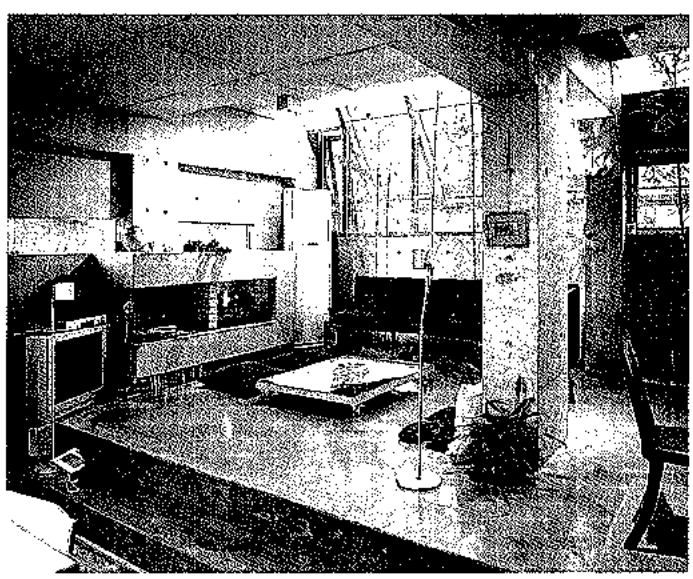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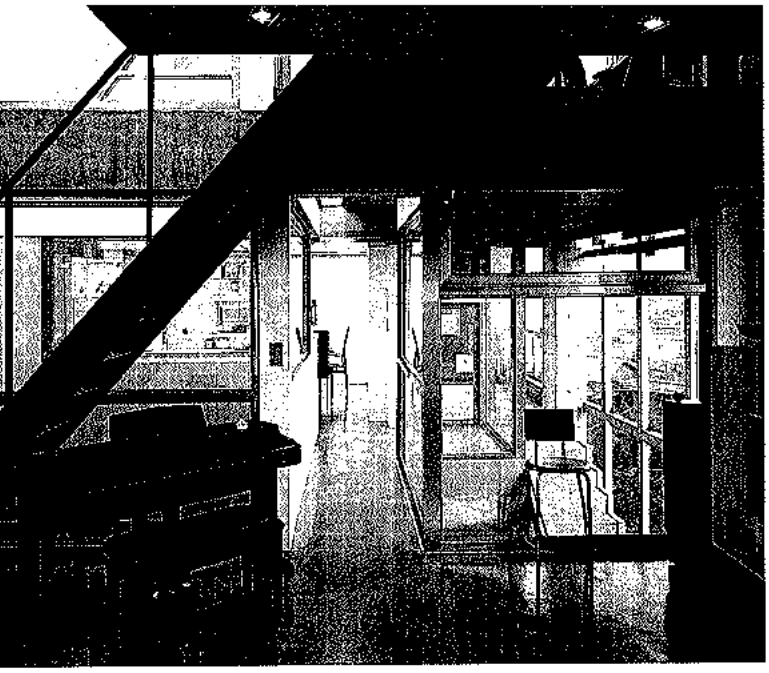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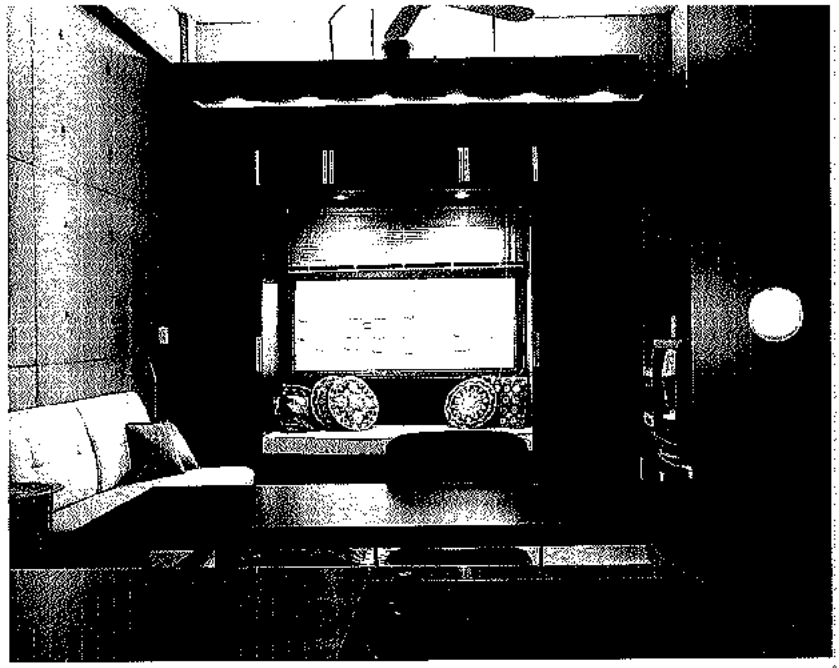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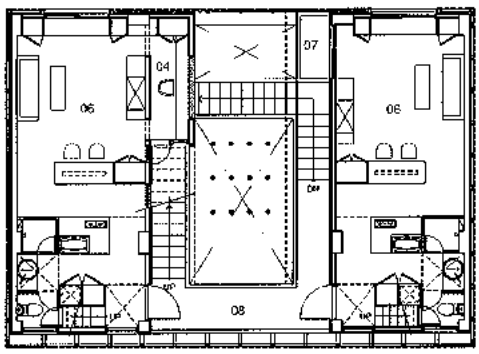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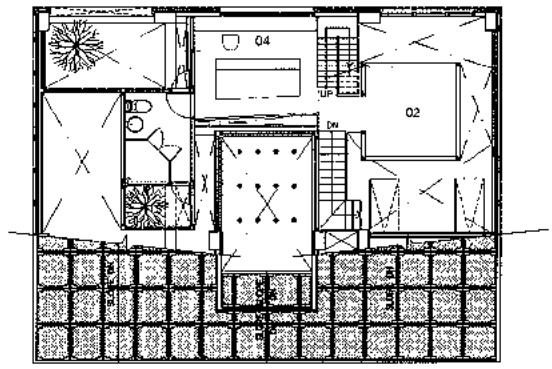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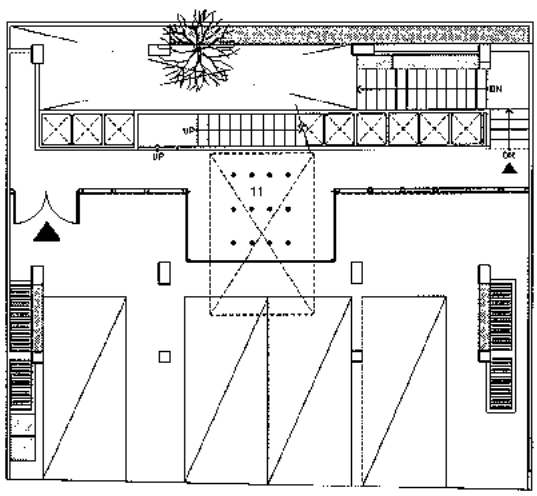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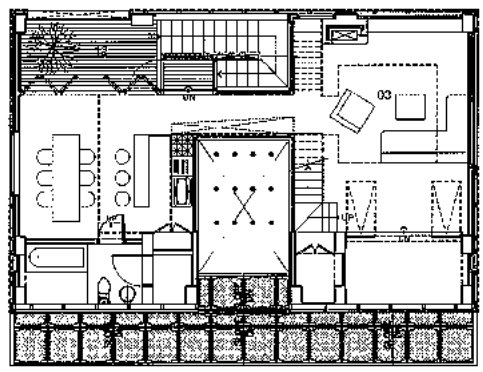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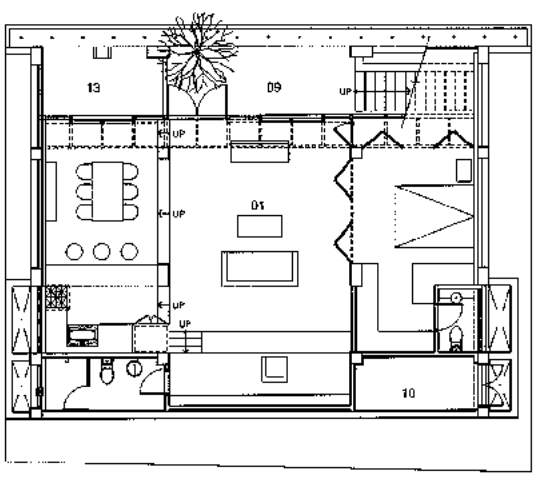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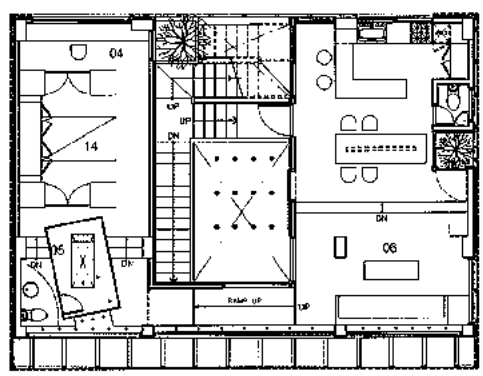


4층 평면도

01_ 사무실
02_ 사무실/창실
03_ 사무실/거실
04_ 서재
05_ 욕실
06_ 거실
07_ 발코니
08_ 브릿지
09_ 지하마당
10_ 기계실
11_ 연마당
12_ 옥상마당
13_ 연못
14_ 침실
15_ 옥상정원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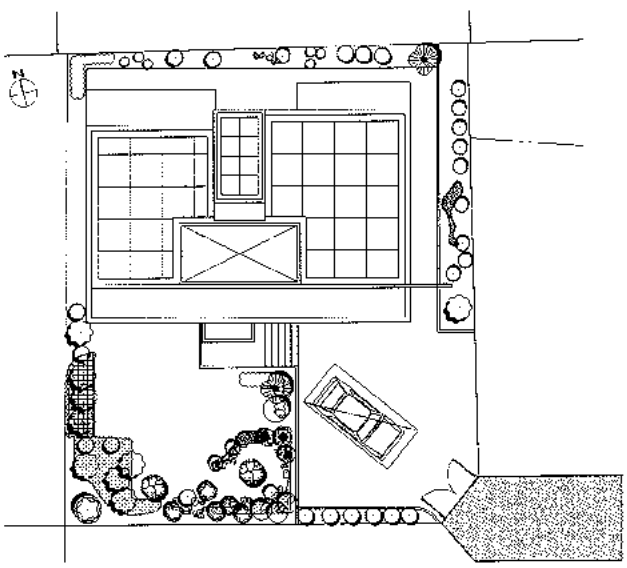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임해인 / (주)유일건축사사무소
by Lim Hae-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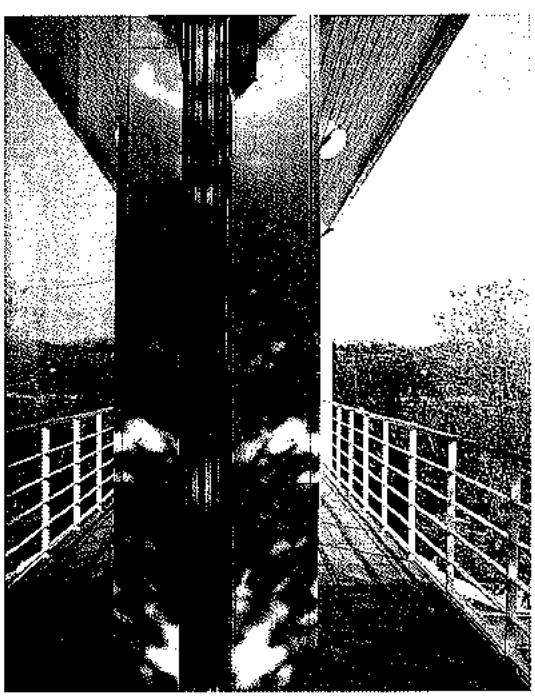
안진당
Anjindang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434-7
지역지구	제1종주거지역 입안지
대지면적	419.0㎡
건축면적	156.65㎡
연 면 적	197.07㎡
건 폐 율	37.39%
용 적 률	47.03%
규 모	지상 2층
외부마감	스터코, 시다목, 라임스톤
내부마감	석고보드, 비닐페인트
설계담당	김영길, 이완건, 임기택, 최희정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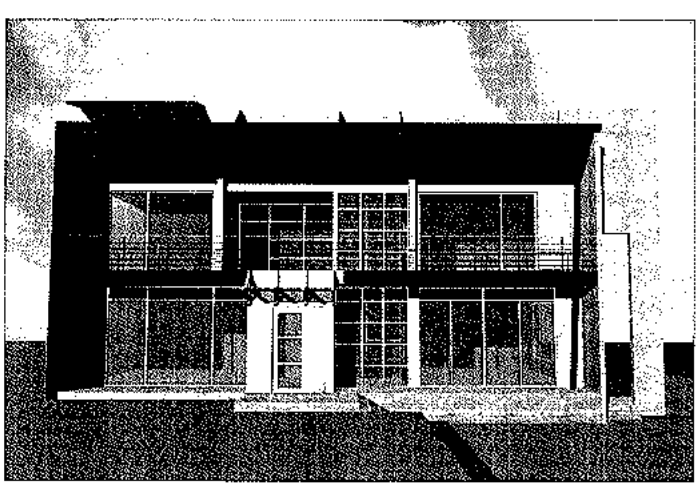


터잡기

세곡동 은곡마을은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되어 20년 이상된 낡은주택들이 대부분이다. 대지는 막다른 골목에 반을 접하며 비켜서 있고 북측이 남측보다 1.5M 정도 높게 이루어져있다. 북측에 집을 앉히고 남측을 마당과 정원으로 80cm정도의 레벨차를 두면서 분할하였다. 동측에는 사이마당을 두어 공간을 확보하면서 뒷마당과 연결된다.

내부공간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클라이언트 부부의 요구조건은 생활하기 편한 집을 원했고, 드라마 작가인 안주인을 위해 작업실을 필요로했다. 집은 살 사람을 위해 디자인되어야 한다. 아파트의 콤팩트한 평면에 편리하게 생활해온 사람에게 회유동선을 펼치며 신선처럼 살라는 것은 건축가의 과욕이 아닐까. 1층은 가족을 위한 거실과 손님의 출입이 빈번한 작업실이 계단을 중심으로 분리되고 2층은 침실로



구성된다. 콤팩트한 평면의 중앙부를 적절히 비움으로써 내부공간들에 숨통을 트고 활력을 불어넣는다. 1층의 조그마한 중정마당을 거실과 작업실을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햇빛과 수목을 끌여들여 공간에 생기를 주게한다. 2층의 테라스는 안방과 자녀침실을 구분하고 취향에 맞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을 것이다. 1층의 중정마당은 2층에서도 오픈되어 1층와 2층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게 한다.

–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비어있는 공간은 스스로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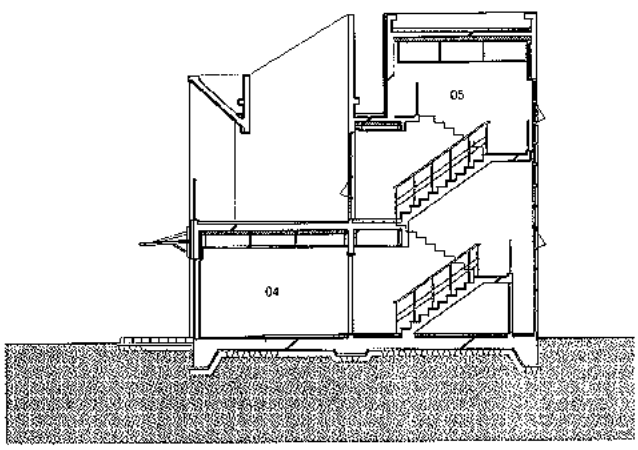
외관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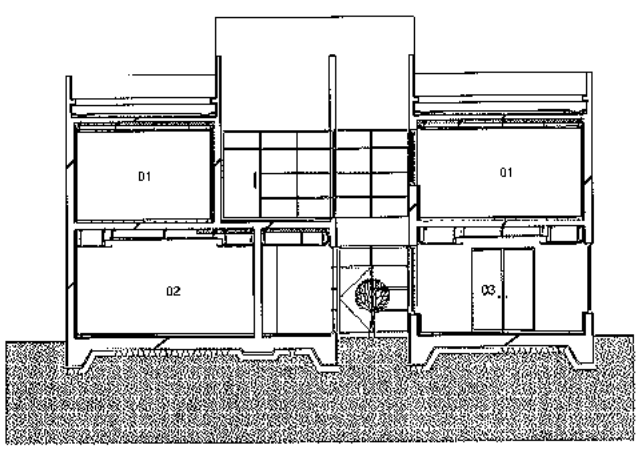
형태는 호화로운 것을 싫어하는 건축주 취향을 따라 또한 공사비절감을 위해 장식을 배제하고 내부공간을 그대로 드러낸다. 막다른 골목에 비켜선 대지에 따라 비켜선 파사드에 적합하게 디자인 요소를 정리했다. 상부의 파라펫과 좌측벽체를 경사지게 처리하여 비켜선 파사드에 대응하고 우측의 날개벽을 세워 프레임의 갇힌 느낌을 완화했다.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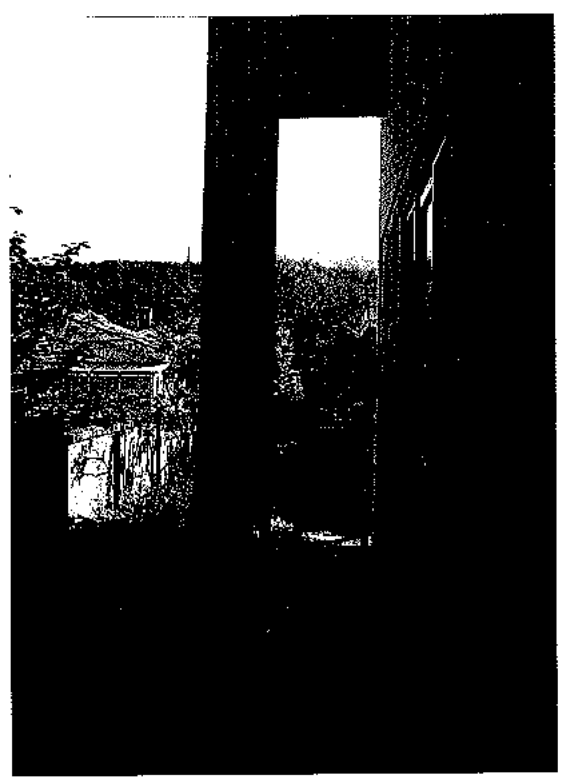
편하고 참되게 사는 집이란 뜻의 안진당은 이렇게 완성됐다. 건축가의 뜻을 받아들여 지중해연안의 스페니쉬풍 지붕을 접어준 안주인께 감사드리고 날개벽에 옥호를 쓰고자 했던 것은 드러내기 싫어하는 안주인의 뜻에따라 비워둔채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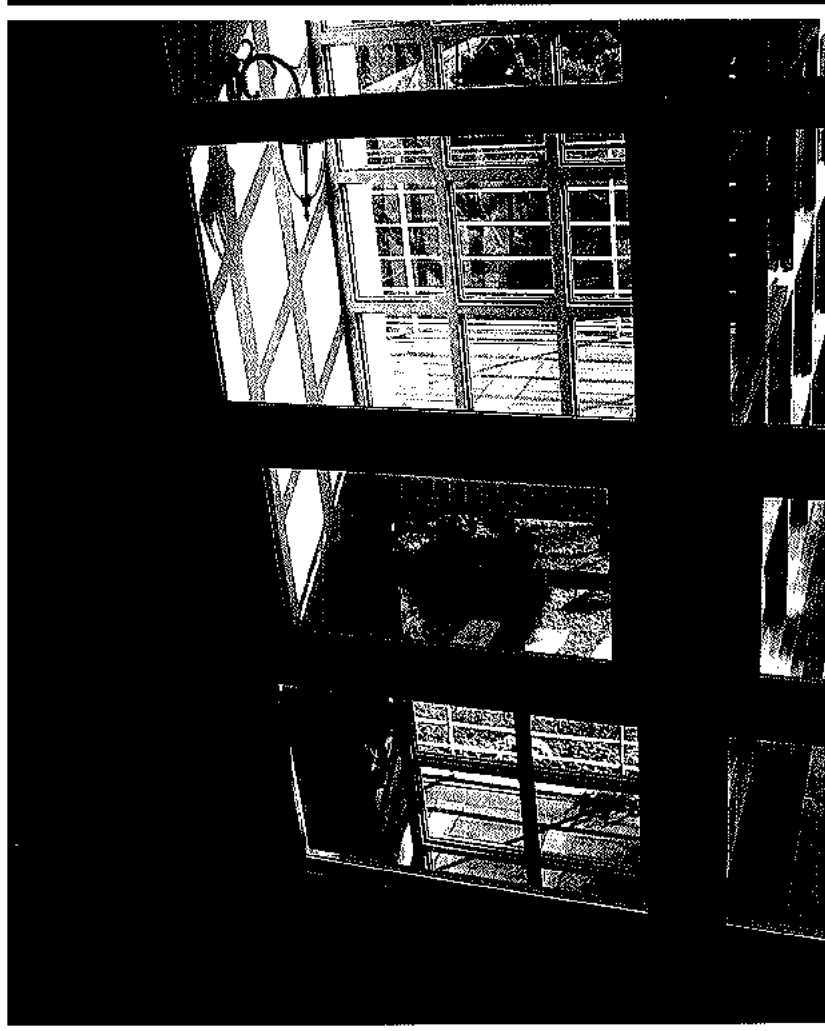
01_ 침실
02_ 거실
03_ 작업실
04_ 현관
05_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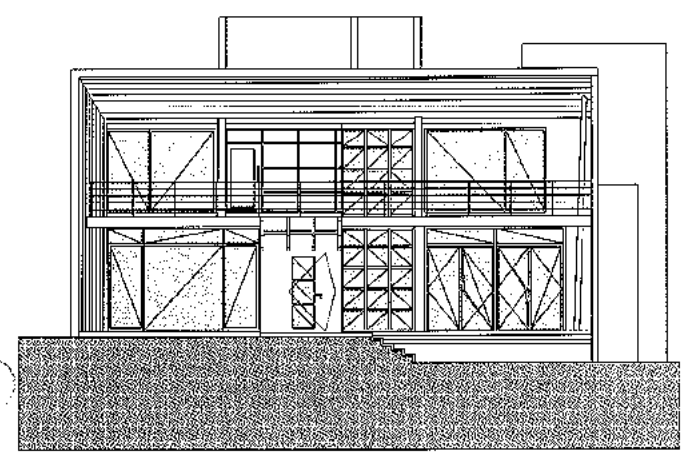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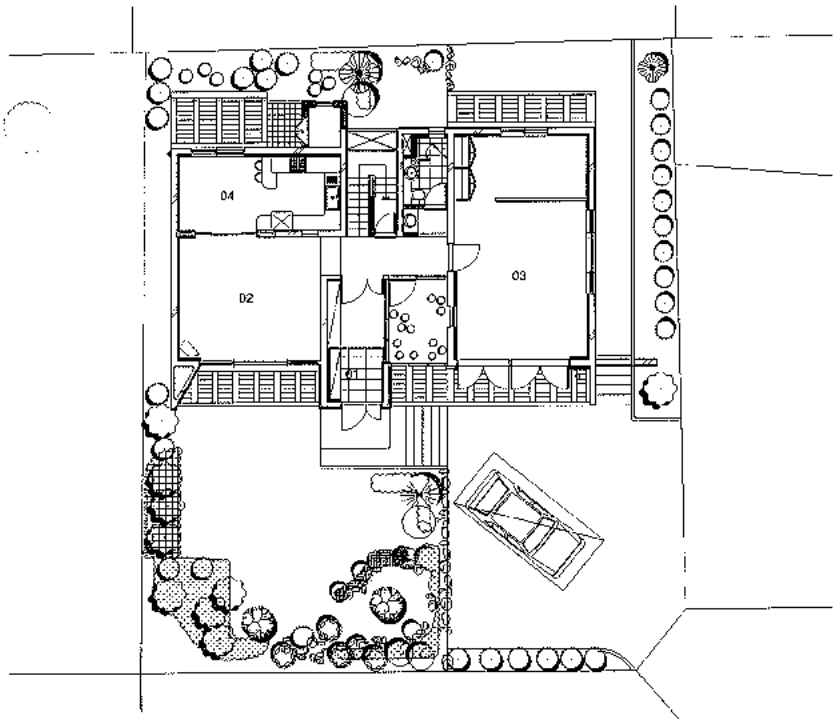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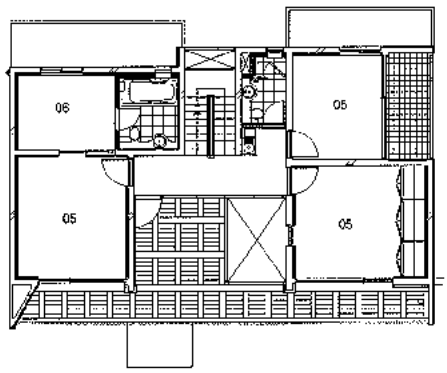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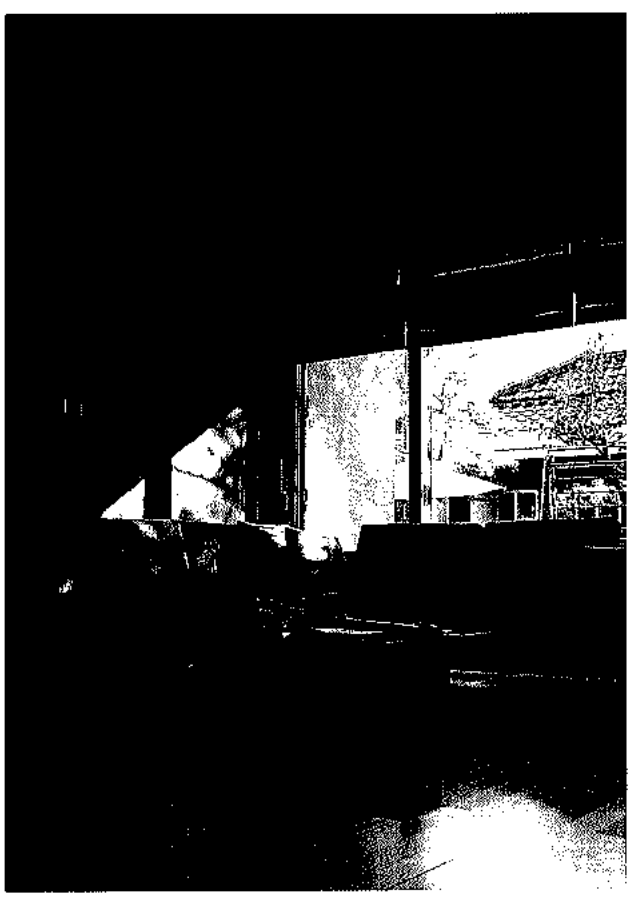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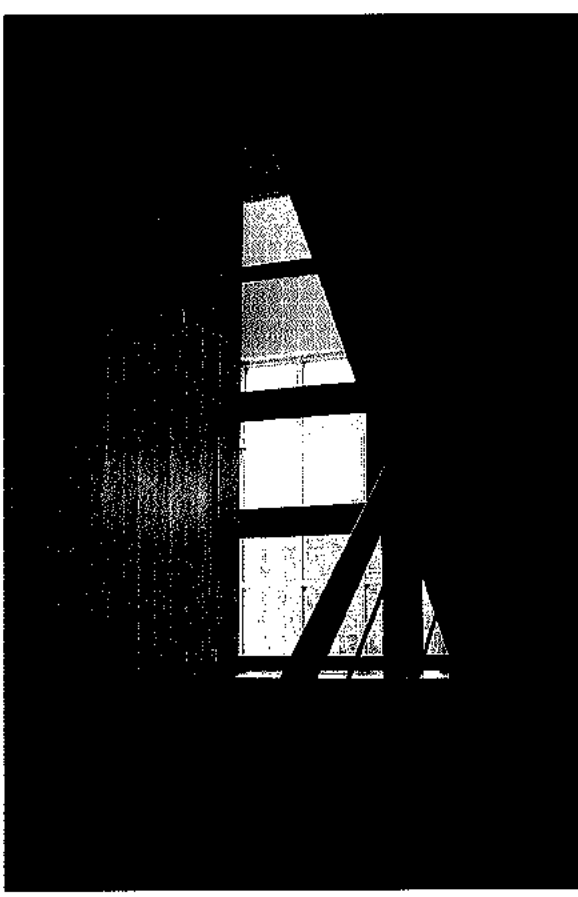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01_ 현관
02_ 개실
03_ 작업실
04_ 주방/식당
05_ 잠실
06_ 드레스실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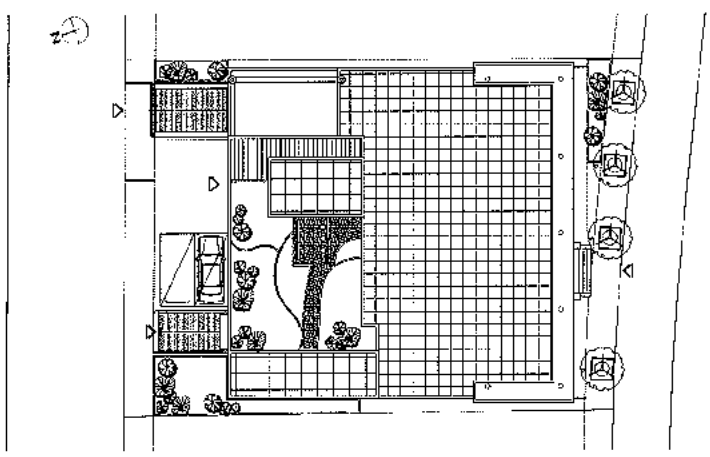




홍순전 / 우림에스제이건축사사무소(주)
by Hong Sun-Jeon

분당 벤즈 유진 앤 컴퍼니 사옥
Bundang Benz Eugene & Company B/D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98-2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근린상업지역
대지면적	827.00㎡
연 면 적	1,828.72㎡
건축면적	518.70㎡
건 폐 율	62.72% (법정 70%)
용 적 률	221.13% (법정 300%)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 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AL복합패널, 골알미늄판, THK18 컬러복층유리
내부마감	데크플레이트위 녹막이페인트, THK3 무석면비닐타일, 크링커타일
설계담당	임택영, 황범대, 강유정, 최인철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PROLOGUE

2003년 봄 Benz KOREA 1호점 설계 의뢰를 받았다.

특정 목적을 담는 건축물의 설계는 설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전체적인 계획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꽤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 건축물에서의 천편일률적 보편성으로부터의 탈피가 주는 신선함이 설계자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어 준다.

COMMENT

기능과 외관에 대한 독일 Benz 본사의 기본 설계 지침과 건축주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직, 수평 동선과 외관 STUDY로 꽤나 많은 시간 투자가 요구되었다.

SYSTEM

전시장으로서의 기능적 측면과 자동차 판매업소의 영업적 측면의 고려가 우선 되어야 하며 세부적으로 자동차 정비와 STOCK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계획이 요구된다.

층별 기능의 분리를 통하여 개별 시스템의 독립성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상호 간의 유기적 연결을 유도하여야 한다.

LOCATION

SITE는 분당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상가와 주택 밀집 가에 위치하고 있다.

자동차 통행이 제법 많은 남쪽 35M 대로와 북쪽으로 작은 상가 사이에 8M 도로를 끼고 있으며 계획적 방해 요소가 많지 않은 편이다.

PLAN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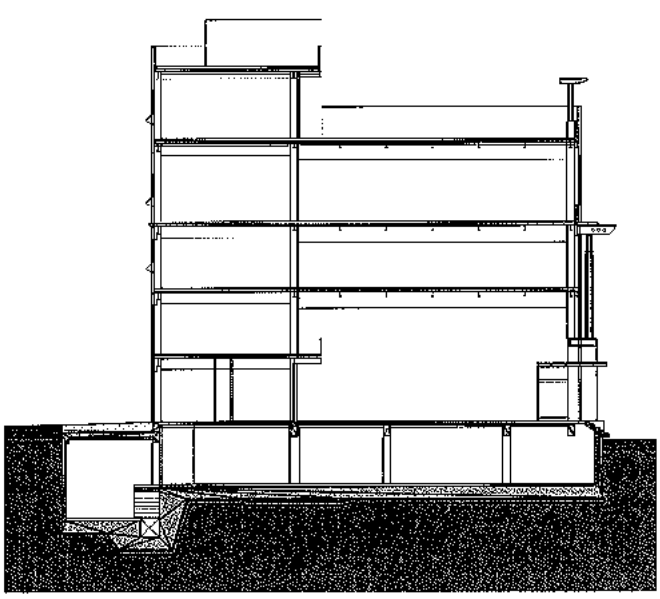
건물의 성격상 진열과 A/S, GUEST 차량 등 차량의 출입이 빈번함을 감안하여 각각의 동선이 엉킴이 없도록 하였다. 1층 전시장은 높은 천장과 간결한 동선으로 전시 효과의 극대화를 유도하였다. 내부 계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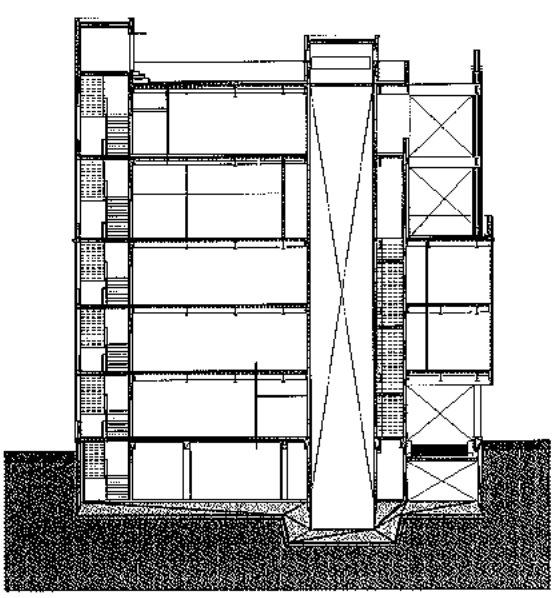
통한 GUEST와 STAFF의 동선 분리를 꾀하여 내부의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하였다. 주 외부마감을 SHEET 재질로 하여 심플하면서 전시장의 이미지상승 효과를 높이기 위한 외관으로 Benz KOREA 1호점이라는 LAND MARK적 효과를 기대 한 수 있을 것이다.

EPI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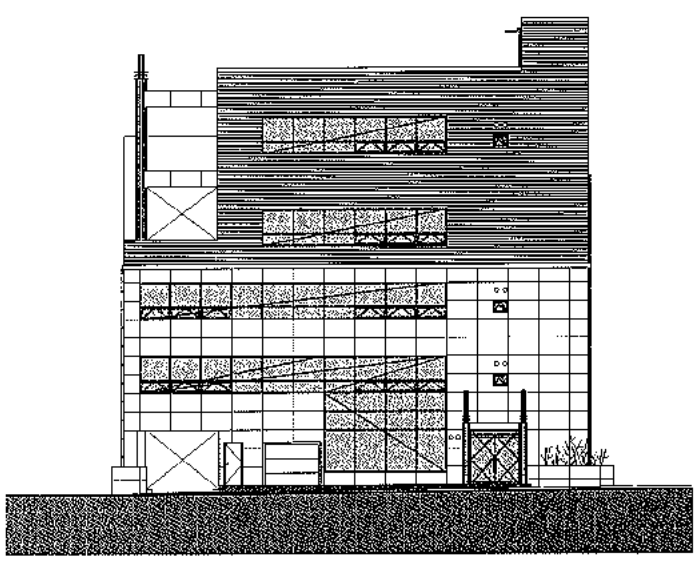
까다로운 Benz사의 지침을 모두 지킬 수 있었고, 건축주의 기능과 외관적 만족도가 높음에 거꾸로 건축주에 감사드린다.

처음의 신선한 떨림은 소중한 경험으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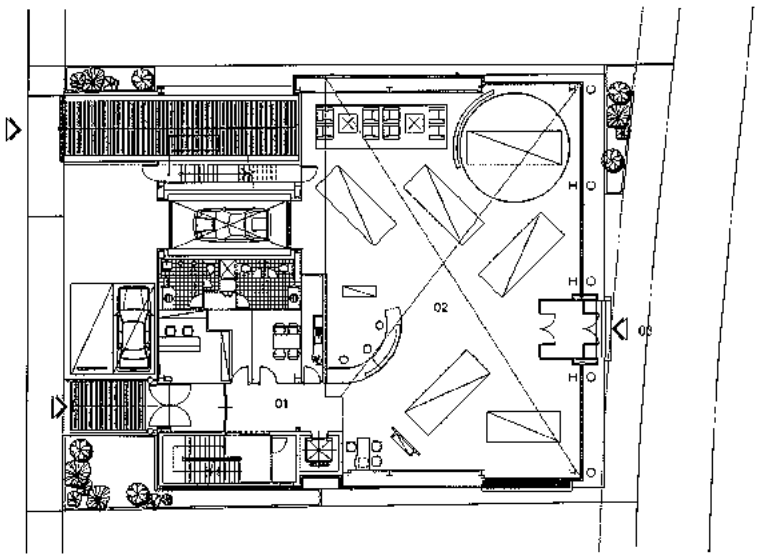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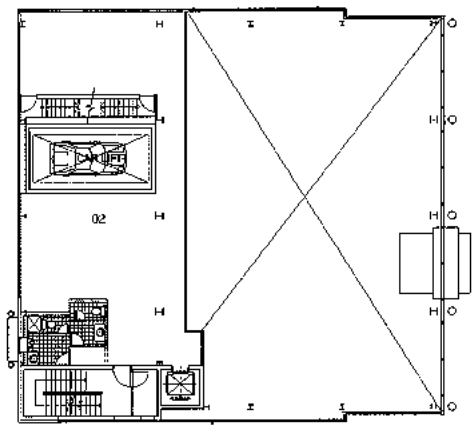
주단면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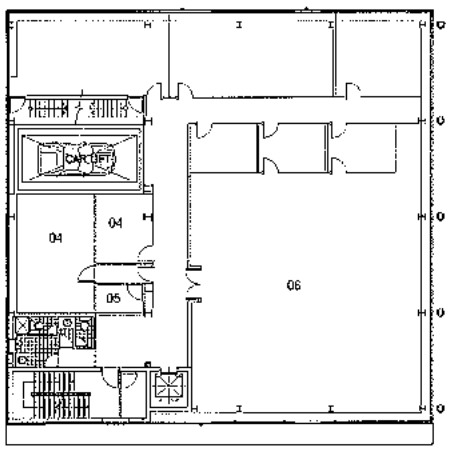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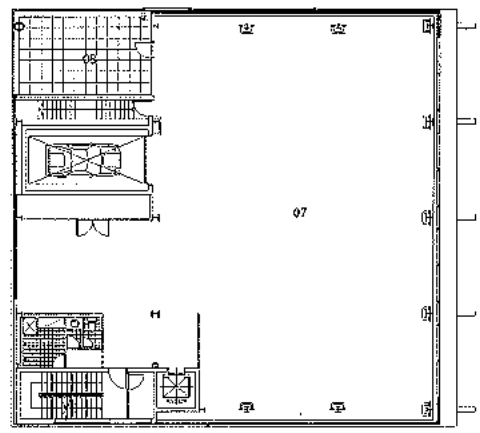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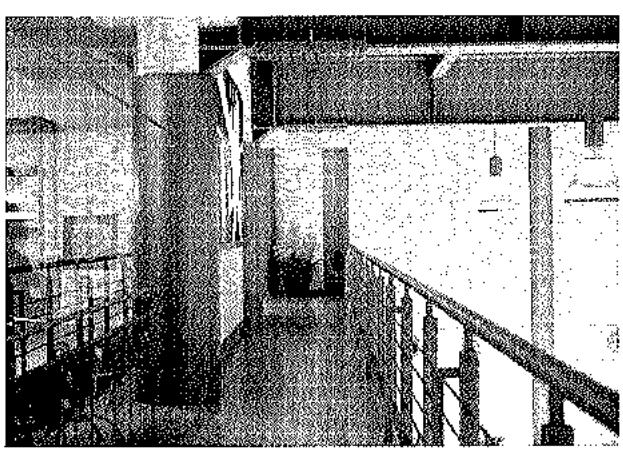
01_ 홀
02_ 영업소
03_ 주출입구
04_ 회의실
05_ 탕비실
06_ 사무소
07_ 수리실
08_ 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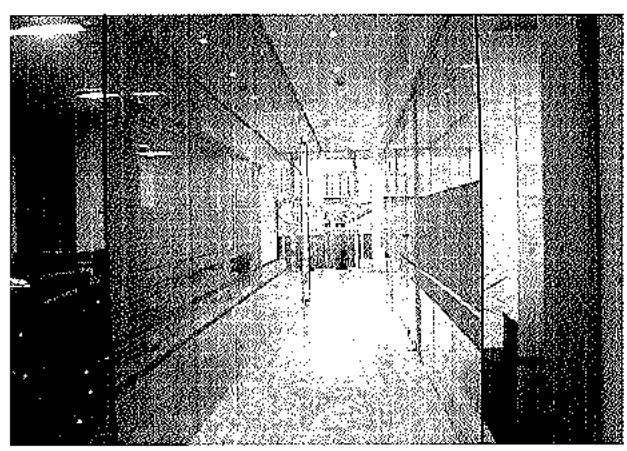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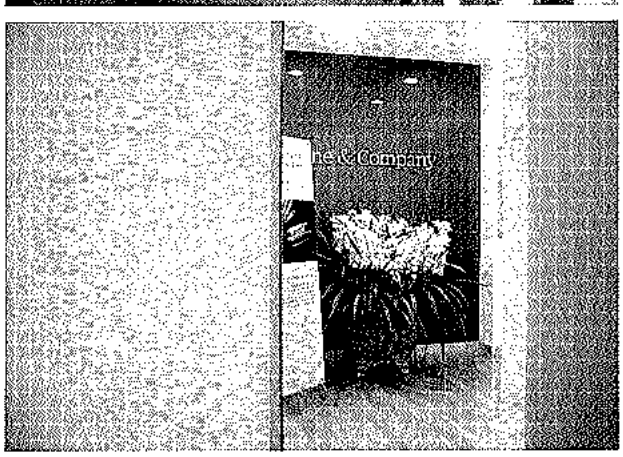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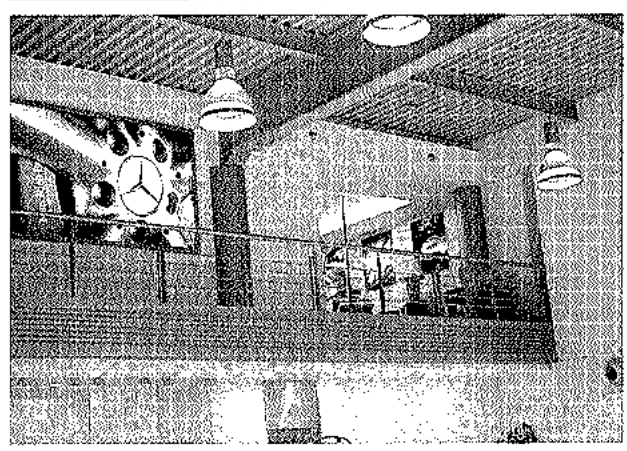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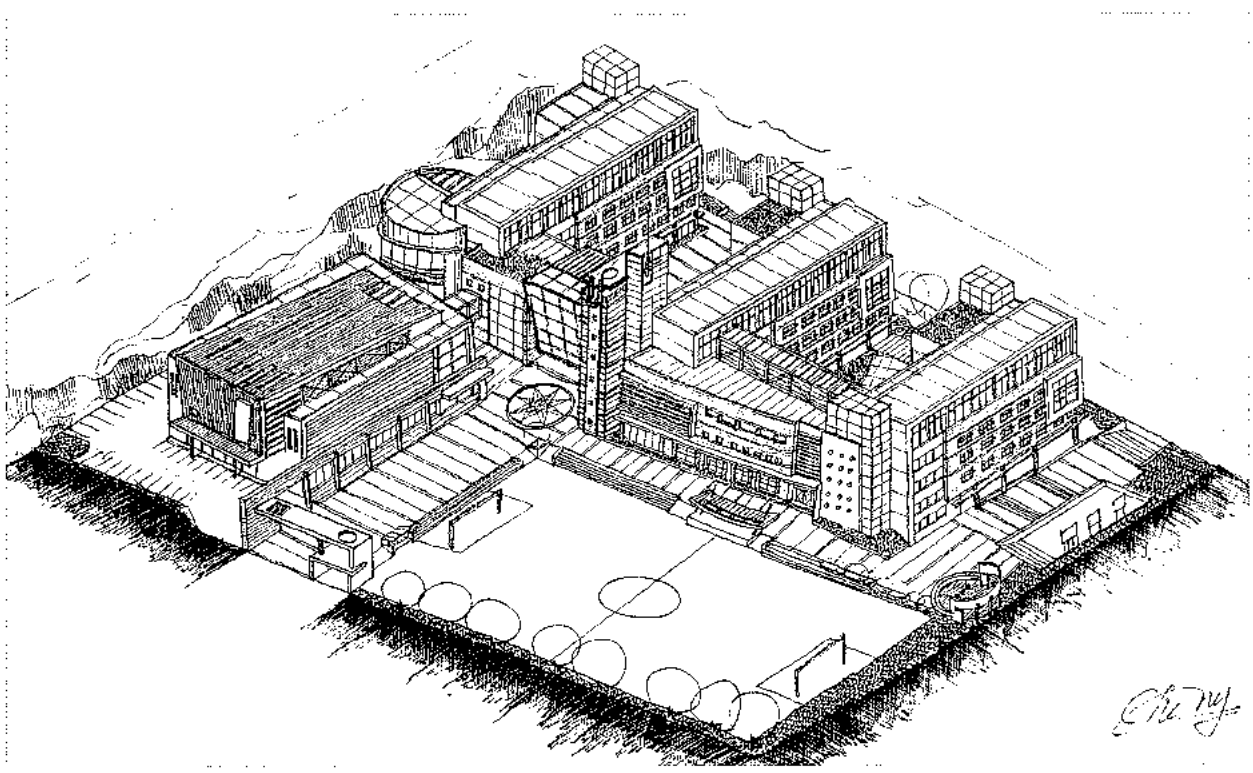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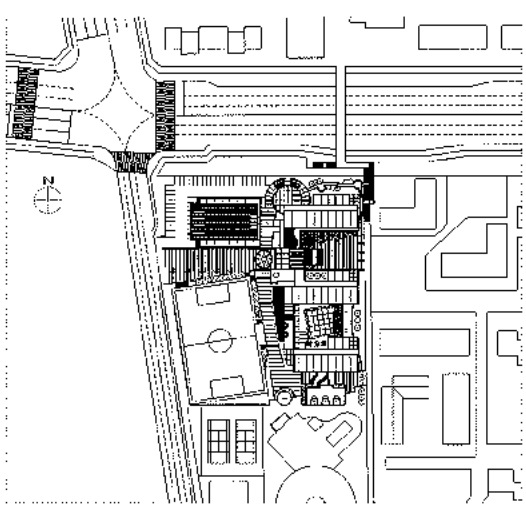




조도연 / (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
by Cho Do-Yeon

구봉고등학교
Gubong High School





배치도

프롤로그

2002년 2월, 꽤나 쌀쌀했던 구봉고교 현상설계 발표날..... 아침부터 업무는 이미 마비상태였다. 사무실은 뿌연 담배연기와 무언지 모를 불안감으로 뒤범벅되어 있었고, 벨이 울릴 때마다 모든 시선이 그 전화기로 쏠렸다. 죄없는 관리직 여사원은 잔뜩 주눅이든 채 애꿎은 컴퓨터 키보드만 두드리고...

그러다 누군가 교육청 인터넷에 접속한 모양이다. 잠시 함성이 들렸고 사무실은 금방 아수라장이 되었다 .....

우리가 당선된 것이었다!

연말과 구정연휴도 포기한 채 두번이나 이 프로젝트에 도전했고, 첫번째의 씁쓸한 결과로 잔뜩 긴장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당선소식은

감동 그 자체였다. 한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같은 학교의 현상설계에 도전하여 첫 번째 현상현상에서 당선작없는 우수작으로 만족해야 했기에 재도전을 통한 당선은 당연히 남다를 수 밖에 없었다.

그 당시 신축되는 학교 건물 대부분은 7차 교육 과정에 입각한 교과교실형이었다. 교육시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전지식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필자는 직접 자료를 만들기로 하고, 학교를 선별하여 답사를 다니며 학생들과 교사들을 상대로 묻고 듣고 그 결과를 데이터하는 것으로 부족함을 메우며 계획안을 풀어나갔다.

그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자료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고, 그 교훈은 지난 2년여 동안 여러 건의 교육시설 현상설계에 당선될 수 있었던 강한 저력이 되었다.

2004년 3월, 구봉고등학교가 마침내 개교를 하였다. 현장을 둘러보며 계획에서 혹은 공사에서 미흡했던 부분과 좀 더 세심하게 다듬지 못한 부분들에 많은 아쉬움을 느끼며 구봉고등학교의 Concept과 계획과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구봉고등학교의 현상설계와 배경

대전이라는 지역에서 건축 활동을 한지 얼마 되지 않던 시절, 필자에게 아주 적절하다고 느껴지는 프로젝트가 대전시 교육청 발주로 공고되었다. 바로 전에 동일한 고등학교 현상 설계를 끝내고 우수작 수상에 아쉬움을 많이 느끼던 터라 주저없이 두번째 공모에 참여하였다. 어수선한 연말분위기와 직원들의 투덜거림을 무시하고, 설연휴도 뒤로한 채 첫번째 계획안을 재분석,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배치계획을 풀어나갔다. 현상설계 경험이 많지 않던 시절이어서 그만큼의 부족함을 시간과 노력으로 극복하며 두달 여를 구봉고에 매달렸고, 구봉고 당선은 그런 노력 끝에 얻어진 결과인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교육시설 현상설계에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였고 다행히 좋은 결과가 있어서 서울과 대전 , 경기도에 몇 개의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돌이켜보니 구봉고등학교는 필자에게 교육시설의 처녀작인 셈이다.

Concept / 필로티 & 누하 진입 방식

구봉고등학교 부지는 다양한 대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부지와 인접한 어린이 공원과 테니스장, 고층아파트군, 소음방음벽, 육교와 연결된 3m 보행자도로, 전면 시설녹지 등...

이러한 복합적 대지조건을 해결하는 주요한 개념은 공간의 연속성(Sequence of space)이었다. 공간의 연속성이란 대지로의 자연스러운 접근을 유도하고 대지와 건물내, 외부의 다양한 동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필로티를 통한 전통건축의 누하진입방식을 고려하였는데 주된 의도는 경사진 대지의 레벨을 그대로 사용하여 성, 절토량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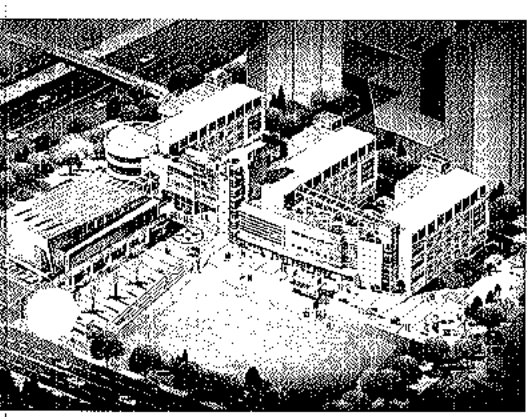
지형의 레벨을 그대로 활용하여 부진입구에서 주출입구까지의 경사를 계단과 마당을 통한 누하 진입방식으로 계획하고 교사동 하부에 필로티를 두어 부진입구와 운동장의 시각적, 공간적 연속성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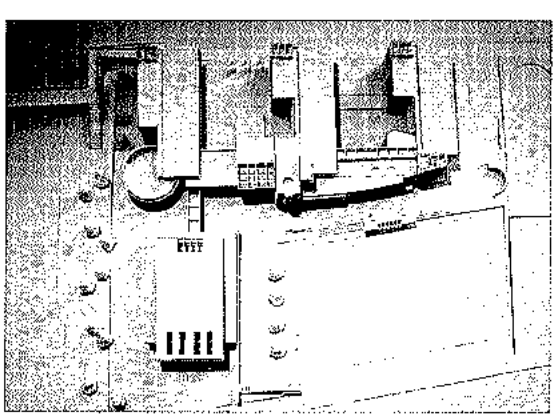
Concept / MASS · 입면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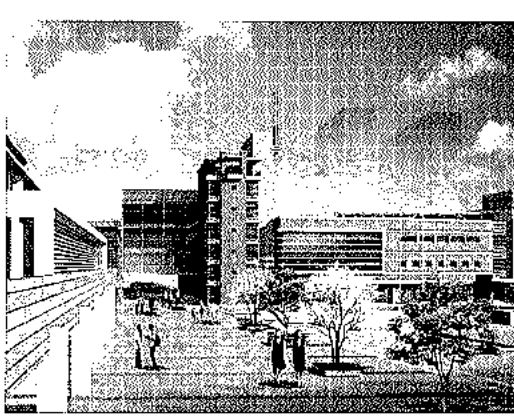
아파트가 위치한 동측 부진입구에서 학교를 보면 5층으로 인식되지만 서측 주진입구에서는 3층의 건물로 나즈막하게 펼쳐져 도로에서 학교를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아담하고 소박한 휴먼스케일의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구봉고등학교는 재정적 지원도 따랐던 프로젝트였다. 요즘은 설계 발주시 재정적인 문제로 교사동과 체육관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구봉고는 적절한 예산의 확보로 교사동과 체육관이 동시에 계획, 시공되어 현상설계시 계획의 의도를 그대로 현장에 반영할 수 있었다.

구봉고등학교의 입면개념이 교사동은 수평요소를 사용한 정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체육관은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동적 분위기를 강조하였기에 체육관이 추후 증축공사로 진행될 경우 초기 입면개념이 상당히 와전될 상황이었다.

다행히 체육관은 지어졌고 경사로 곧게 뻗은 체육관 지붕에 아연도패널과 유공판을 사용하여 기본개념대로 모던하고 다이나믹한 체육관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다.

Concept / 배치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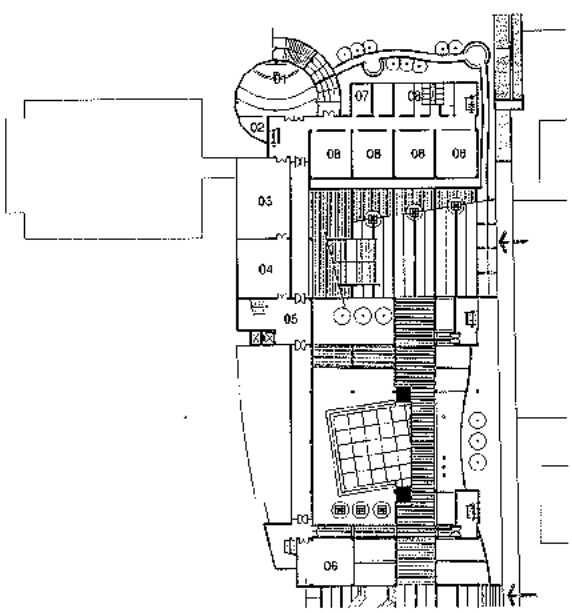
구봉고는 대지 내 4m의 단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안이다. 아파트단지에 인접하여 교실군을 클러스터형으로 배치하고 단차를 이용하여 두 개 층 높이를 필로티로 띄웠다. 그래서 4m높은 반대편 운동장과 부진입구 공간이 연속되게 하였으며, 주출입구에서 5층규모의 건물이 3층으로 인식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주민 이용시설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 아파트주변의 어린이공원, 테니스장과 연계하여 운동장을 배치하고, 지역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 부 출입구와 시설물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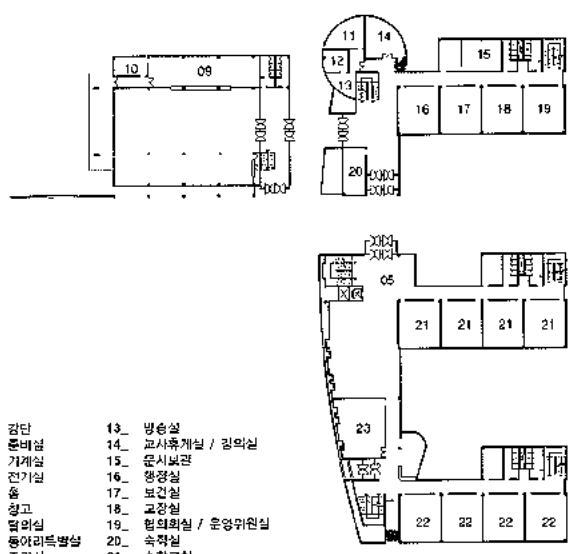
Concept / 평면개념

구봉고등학교는 계획 당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신축교사 교과과정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평면 구성방식을 보여주었다. 홈베이스와 도서정보센터를 교사동의 중심에 배치하여 각 영역별 교과군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휴게 및 정보 활용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다. 또 클러스터 형으로 교과교실을 배치하여 계열별, 층별 조닝을 명확하게 하고 이동 동선을 단축하였다.

그러나 현재 교육계현실이 7차 교육과정의 본래취지와 많은 차이가 있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년별로 분반이 되어 학습교실이 정해지고 특별교실은 특정시간에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주로 머물게 되는 홈베이스공간이 락커실이나 자습실정도로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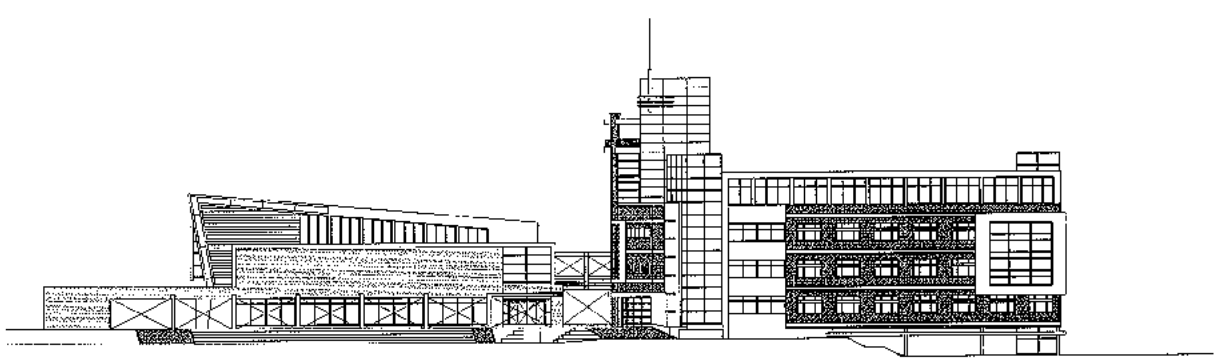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01_ 강단
02_ 준비실
03_ 기계실
04_ 전기실
05_ 홀
06_ 창고
07_ 탈의실
08_ 동아리특별실
09_ 조리실
10_ 창고
11_ 스튜디오
12_ 녹음실
13_ 방송실
14_ 교사휴게실 / 강의실
15_ 문서보관
16_ 행정실
17_ 보건실
18_ 교장실
19_ 협의회실 / 운영위원실
20_ 숙직실
21_ 수학교실
22_ 사회 / 국사
23_ 컴퓨터실

2층 평면도



입면도

실은 필자를 많이 안타깝게 한다.

구봉고등학교 시공후기

구본고등학교는 운이 좋은 프로젝트였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한다.

처음 현상설계 당선작으로서 필자와 사무실직원 모두 최선을 다했고 진취적인 해당 관청과 꼼꼼한 현장 소장 등이 잘 어우러져 호흡을 맞추었기에 초기 현상설계의 의도가 무리없이 시공 때까지 반영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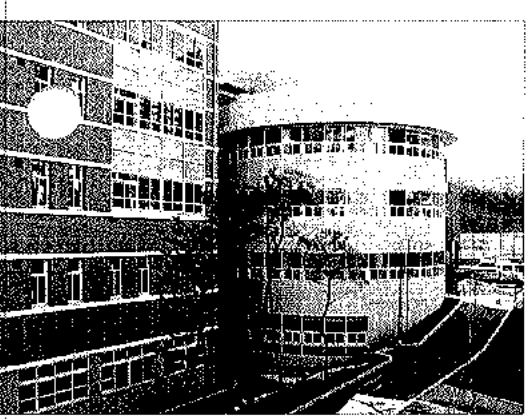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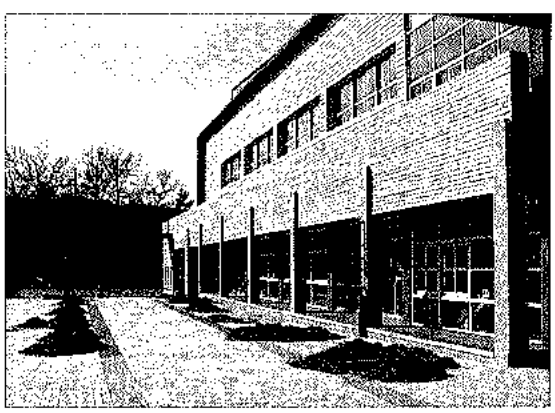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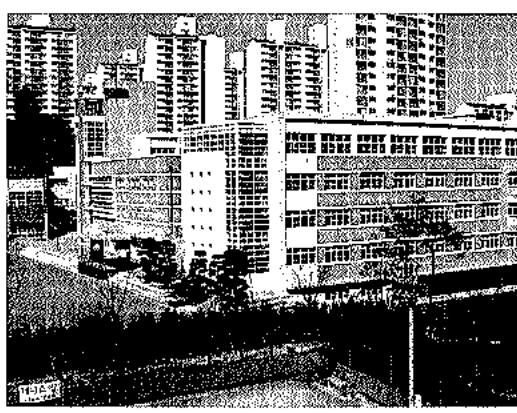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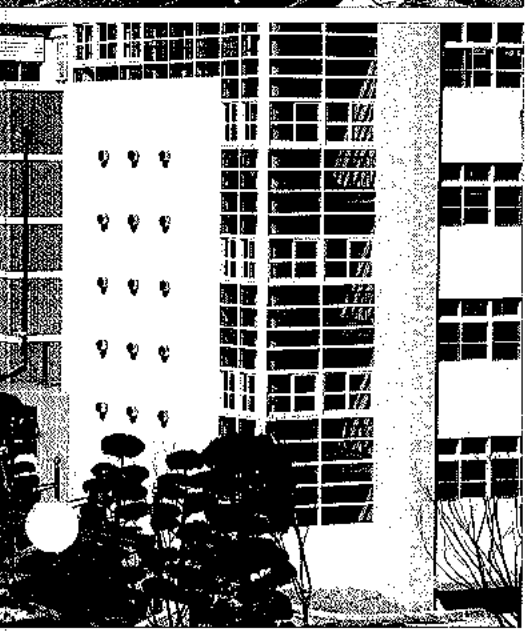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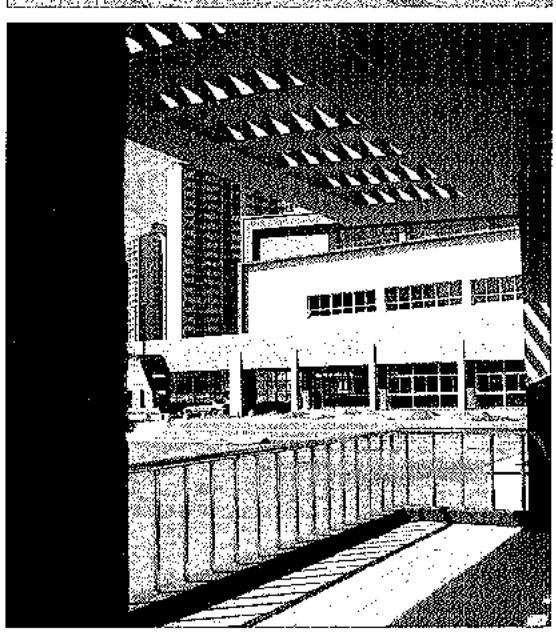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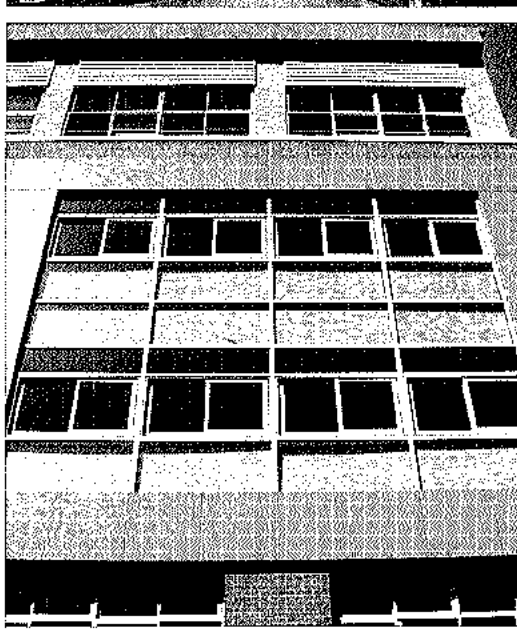
처음 현상설계가 공고되었을 때, 기본계획을 협의하고 실시도면을 제출하던 과정, 과정마다 '잘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수없이 반복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필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봉고등학교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이제 학교로서의 외형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기본계획 시 학생과 교사들의 입장에 서서 공간을 분석하고 조닝하고자 많이 노력하였고, 이제는 필자의 손을 떠나 그곳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에 의해 의도했던, 아니면 미처 의도하지 못했던 다양한 행위들로 채워질 것이다. 아울러 그들과 함께 구봉고등학교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성장해 갈 것임을 믿는다.

끝으로 구봉고가 지어지기까지 많은 지원과 고민을 아끼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155번지
지역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일반주거지역
용 도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고등학교)
대지면적	11,815.7㎡
건축면적	3,292.77㎡
조경면적	2,204.82㎡
건 폐 율	27.87%
용 적 률	99.77%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 철골조 (체육관)
주차대수	50대 (법정 : 48대)
외부마감	컬러벽돌, 외단열시스템, 이연패널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이재훈 /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과 교수
by Lee Jae-Hoon

공간클럽 - 10
Space and Rooms

건축공간에 대해 막연히 동경하며, 좋은 건축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을 기억해본다.
그다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어찌보면 건축주의 요구와 구조, 기능, 설비, 건축비의 문제에
매달려 좋은 건축공간이 가져야할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축가에게 꿈같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해본 적이 없는 나만이 만들어낸 건축공간일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건축가의 꿈이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건축인이 건축적 삶을 사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근래, 건축공간에 우선하여 형태적 유희나 재료의 표현, 프로덕션의 즐거움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향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건축이 존재하는 고유한 영역은 결국 공간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된다.
젊은 시절 건축공간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잊혀져가는 건축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일으키고자 공간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건축공간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던지려고 한다.
더러는 일반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소주제를 통해 건축공간을 전혀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 주〉

목 차

1회
a. 공간은 하나인가요?
b. 공간의 증거
c. 공간은 없다

2회
a. architectonic space
b. 노자의 공간개념
c. 5차원공간

3회
a. 누구의 공간인가?
b. 얼어붙은 공간
c. 서랍속의 공간

4회
a. 공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b. 논리로서 공간을 이해한다.
c. 공간지놈지도

5회
a. 안티 중성의 공간
b. 시간을 넓은 공간
c. 공적공간과 사적공간

6회
a. 공간의 밀도
b. 공간의 전이
c. 공간의 위계

7회
장면으로서의 건축공간

8회
a. 쉬운 공간만들기
b. 새로운 공간만들기
c. 게임에서 보여지는 공간의 개념

9회
a. 공간의 구별
b. 공간의 대립개념

10회
a. 마음속의 건축공간
b. 언어속의 건축공간
c. 돈이 되는 건축공간

11회
a. 공간의 위치문제
b. 형태, 체계, 위치
c. 위치적 공간구성

12회
a. 공간속의 가동
b. 시나리오 있는 공간
c. 창으로 본 공간

13회
a. 공간계획
b. 공간디자인
c. 공간문법

a. 마음속의 건축공간
space in a mind

염수원은 누실명(陋室銘)에서 마음에 드는 건축공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산은 높은데 있는 것이 아니고, 신선이 있으면 명산이다. 물은 깊은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용이 있으면 영묘한 것이다. 이 누추한 집은 나의 덕이 향기로운데 있다. (중략) 번거로운 음악이 귀를 어지럽히지 않으며, 서찰이 몸을 수고롭게 하는 일도 없으니 지극히 고요하고 편안하다. 남양의 제갈공명의 초가집이나 서촉의 양자운의 정자에나 비길까, 공자의 말씀대로 무슨 누추함이 있겠는가?' 즉 음악이나 번잡함이나 또는 화려한 집이나 궁궐같은 집이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용없다. 자신의 마음에 든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화려함이든 누추함이든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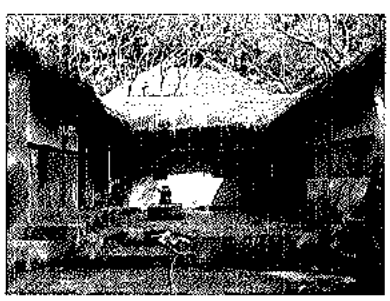


그림 1. 인도의 전통가옥

동양의 전통은 마음을 해석해낸다기 보다는 마음의 형태를 읽어내는 것에 있다. 맹자의 4단 칠정론은 인간의 마음의 이와 기의 발원에 의한 마음의 선과 악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동양철학의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이와 기에 대한 해석은 이기일원론, 이기이호발설, 이기이원론등, 다양할 뿐 일치되지 않는 의견으로 남아있고, 단지 7정과 같은 그 표현된 모습에 대해 공감할 뿐이다. 마음의 실체를 따지기보다는 마음의 표현에 관점이 집중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마음은 변덕스러움이 자리한다. 어느 순간 좋다가도 어느 순간 나빠지며, 어느 순간 공감하다가도 어느 순간 바뀌고 만다. 그리하여 동양의 의견수합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논쟁만을 거듭하다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동양적 시각에서 마음은 바깥 세상에 대해 일어나는 인간내부의 심적 변화에 대한 포괄적 정의라고 할 수 있지만, 서양적 시각에서는 마음을 학술적으로 정리하여, 지각하고 인지하며 판단을 내리는 행위를 대표한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며, 보여진 사물에 대해 그것이 어떠한 대상인지를 인지하고, 판단과 태도를 보이는 것을 통괄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양적 시각에서, 마음은 문을 보고, 문이라는 것을 알고, 통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실제 통과를 하려는 마음의 작용을 일으킨다. 또는 문을 보고 멋있다는 생각을 하고, 멋있다는 말을 하는 것도 서양식으로 볼 때 마음의 작용이다.

그들이 보고자 하는 사물을 다르게 보는 현상이 발생된다. 마음에 따라 보는 대상 자체가 달라진다.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걸어온 길에서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어떤 사람은 보도블록의 패턴을 이야기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쇼핑 상가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오면서 만난 사람들, 어떤 사람은 간판들, 어떤 사람은 스포츠 상가만을, 어떤 사람은 건물의 색상만을 이야기 할 수 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들이 관심 있는 보고 싶은 대상만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도시공간을 만들 때, 매스에 의한 위상적 공간으로서 가로공간을 고려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지각적으로

자극원 사각형문	→	재현적의미 (문의 이미지) 통과할 수 있다는 생각	→	반응적 의미 (환영한다는 감정) (아름답다는 판단) (이용하겠다는 결정)	→	행태반응 (열고 통과함)

그림 2. 문에 대해 마음의 포괄적 작용과 비교해 보여지는 지각, 인지, 태도의 프로세스

그러나 마음은 서양식으로 그리 쉽게 파악되지 만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변할뿐더러,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의 복잡성은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서양식 구분에 따라 마음의 1단계 작용인 본다는 것을 살펴보더라도, 그 이론의 모호성에 직면하게 된다. 그림과 같은 경우 우리는 그것을 오리로 보고 있는가? 토끼로 보고 있는가? 오른쪽으로 보면 토끼이며, 왼쪽으로 보면 오리이다. 사물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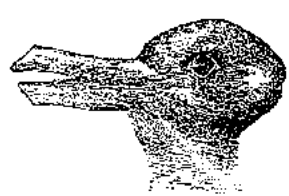


그림 3. 토끼와 오리의 복합형상-무엇을 지각하고 있는가?

인지되는 위상적 형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휘어진 길, 5층 높이의 연속된 가로건축물, d/h 비, 그리고 나아가 요소들의 반복에 의한 주제의 부여를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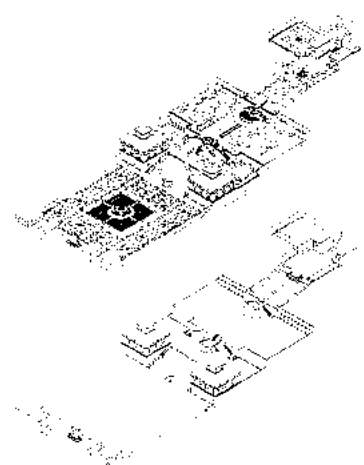


그림 4. 보는 대상을 응용하여 표현한 서양철리 Lamie의 다이어그램-건물체계, 물의체계, 나무체계 등의 요소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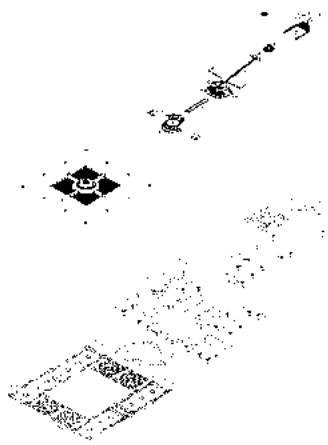


그림 4. 보는 대상을 응용하여 표현한 서양빌라 Lante의 다이아그램- 간을체계, 울외체계, 나무체계 등의 요소체계.....

마찬가지로 건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창의 크기를 보고, 어떤 사람은 벽의 재료와 색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지붕의 모양을, 어떤 사람은 현관만을, 어떤 사람은 창문의 패턴을, 어떤 사람은 지붕의 재료를, 어떤 사람은 건물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노후화 정도를, 어떤 사람은 그 집이 비싸겠는지 등등을 볼 수도 있다. 일반인들은 역시 그들이 보고 싶은 부분을 보는 것이다.

그림 5. 실루엣으로 보는 건물의 인상

그래서 일반인들의 눈에 띄는 아이레벨까지에 대한 고려와 지붕의 모양에 의한 실루엣, 오프닝부분의 보이드와 벽체의 솔리드를 중시하고, 출입구에 대해 민감하게 고려하게 된다. 비교적 집에 대해서는 과거의 고정 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의 조화 또는 대립되는 경향을 만들어내면 건축주는 좋아하게 된다. 그들이 건물내에서 보고 있는 대상물을 만들어주면 된다.

서양이론은 마음의 한 작용인 지각과정을 통해 공통적으로 파악되는 건축적 인지 요소를 찾아주려 한다. 그러나 마음의 거대함과 순간성은 이것들의 의미를 쉽게 바꾸어 버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항상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상물을 똑같이 보고 있다는 가정이 든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2단계 작용인 대상물에 대한 이해는 다르게 된다. 낚시꾼에게 지렁이는 고기를 낚는 아주 중요한 대상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징그러운 사물일 뿐이며, 더운날의 얼음은 구세주같은 대상이고, 겨울에는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된다. 낡은 집은 그 집을 쓰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그의 보금자리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헐어버리고 싶은 집일뿐이다. 대상물에 대한 이해는 사람들의 관심과 경험, 문화적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같은 대상을 보고서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다를까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은 적이 없을 것이다. 관점과 이해의 폭이 다른 것이다. 그것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한 부분이다. 그러나 오늘날 마음은 배척되며, 마음의 한 의미를 사회적 조건화하는 경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마음은 다같이 잘되자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한 부분적 의미는 그것을 사회의 분리된 구조로 표출시켜 사람들을 서로 대립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마음을 판단과 태도로 표현하는 것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작용된다. 보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본대로, 이해 되는대로 언급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대화의 상대나 대화의 목적에 따라 마음속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것은 솔직하지 못한 방법이지만 오늘날 한국인의 의식속에 많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내 마음에 드는 집은 저것인데, 유행이 이래서, 세계적인 경향이 이러니까, 유명한 건축가가 저것이 좋다고 해서, 건축주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일을 제대로 하기가 귀찮아서 등등, 많은 이유에 의해 우리의 솔직한 판단은 유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의 건축적 관념이 제대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솔직한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것이 독특하다고 괄시되거나 여론몰이식의 건축적 관념을 주입하는 것은 미래의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방식일 것이다.

그림 6. 르꼬르뷔제; 친디갈의 국립미술관

오늘날 건축의 정론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며 작품성이라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지키려는 고정관념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건축 뿐만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론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가치를 한정하는 또 다른 벽이 되고 있다. 마음이라는 테두리가 지각과 인지, 태도라는 서양 이론의 그물에 의해 한정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하지만 그래도 건물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포괄적 반론을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으로 새겨볼 일이다.

b. 언어속의 건축공간

Space in a language

우리는 집에서 산다. 그 집은 큰집이기도 하고, 작은집이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쪽방 같은 곳이기도 하다. 산다는 것이 사람마

다 다른 조건이지는 않을텐데, 우리는 각기 다른 집에서 잘 버티며 살고 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뜻으로서 삶으로서의 조건이 같다고 보면, 사는 집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은 삶의 근원적 이유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모두 '같은' 집에 살고 있다. 집이라는 것은 같은 것이다. 다만 다른 것은 집의 모습이 다른 것일 뿐이다. 모든 사람의 존재의 근거는 집으로서 일원화 되어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물질적인 모습의 집의 모습에 달려있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우리의 삶은 집이라는 개념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같은 하나의 불려지는 언어인 '집'에 살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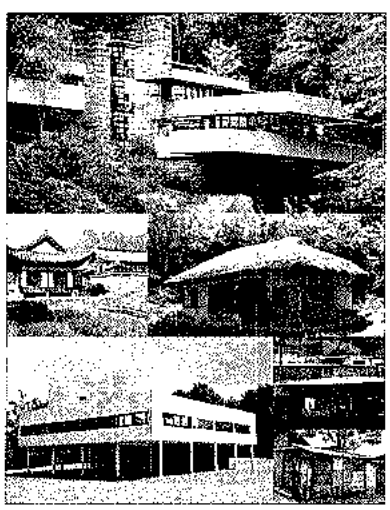


그림 7. 모두 '같은' 집

스타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스타의 집은 물질적인 집이 그의 집이라기 보다는 그를 스타로 부르는 대중들의 관심과 동조가 그를 거주토록 하는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다. 스타는 명성으로 사는 것이며 그의 집은 매스컴에 도배된 그의 이름일수 있다. 즉, 불리우는 그의 이름이라는 언어가 그의 집인 것이다.

언어의 집에 살고 있다는 개념은 건축 행위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건물의 주제 언어를 낭만성으로 설정하고 낭만적인 집을 만든다거나, 고전성으로 설정하고 고전적 집을 만드는 따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낭만성이나 고전성으로 대치되고 싶음을 시사한다. 나의 삶이 무질서를 대변하고자 한다면 무질서의 언어로서 집을 만들고, 권위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권위적으로 건축물을 구성한다. 어떠한 언어가 곧 나를 대신하고 나의 집을 대신함으로서 삶의 근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정이 내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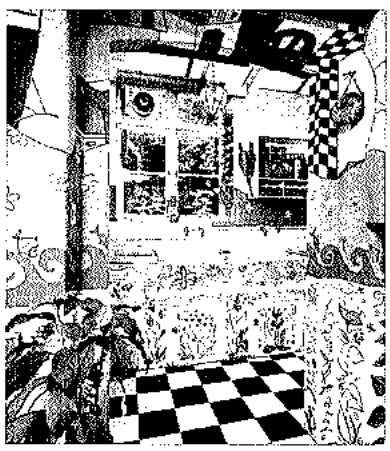


그림 8. '낭만적'인 공간

이와 같은 언어는 현대건축에서 무한정 확장되는 느낌이다. 현대사회의 불확실성과 건축언어의 무제한, 컴퓨터 표현법의 발달에 근거하여 언어로서의 건축공간은 보다 다양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가치적 요구로서 언어속의 삶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유치해보이지만 1970년대 말에 언어를 직접 대입함으로서 언어의 뜻을 건축에 이입하려는 설계방법이 유행한 적이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센터를 설계하는데 지, 덕, 체 3요소가 중요하며, 여기서 三의 숫자를 찾아내어 三을 변형하여 설계안으로 발전시키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사실 우리의 전통건축 가옥의 평면에서 많이 보여진다. 몸을 뜻하는 己를 평면형에 적용하여 건강을 기원하거나 해나 달을 나타내는 日, 月을 평면형에 이입하여 자연의 철학을 반영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언어를 직접 평면에 반영하는 것이 언어속에 살고자하는 뜻임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언어의 뜻이 평면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던 그들로서는 언어의 모양이라도 건물에 반영하고자 하였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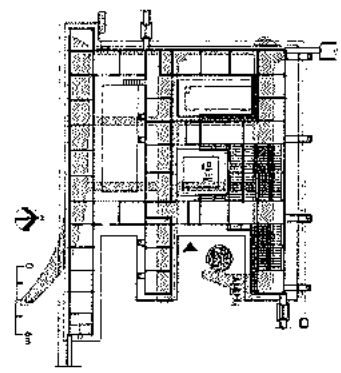


그림 10. 한국전통주택의 평면형과 그 속에 함유된 언어형
(用자로 축복을 기원하는 평면형-양청각)

일찍이 존 서머슨은 고전건축의 언어라는 책을 통해 Order(기둥)를 고전 건축의 대표 언어로 이끌어내었으며, 브루노 제비는 현대건축의 언어로서 1.기능 2.비대칭 3.반투시 화법 4.4차원 5.구조 6.시간 7.도시를, 찰스 젱크스는 건축의 언어-포스트모던 언어라는 책을 통해 근대이후, 포스트모던 시대를 정의하며, 그에 어울리는 건축언어를 1.이중적 의미 2.은유 3.구문론 4.절충주의 5.커뮤니케이션 등으로 설명한다. 이와 같은 언어들은 기호학(semiology), 유형학(typology), late modernism, de-construction 등의 어휘로서 맥을 이으며 현대 프로젝트의 설명적 어휘로서 우리의 집을 형성한다.

그림 9. 三 으로부터 건물평면형을 만들어가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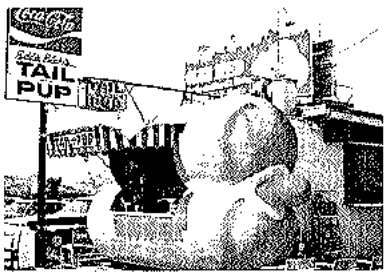


그림 11. 커뮤니케이션 의미를 표현한 포스트모던 건축

오늘날 이와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언어를 통해 현대건축에 그 성격을 이입하고자 하는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Fractal: fractal 은 파편화된, 쪼개진의 의미이다. 기하적인 형태로부터 일탈된 모습의 존재와 과정을 지시한다. 건축에서는 전통적으로 기하학적 질서에 의해 정의된 순수형태 지향적 건축적 규범이 보편화되어왔다. 그것은 일상적 형태와 정연된 표피의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자연속의 사물은 불규칙하며 파편화된 특징을 보여준다. 이와같은 자연속의 형체는 fractal 모델에 의해서만이 설명될 수 있다. fractal 모델은 파편각각의 독자적 형체를 유지하며 일탈된 비예측적인 형태로서 전체로서 결합된다. 동일한 정밀도의 디테일이 다른 스케일에서 동시에 표현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구름이나 물, 나무, 지형의 형태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식이다. fractal 패턴은 별의 움직임, 방랑자, 주식시세, 교통량변화 등 우연적 사건에 의한 형태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며, 건축의 일상적 형태를 벗어나려는 경향과 어울리며 의미화되고 있다.

그림 12. 기하적인 선형과 파괴된 선형

2. Swiss knife: 칼, 오프너, 가위, 손톱깎기, 확대경, 드라이버 등등의 만능 기능을 갖는 스위스 칼은 그 기능이상의 생명공학적 특성을 갖는다. 모든 것을 조그만 잡속에 담는다는 의미가 있다. 누가 그것을 사용하는 가에 따라 서로 다른 가능성을 제공한다. 스위스 칼을 닮은 거대 스케일의 건물로 응용되면서 의미적으로 스위스 칼의 형태속에 건축기능의 모든 것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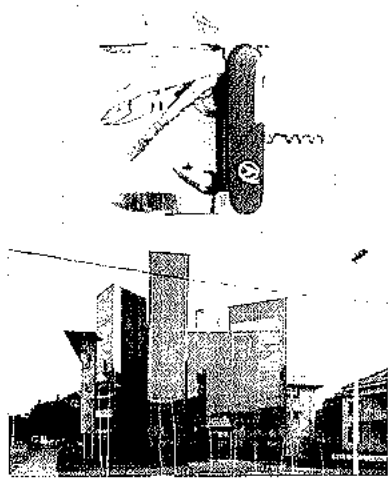


그림 13. 형태속에 다양하게 담겨진 기능들

3. cyclops: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애꾸눈의 거인을 말하는 이 용어는 고대 그리스 건축물에서 거대한 돌을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쌓아올린 돌쌓기 방식을 말하기도 한다. 건축물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솟아올라 애꾸눈처럼 바닥을 쳐다보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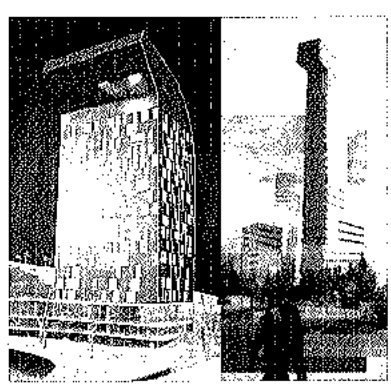


그림 14. 자신을 감시하는 애꾸눈의 타워-Javier Pena, 주거빌딩 현상설계안

4. deviation: 일탈이라는 의미의 이 용어는 도시 사회의 경직된 모습속에서 일어나는 실험적 행태를 이야기한다. 도시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일종의 이방인화 작업으로서 형체속에서 보이지 않는 배경을 드러내는 증거의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의 삶을 일상이 아닌 일탈로서 관조함으로서 삶의 형식이 아닌 숨겨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건축적으로는 뉴욕 맨하탄의 그리드 구조속에 원형의 형태로 홀로 서있는 구겐하임 뮤지엄이 대표적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Plural: 잡종, 다양성, 변형, 교배의 다중적 뜻을 갖는 이 용어는 절대적 완결의 의미를 갖지 않는 열려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애매하며, 다면적 성격이 공존하는 상태이다. 다양한 사건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sub-space 나 sub-event 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준다. 복수의 라는 뜻처럼 소단위가 'X(곱하기)'로서 표현된다.

6. hybrid: 잡종의 라는 뜻으로 현대 프로젝트를 보면 조화되고 일관된 형태보다 교배되며, 기생하는 무한 정보의 공존은 쉽게 하나의 형태로 결론내려지지 않는다. 현대예술은 공존하며, 잡종화, 복합화되면서 타협을 시도한다. 서로 다른 인종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인종을 만들어가듯, 건축에서도 잡종적이며, 차별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림 15. Bendup, 단독주택

시대에 따른 여러 가지 언어들이 유행하고, 그것이 건축을 대표하는 정의로 회자되며, 언어로 만든 집에 100% 만족할 수 있다면 이들의 가치에 영원히 종속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언어밖의 세계에 보다 동조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건축공간은 비언어적인 햇빛의 강렬함이나 밤낮의 변화에 대한 느낌, 기후와 풍토 등 언어의 의식속에 존재하지 않는 환경의 조건들과 무의식적인 비언어적 감응들이 언어로 통제된 환경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에 한정될 때마다 무언가 찜찜함이 남는 것은 건축이 그것이 아님을 공감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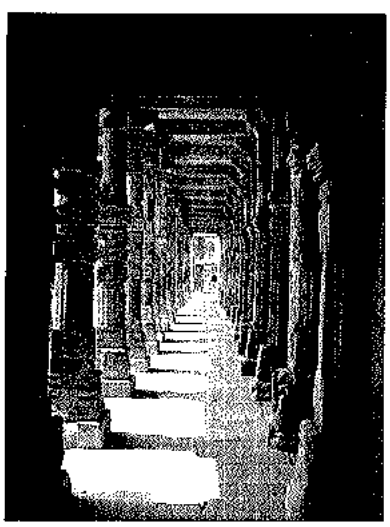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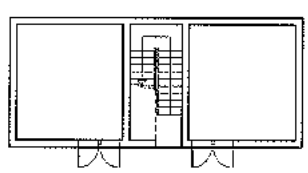


그림 16.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분위기의 공간: 인도 칼트미나르의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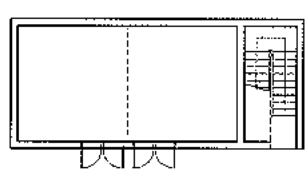
c. 돈이 되는 건축공간
space of money

돈을 벌어주는 건축공간은 건축가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치와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의 편리와 거주환경의 조성이라는 가치가 때로는 대중적인 요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건축가가 희망하는 좋은 건축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중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건축적 가치에 포함할 수 있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다.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건축적 가치가 돈에 의해 패배되지 않기 위한, 또는 돈을 벌어 주면서 건축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로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상가빌딩의 1층 출입구와 상층으로 오르는 계단은 건물의 길이가 그리 길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건물의 극단에 위치한다. 동선의 편리성이나 통로의 길이를 생각하면 건물의 중앙에 두어 양편으로 쉽게 접근하는 가치를 생각해 볼법한데, 그와는 다르게 건물의 끝 쪽에 위치한다. 이것은 임대료가 비싼 1층에 다양한 용도의 소매점을 입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에 코어가 있으면 1층이 반으로 쪼개져 대규모 상가가 입주할 기회를 잃게 된다. 반면에 끝에 있으면 크거나 작거나 간에 다양하게 공간을 분할하여 상가를 입주시킬 수 있게 되어 임대의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이같은 조건은 2층공간을 분할할 경우 한쪽끝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두어야하므로 복도면적의 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접근성의 약화를 가져오게되어 프라이버시가 강조되는 상점은 입주가 좋으나 무작위한 손님의 방문을 기다리는 상점으로는 취약해진다. 사옥으로서 활용되는 경우와 임대의 경우, 코어의 위치는 임대의 효용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코어의 형태표현에 의한 미적인 효과만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a. 중앙계단 : 임대공간의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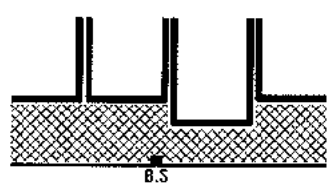
b. 편심계단 : 대규모 임대공간

그림 17. 상가건물의 계단 위치에 따라 임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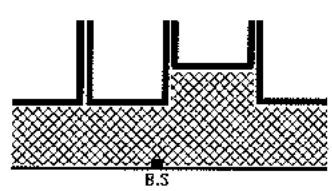
건물의 입구를 들어서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느낌을 주기위해 만드는 2층까지 오픈된 로비홀을 들 수 있다. 사무소건물에서 많이 쓰여지는 이와 같은 방법은 본사 사옥일 때 그 의미가 크며 임대일 경우, 그 특별한 의미가 부각되지 않아 오픈 공간으로 해야 하느냐 그러지 않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

백화점과 같은 매장의 경우 에스컬레이터의 위치가 중요하고, 소매상가의 경우, 그 업종에 따라 건물의 입구를 건물내부의 통로쪽으로 두느냐? 바깥으로 내느냐에 따라 장사의 성공여하가 좌우되기도 한다.

건물의 배치에 있어서 길에 면한 건물일 경우, 길에 대해 평행하게 바짝 길 쪽으로 붙이는 경우와 길에서 조금 셋백되어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을 만들며 건물을 배치하는 방법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유 공간을 만들어 셋백하는 경우, 상권과 보행자의 연관성이 떨어져 장사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상적으로는 가로공간에 여유를 만들어주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되지만, 보행자에게는 자신이 서있는 곳에 바짝 다가와 있는 상점에 보다 쉽게 접근이 되고, 떨어져 있는 만큼 접근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a. 길에 바짝 붙은 경우



b. 길에서 셋백된 경우

그림 18. 길에 면한 건물의 접근성

현대의 풍수지리에서는 건물의 구성과 관련하여 건강과 부귀의 연관성을 많이 언급한다. 주택의 경우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물을 보게 되면 돈이 나가게 된다고 한다. 물(水)이 돈의 금(金)과 상극이기 때문이란다. 건물의 바깥으로 크게 난 창은 건물의 기가 나가면서 부귀도 함께 없어지게 된다고 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큰 창쪽에 화분을 두거나 풍경 등을 설치하여 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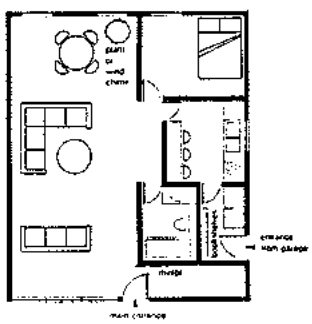


그림 19. 방의 배치와 풍수적 의미

안도 다다오는 기하학적 구성의 재미있는 건축공간을 만드는 건축가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가 설계한 오사카의 상가건물을 구경하게 되면 지은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임대가 안되고 상권이 발달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오사카의 좁고 긴 세장형 대지에 건물을 길이 방향으로 다시 나눔으로서, 통로를 빼고 나면 사실 별로 가용한 공간이 나오지 않게 상점을 구획해놓음으로서 결과적으로 일반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죽어버린 건물이 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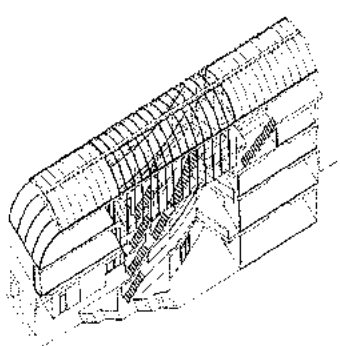


그림 20.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안도다다오 설계의 상가건물: 오사카 갤러리아 아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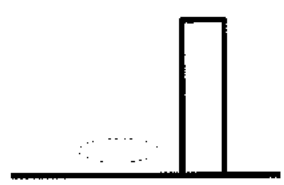
안도 다다오의 노출 콘크리트 건물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지어지는 방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 지어진 노출콘크리트 건물은 지어진지 오래되지 않아 결국 페인트 칠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인이나 손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건물이 짓다만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가보다.

레조트 시설을 계획하면서 있었던 일이다. 마스터 플랜의 기초안을 만들면서 입구 부분에 커다란 써클의 로타리를 두어야하는 주장이 있었다. 거대한 서클로 이루어진 로타리는 사람들의 기억에 쉽게 남고, 다시 한번 가보게 되는 확률이 통계적으로 매우 높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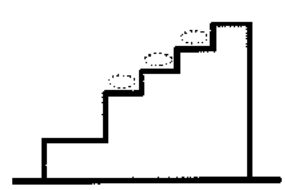
또한 레조트 시설은 보통 주변 지형과 어울리도록 저층으로 낮게 깔리면서 접지성을 높여주는 형식이 추천된다. 그러나 건축주는 건물을 높이지어 외부에 땅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접지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같은 접지성인데, 건축가는 건물이 땅에 붙어있는 것을 말하고, 건축주는 사람이 땅에 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건축가와 건축주 사이에 얼마나 큰 의식차이가 있는가를 실감하게 해준다.

건축공간의 형성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사람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되면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된다. 삶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오늘날 일반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돈이다. 즉,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건축공간을 원한다. 그러한 공간은 일반적으로 면적에 달려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다. 최대의 면적을 확보하면 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면적을 최대로 임대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다. 그러나 임대는 많이 나가더라도 임대료가 싸면 굳이 면적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적은 면적의 공간이더라도 손님이 많이 찾아준다면 훨씬 이익을 내는 공간이 되고 임대료도 높은 공간이 될 수가 있다. 즉, 돈을 벌어주는 공간도 결국은 사람들이 자주 찾게 되는 그런 공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22. 잠실롯데월드



a. 일반인이 생각하는 접지성이 좋은 건물



b. 건축가가 생각하는 접지성이 좋은 건물

그림 21. 접지성에 대한 다른 시각

건축물의 가치를 돈과 결부하는 것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적인 건축적 가치와 돈에 대한 의식의 차이를 아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회생활의 지원기능으로서의 건축적 가치는 돈의 가치를 포함하는 일반성, 대중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거주환경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계도적이며 우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돈의 가치를 벗어나는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의식을 선도하는 예술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프로젝트의 기회에 따라 복합적으로 표현되거나 어느 하나의 가치에 편중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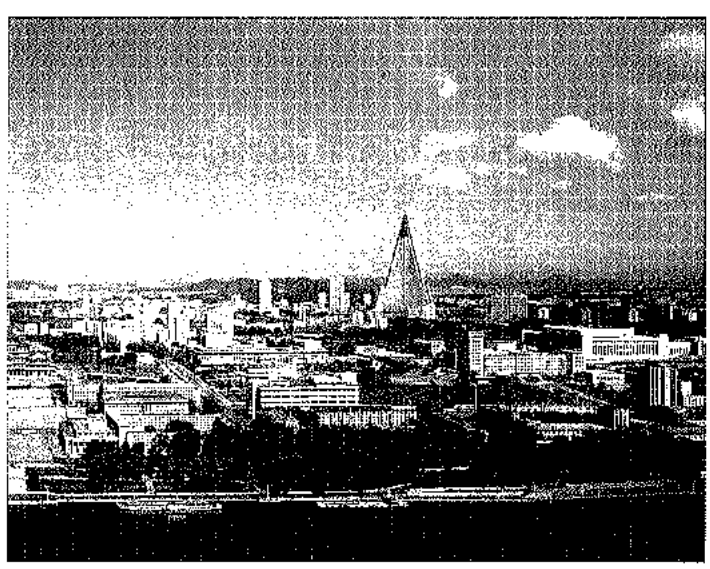
안 길 원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by Ahn Kil - Won

평양 방문기 - 01

A Visit to Pyeong-yang

우리 협회 이세훈 회장과 안길원 전임이사 <(주)무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회장>가 류경 정주영 체육관 개관식에 참석하고자 2003. 10. 6. ~ 10. 9.까지 3박 4일간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을 둘러보고 돌아왔다.

그동안 각종 매스컴을 통해 일부 소개된 바는 있으나 북한의 건축이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평양 방문기를 통해 북한 건축을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평양시 전경

평양 방문에 앞서...

인간은 누구나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가지고 있으며 고향을 떠나 생활을 하거나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늘 고향을 동경하고 가고 싶어 하는 곳이 고향이다.

필자는 1942년 황해도 장연군의 평화로운 농촌마을에서 태어나 양가 부모님과 할머님의 사랑을 받으며 초등학교를 다니던 중 1950년 6.25전쟁을 맞이하여 전쟁통에 1학년을 수료하고 1951년 3월 서해의 최북단 초도라는 섬으로 피난을 가 6개월 정도 연명을 하다 휴전협정에 의하여 38선 이북은 북쪽의 영토가 되면서 백령도로 피난을 하게 되었고 전쟁후의 비참한 생활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생사의 기로에서 오로지 먹고사는 것에만 매달렸으나 부모님의 억척같은 노력으로 생활의 여유를 찾으며 2년여 늦게 다시 초등교육을 받게 되었고 중학교까지 백령도에서 마치고 인천으로 와 정착하게 되었다.

이북의 고향을 떠난지 52년, 북녘 땅에 간다는 것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기억을 더듬어야 옛날 살던 동네가 아물아물 기억이 되살아나는 긴 세월! 그동안 한번쯤은 이북을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기회가 쉽게 오지를 않았다.

2년전 중국을 통하여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나 필자가 가기에는 명분이 없어 동행하자는 제의를 거절한 적이 있었다. 그렇게 가보고 싶은 고향을 지척에 두고 체제나 이념의 문제로 50년이상을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이산가족들의 마음을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누가 그 아픔을 이해나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마침 현대 아산에서 류경 정주영 체육관 개관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지인의 천거에 의하여 금번 행사에 동행하게 된 것은 매우 큰 행운이었다. 특히 대한건축사협회 이세훈 회장님이 건축계 인사로 동행하여 필자와 함께 평양의 여러 건축물들을 볼 수 있었던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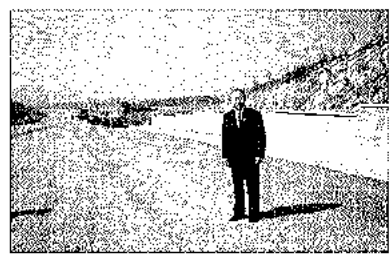
평양을 가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평양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하였으나 출발하기 전날 (2003. 10. 05) 현대아산 본사 강당에서 동행하는 사람들의 조편성과 교육을 받게 되어 이북에 대한 상당부분의 안내와 이북에 대한 책자를 배포 받고 나름대로의 사전 준비를 하게 되었다.

10월 06일(첫째날)

2003. 10. 06일 아침 평양을 가기 위하여 현대아산 계동 사옥에 도착하여 지정된 Bus에 간단한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동행하는 우리 조(다반5조) 사람들과 자유로에 들어서니 정말 이북에 가는 실감이 났다.

도라산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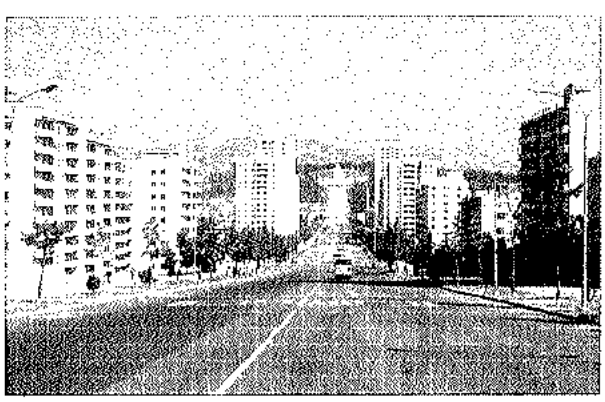
가을들녘의 아침정경은 한 폭의 동양화 같이 약간의 가을 안개속에 1시간정도 달려 09시경 도라산 군사분계선에 도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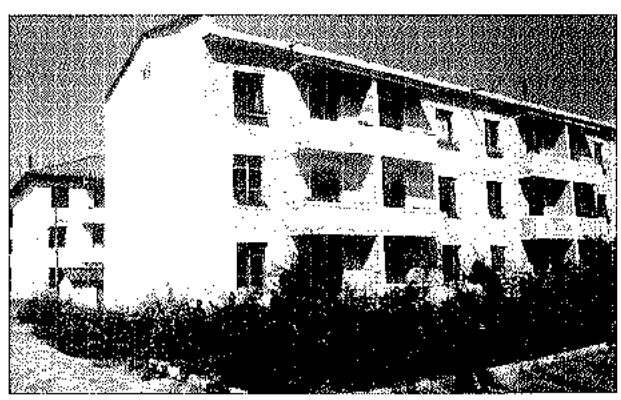
군사 분계선 북측 출입국 관리소

군사분계선을 지키는 헌병들의 안내를 받으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출국심사를 받고 비무장 지대를 지나 북측의 군사분계선까지 이동하여 북측 안내차량의 선도하에 이북의 입국절차를 받고 북녘땅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1,000명의 전 일행 모두가 우리가 타고온 Bus에서 내려 각 조별로 입국심사를 마치고 북에서 제공한 Bus로 갈아타고 북녘의 첫번



개성 시가지



개성의 아파트

째 도시인 개성으로 가게 되었다.

52년만에 첫대면하는 개성 근교 북측의 한가로운 농촌시골 전경도 우리 남쪽 시골이나 다름이 없었으나 모든 산이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었다.

비포장도로를 따라 개성시내로 20여분 가는 길에 북녘의 사람들(인민)을 차창 밖으로 구경하면서 도로를 지날 때 서로 손을 흔들며 환영과 반가운 인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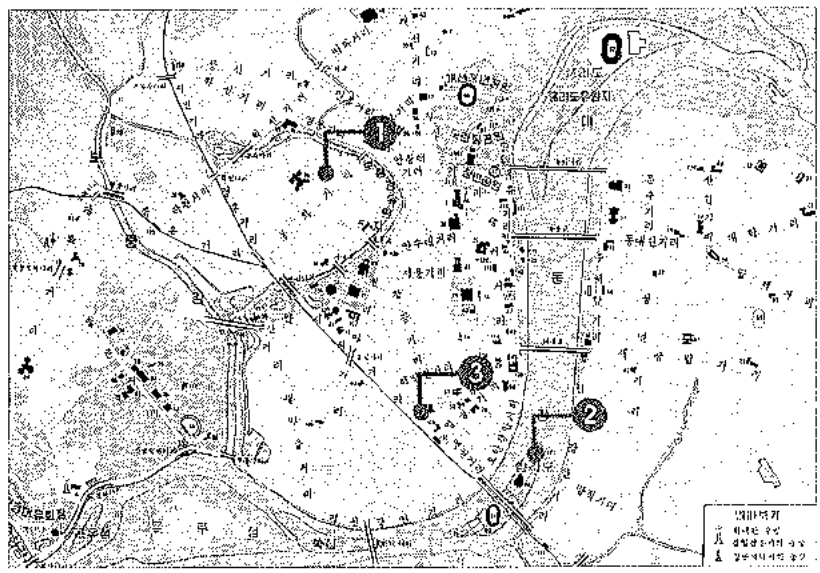
1950년 6·25전쟁후 처음으로 육로를 통하여 서울에서 평양으로 가는 이 행사는 남쪽이나 북쪽에서도 매우 관심이 많아 우리 일행이 현대아산 계동 사옥에서 출발할 때나 도라산 남측 군사분계선 출입국 관리소에서 많은 신문기자와 SBS TV에서 독점중계를 하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단이후 52년만에 처음으로 육로를 통하여 평양을 간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도 없는 한반도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의 역사일 것이다.

개성시내에 진입할 때는 시내의 전경을 구경하기 위하여 마냥 차창 밖을 내다보느라 정신이 없었으나 개성시내 한복판을 통과하여 평양으로 가는 연도의 모습에 금세 실망하고 말았다.

그동안 개성공단개발 등 개성은 남한 사람들에게 평양 다음으로 많이 알려졌으나 시가지의 한적한 모습과 규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시설이래야 연도변의 몇 개의 상점과 아파트가 전부였다.

개성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로 150km 우리일행은 개성시 어귀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평양으로 들어갔다. 가끔씩 지나가는 이 북녘의 농촌마을, 아직도 추수가 안된 논과 밭에는 우리네 농촌과 다름이 없었으나 고속도로에 왕래하는 차량은 아주 드물었고, 농촌마을의 농산물 이동수단은 사람의 등짐이나 달구지 또는 가끔씩 보이는 차량이 전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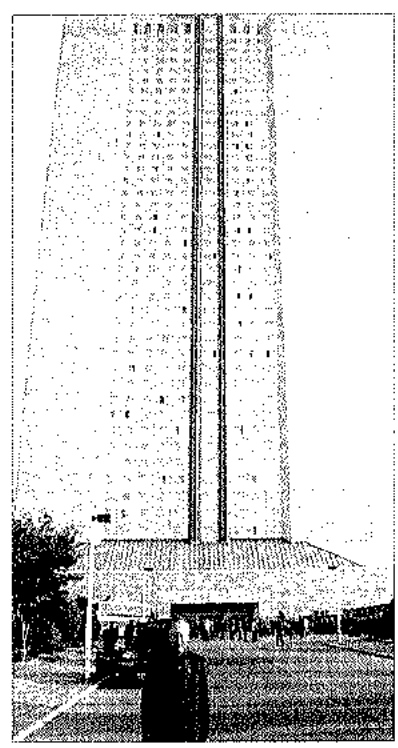
평양지도 - ①번 류경 정주영 체육관, ②번 양각도 호텔, ③번 고려호텔

평양으로 가는 고속도로 중간에 한 곳의 휴게소에서 15분 정도 머물고, 2시간 30분만에 평양에 도착하여 시내를 구경하면서 우리 일행들이 투숙할 호텔로 안내되어 숙소를 배정받고 오후 2시쯤 호텔에서 중식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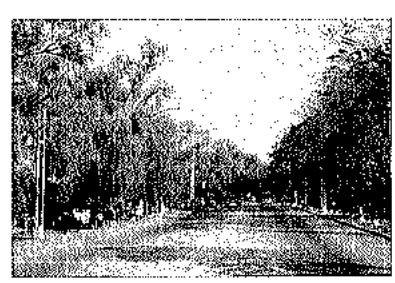
평양시내 모습

호텔은 대동강과 보통강이 합류하는 소뿔같이 생긴 양각도라는 곳에 평양에서 최근에 건설했다는 47층 최신시설의 양각도 호텔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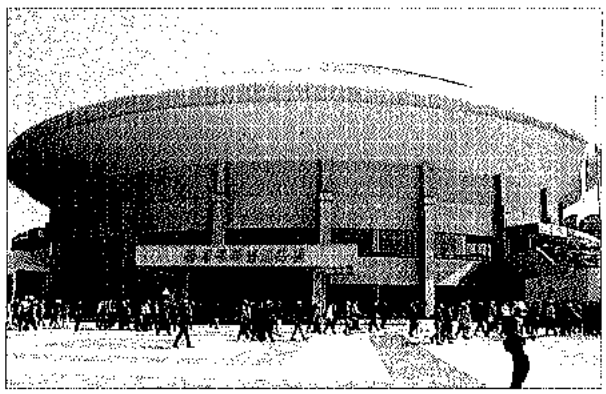
중식과 더불어 일행들이 호텔에 체크인하고 오후 류경 정주영 체육관 개관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1,000여명의 일행이 함께 행사 장소인 류경 정주영 체육관 행사장에 도착하여 보통강변에 자리한 류경의 뜻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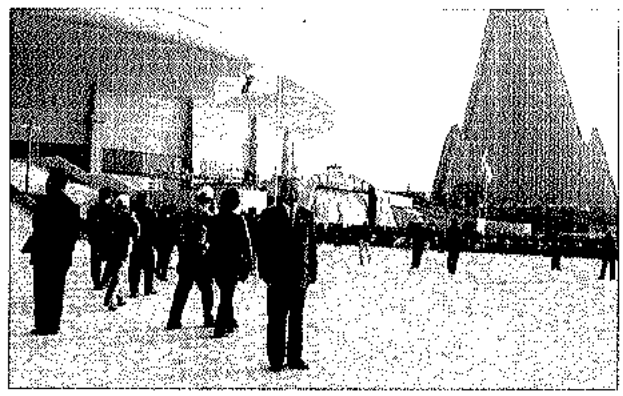
양각도 호텔



류경거리 수양버들



류경 정주영 체육관 외관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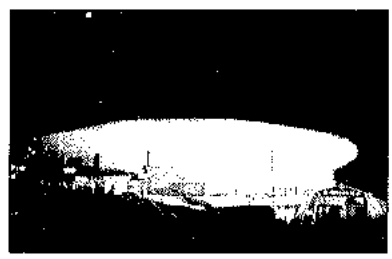


류경 정주영 체육관 개관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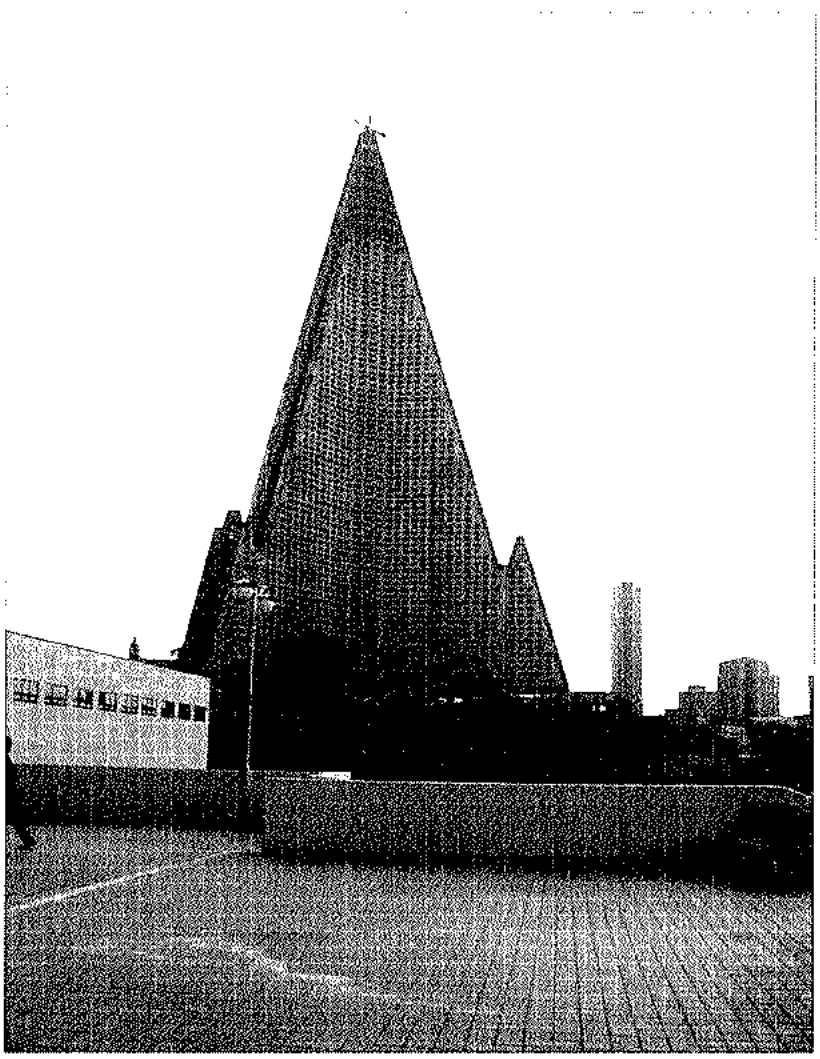
이곳은 보통강변의 수양버들이 유난히도 많고 평양이 조선의 서울이라 하여 류경 이라고 명명하여진 곳이었다.

이북에 105층짜리 호텔을 짓는다고 신문이나 TV에서 한두번 보았던 류경 호텔이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었다.

오후 5시경 류경 체육관 개관행사는 이북의 부총리 일행과 남측의 민화협 상임의장 및 현대 고 정몽헌 일가의 가족과 북측의 많은 참관인민들, 우리일행 1,000명 등 약 3,000명이 성대하게 고 정주영 회장의 깊은 뜻에 의하여 건립 헌납된 체육관 전면 광장에서 남·북한이 함께하는 역사적인 행사로 남측의 SBS가 독점 중계하고 북쪽의 조선 TV에서도 많은 기자들이 나와 취재에 열심이였고 미인들로 구성한 취주악단의 음악 반주에 맞추어 개관 행사를 아주 질서정연하고 엄숙하게 진행하였으며, 이것이 시금석이 되어 남·북이 민간외교 차원에서 많은 왕래가 진전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류경 정주영 체육관 야경



류경호텔

12,000명을 수용하는 현대식 농구전용 체육관은 정말 정주영씨 같은 위인이 아니면 누가 감히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고 정주영 회장의 큰 뜻에 고개 숙여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

오늘 평양의 첫 밤은 인민 문화궁전에서 공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매우 감명 깊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BATRAYAR. Ts
몽골건축사협회 부회장

몽골건축

Mongolia Architecture

몽골 건축의 뿌리는 아득한 옛날에서 찾을 수 있다. 석기, 청동기 그리고 초기 철기시대의 집터와 초기 매장지들은 몽골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으며 이곳에서 발견되는 석상, 암벽화, 무덤 등은 원시미술의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된다. 예를 들어, 기원전 4~3세기에 지어진 네모꼴 방책으로 둘러싸인 무덤들은 몽골 중부 전역에 걸쳐 발견되며, 이 중에는 마얀혼고르 아이막(한국의 도에 해당) 에르데넷소그트 솜(한국의 면에 해당)의 샤카르 줄루(체스 바위), 아라항가이 아이막 바트울지 솜의 테멘 줄루(낙타 바위)에 소재한 무덤군이 있다. 이들은 다양한 고대 건축물로 구성된 하나의 거대한 석조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천년에 걸쳐서 중앙아시아에서 흉노 제국, 돌궐 제국, 위구르 제국, 거란 제국 등 여러 국가가 연이어 건설되었다. 이 시기의 정주지, 요새, 궁궐과 고대 성채 등의 유적은 현재까지 남아 있으며 현재까지 몽골에서 약 200곳이 발견되었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흉노의 귀족들을 위해 지어진 궁궐, 사원과 요새, 그리고 공예품생산소가 흉노국의 도읍에 있었다고 한다(기원전 3세기~기원후 1세기).

케룰렌강 유역에는 테렐지의 도르볼진, 구아 돕(아름다운 언덕), 온도르 돕(높은 언덕) 등 여러 채의 고대 성채가 있다. 이 지역을 발굴한 결과 각각의 성채를 두터운 모래성벽이 둘러싸고 흙으로 된 건물 외벽 위에 석회 반죽을 바르고, 지붕 기와로는 평평한 원반모양으로 압축하여 나비와 물결 문양을 장식한 적벽들을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발릭릭으로도 알려진 오르두 발릭의 도시 유적(현재의 오르혼 하라발가순)은 약 백년간(8~9세기) 위그르 왕국의 도읍이었고, 후에 예니세이 키르기즈에 의해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 도시 유적은 오르혼강 좌안의 라마불교 수도원인 에르데니 주 사원으로부터 25km 서북쪽에 있다. 이곳에 있는 칸의 궁전들은 수로로 둘러싸여 방어 역할을 하는 요새들의 보호를 받았다. 사리탑의 유적이 남아있어 수로 양쪽에 건물들이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1948~1949년 몽고와 구 소련의 공동 역사문화 탐사단에 의한 몽골의 옛 도성 카라코룸의 발굴작업에서 출토된 오고타이칸의 궁전 밑에 묻혀 있던 불교사원의 채색 프레스코 벽화 역시 위구르 건축의 대표적 유물로 여겨진다.

거란제국(10~12세기)의 건축에서는 친톨고이산의 등성이에 있는 하탄호트(왕비의 도시), 그로부터 서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있는 라하부발간순과 다신칠렌 솜의 탈린울란 발가순 즉 불간 아이막의 고대 요새들이 주목을 끌 만하다. 이스테라 아이막의 불간 솜에는 둔첸이라 불리는 거란 도시 바스호트가 있다. 이 곳의 요새 유적은 동서 1600m, 남북 약 1800m에 이른다.

1731년에 몽골을 여행했던 중국인 여행가 군친어는 자신의 견문록에서 바스호트에는 여러 채의 불교사원과 5~7층 사리탑이 있고 벽과 담에는 신상이 그려져 있었다고 적고 있다.

이들 도시의 발흥과 쇠퇴는 일정한 주기로 발전하는 유목건축의 특색을 잘 반영하고 있다.

몽골건축의 역사적 개관

예로부터 몽골족은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 조건에서 유목생활을 하면서 기름진 초지를 찾아 사냥과 목축활동을 영위해 왔다. 몽골인들의 주된 주거형태인 게르(GER)는 터키어와 몽골어를 사용하는 부족들 사이에서 "유르타"로 널리 알려졌으며 마차 위에 덮개를 씌워 유목생활에 적합한 형태였다.

몽골인들은 게르를 "후리" 즉 원형으로 배치하였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도 항상 원형 배치를 유지하였고 원의 중앙은 부족의 연장자의 게르가 차지하였다. 이런 식의 천막 배치는 적의 기습공격을 막는 군사 방어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 원형구조는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그 기능을 유지해 왔고, 후에 전통적 양식의 몽골 도시 기초가 되었다.

여러 채의 유르타가 모여 하나의 홀에일 즉 게르촌을 구성하였는데 페르시아 역사가 라시드 앗 딘의 기록에 의하면 약 1000호의 게르가 하나의 후리를 구성하였다고 한다.

몽골제국사에 관한 여러 문헌은 몽골인들이 일반적으로 마차 위에 지은 대형 게르인 "게르-루그" 또는 "게르-테레그"(게르 마차)를 사용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게르-루그"의 모습은 청동기시대의 암벽화에 자주 나타나며, 50여개의 "게르-루그" 그림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아주 오래 전부터 "게르-루그"가 지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1253년에 몽골을 방문했던 프랑스인 여행가 윌헬름 루브루크(Wilhelm Roubrouc)는 "동방여행기"에서 "그들은 마차 위에 집을 얹고 나뭇가지를 엮어 집의 벽면을 만들었다. 각 벽면은 상부에서 모여 집의 목부분이 된다. 이 위에 흰 펠트를 덮는데 종종 펠트천이 좀더 밝게 빛나도록 석회분이나 골분에 흠뻑 적시기도 한다. 때로는 집의 목부분에 여러 다른 주제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장식된 검은 펠트천을 두르기도 한다. 집의 입구에는 형형색색 밝은 색의 천으로 덩굴, 나무, 새와 동물 모양을 만들어 씌운 펠트천을 걸어둔다"고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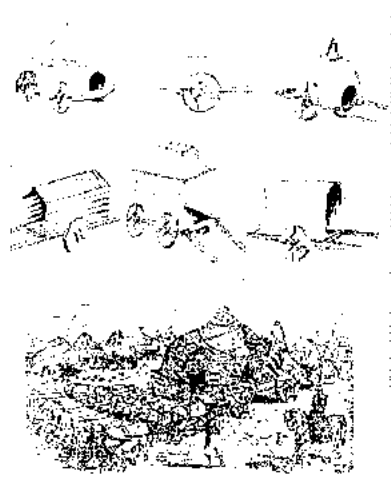
루브루크는 나아가 이러한 주거형태는 대형으로 만들어져 마차의 양 바퀴 사이의 폭이 6m(20피트)나 되었고, 한 대의 게르 마차를 끄는데 22마리의 황소가 동원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카라코룸 유적 발굴에서 출토된 지름이 8~21cm에 이르는 쇠로 된 바퀴 축받이통은 이러한 기록을 뒷받침해준다.

루브루크는 또 다른 종류의 마차 "무흘라그-테레그"를 소개하였다. "무흘라그-테레그"는 문이 달린 네모진 천막을 씌운 마차로 낙타가 끌게 되어 있다. 부유층 부인들 소유의 "무흘라그-테레그"는 특히 각양각색의 장식으로 눈길을 끌었고 부유층 남성은 이러한 마차를 100에서 200대까지 소유했다고 한다. 바투칸에게는 26명의 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마차 겸 유르타 겸 궁전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마차 대열이 멈추어 정지한 때에는 부인들 중 최연장자에게 칸의 궁전 옆에 자신의 유르타를 세울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고, 그 뒤를 다른 부인들이 따랐으며 마지막 줄은 가신들의 차지였다. 루브루크에 따르면 200대의 게르 또는 유르타 마차가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한 도시 전체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한다.

이 마차의 크기와 수송능력으로 볼 때 이동거리뿐 아니라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널 때의 편리성, 안락함과 안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정교한 공학적 지식이 요구된다.

이 같은 유목 부족의 주거형태와 배치형태, 유르타와 마차의 모양과 건조법은 오랜 세월 후세대로 이어져 내려왔고 몽골의 도시건축 방식과 건축 발전에도 영향을 미쳐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을 만큼 몽골 민족문화에 깊이 녹아들어 있다.

옛 문헌을 보면 초원의 귀족, 칸과 노욘(영주)들은 일반 게르 외에도 13세기에 거대한 규모의 게르 본영인 오르드-오르고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 사람 피아노 카르피니(Piano Carpini)는 타미르강안의 오고타이칸의 궁전에서 열린 구유크칸의 즉



유르타-마차

위식에 참석하고 '몽골사'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선홍색 대형 천막이 세워졌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엄청났던지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다. 약 4000명의 사절단이 참석했고... 대형 천막의 주위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목재 방책이 세워졌다... 그 옆에 2000개의 천막이 세워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기록이 이미 로마 도시와 거대한 건축물을 익히 보아왔던 유럽인의 시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피아노 카르피니는 "말모양의 황금못을 박고 금박을 덮은 기둥 위에 대형 천막이 세워져 있었다. 그 천막의 상부와 내부는 차양으로, 외부는 여러 개의 다른 천들로 덮여 있었다"고 기록했다.

이 "황금 궁전"에 관한 기록으로 몽골의 중부와 북부지방에 고정된 정착 궁전들이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게르와 대형 천막은 오랜 시간을 거쳐 살아남은 유목건축의 단순화된 모델로 가장 큰 특색은 조립과 해체가 간단하다는 점이다.

유르타의 꾸밈과 장식도 건축물 그 자체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색의 동물 상징물과 우화적 이미지가 그려진 비단, 능라, 펠트와 가죽이 사용되었다. 덮개에는 아플리케 장식도 붙어있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즐겼다.

게르, 불교사원의 건축 시 이러한 장식을 사용하는 풍습은 20세기 초까지 계속되었다.

몽골제국의 주거형태의 다양성은 위에 말한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몽골건축의 가장 오래된 건축물들에 관한 역사적 자료는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부하다.

경제, 문화, 상거래, 수공예와 야금술의 발전이 절실하게 필요해지면서 다양한 규모와 기능의 정주지들이 생겨나고, 나라가 안정되면서 도시가 발달되고 변방에 요새가 건설되었다. 또한 이처럼 정착민의 수가 늘자 농업도 발달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211년에 알타이 지역 친바이-발가스시에서는 10,000명의 장인들이 공공서비스의 계획과 구축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도시의 계획은 봉건제도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졌다. 몽고 제국의 도읍이었던 카라코룸의 건설로 13세기 뿐 아니라 고대 몽고건축사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불후의 건축물들이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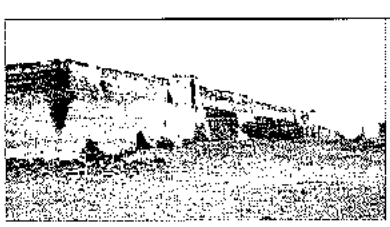
1220년에 칭기스칸은 카라코룸을 도읍으로 정한 후 정복한 국가들에서 많은 장인들을 이곳으로 데려왔다. 제국의 공공, 정치, 사회 및 경제부문의 점진적인 발전에 따라 상점가가 집중적으로 들어서 활기를 띠고 머나먼 변방들로부터 카라코룸으로 이어지는 마차 도로가 건설되었다. 그러나 카라코룸은 오고타이칸의 치세(1228~1241)하에 비로소 명실상부한 도읍으로 성장했다. 실제 목격한 사람들이 남긴 자료에 의하면 카라코룸은 4개의 대문을 가진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대문 사이의 거리는 약 5km로 대문의 주변에서는 여러 종류의 농축산물이 거래되었다고 한다.

카라코룸에는 12곳의 각종 종교사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 1256년 무케칸의 명으로 건설된 5층의 불교사원이 가장 뛰어난 건축물로 꼽힌다. 이 불교사원의 높이는 약 93m이며 폭은 22m이었고 1층 벽감에는 여러 개의 신상들이 모셔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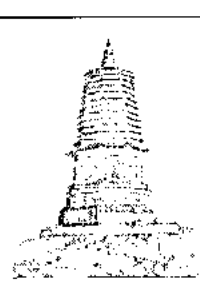
이 모든 건축물들은 칸의 궁전, 군사 및 야금기지, 군 주둔지, 농업지역과 고용인들의 거주지와 공장, 부크하르와 중국물품 교역시장 등과 어우러져 몽골제국의 행정수도로서 하나의 거대한 도시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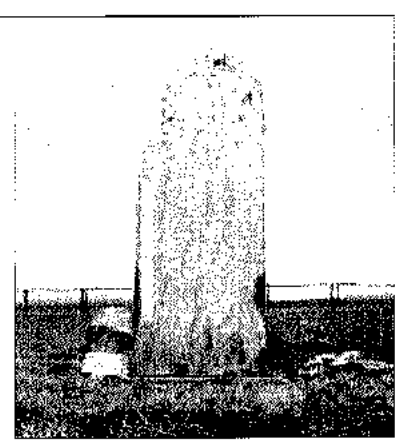
카라코룸은 도시로서 존재했던 148년 중 약 40년간은 몽골제국의 도읍지였으나 명나라의 공격과 몽골의 봉건영주들간의 내분 등으로 수차례의 약탈과 방화를 겪으면서 쇠락해져 약 200년 후에는 아무 것도 없는 폐허로 변해버렸다.

1948~1949년의 발굴조사로 고대 여행가들의 카라코룸에 대한 기록을 대체로 확인할 수 있었고 5m 깊이의 문화층에서 출


초그투-타이치의 백색 궁전

a) 현재의 모습


b) 재현된 모습


아르항가이 아이막의 룬 문자가 새겨진 돌궐비문

토된 유물들로 카라코룸이 두차례의 화재를 겪었음을 알 수 있었다.

쿠빌라이칸이 칸발릭(현재의 베이징)으로 천도하기 훨씬 이전 카라코룸이 번성할 당시 오고타이칸은 5층 불교사원과 다른 대형 건물 외에도 "투멘-바야스갈란" 궁(萬安宮)을 세우라는 명을 내렸다(1235년). 몽골건축의 원형으로 역사적 의미가 큰 이 궁전은 카라코룸의 서남부 강안에 화살촉이 날아가는 거리 만큼의 길이와 1.5m 높이의 규모로 세워졌다. 궁전은 가로 8개, 세로 8개 도합 64개의 기둥이 떠받치는 사각의 2층 건물로 계획되었다. 궁전의 문은 동향으로 완만한 경사의 2단으로 된 천막 지붕에는 중앙의 축에서 드리워진 녹색과 적색 기와가 덮여 있고 조각과 인물상이 장식되어 있었다. 벽과 창은 대형 홀에 채광과 환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 궁전의 공간구성은 유목 게르 구조와 거란족 건축계획의 전통을 따름으로써 대초원의 중심적 개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몽골제국에서 17년간 살았던 베네치아 사람인 마르코 폴로(Marco Polo)는 그의 저서에서 원형의 바퀴를 뜻하는 "만다라" 원칙에 입각한 궁전의 입체적 공간적 구조, 남북의 축과 양측에서 돌아 내려오는 계단 등의 중심개념을 묘사하고 있다.

만안궁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프랑스인 기술자 윌헬름이 만들고 당대의 예술과 기술의 경이적인 결합으로 일컬어지는 은나무 분수가 이목을 끌었다고 전하고 있다. 루브루크의 기록을 그대로 옮기면 "은나무 아래에는 각각 안에 파이프가 내장된 네 마리의 은사자가 있었다. 각 파이프의 말단부는 아래쪽으로 구부러진 황금뱀 머리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다. 뱀 꼬리는 나무 둥치를 휘감고 있다. 네 마리의 뱀의 입으로부터 각각 포도주, 마유주, 꿀, 쌀로 빚은 술이 흘러내렸다. 나무 둥치 아래 네 개의 파이프 사이에는 특제 은잔이 놓여 있었다. 나무 위에는 윌헬름이 만든 천사상이 서있었다."

하나의 파이프가 나무 중앙을 관통해서 천사에까지 이어져 있어 나무 아래 지하 방에 사람을 숨겨두고 명령이 떨어지면 파이프를 강하게 불게 했다. 그러면 천사가 나팔을 입으로 가져가 불어 큰 나팔 소리를 내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지하의 하인들이 마실 것을 부은 뒤 펌프로 마실 것을 끌어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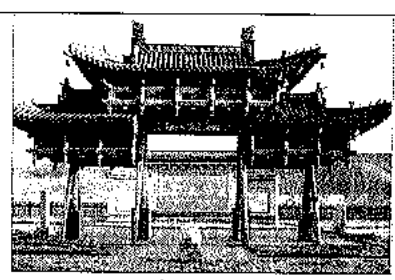
은나무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오고타이칸궁의 재현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자 J. K. 미네르(J. K. Minert)는 이 나무 모양의 분수는 홀의 중앙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네르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며 18세기에 성명미상의 화가가 그린 루브루크 저서의 불어판 삽화의 정확성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삽화가는 책의 내용도 이해하지 못했고 나무가 궁전 안이 아니라 궁전 외부의 입구 앞에 있는 것으로 묘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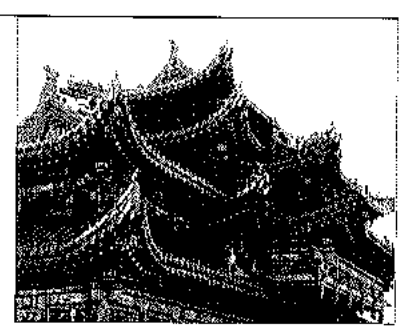
베이징의 구군 황궁에는 춘-헤자니사란 절이 있는데 이 절은 카라코룸의 투멘-암갈란 궁전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다.

역사가 라시드 앗 딘에 따르면 오고타이칸의 아들들과 형제들에게 아름다운 궁전을 지으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이에 따라 건설된 궁전들은 모두 카라코룸에 있는 궁전을 본 따 지어졌음이 분명하다. 더구나 트란스마이칼에 있는 히르히린 언덕 요새와 콘두이 궁전의 유적을 보면 라시드 앗 딘의 기록이 옳음을 알 수 있다.

히르히라강 서안에 있는 이 도시 요새 유적은 가로 100m, 세로 100m의 정사각형에 15m의 기단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유적으로부터 5 베르스타(1 베르스타 = 1.067km) 떨어진 곳에서는 문자가 새겨진 거대한 화강암 돌기둥이 발견되었다. 이 돌기둥은 이른바 칭기스의 돌로 알려져 있는데 칭기스칸이 조카 이순케에게 영지를 하사한 사실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히르히린 궁전이 이순케에게 주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현재 이 돌은 구 소련의 레닌그라드(현재의 페테르스부르그)의 한 암자에 소장되어 있다.

팔각사원


울란바토르의 보그도-게겐 궁전의 개선문


'도우군' 양식

14세기에 건설된 콘두이시는 오고타이칸의 궁전의 건축과 공간배치를 따르되 좀 더 발전된 형태를 띄고 있다.

콘두이 궁은 길다란 기단위에 특이하게 펼쳐진 십자가 형태의 평면을 하고 있으며 2층으로 지어졌고 2층은 1층보다 크기가 작았다. 테라스 가장자리를 따라 붉은 옻칠이 된 목재 방책이 둘러졌으며 궁전의 모습을 새겨 넣은 것이 눈길을 끈다. 아래층 테라스에는 2m 간격으로 용머리 모양의 화강암 조각이 머리를 바깥 방향으로 해서 세워졌다. 이 조각들은 도합 150개가 세워졌으며 그 중 102개는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것이다. 아마도 화강암 용 조각은 궁전을 사악한 기운으로부터 수호해주는 영험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듯 하다. 이 특이한 장식물은 다른 곳에서는 이전에 발견된 적이 없었다.

거란과 중국의 궁전에서는 이러한 건축방식과 상징물이 사용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베이징의 하늘사원과 옛 황궁은 콘두이 궁전의 장식과 유사한 점이 있다. W. 윌릿츠(W. Willets)가 자신의 저서 '중국 예술(The Chinese Art)'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건축방식은 원나라 당시의 건축양식을 따랐을 뿐이라고 한다. 대도(베이징)에 있는 쿠빌라이칸의 궁전은 이 유일한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독창적인 건축 장식기법은 그 유래를 몽골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사실은 여러 예들로 확인할 수 있다.

몽골의 칸들은 나라 곳곳에 여러 채의 정착식 궁전과 "버-오르도"라 불렸던 이동식 궁전을 두었다. 칭기스칸의 거처는 톨라강, 셀렝게강, 하누이강, 이데르강이 만나는 유역에 자리잡았으며 델룬보이독 지역 케룰렌 강변에는 "오르긴 오르도(오르가의 궁전)"가 있었다. 1240년에는 이 곳에서 몽골의 연대기인 '몽골의 거룩한 역사'가 씌어졌다. 칭기스칸 이후 수백년 간 몽골인들은 이 궁전들을 보존하고 아끼며 우러러보고 복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오고타이칸은 계절에 따라 다른 거처에 머물렀다. 칸과 가신들은 1년에 네 번 정해진 노정을 따라 이동을 했는데 봄에는 카라코룸에서 살다 가을은 호누르 행궁, 겨울은 옹 궁전, 여름은 황해나 남부지방의 궁전으로 이동하여 생활하였다.

17세기 몽골인 학자이자 문필가였던 사간-세첸은 자신의 저술에서 쿠빌라이칸 치세시 존재했던 네 수도도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에르추긴 짜간 발가스는 홉스골 아이막의 델게르강(현재의 자그더긴 발가스)의 범람원에 있었으며, 이 곳에서 몽골어와 중국어가 새겨진 뭉케칸 기념비가 발견되었다. 학자들은 뭉케칸의 치세시 루브루크가 방문했던 역사속의 궁전은 에르추긴 발가스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초원의 수도 또는 칸의 이동식 궁전은 원래의 정착식 도시건물과 유목 이동식 건물체계로 굳어져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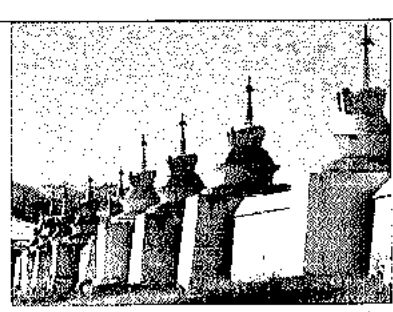
원나라가 망한 후 몽골은 내분에 휩싸였지만 도시와 성곽의 건설은 계속되었다. 16세기에는 톨라강 부근에 아바타이칸의 아들 에르치 메르겐을 위해 지은 궁전이 들어섰고 하누르강변에는 하르흘린의 궁전이 세워졌다. 1500년경에 이르러서는 호-호트(현재의 중국 내몽고의 수도)가 건설되었고 동시에 불간 아이막의 다신칠렌 솜에는 초그투-타이치의 궁전이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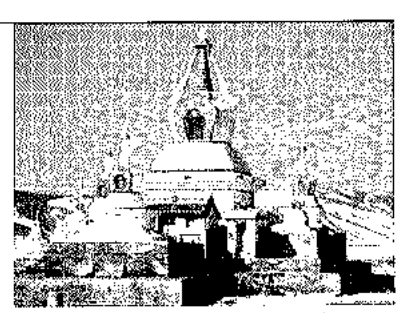
초그투-타이치는 17세기 몽골통일을 위해 분투하던 투사이자 계몽가로 높은 성벽과 요새로 둘러싸인 성을 축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1601~1617). 이 성은 6채의 불교사원과 다른 건물들로 이루어졌고 성벽 하부는 돌로, 상부는 벽돌로 되어 있고 벽돌 슬래브에는 거란 건축물의 특징인 손자국이 찍혀있는 것을 볼 수 있어 부근에 거란시대의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의 유적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보이는 언덕 위에는 불교사원의 축조에 참여한 네 사람의 이름과 이 건물들이 몽골의 장인들에 의해 세워졌음을 밝히는 내용이 새겨진 돌기둥이 있었다.

몽골의 중세도시는 전통적으로 발달해온

우브르항가이 아이막의 에르데니 주 수도원 전경


사리탑으로 이루어진 탑


에르데니 주 사원의 중앙 탑

다양한 기능을 갖춘 건물들이 세워졌는데 그 구조는 유목 이동생활과 정착생활양식을 독창적으로 결합한 형태였다.

몽골건축의 다음 단계는 16세기에 널리 퍼져있던 라마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착건물의 형태로 지어졌다.

게르와 게르형태의 건축

17세기 몽골의 도시와 사원건축은 티벳과 중국의 건축양식이 혼합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몽골건축은 어디까지나 유목 이동 가옥인 게르와 대형 천막에 그 바탕을 두고 있었다.

몽골의 게르는 하나(접을 수 있는 격자벽), 오니(서까래 기둥), 토오노(천창), 하알가(문틀)을 조립·결합하여 펠트와 천을 덮고 동물 털로 만든 로프로 동여매어 만든다. 게르 중 가장 단순한 형태는 일부 순록유목민들이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우르트"나 부리야트족의 "부헤그"로 장대들의 머리 부분을 함께 묶고 끝부분들은 서로 약간 거리를 두고 땅에 세운 다음 외부에서 동물가죽과 펠트를 덮어서 만든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러한 주거형태에 아치형 구조, 벽과 문 등이 추가되어 점차 오늘날의 유르타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오늘날의 몽골의 게르는 거의 변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장대(오니)의 끝부분은 일직선이 되어 끝이 구부러졌던 투르크족의 유르타에 비해 훨씬 보기에 좋을 뿐 아니라 내구력도 뛰어나다.

게르들의 내부는 모두 비슷한데 유르타에서 가장 상석은 문의 정반대 북쪽이며 게르를 세울 때 여기에 제일 먼저 불단(佛壇)을 놓는다. 문에서 볼 때 왼쪽은 남자 자리, 오른쪽은 여자 자리이다. 벽을 따라 옷장, 상자, 침대와 다른 가재도구가 반원형으로 놓이게 되고, 손님들은 남자 자리에 앉게 된다. 중앙에는 아치형 구조 밑에 화로가 놓이고 그 주변에는 게르의 왼쪽으로는 조리기구, 양동이, 접시와 식기 등이 놓이며, 화로의 오른쪽으로는 마유주가 든 가죽부대, 마구 기타 동물과 관련된 도구가 놓인다. 게르는 원형구조로 되어있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다.

몽골의 게르의 문은 언제나 남쪽으로 내었다. 토오노(천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12달로 된 음력 달력에 따른 시간을 가리켜준다. 예를 들어 정오에는 햇빛이 게르의 북쪽 정중앙에 떨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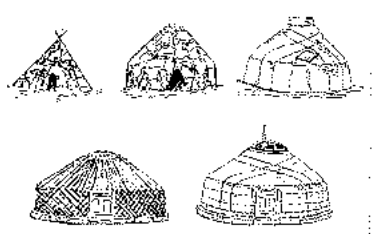
규모가 큰 게르의 경우 둥근 천장을 지탱하기 위해 바가나(추가의 기둥)가 설치된다. 혹독한 추위와 강풍으로부터 게르를 보호하기 위해 차양과 셔터를 천장 위에 얹었고, 눈보라와 비바람으로부터 게르를 보호하기 위해 2중문을 달았으며 가끔 2개의 게르를 서로 연결해서 짓기도 했다. 게르의 이러한 변화는 정착생활의 형태에 맞추어 일어나게 되었다.

다른 종류의 마르한(천막) 틀이나 대형천막은 2개의 기둥과 1개의 대들보 위에 덮개천을 펼친 후 바깥쪽에서 덮개천의 양끝을 쐐기못으로 박은 형태로 지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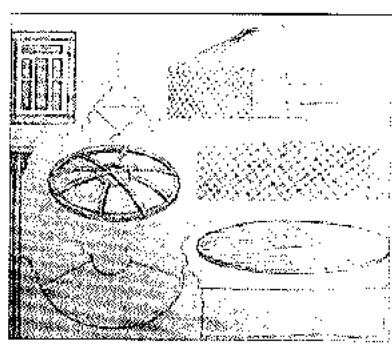
게르와 대형 천막의 독특한 건축양식은 몽골건축의 발전에 주요한 원천으로 작용하였으며, 게르 모양의 건물이 몽골건축의 주된 양식이 되었다.

정착해 살게 되어 게르를 운반하거나 해체하지 않아도 되게 되자 사람들은 특수한 기초위에 게르를 세우거나 보다 복잡한 게르 양식의 건물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또한 들보와 벽돌 같은 다양한 건축재료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형태 역시 원형, 사각형과 다각형 등 보다 다양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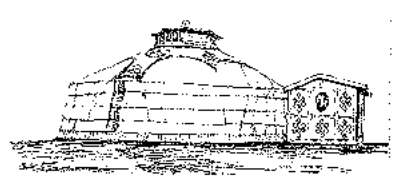
5개의 격자벽으로 구성된 게르의 높이가 2m이고 지름이 4.5m인데 비해 게르 양식의 건물의 지름은 20~25m가 된다. 지붕의 크기도 커져서 보통의 오니(서까래 기둥)와 격자벽으로는 지탱할 수 없게 되어 불교사원과 같은 게르 양식의 대형 건물은 돌로 된 기단과 초석에 세워지게 되었고 건물의 외벽에는 목재 뼈대를 설치하게 되었다. 거



유르타의 변천 모습



유르타의 구성요소



셔터가 설치된 유르타

둥 지지대와 벽 사이에는 한 줄의 기둥 외에 또 한 줄의 좀 더 높은 기둥들을 원주형으로 박아 넣게 되었다. 4개의 중앙 기둥은 사각형 틀에 비스듬하게 기대어 설치되고 지붕 바로 밑에 놓인 대들보에 의해 서로 힘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후에 토오노(천창)가 설치되어 건물의 모습은 마치 끝을 자른 원뿔모양이 되었다.

초기에 게르는 오니(서까래 기둥)와 틀로 구성되었고 여름에는 가벼운 천, 겨울에는 펠트천을 덮은 형태였다. 후에도 이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펠트천은 목재로 교체되어 널빤지로 만든 프레임과 철판이 게르의 덮개재료로 사용되게 되었다. 서까래 기둥을 연결하는 들보에는 회반죽을 바르고 프레임은 벽보다 약간 높게 만들어 햇빛이 들어오는 쪽에는 덧문을 달아 창 역할을 하게 하였다. 목재가 풍부한 산악지방, 특히 우르기에는 이러한 게르 양식의 불교사원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법회 때에는 300~500명의 라마승이 들어갈 수 있었다.

후에 이러한 양식의 건물들은 육각이나 팔각의 피라미드형 사원으로 변화해갔으나 대들보와 기둥 프레임 건축의 원칙과 건축재료는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궁(西宮)이라 불리는 아바타이칸 궁전은 우르기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게르 양식 건물로 알려져 있다.

가장 뛰어난 피라미드형 건축물들로는 우르기의 단딜린 사원, 집회당 마아두간 사원, 우르기의 주드 사원, 점성술사와 한의사들의 사원과 바담 요가부가 있다.

이 외에도 게르와 원뿔 모양의 건물의 평탄한 지붕 위에 아랫 부분보다 크기가 약간 작은 천막 형태의 계단식 단이 세워졌는데, 이로 인해 사원건축의 양식은 보다 다양성을 띄게 되었다.

이 계단식 단들이 600년 후 투메남갈란 궁전의 중심부 설계 아이디어를 낳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건축물에 보다 경쾌하고 장식적인 느낌을 더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나아가 루브루크가 전하는 "황금궁전"과 같은 모양으로 황금덮개를 한 간단사원의 초그친 사당 등 황금덮개를 얹은 불교사원들도 여러 채 있다. 이러한 황금덮개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건축물에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양식이 도입되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우르기의 데친갈바 황금사원과 같은 경내의 팔각 사원 등 한 두개의 계단식 단이 얹혀진 피라미드형 건물은 몽골건축의 두 주요 형식인 게르와 대형 천막 양식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서로의 존재로 인해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바차가안이라 불리는 우르기의 초그친 사원은 대형 천막 모양의 건축물 가운데 가장 정교한 건축물로 꼽힌다. 전설에 의하면 서부 후레를 세운 G. 자나바자르가 1648년 이 사원을 창건했다고 한다. 아마도 사람들이 유목건축에 능했던 그를 고대 여행가들이 말하는 몽골인 장인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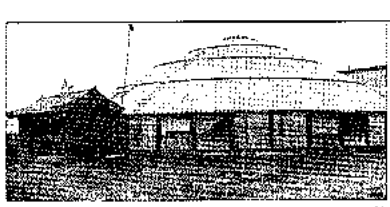
초그친 사원은 법회 때 2000명의 라마승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정사각형(42 × 42m) 건물이다. 건물의 중앙에는 높은 천장을 떠받치는 4개의 큰 기둥이 있고 기둥 뒤에는 12개의 낮은 기둥 위에 기댄 대들보 회랑과 이보다 약간 높은 기둥의 열이 세워져 도합 108개의 열주를 구성하고 있다.

초그친 사원은 기둥과 대들보를 추가하여 보다 넓은 내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세워진 건물들을 일컬어 사람들은 좁디좁은 오니(서까래 기둥)에 광활한 초원 같은 공간을 가진 건물이라 말하였다. 이 건물들의 거대한 규모와 계단식 단은 공고하면서도 장엄한 느낌을 자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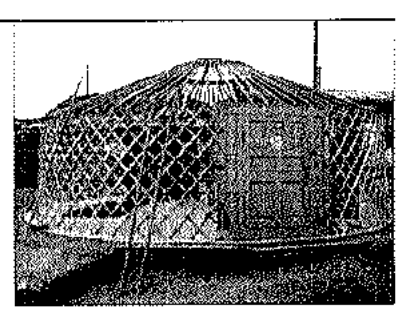
간단사원의 절들은 동일한 설계를 바탕으로 지어졌다.

또한 에르데니 주 사원, 아마르바야갈란트, 한친-완 후레도 이처럼 목재, 석재와 벽돌로 지어진 고전건축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유목민의 게르 양식은 20세기 초에 이르자 동심원적 구성, 특색있는 구조와


유르타 모양의 수도원

유르타를 조립하는 모습


유르타의 뼈대구조

건축술과 다채로운 장식,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표현의 나무세공이 결합된 게르 양식의 몽골건축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고정된 방식의 사원건축에서는 무거운 건축재료(돌, 벽돌과 타일)와 까다로운 새로운 건축법을 사용하였고, 중국의 고전건축, 특히 소용돌이꼴 까치발이 달린 복잡한 지붕양식인 "도우군" 양식에도 영향을 받았다.

건축물의 기둥 머리 장식과 내부 장식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네팔과 티벳 문화가 불교와 함께 몽고에 깊이 침투하여 특히 사원건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에르데니 주 사원, 베리벤 사원, 만주스리 사원, 담바다르자 사원은 티벳 건축양식의 영향이 드러나 있다. 이 건물들은 창문은 거의 없거나 좁으며, 원반모양 구리장식이 리드미컬하게 돌려진 커다란 직선 갈색 테두리의 납작한 지붕이 특징적이다. 티벳건축과 대형 천막 모양이 결합된 건축양식은 라아인 후레, 이흐 후레, 다시-초이호르 사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흐 후레 수도원의 마이더 사원과 온긴골 사원은 티벳건축의 정방형 기단위에 몽골 게르를 세운 통합적인 양식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에르데니 주 사원의 곰보 걸기인 숨과 주우기인 라마 불교 수도원의 세 사원과 초그친 사원은 몽골의 대형 천막 양식의 차양이 상부구조물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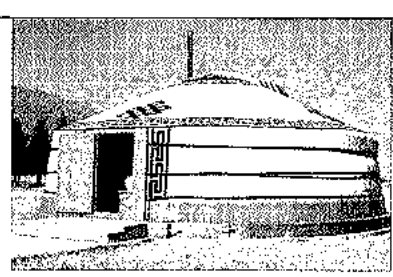
이들 중 가장 뛰어난 건축물은 울란바토르의 메그지드 잔라이세그 사원으로 1912년 성 아리아발상의 조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14m 높이로 건립되었다. 이 사원은 대표적인 티벳 양식 2층 건축물로 2층의 대형 천막 양식 사원건물도 부속되어 있다. 4개의 높은 산과 톨라강 유역 사이에 지어진 이 사원은 매우 잘 만들어진 건축물로 고지에 세워졌기 때문에 울란바토르 전역에서 볼 수 있다. 이 사원의 창건에 관하여는 자브잔담바 8세의 시력회복을 위해 불교 승려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지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나 사실은 몽고민족이 만주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불교사원들 중 마지막으로 건립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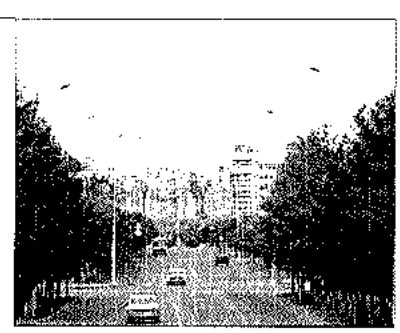
몽골의 사원건축은 무거운 장식이 별로 없어 소박해 보이나 상징성이 풍부하다. 신들의 거소임을 나타낸 황금 간주르와 양편에 영양의 모습이 그려진 시간의 수레바퀴와 같은 상징물들이 주랑과 지붕 위에 놓여지고 건물 지붕의 모서리나 가장자리에는 승리를 나타내는 깃발인 잔트산이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장식물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금박을 입혔으며 건물과 자세히 짜여진 분할에 기초한 상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전체 건축물에 장엄하고 웅장한 맛을 느끼게 하였다.

몽골 사원의 내부에는 불상과 부조가 유리상자로 씌어져 북쪽에 봉안되어 있으며 그 앞에는 불상이 새겨진 램프가 달려 있다. 불전의 기둥 사이로 라마승들의 좌석이 일렬로 배치되고 천장에는 불상, 공물, 보물들의 상징적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적색의 커튼에 황금색의 단순한 모양의 금강저가 뚜렷하게 보인다. 가장자리는 작은 깃발과 다채로운 색의 테로 장식되고 벽은 칸막이 커튼으로 장식되지만 사원 건물에 대한 영구적이고 거대한 장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불교건축의 주된 건축물에는 사리탑이 있다. 몽골 사리탑의 원형은 인도의 사리탑 양식에서 찾을 수 있다. 고대 인도에는 탄생, 깨달음, 첫 번째 가르침과 열반 등 붓다의 생애 중 주요사건을 기념하여 10여 종류의 사리탑이 만들어졌으며 각각의 사리탑에는 고유의 이름이 붙여졌다.

사리탑은 모든 불교국가에서 불법에 따라 세워졌지만 건축양식은 제각각 달랐다. 몽골에서는 사리탑이 불교 성자의 유골과 유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티벳 양식으로 만들어졌다. 사리탑에는 일종의 신성한 대좌인 "센테이"와 보물을 보관하는 범바, 불교교리와 달과 해를 나타내는 13개의 환(環)으로 구성





12번째 주거지역

된 첨탑이 있다. 에르데니 주 사원에 있는 아바타이 사인칸과 투시트-칸 곰보도르자의 사리탑에서는 정방형과 낮은 형태를 주 특징으로 하고 여러 단의 처마장식이 달린 모나지 않은 형태의 처양에서 몽골양식을 찾아볼 수 있다.

10가지 종류의 사리탑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보디 사리탑이다. 사리탑들 중 보디 사리탑은 중앙에 다른 사리탑보다 크게 만든다. 간단 사원의 백색 사리탑과 에르데니 주 사원의 대형 사리탑이 그 좋은 예이다.

아르항가이 지방에는 네팔양식을 연상케하는 칸-우두르인 사리탑이 있다. 낮은 정방형 기단위에는 센테이 대신 두 줄의 환상(環狀)띠 위에 인도의 사리탑과 유사한 형태의 반구형 범바에 놓여 있고, 불교의 교리를 나타내는 13개의 환으로 이루어진 첨탑이 그 위에 얹혀 있다. 사리탑의 각 측면에는 "나는 모든 것을 본다"라는 생각을 나타내는 사람의 눈이 그려져 있다. 몽골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리탑이 극히 드물었다.

이상과 같이 몽골의 주요 건축물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몽골건축은 수세기에 걸친 건축의 전통과 몽고인 자신의 주거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몽고인들의 주거지는 형태나 실용성의 면에서 몽골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 그리고 유목생활과 정착생활방식의 특수성에 적합하도록 발전되어 왔다. 주거지를 조립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동심원적 구조의 게르 모양 건축은 세계건축사의 한 자리를 당당히 차지하는 독립적인 건축양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몽골건축은 매우 공고하고 적합한 구조와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비록 채광과 난방체계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건축의 독창적 원칙, 단순한 건축재료의 사용 등은 오늘날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다 나은 건축물의 원형이 될 만하다.

도시건축물의 계획에 관하여

몽골의 혹독한 기후를 감안하여 주거지는 서리와 바람은 가려지고 햇볕은 잘 들며,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분기점이며 시야가 모든 방향으로 시원하게 트인 주로 산등성이와 강 유역과 같은 지역에 세워졌다.

인민혁명 이전의 몽골의 도시들은 지방의 행정중심과 사원건물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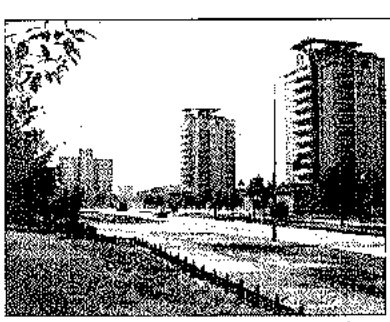
후에는 이러한 구분은 사라지고 사원들이 도시의 기능을 떠맡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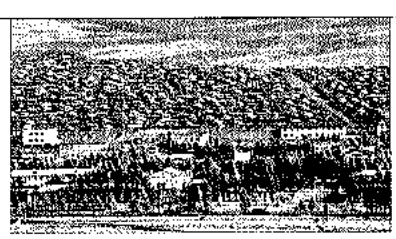
1924년의 자료에 의하면 몽골의 불교사원 수는 750개소, 라마승은 113,000명이었다. 평균적으로 한 곳의 불교사원 집단에 5채의 절이 속해 있음을 감안하면 당시 적어도 4000여채의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몽골의 사원건축은 그 기능에 따라 다른 이름이 붙여졌다. 티벳의 전통을 따라 산등성이나 절벽위에 세워진 건물은 히드(수도원)라 불렸고, 고비와 같이 몽골의 남부 지방에 소재한 건축물들은 중국건축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으며 숨(절)이라 불렸으며, 그 외의 대다수 사원건축은 후레(수도원 집단)라 불렸다.

보그드산 남쪽 비탈의 만주스리-히드, 아르항가이의 불간산등성이의 자이인-히드, 헨테이산의 베리벤-히드, 호그노칸산의 호그노-타미인히드는 험준한 비탈에 티벳양식으로 세워진 수도원의 대표적인 예이며, 건물, 주거지역, 수공예품 상점, 거리와 거래소는 돌로 된 초석의 발판으로부터 위쪽으로 세워졌고, 본절은 절벽 위에 세워져 아래쪽에서 보면 장관을 이루었다.

할하 몽골의 최초의 라마교 사원인 에르데니 주 사원에는 또 다른 건축물이 있다. 이 수도원의 담에는 108개의 사리탑과 4개의 문이 있으며 문은 전통적인 방향인 남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나 있다. 내벽의 배치


'항가이' 호텔


불간시

는 대칭적이며 3개소의 본절은 모든 건축들의 뒤에 자리잡고 있다. 에르데니 주 사원에서는 여러 건축양식이 어울려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라브란 절은 티벳 건축양식을 따라 지어졌고, 초그친은 몽골 전통을 대체로 보존하고 있으며, 다른 건물에서는 중국의 고전건축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아마르바야스갈란트는 몽골의 북부지방 부렌칸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데 수도원 집단으로 1737년에 창건되었다. 이 곳의 건물들 중 초그친절만이 몽골 민족 고유의 형태와 몽골인 특유의 정서에 부합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후 300년 간의 주거와 사원건축의 설계는 전통적인 몽골의 건축양식인 "후레"를 계승하여 널리 사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자이인, 베리벤, 아마르바야갈란트 기타 수도원 집단도 티벳과 중국양식으로 지어졌지만 설계에서는 "후레"의 원칙을 따랐다.

몽골의 모든 행정과 종교의 중심지의 불교건축물 중 톨라강 유역 보그드산 북쪽 기슭에 자리잡은 "노민 이흐 후레"가 가장 유명하다. 그러나 이 도시는 21번이나 그 위치를 이전하였고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현재의 위치에 정착하게 되었다.

후레에서는 건물들이 들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게르 양식의 건물로 이루어져 조립과 해체가 편리했다. 후레는 중앙에는 후 투그타 궁전과 본절들이 들어서고 그 주위를 라마승들의 거처와 다른 건물들이 에워싼 고리 모양으로 계획되었다. 도시의 중앙에는 대형 천막형의 목재 2층 절 샤르 오르돈이 세워졌고 그 앞에는 종교행사를 위한 대형 광장이 들어섰으며,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라마승 공동체의 절들은 해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거의 하나의 완전한 원(圓)모양을 이루었다. 후에 고리모양의 남쪽에 일반 대중의 게르들이 지어졌고 서쪽과 동쪽에는 중국인들이 거래하는 시장이 들어서서 라마승들의 불만을 샀다. 그 결과 1756년에는 이흐 후레는 모든 건물들의 서쪽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새로 이주한 지역에 불교신학을 공부하는 성가대 학교가 들어서면서 오늘의 강단 테그친린 수도원이 창건되었다. 중앙의 건물들 주위로 라마승들의 거처가 들어섰고 본절의 입구에는 이전의 광장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넓은 광장을 그대로 비워두었다.

이 도시는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티(tea) 로드"를 포함한 모든 교역로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어 유럽인들에게는 이 도시의 원래의 몽고명 "오르고"에서 딴 "우르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1924년 우르가는 몽골인민공화국의 수도가 되었고 이름도 울란바토르(붉은 영웅)으로 개칭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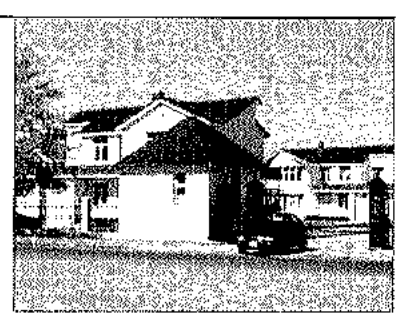
이리하여 몽골인들은 원래의 유목 거주지로부터 출발하여 20세기 초에는 불교사원건축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방식을 따라 도시와 마을의 계획에 있어 후레를 세우게 되었다.

현대도시건축

20세기가 열리면서 사람들은 인류의 발전에 대해 전례 없이 큰 기대를 품게 되었다. 그러나 장구한 역사와 문화를 지닌 몽골은 여전히 중앙아시아의 낙후된 변방국가로서 식민 봉건영주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인민혁명전의 몽골은 세계문명으로부터 고립되어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종교와 문화적으로는 티벳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다.

1921년이 되서야 인민혁명의 성공으로 몽골의 사회, 경제, 경영과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변화는 비단 몽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대륙 전체에 이르는 새로운 현상이었다.



혁명적 변화와 국가 독립, 그리고 인민정부의 연대와 결속 강화라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10월 혁명의 본거지인 소련이 몽골의 든든한 지지자이자 유일한 후원자의 역할을 떠맡았다. 몽골 인민정부는 단계적인 봉건 잔재의 철폐와 새로운 사회건설에 착수하였으나 그 실현 여부는 오로지 물자, 기술과 전문인력을 갖춘 소련의 지원과 지지에 달려 있었다.

독립 후 몽골은 과학, 교육, 예술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럽과 아시아의 국가들과의 관계와 교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 가운데 건축과 도시계획도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잘 지어진 현대도시에 대한 아무런 개념적 기반이나 이를 건설하기 위한 물적 기반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1920년대의 건물 건설은 외국과의 무역협력과 외국 회사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져 이전의 봉건 몽골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양식의 건물들이 건설되었다. 후에는 옛 가옥들을 허물고 극장, 백화점과 음악당이 속속 들어섰고, 독일인 건축가 카벨 마헤르(Kavel Maher)가 설계한 국립인쇄소와 헝가리인 건축가 조세프 겔렛(Joseph Gelet)이 설계한 전력화부와 구 중앙극장이 입주한 건물도 완공되었다.

시내 광장의 북쪽 부분에 세워질 최초의 국립극장은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설계공모에 참가한 설계작품들 중 기둥을 없애고 목재 판지를 연결한 둥근 지붕의 몽골 고유의 게르 모양의 J. 겔렛의 설계가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그는 둥근 천장의 가장자리에는 조그만 둥근 창을 설치하고 반원 모양의 내부 칸막이 좌석들은 양측이 붙은 방식으로 만들고, 계단 2개와 800명의 관중 수용능력을 갖추었으며 사무실로도 사용될 수 있는 곤혼 형태로 설계하였다. 건물에는 수도관과 전기설비가 놓여졌고 이 설계에 따라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나무로 지어진 탓에 화재로 전소되어 버렸다.

1926년에는 몽골 최초의 건설조합이 설립되었고 10년 후에는 국립건설신탁으로 법인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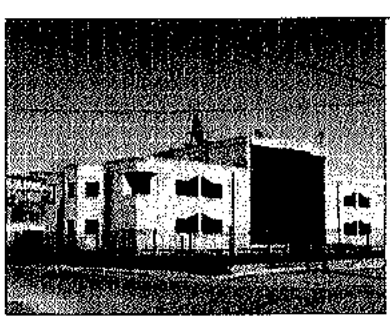
20년대 말에는 기획실, 자동차도로건설국, 벽돌공장 등이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A. A. 징코(A. A. Zinko)의 설계로 지어진 건물들은 독창적이긴 했지만 몽골 고유의 전통적 건축양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립은행건물과 운수수송기지 건물, 중앙방송건물은 자유롭고 비대칭적인 형태로 설계되어 유럽의 구성파 경향이 러시아를 거쳐 멀리 몽골에까지 침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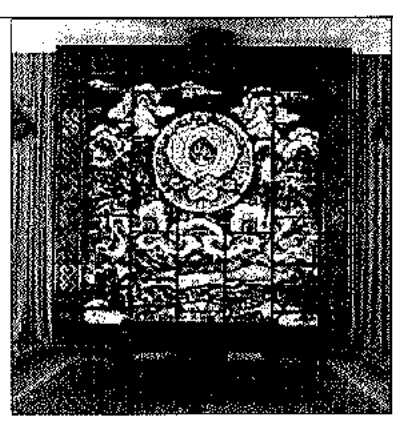
유럽의 고전적인 건축양식은 그 후 한참 지난 뒤인 1930년대에 이르러서야 도입되었다. 외무부 건물, 국립대학 건물과 제 30 정부 청사는 N. M. 체페틸니코프(N. M. Tscheptilnikov)에 의해 설계되었고, 오페라 발레 극장은 게하드 코젤(Gehard Kozel)에 의해 설계되었다. 이 건물들에는 이오니아식의 기둥 머리, 코린트 양식, 기둥, 벽기둥과 고전 건축적 요소들이 널리 사용되었다. 건물들의 엄격한 비례와 분할 형태는 게르와 사원건축의 동방도시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1963년 이래 도시건축은 몽골경제의 독립적인 한 부문이 되었다.

전문적인 조직과 물적 기반이 형성됨에 따라 건축현장에서 수습과 실무를 익힐 전문건축사의 양성이 필요해졌고 후에는 토목기사와 기술자 등 다양한 건축관련 전문직종의 공부를 위해 많은 학생들이 소련으로 유학을 떠났다.

현대 도시건축의 범위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도시의 산업, 행정, 상업적 중심지와 공공 서비스, 문화시설과 공공건물, 녹지가 딸린 주택과 도시의 소지역들을 연결하는 교통노선 등의 증가를 감안한 종합적인 기





획과 조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1953년에는 몽골의 도시건축분야에서는 최초로 M. 모모프(M. Naumov), A. 돗센코(A. Dotsenko), B. 키미드(B. Chimid)와 O. 이나(O. Ina) 등이 참여한 몽골-소비에트 공동 건축가 단체에서 몽골의 극한의 지반과 심층 조건 및 기온의 극심한 일교차, 봄의 세찬 바람과 연중 맑은 날수, 강과 산의 인접도 등 중요한 자연과 기후인자와 도시의 주요 축-위락지구-자이산 언덕을 감안한 수도발전 20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상수도관, 중앙난방, 하수관로, 전기, 무선, 전화망 등을 설치하는데 따르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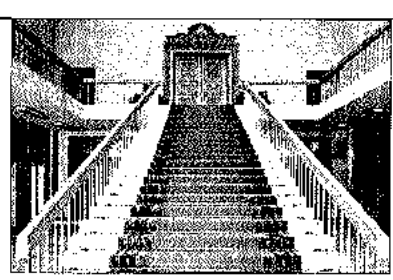
크고 작은 링형 선로, 도시 전역을 연결하는 4개 대로와 복잡한 소지역은 도시계획에서 총괄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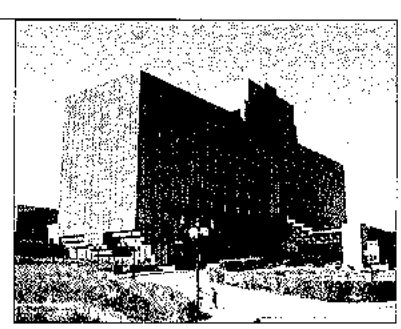
1950년대 후반에 이르자 몽골에서 최초의 토목분야 전문가와 고등교육을 받은 건축가가 배출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들은 몽골건축에 유럽양식을 적용하였고 그 중 B. 키미드는 울란바토르시 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도시건축 설계를 추진하며, 몽골 건축사 연맹을 창설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건축사로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였다. 그가 설계한 수크바타르와 초이발산의 지하납골당, 노조 중앙위원회 건물, 드라마 극장 등을 보면 그가 현대건축기법을 완벽하게 습득한 뛰어난 건축사임을 알 수 있다. 1951년 그가 부인과 공동으로 설계한 "울란바토르" 호텔이 완공되었다. 이 호텔은 그의 건축사로서의 창작 활동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호텔의 설계에 II형을 도입함으로써 몽골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건축과 성공적으로 결합시켰다. 호텔의 입구 계단 위에 가벼운 차양을 잇대어 배치하고 6층의 양끝에서는 6개의 가는 기둥이 가벼운 차양을 지탱하게끔 설계하였다.

그 후 수년간 정부청사 건설이사회 건물, 천문중심, V. I. 레닌 박물관, 친선협회궁전과 통계중심건물, 누트산과 다르한시의 호텔, "빅토리" 영화관 등이 속속 건립되었다. 바양골의 국제 어린이 스키웃 촌의 몽골지구 등은 A. 히시긋(A. Hishigt) G. 루브산도쯔(G. Lubsandorzh), D. 초이질자브(D. Choijiljav), M. 오르길(M.Orgil), M. 군티머(M. Guntumur) 등의 현대 몽골 도시건축의 발전에 기여한 건축가들에 의해 설계되었다. 1970년대 이후 수도 울란바토르, 지방의 중심지, 국영 농장과 마을에서는 수많은 복합건물, 문화중심, 거리와 가옥이 건설되었다. 그 중 과학정보중심, 개척궁전, 청년기술자의 집과 공항은 소비에트 건축가들에 의해 설계되었다. 따라서 이 건물들을 설계할 당시 몽골 고유의 특성을 무시함으로써 이들이 모두 유럽식 건물로 보이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1980년이 되자 울란바토르의 인구는 도시계획 입안자들이 예측했던 23만명보다 훨씬 많은 50만명에 달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할 새로운 도시계획의 필요가 대두되었다. 현재 몽골의 건축사들은 토목기술과학적 수단과 자원을 널리 이용하고 몽골 고유의 민족적 전통에 입각하여 현대 몽골건축의 창조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과 형식을 모색하고 있다.

울란바토르 부근의 산업도시 날라이흐, 바가-누르와 지방의 18개 중심지, 다르한과 에르데넷의 현대도시와 다른 새로운 행정중심지들이 종합적 발전을 위해 독창적이면서도 전통적인 건축에 입각한 새로운 설계를 기다리고 있다. 圃





이 상 역
건설교통부 건축과
by Lee Sang - Yeok

공간이 주는 여유
Spatial Reserve

요즈음 도시 사람들은 집 관리와 단속의 편리함을 선호하다 보니 주거문화가 자연스럽게 아파트 형태를 띠고 있는 주거형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평수는 32평형이다. 아파트 구조를 살펴보면 안방, 화장실, 거실, 조리대, 작은방, 앞뒤 베란다가 전용 25평안에 배치되어 있다. 아파트 내에서는 각 방에서 아무리 멀어도 10발짝 정도면 어느 곳이나 다다를 수 있다. 안방 문을 열자마자 화장실, 거실, 조리대가 있고, 거실을 지나면 작은방과 베란다가 나온다.

농촌의 주거형태는 안채에는 안방, 윗방, 부엌, 마루가 있다. 별채에는 사랑방이 있고, 안채와 별채 사이에는 마당, 마당 옆에는 가축우리, 화장실은 집 밖에 있거나 마당 옆에 위치하고 있다. 사람이 집에서 일을 보기 위해서는 마루나 마당을 거쳐야 하고 하나의 일을 보려면 최소한 몇 분이 걸린다.

사람은 생활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공간의 여유가 있어야 감정이나 정서에 순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 말은 사람과 생활공간 구조의 간격에 따라 마음의 여유와 정서적 표현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농촌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발을 신고 땅을 밟고 가야 한다.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거나 정서가 불안하여 안정되지 않을 때에는 신발을 신고 갔다 오는 과정에서 감정이나 정서가 순화된다. 속담에 '뒷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제게 긴할 때는 다급하게 굴다가, 제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마음이 변하여 처음과 달라짐'을 이르는 말로 풀이하고 있으나, 이는 현대적인 주거공간에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농촌의 주거형태에서나 어울리는 말이다. 즉 방과 화장실이 떨어져 있는 입체적 공간에서 자연적으로 생각할 시간과 공간이 갖다 주는 결과다.

도시의 생활에서 주거공간이 좁아지자 사람들은 감정의 여과 없이 표현이 빨라지고, 거침없어지고, 생각할 시간적 여유 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곧 바로 표현하게 된다. 앉아 있는 자리에서 소리쳐도 온 집안 식구들에게 들리니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고 피해버릴 수도 없다. 감정과 정서의 순화를 거치지 않고 표현되다 보니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만 입힌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소리치면 아이들은 지은 죄도 없이 눈치를 보게 된다. 아이들은 우리가 사랑싸움을 하는지 부부싸움을 하는지를 바로 알아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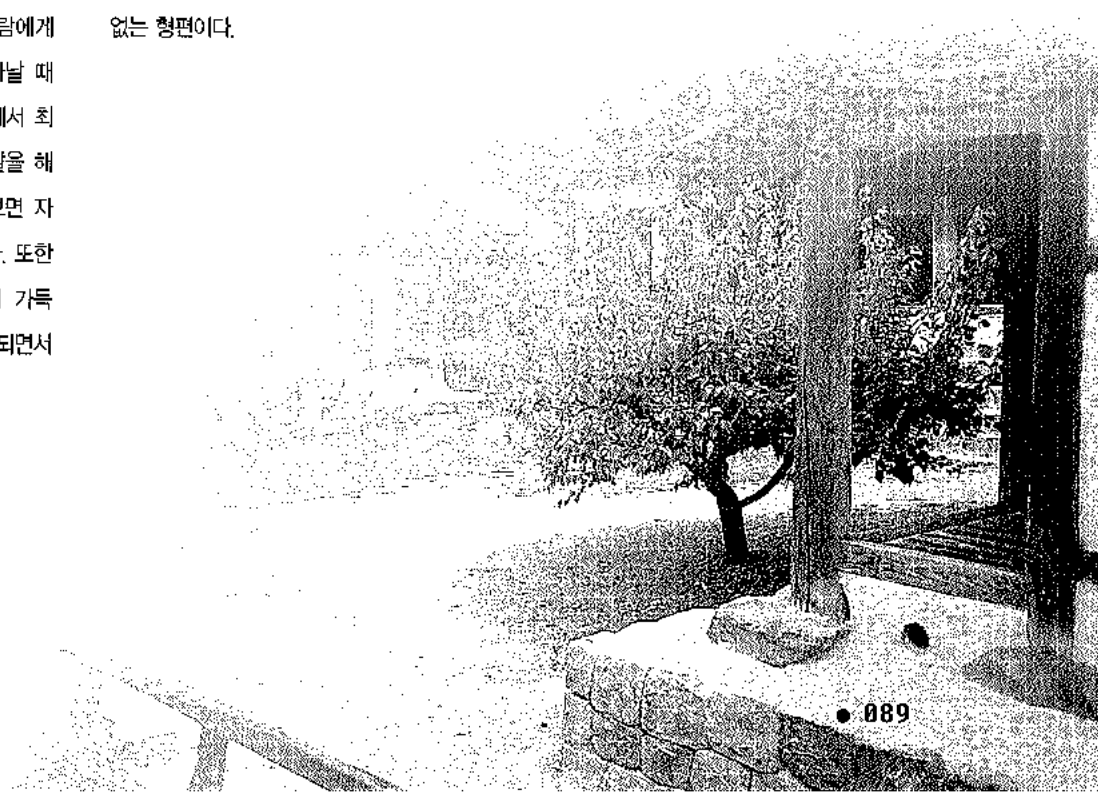
그러나 생활공간이 넓어지면 사람에게 바로 이야기하고 싶어도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최소한 몇 번의 감정을 다스린다. 이 말을 해야 될까 말까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히 감정이 순화된 말이 나오게 된다. 또한 생활공간이 떨어져 있다보니 불만에 가득 찼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안정되면서 때로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냥 잊어버리게도 된다. 농촌에서 살았을 때 부모님이 싸울 때는 무슨 일로 싸우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시간이 흐른 며칠 뒤에야 이웃집이나 형들한테 이야기를 듣고서야 싸운 이유를 알게 되었다.

우리들은 가끔씩 여행이나 친척집을 찾아가게 되는 경우 지리를 물어보게 되는 경우 난감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 낯선 시골길에서 사람을 만나 길을 묻게 되면 '한 10여 분이면 간다.' 아니면 '저 산모롱이만 돌면 된다.' 하는 말을 듣게 된다. 그 말을 듣고 가다보면 10분이 아니라 1시간이 걸리고 저 산모롱이가 한번이 아니라 몇 번의 산모롱이를 돌아야 찾아가는 곳이 나온다. 길을 알려준 사람에게 따질 수도 없고 참으로 기가 차다는 생각과 사고의 괴리에서 오는 난감함에 웃어버릴 수밖에 없다.

농촌의 주거형태가 이상적인 공간구조를 갖고 있다는 주장은 아니다. 사람은 가끔씩 각박한 삶의 활력소를 찾고 싶고, 고단함을 풀어줄 공간이 때로는 그리운 것이 사람의 심정이다. 그러나 현대적 도시의 삶 공간에서는 그러한 곳이 없다. 그러한 공간을 찾으려면 별장을 찾아야 한다. 우리네 수입으로는 별장은 고사하고 농가주택 하나 살 수 없는 형편이다.

매일같이 얼굴 맞대고 사는 것이 좋은가, 어느 정도 공간적으로 떨어진 삶의 공간이 좋은가 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일정한 공간적 거리를 두고 다가가고 싶은 마음으로 정서와 감정의 여유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느긋한 삶이 좋지 않을까?

혼자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공간, 조용히 모든 것과 격리되어 있고 싶어도 이를 허락하지 않는 강제된 삶, 감정을 숨기고 싶어도 억지로 뱉어야 하는 슬픔, 정서를 혼자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싶어도 이를 허락지 않는 애증의 마음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의 공간이 좋다. 固



병산서원

김 영 수
(주)건축국 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Young - Soo

다람살라와 달라이라마

Dharamsala & Dalai Lama

지난 연말연시를 인도에서 보내고 또 맞이하였다. 크리스마스부터 새해 이튿날까지 9일 동안이다. 방콕을 거쳐 델리 까지 15시간 가까이 걸리는 데다, 다람살라에 가는 데는 또 15시간을 버스로 달려야 하는 곳이다.

수행(修行)은 바로 고행(苦行)이라고는 했지만 달라이라마를 만나는 길은 혹독한 시련부터 감내해야만 했다. 델리 관광차 2박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먼지길과 산길을 꼬불꼬불 돌아 제 아무리 달려도 밤늦게서야 도착할 수밖에 없는 도시, 이곳이 바로 인구 2만도 안 되는 인도 북부의 험준한 고산도시 다람살라다. 영국의 식민지 시절부터 경관이 좋은 별장지로 이름난 곳이기도 하다. 영상의 날씨인데도 해발이 우리나라 한라산 꼭대기보다 높아서인지 그 깊고 높은 산 속의 매서운 한기(寒氣) 때문에 전기장판 없이는 도저히 잠을 못 이루는 곳이 이곳 호텔방이다. 힘퀸(Him Queen,히말라야 여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우리 호텔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다. 더운물은 다행히 나왔지만 난방도 없는 데다 전기 불조차 자주 끊어지곤 했다. 식사조차 불편할 정도로 호릿한 조명은 우리의 옛 전쟁 때를 생각케 했다. 이곳이 한국전쟁당시 중국에 티벳을 빼앗기고 도망을 온 망명지라서 아이러니칼하게도 그런 연상이 된 것 같다.

이튿날 하루 종일 이곳 다람살라의 숨가쁜 길들을 오르락내리락 했다. 6천 여명의 망명티벳인들이 모여 사는 맥레오르드 간즈라는 위쪽 산간지역이다. 빽빽이 줄지어 서서 차량과 행인들로 뒤범벅이 된 좁은 상점들을 벗어나면 가끔 지나는 승용차들을 제외하곤 인적이 뜸한 산간 포장길이다. 호국신을 모신 내충사원 주위로 티벳의 망명정부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초라하지만 의사당과 재무부 건물도 보인다. 정교(政敎)일치의 라마국, 바로 티벳의 대승불교가 만들어가는 그들만의 영혼과 사상이 진하게 느껴진다.

산 중간쯤이라고 할까, 다시 한참을 올라가고 돌아가면 다람살라의 정화(精華)인 왕궁과 남갈(Namgyal)사원(일명 왕궁사원)이 나온다. 조그만 광장을 사이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두 건물은 존자 달라이라마가 거처하고 설법하는 곳이다. 라마 불교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동시에 티벳의 망국한을 달래는 구국의 기도처이기도 하다.

사원의 좌측에는 깊은 골짜기 너머로 눈덮인 고산준령이 흐르고 있었고, 우측으로는 골짜기 저 끝으로 넓은 평야와 드높은 하늘이 인상적이었다. 아름드리 히말라야 시다가 빼곡한 산록에는 띄엄띄엄 몇 채의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어쩐지 평화롭고 아늑하다는 생각만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어쩔 수 없는 절박감 같은 것까지 느껴지는 그 어떤 무거움이 깔려 있었다고나 할까.

그렇다고 과소평가만은 아니다. 뉴델리도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올드델리의 혼잡한 인파와 난장판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더러움과 지저분함 같은 것은, 이곳이 인도 속의 또 다른 인도인 것을 실감케 해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에는 붉은 가사의 라마승들이 많은데다가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달라이라마의 특별법회 참석차 더욱 많은 스님들과 외국인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곳 다람살라에서는 또 한가지 특이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곧 돌고 또 돈다는 것이다. 앉아서는 손에 잡고 돌리고, 서서 걸으면서도 원통모양을 줄줄이 돌린다. 탑도 돌고 절도 돌고 성지 주위의 코오라길을 돌고 또 돈다. 코오라에는 흰돌과 육색(六色)의 옴마니반메훔이 이채롭다. 불교의 윤회설 가운데서도 티벳불교의 환생론이 생활의 시작부터 인생의 끝까지 이들의 몸과 마음을 다 가져간 것이다. 이생의 고통은 환생의 불법속에서는 당연한 진리, 그래서 인욕은 오히려 삶의 가치로 다음생의 무한한 기쁨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종교는 과연 우리 인간에게 그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케 하는 것이다.

바로 이곳 다람살라의 신성한 존자 달라이라마, 라마교의 영원한 절대자이자 티벳민족 불멸의 지도자이다. 평화주의와 무저항주의의 신봉자로서 국제, 인권, 환경문제에도 해박한 노벨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또한 불교계가 추앙하는 생불중의 생불이요, 세계가 인정하는 거목중의 거목이다. 큰 키에 듬직한 체구 그리고 뚜렷한 이목구비에서 동양을 뛰어넘는 세계적 이미지를 강렬하게 발산한다. 사원 내외부에서 수천명이 기립합장한 가운데 목례를 받으며, 오른쪽에서 입장하는 존자의 그 환한 모습과 밝은 웃음은 엄숙한 장내의 분위기를 스스럼없이 녹아내리게 할뿐만 아니라, 다시금 3배 예불하는 그의 뒷모습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만트라의 운율 속에 스스로 빠져들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부축을 받으며 수도승의 구부정한 자세로 설법대에 오른 존자 달라이라마, 그가 낭송하는 만트라는 주문(呪文)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음악의 리듬 바로 그것이었다. 매끄러운 구슬이 약간은 튀면서도 재빠르게 굴러가는 듯한 신선한 리듬이다. 몸은 이완되고 마음은 고요해지면서 나의 귀와 머리는 온통 그의 눈과 입으로 바싹 다가가 있었고, 드디어 그의 법문은 시작되었다. 70이(1935년생) 다된 노인답지 않은 쩡쩡한 목소리다. 베이지색의 큰 안경태를 아래로 향할 때는 거울 속의 햇빛이 반사되듯 내 눈동자 앞에서 섬광이 되어 번쩍 한다. 해외설법 때문에 감기중이라 하셨는데 9시부터 점심때까지 피로한 기색 없이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는 얼굴로 그야말로 설법의 달인답다. 상체는 가끔 좌우와 전후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살아있는 법신(法身)불멸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한국의 불교계에서 주선하여 3일간 계속되는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에 대한

왕궁들에서(필자 부부)

왕궁사원 설법대앞에서 금선학회 최병주 회장과 필자(우)

특별법회다. 보리심은 보살행의 실천사상이며 티벳불교의 수행기반이다. 7, 8세기경 인도의 산티테바(Shantideva) 스님의 송경(誦經)이다. 전장 10품으로 된 대승불교의 근본사상이다. 우리의 팔만대장경에도 보리행경으로 나오는 깨달음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달라이라마, 그는 법문중에서도 단하와 미소로 인사하고 웃음으로 대화하고 울음으로 감동을 준다. 중생을 다 깨우치지 못한 뉘우침에서 울고, 중생이 당신의 법문으로 깨우치는 것 같아 즐거워 웃고, 깨우침의 교감을 자비심으로 쓰다듬는 것 같이 미소지으신다.

존자는 또 단상과 단하의 거리감을 없애고 일체가 되고 동화가 되는 상합(相合)의 마력도 갖고 있었다. 스님들도 화가 나면 가사를 걷어 제치고 팔뚝을 내민다면서, 맨살의 팔뚝을 크게 뻗으면서 박장대소 할 때는 온 장내가 웃음바다로 변하고 말았다. 천진하면서도 호소력이 있고 소탈하면서도 설득력이 있기에, 모두들 존자를 존경심으로 다시 한번 우러러 보게되는 것은 정말 아닐까.

법회 마지막 날의 오후, 더구나 한해가 저무는 카렌다의 맨 끝날, 정말 감회가 깊었다. 그러나 이날 왕궁에서 손을 마주잡은 존자의 인자함에서는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불력(佛力)을 담은 조그만 좌불상을 건네주시고 이곳 의식인 흰 실크 목도리까지 손수 목에 둘러 주신다. 몇 일간이지만 언제 보아도 어디서 만나도 존경과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존자, 바로 그 구김살 없는 자비심 속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고 만다. 필자로 하여금 대불(大佛)과 대도(大道)는 역시 정상에서는 하나인게 틀림없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순간이었다.

만나면 결국에는 헤어짐이 그 철리(哲理)이거늘, 대나무와 꽃나무들이 찬 기운 속에서도 아름답게 반겨주는 왕궁뜰, 존자를 뒤로하고 그 길을 내려오는 필자의 가슴은 왠지 한순간 텅 비어 있었다. 불자가 아니면서도 먼 길을 달려와, 보고 듣고 만나본 그 감회와 감동 때문일까. 도교와 불교 그리고 철학과 종교는 순수한 자연인으로 살고 싶은 필자에게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우치고 있는 것일까.

주위는 차가워도 마음만은 따스할 것 같은 저 왕궁 앞의 노파도, 이생과 내생을 머릿속에 그리며 연신 엎드리면서 백 배 천 배를 하고 있다. 순수한 인간의 영혼 속에서는 나와 그 무엇이 다를까? 천진무후한 마음은 아무런 욕심도 없을 때 비워있는 것. 문득 존자의 그 말씀이 생각난다.

"창조주도 없고 나도 없다".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고 내 무엇도 다 비워 버리자는 뜻이 아닐까. "죽는다는 것은 헌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이다. 환생론에 대한 필자의 믿음이 아직 거기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아름다운 새 옷을 입을 만큼 내 헌옷을 어떻게 갈기갈기 헤어지도록 입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의미 있는 각론(覺論)이 아닌가. 그렇다. 항상 깨우치고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 깨우칠 때의 삶은 청량한 것이고, 깨어 있을 때의 생활은 신선한 것이다. 스스로 인간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재음미하며 돌아간다.

또 온 만큼 가야할 이틀간은 갑신년 정초가 된다. 인도와 달라이라마가 생애 최초로 해외에서 새해 아침을 맞게 한 그 의미 또한 예사롭지는 않다. 특히 달라이라마가 필자의 남은 여생에 그 어떤 거울이 될까를 생각해보면서 버스로 달리고 또 비행기로 날아야 한다. 다람살라가 주는 민족의 교훈, 달라이라마가 주는 세계의 각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말이다.

달라이라마(오른쪽에서 다섯번째)와 필자(오른쪽에서 네번째)

협회소식_ kira news

우리 협회 이세훈 회장 FIKA(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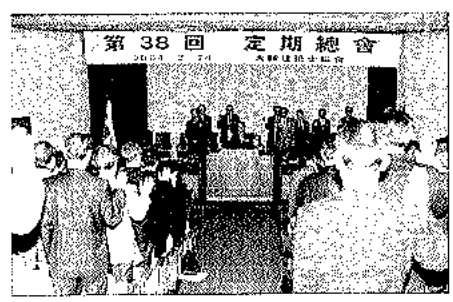
우리 협회 이세훈 회장이 지난 3월 5일(금) 우리 협회와 대한건축학회 및 한국건축가협회로 구성된 FIKA(한국건축단체연합)의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우리 협회 1층 전시장에서 개최된 이날 이 취임식은 건축3단체 전·현직 회장들을 비롯한 건축계의 원로들과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창복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제2대 김진균 FIKA 대표회장의 이임사와 이세훈 FIKA 신임 대표회장의 취임사, 윤석우 공동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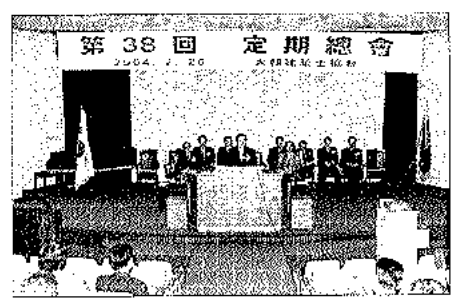
이 날 신임 이세훈 대표회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FIKA를 중심으로 건축3단체의 협력, 공조체제를 한층 공고히 하여 우리 건축인의 국제적 위상제고는 물론 우리나라 건축의 세계화 실현에 다같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세훈 회장은 FIKA(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으로서 1년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FIKA 창립 때부터 현재 활동에 있어서 많은 공헌을 한 황인일 제1대 FIKA 대표회장을 비롯한 이익구(전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정재철(전 대한건축학회 회장), 김진균(현 대한건축학회 회장), 오기수(전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등 5인에게 회장패가 수여됐다.

제38회 정기총회

지난 2월 26일 우리 협회 강당에서 개최, 대의원 368명 참석





우리 협회 제38회 정기총회가 지난달 26일(목) 협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368명의 대의원이 참석, 본 협회 역대 고문들을 비롯한 김진균 대한건축학회장, 윤석우 한국건축가협회장 등 내?외빈이 자리를 함께 하여 오전 10시 개회를 시작으로 최근 협회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졌다. 본 협회 이세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랜 경기침체 속에 건축사사무소 경영이 어려운 이유는 정부가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수립,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법과 제도를 개편한 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전제하며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불법과 부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대응책을 마련하여 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서 김진균 대한건축학회장, 윤석우 한국건축가협회장의 축사와 함께 전회 회의록 승인, 추대회원 추대보고, 주요 업무보고, 감사보고, 부의안건 처리 등의 순서로 회의가 진행됐다.

한편, 부의안건 처리에 들어가기 전 대의원들의 의견제기로 제1호의안 '감사보고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건'이 추가 상정되었으며, 총 8개의 부의안건에 대한 의견처리가 진행됐다.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50분부터 재개한 회의는 상정된 8개의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오후 4시경 회의를 모두 끝마쳤다. 이날 정기총회 부의안건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1호의안 : 감사보고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건

회장은 대의원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사결과를 원만하게 처리, 감사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문서를 취하, 서울건축사회 감사에 대한 징계 요청은 철회

▶ 제 2호의 안 : 2003년도 회관건축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추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 3호의 안 : 2003년도 기금관리운용회계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추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 4호의 안 : 2004년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하되, 기금에 대해서는 (가칭)기금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방안을 연구하기로 함.

▶ 제 5호의 안 :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다만, 회관건립에 따른 건축비가 당초계획(85억원)보다 10%이상 초과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기로 함.

▶ 제 6호의 안 : 윤리규약 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 7호의 안 : 정회원회비 장기미납회원의 징계에 관한 건

정회원 회비를 5년 이상 장기 미납한 회원을 제명하기로 함.

▶ 제 8호의 안 : 임원 개선의 건

이사(7인) : 회장과 고문이 협의하여 선임키로 위임함.

감사(1인) : 강신(부산) 회원

2004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

오는 5월 9일(일)

2004년도 건축사 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이 오는 5월 9일(일)에 시행된다. 시험시간과 장소는 오는 4월 20일(화) 각 시·도 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되며,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3월 22(월)일부터 27일(토)까지 본 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에서 이뤄진다. 합격 예정자 발표는 5월 19(수) 있을 예정이다.

건축 및 건축사 제도개선 간담회

'건축문화 계승을 위한 건축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지난 3월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오후 4시부터 건설교통부 건축과장과 담당관 등 10여명과 우리협회 송수구 부회장외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 및 건축사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건축문화 계승을 위한 건축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1주제는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건축사제도 개선 방향'으로 우리협회 이관영이사는 '새로운 건축환경과 건축Profession(건축사)의 역할'과 건축제도개선을 위한 최선의 권장기준으로 UIA 권장기준을 채택할 것과 등록위원회 설립, 신설기구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적·물적 지원, 시험

간담회 광경

관련 및 신설기구 관련 법규 마련 등 '건축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에서 주제발표 내용은 정부가 건축사자격인증과 관련하여 준비하고 있는 내용과 원칙적인 방향과 기본사항이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건축사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자격갱신 등 건축사자격관리제도에 대해 국가간 상호인증에 대비하여 우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제2주제는 '건축문화 계승을 위한 건축제도 발전방향'으로 우리협회 법제도개선기획단 이종정 위원장은 폭설피해를 비롯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큰 것은 소규모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기준 및 절차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건축신고대상의 지속적 확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건축인허가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하여 토론자들은 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접근은 환경파괴와 국토보존 차원에서 좀 더 좋은 집이 이 땅에 서야 한다는 캠페인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면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 건축문화와 건축물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건축사의 자긍심, 도덕적 재무장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 건축사의 자격 및 실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교육(연수교육), 자격갱신, 등록기준 등의 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교부는 '사전도서검토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폐지시켰던 제도로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

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갖고 있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건축 및 건축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협회와 건설교통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우리협회는 간담회를 정례화하자고 제의하고 건설교통부 건축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본 협회 회관 이전

서초동 동아타워빌딩 2층으로

우리 협회는 회관신축에 따라 이전한다. 이전건물은 주상복합빌딩 19층 건물이며 2호선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 본 협회와 서울건축사회, 서울건축사신협이 함께 사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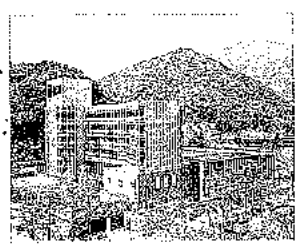
- ▶ 이전일 : 2004. 3. 27~2004. 3. 28 (2일간)
- ▶ 이전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 ▶ 전화번호 : 02)581-5711~4, FAX : 02)586-8823(전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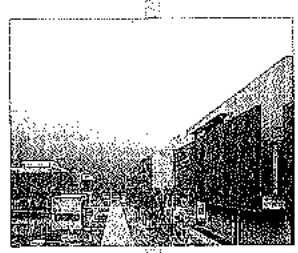
건축가협회, 제46회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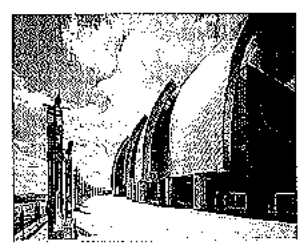
제26회 한국건축가협회상 및 특별상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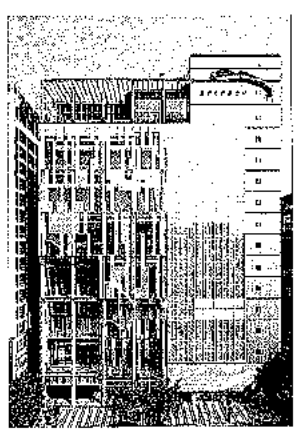
24대 회장에 윤석우(종합건축)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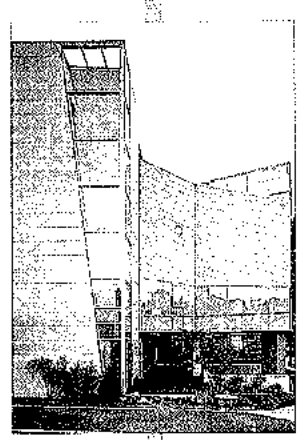
(사)한국건축가협회는 지난 2월 23일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오기수(종합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오)회장 후임으로 윤석우(종합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수석부회장을 제2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수석부회장에는 변용 (원도시건축건축사사무소), 연구부회장에는 박항섭(경원대학교 교수), 사업부회장에는 방철린(인 · 토종합건축사사무소), 국제부회장에는 조성중(일건건축사사무소)씨가 각각 선출됐다. 한편 이 날 있었던 제26회 건축가협회상에는 거제문화예술회관(장석웅/아도무종합건축사사무소), 교원비전센터(조남호+박종수+양원모/솔토건축사사무소), 대구학생문화센터(변용+장응재/원도시건축+권태식/합봉건축), 림스코스모치과(임재용/건축사사무소 O.C.A), 백담사 만해마을(김개천/이도건축), 아트레온(박영건+김준성/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안양천사유치원(이민+손진/이손건축)이 선정됐다. 특별상으로 엄덕문건축상에는 피넘브러(김헌/어사이럼건축), 아천건축상에는 김종영미술관(류재은+한철수/종합건축사사무소 시건축), 초평건축상에는 서상우(국민대 명예교수, 한국박물관건축학회 회장)씨가 각각 선정,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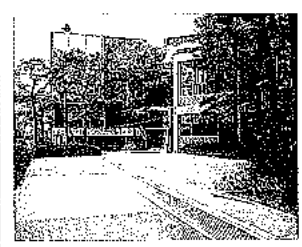

조남호+박종수+양원모 / 교원비전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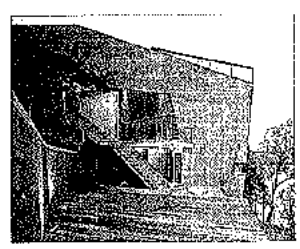

김개천 / 백담사 만해마을


장석웅 / 거제문화예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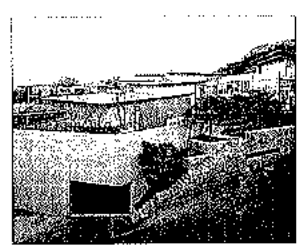

박영건+김준성 / 아트레온


임재용 / 림스 코스모 치과


이민+손진 / 안양 천사유치원


엄덕문건축상 수상작 / 김헌 / 피넘브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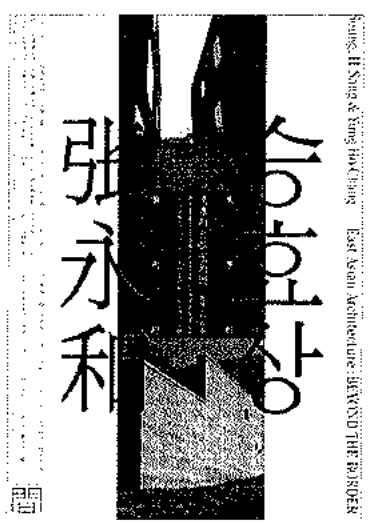
변용+장응재+권태식 / 대구학생문화센터


아천건축상 수상작 / 류재은+한철수 / 김종영 미술관

승효상+張永和, 일본 갤러리 마 초청전시

5월 1일까지 일본 동경 갤러리 마에서

승효상(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회원이 북경의 장영화와 함께 일본 동경의 갤러리 마에서 지난 2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시회를 갖는다. 일본 TOTO주식회사의 문화예술사업의 일환으로 해마다 진행되는 갤러리 마 초청전시는 세계적으로 그 가치와 위상을 인정받는 전시회로 그동안 이토 토요, 다카마츠 신, 안도 타다오 등의 일본 건축가 외에 프랭크 게리, 렌조 피아노, 헬무트 얀, 렘쿨하스, 다니엘 리베스킨트, 베르나르 츄미 등이 개인전을 가졌다. 이번 전시의 코디네이터는 무라마츠 신이 맡았다.



감리협회, 새 회장 최종철 씨

한국건설감리협회는 지난 2월 19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최종철(종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씨를 제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부회장 겸 신임 토목협의회장에 조행래 극동엔지니어링 사장을, 건축협의회장에 김인수 신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를 각각 선출했다.

민건협 2004 봄 강좌

민건협에서는 '모호한 성격의 도시 그리고 재생'을 주제로 봄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오는 3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10강좌로 진행한다. 도시 재생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재개발의 양태를 고찰해 보고, 지워져가는 도시의 흔적을 어떠한 방법으로 재생할지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문의: 민예총 아카데미 02-739-6851

- 3월 27일: 모호한 성격의 장소(Terrain Vague)
- 4월 3일: 도심개발 프로젝트, 재개발 개념의 변화(필라델피아)
- 4월 10일: 역사적 모습과 함께 변화하는 도시(베로나)
- 4월 17일: 건축재생의 지혜(LA의 지역주의 건축)
- 4월 24일: 답사
- 5월 1일: 사막에서 꿈의 공장으로(헐리우드)
- 5월 8일: 장소의 기억을 담는 건축
- 5월 15일: 기억과 재생의 건축(철임)
- 5월 22일: 기억과 장소의 복원(선유도)
- 5월 29일: 기존 도시의 재정비와 건축의 방향

제13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

2004년 4월 30일까지 접수

김태수 건축여행 장학재단에서 해외건축 여행기금으로 미화 $10,000을 수여하는 제13회 김태수 해외 건축 여행 장학제를 개최한다. 젊고 유능한 건축가에게 교육과 해외건축기행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조성된 이 기금은 수령자 본인이 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 목적이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만 35세 미만의 국내에서 건축학위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외국에서 공부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수상자는 포트폴리오 심사후 예선 통과자를 선정하고, 예선 당선자에 한해 여행목적 및 계획을 받아 2차 면접 심사를 거친 후 최종 1명이 선발된다. 2004년 4월 30일까지 접수.

문의: 02-569-1536 www.tskaf.org

한양대 건축대학원 국제건축스튜디오 개최

한양대 건축대학원 국제스튜디오의 제5차 워크숍이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한양대 캠퍼스에서 열린다. 4개국 5개 대학(Ecole d' Architecture de Paris-La Villette/ Politecnico di Milano/ Tsinghwa University/ Universita Fedrico II di Napoli/ Hanyang University)에서 온 10명의 교수와 58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강연회(16일 10시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 답사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스튜디오의 설계 주제는 '도심 속 과거와 현재의 전위공간으로서의 현대미술관'으로 경복궁과 마주한 국군통합병원 대지에 미술관을 계획하고 주변의 북촌과 조화되는 도시계획 모델을 연구하게 된다.

리모델링페어 2004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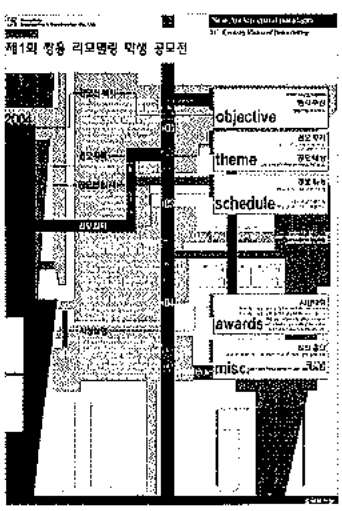
한국경제신문, 코렘시스, CA현대건축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리모델링페어2004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리모델링이 단순한 보수, 공사의 개념을 벗어나 자재에서 디자인, 첨단설비에 이르기까지 종합화된 공간재창조의 의미를 갖게된 만큼, 전시장 구성을 Covering Show?Interior Design Show · Frontier Home & Building Show 등의 3분야로 나누어 진행한다. 이로써 현장에서의 업체간 협력, 구매상담을 지원하여 참가업체가 리모델링 전문기업으로서 관련 산업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2-711-4546

제1회 쌍용 리모델링 학생 공모전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쌍용 리모델링 학생 공모전 요강이 발표되었다.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리모델링은 향후 건설시장에서 신축과 더불어 큰 축을 형성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이번 공모전은 우리나라 미래 건축을 책임질 예비 전문가의 현실 참여 의식 고취와 리모델링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응모자격: 국내 2년제 이상 대학(원) 재학생 (2인 1팀 가능)
- 참가신청: 2004. 3. 22.~31. 오후 5시 인터넷, 우편, 팩스
- 작품접수: 2004. 7. 26.~30. 오후 5시 방문제출
- 당선작발표: 2004. 8. 16.
- 시상식: 2004. 8. 20.
- 문의: 홈페이지 www.ssyapt.com



제7회 강구조 건축물 설계공모전

한국철강협회가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가 후원하는 '제7회 강구조 건축물 설계공모전'의 요강이 발표됐다. '지역성을 고려한 Community Center'를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 환경친화적 소재인 철강재를 이용한 강구조물 건설을 유도하고, 철강재의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참가신청은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이며, 작품 제출기간은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이다.

문의: www.steelcon.or.kr

재미있는 우리집 – 어린이 디자인체험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과 씨알드림이 공동으로 어린이 디자인체험전을 개최한다. 어린이날 전후 40일간으로 4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예술의 전당 디자인미술관에서 '재미있는 우리집'이라는 제목으로 디자인체험 전시물과 워크숍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시기획은 유성자 씨가 맡았으며, 건축가 서혜림 씨가 전시장을 디자인한다.

문의: 02-580-1539

www.designgallery.or.kr

건교부 제정 「설계보수대가기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자료에 반영키로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9일자로,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참고자료로서 건교부 제정 「설계보수대가기준」을 반영하기로 하고 이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도에 통보하였다.

이제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보수 관련 기준으로 사용해오던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참고자료」와 「건설교통부 제정 설계보수대가기준」이 서로 달라 설계보수요율 적용에 혼선을 빚어왔을 뿐 아니라 건축사들로서는 적정한 보수를 청구할 근거가 없어 성실한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이었고, 나아가서는 설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조차 불가능하였던 실정이었다.

이번 조치는, 본 협회와 본 협회 회원사인 (주)한인건축(대표 이관영 , 본 협회이사)이 관계부처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꾸준한 건의와 호소가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문화재 실측설계를 겸하고 있는 (주)한인건축에서는 지자체의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된 설계보수대가기준이 「건설교통부 제정 설계보수대가기준」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성실한 문화재 보존업무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참고자료」에 「건설교통부 제정 설계보수대가기준」을 채택하여 줄 것을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건의해온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건설교통부 제정 설계보수대가기준」을 예산편성지침의 참고자료로서 채택하기로 하였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한편, 그동안 협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6일 기획예산처에 정부예산지침서상의 건축설계용역비도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270, '02. 10. 15)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일선 건축사사무소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기준운용에 따른 혼란이 있으므로 건축사업무대가기준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사실상 협회의 요구가 관철된 셈이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계기로, 설계비의 현실화에 보다 가까이 함으로써, 더욱 성실하게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설계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건축문화창달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소장을 ○○○건축사로 부릅시다

우리 협회에서는 건축사의 위상제고와 상호존중을 위해 현행 000소장으로 통용되던 호칭을 000건축사로 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제고 및 상호존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RCHITECT'S PLAZA

건축마당

현상설계 competition

유성구종합복지센터 100
장안구청 · 구민회관 · 보건소 104
청계천문화회관 106
광주 디자인센터 11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충북지역대학 112

유성구종합복지센터

Yuseonggu Welfar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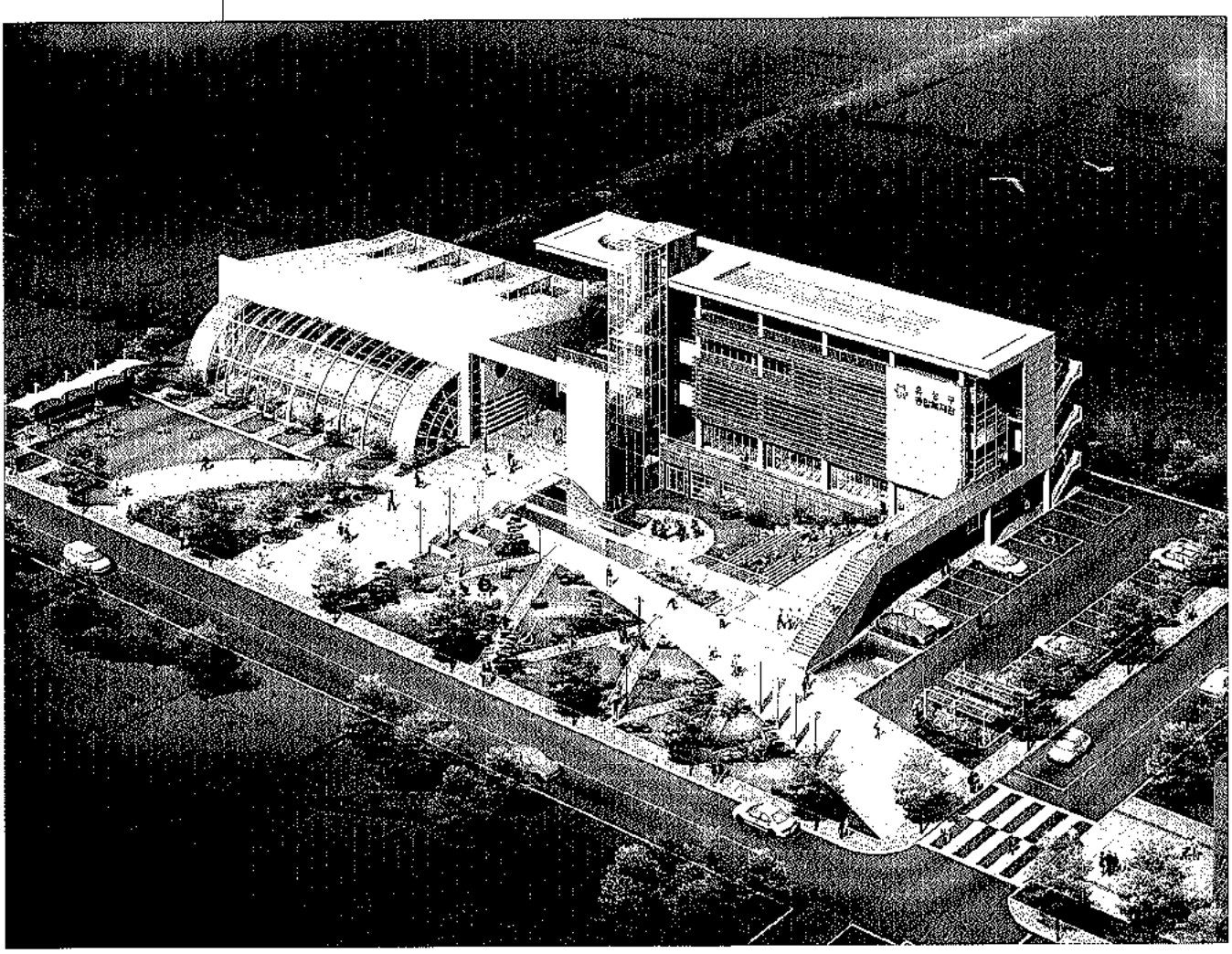
당선작 /(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조도연)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91-4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 개발제한구역
용 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6,129㎡
건축면적	1,662.62㎡
연 면 적	2,973.27㎡
건 폐 율	27.13%
용 적 률	42.14 %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대수	26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수영장)
설 계 팀	김현주, 김수희, 신무경, 유복재, 천승진, 박임호, 임정훈

MOVEMENT & EVENT

건축은 기본적으로 무브먼트와 이벤트와 매스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무브먼트란 보행자와 차량의 모든 움직임 즉, 동선을 의미하며 이벤트란 무브먼트와 무브먼트의 연결점이자 궁극적 지향점인 의미 있는 외부공간을 의미한다. 이벤트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속에 자유롭게 존재하고 매스와 매스사이의 비어 있는 공간을 의미있게 채워주며 건물에 활력과 생동감을 넣어준다.

공공건물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대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주변의 자연을 대지인으로 유입하여 대지 내에 크고 작은 이벤트 공간으로 형태화하여 재미가 있는 공간, 즐거움이 있는 건물로 계획하고자 한다.



CONCEPT – 1 (지역성 – 문화 · 과학 · 온천의 도시....유성)

녹지비율이 높으며 온천과 상업 문화가 발달한 유성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온천이라는 친수 공간을 모티브로 수영장과 수 공간을 하나의 이벤트로 개념화.

CONCEPT – 2 (아이에서 노인까지 – 노인 · 주부 · 청소년 다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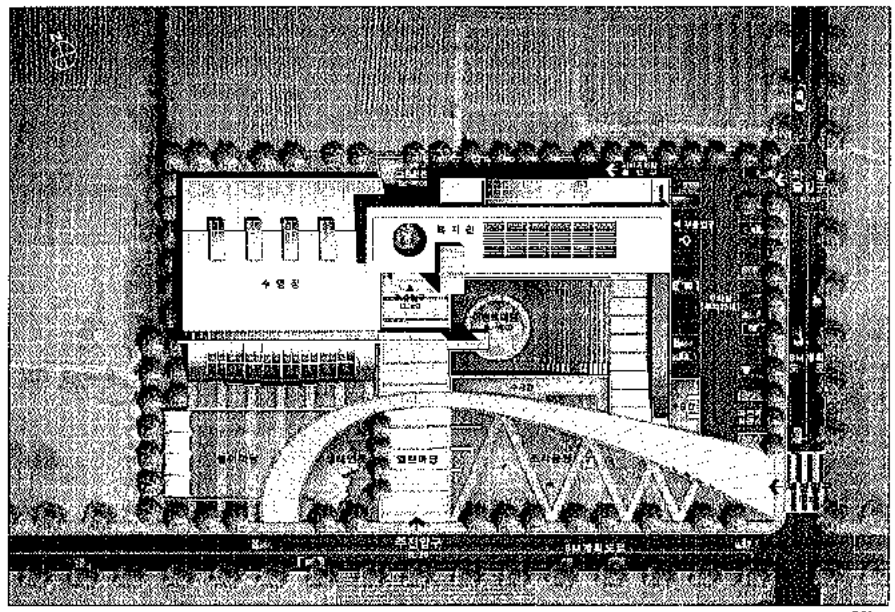
공공시설의 이용대상을 하나의 계층으로 국한하지 않고 청소년에서부터 주부, 노인까지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시설의 이용성을 높이고, 이용자에 따라 층별로 시설을 분리하여 배치함으로써 한 개의 건물에 서로 다른 이용대상층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위해 합리적인 Zoning 유도.

CONCEPT – 3 (하나의 대지에 두개의 매스 – 수영장&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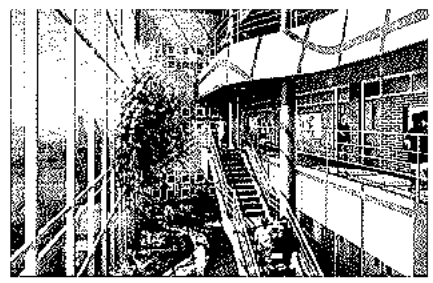
제시된 프로그램은 하나의 대지에 두개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계획하도록 요구되었고, 복지관과 수영장이라는 기능의 차이를 고려하여 정자마당을 사이로 매스를 두개로 분리하여 배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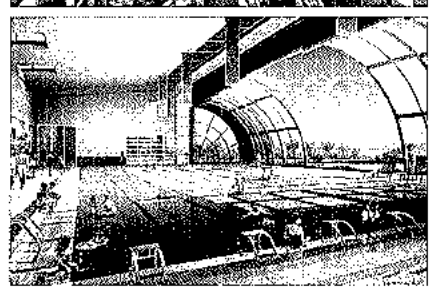
CONCEPT – 4 (초원위의 공공시설 – 녹지속의 공공건물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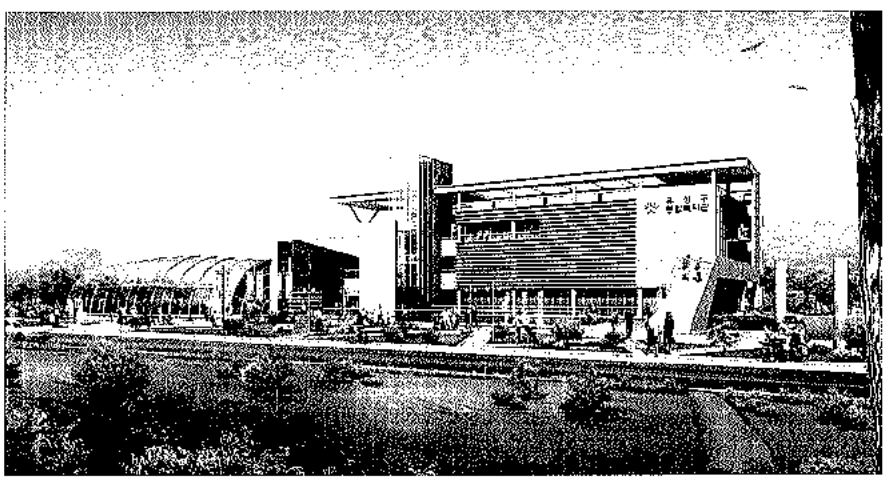
도심속 주거밀집지역내 위치하는 일반적인 공공시설과 달리 본 계획안은 농지조성 지역내에 자연 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지리적특성을 가지고 있어 주변지역으로 양호한 조망을 최대한 살려 지역주민을 위한 외부공간을 극대화하고 녹지공간과 친수공간을 건물 내 · 외부에 연속된 흐름으로 계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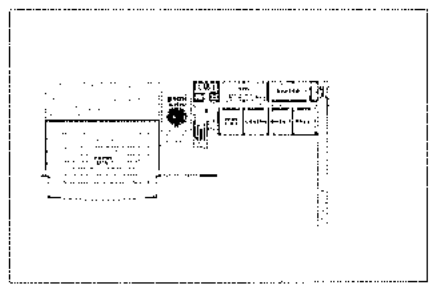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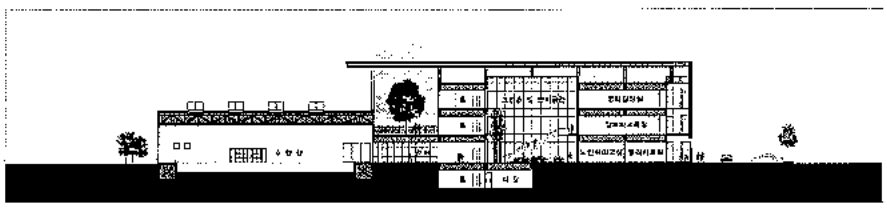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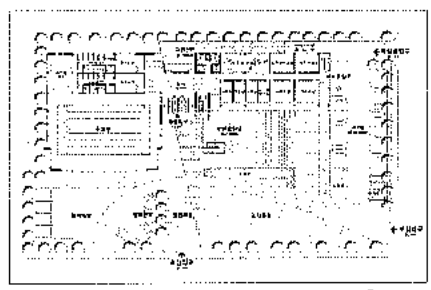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종단면도


1층 평면도

유성구종합복지센터
Yuseonggu Welfare Center

우수작 / 건축사사무소 에이앤엘(서범철 · 김용각)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91-4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용 도 사회복지시설
대지면적 2,975㎡
건축면적 1,004.57㎡
연 면 적 1,998.54㎡
건 폐 율 33.77%
용 적 률 52.97%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주차대수 법정-10대, 계획-11대
외부마감 알루미늄 복합패널, 후동석 버너구이, THK24 복층유리
설 계 팀 김용현, 오기진, 신동훈, 신성철

입지분석

- 유성 구도심 · 노은지구 · 진잠 등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
- 주거와 농지 등이 인접
- 넓은 농지가 근접하여 자연적 환경 제공

대지분석

- 동남향의 장방형 배치
- 북쪽으로 농지, 남쪽으로는 주거지가 위치
- 동쪽으로 8M도로와 동사무소, 서쪽으로 농지가 넓게 위치하여 좋은 전망 제공
- 남쪽과 동쪽에 도로가 있어 진출입이 자유로움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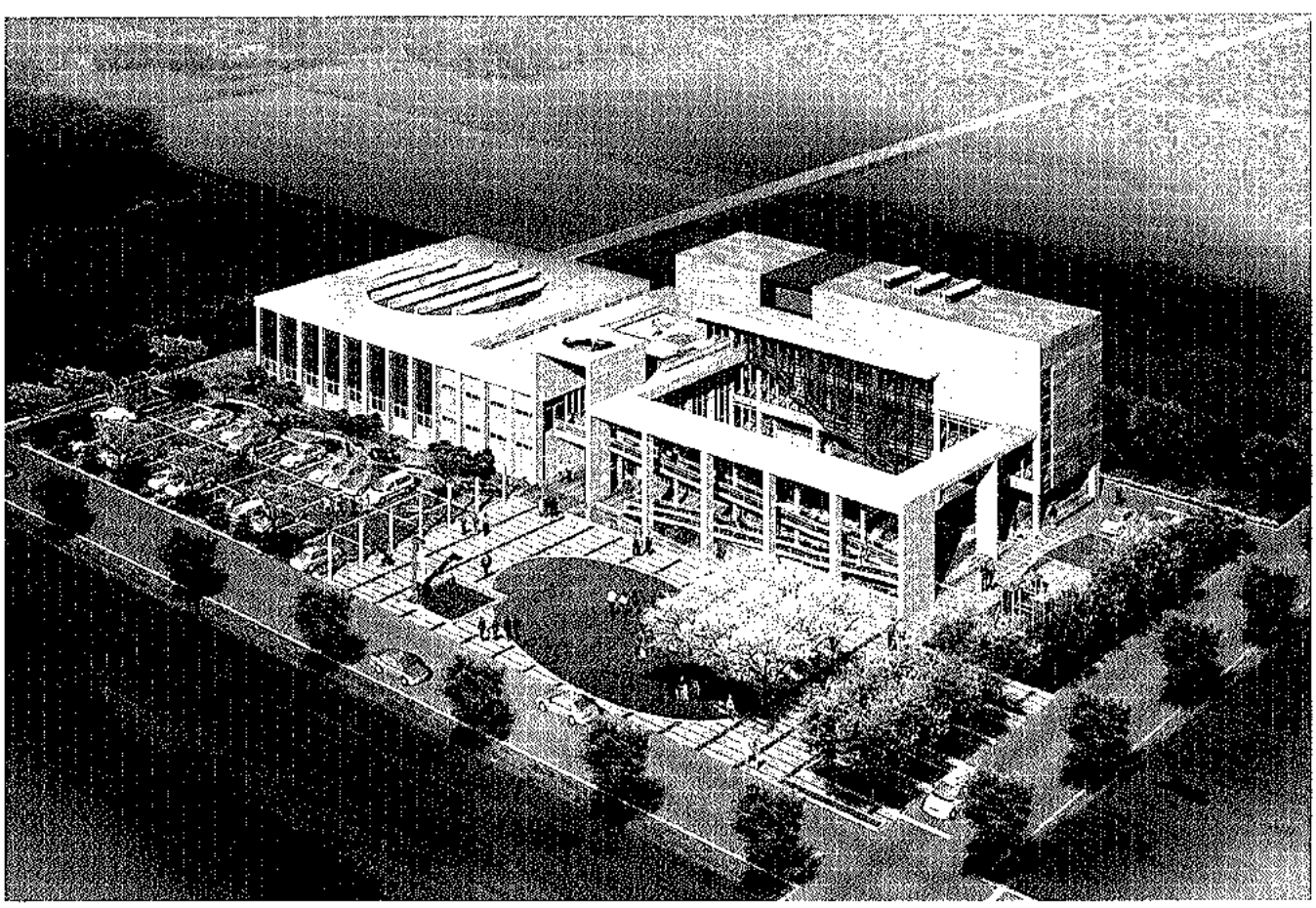
- 가로축에 순응하는 긴 장방형 배치로 자연채광을 적극유입
- 선큰을 이용하여 식당과 옥외공간의 유기적 연계고려
- 남측 녹지축과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부지 서측까지의 산책로 조성
- 도로측에서의 인지를 높이고 보행동선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위한 동선의 개방감 부여

평면계획

- 기본모듈에 충실하여 유기적공간과 시스템공간을 구성
- 층별 활동영역을 분리배출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 가변벽체의 활용으로 인한 다양한 실기능 수용
- 기능적 상호 관계에 따른 유형의 다양화 가능
- 사용공간과 공용공간 그리고 연결공간의 중첩을 통하여 공간의 진화와 기능성을 모두 충족

입면계획

- 수직적인 기둥을 반복, 균일한 리듬감을 통한 통일성을 부여하였으며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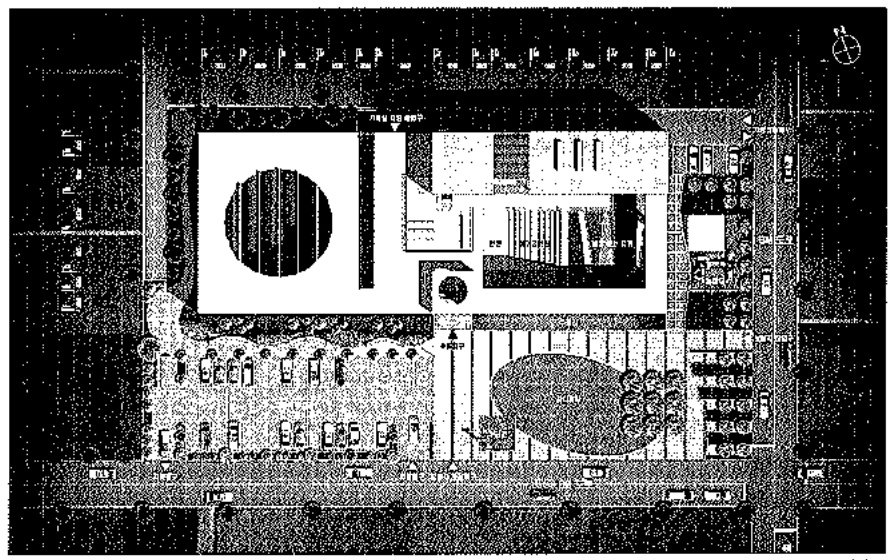


이미지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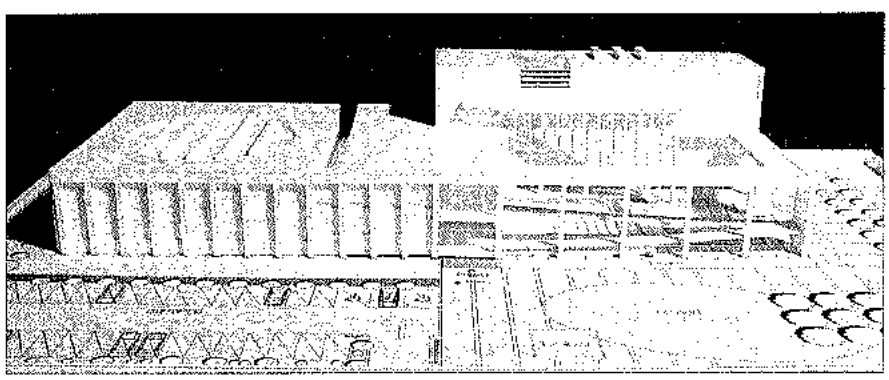
- 단순한 매스(MASS)에 AL복합패널을 사용하여 미래지향적 이미지 창출
- 자연과 조화를 위한 단아하고 간결한 입면을 구성하였으며, 선큰을 통하여 지하식당과 로비에서의 시각적 확장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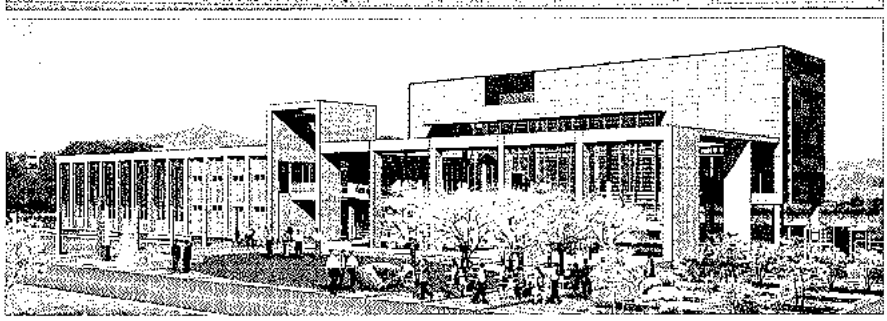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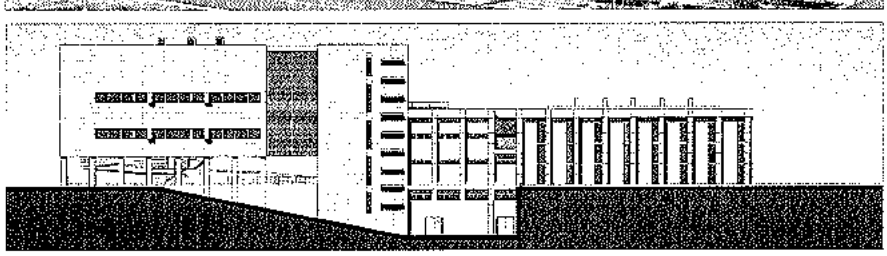
- 보행의 연속성, 시각적 개방감을 위한 필로티 도입(주민 커뮤니티 공간계획)
- 각 실의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층고계획
- 조망, 채광, 환기에 유리한 단면요소 도입(옥상 휴게공간, 루버, 천창, 선큰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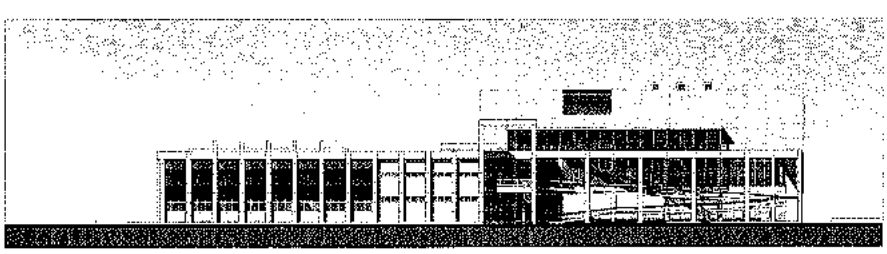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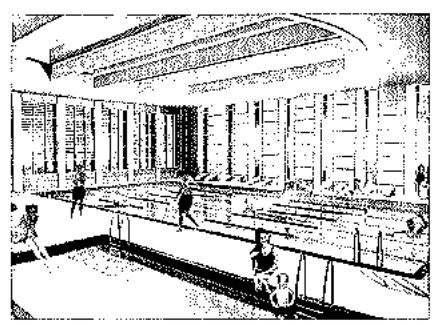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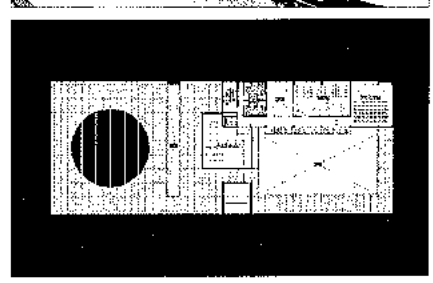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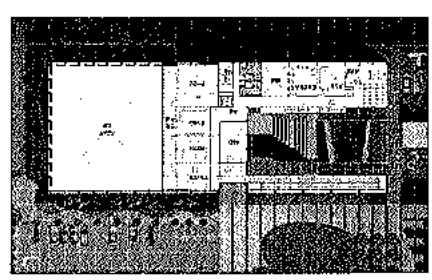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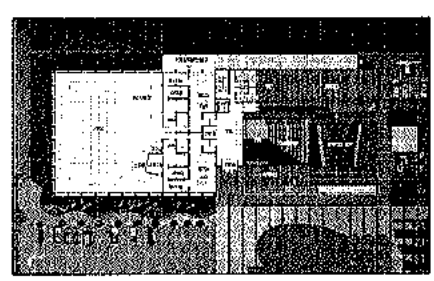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장안구청 · 구민회관 · 보건소

Jang-an-gu Hall · Inhabitants Hall · Public Health Center

당선작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정영균 · 임동건)

대지위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8번지등 3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용 도	공공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31,405.00㎡
건축면적	5,970.22㎡
연 면 적	32,921.69㎡
건 폐 율	19.01%
용 적 률	60.14%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 모	구청사 – 지하1층/지상6층 종합구민회관 – 지하1층/지상5층 보건소 – 지하1층/지상3층
주차대수	지하 306대, 지상 116대
외부마감	THK24 복층유리, AL패널, 석재마감, WOOD SIDING
설 계 팀	김은식, 김종수, 김학건, 윤종호, 최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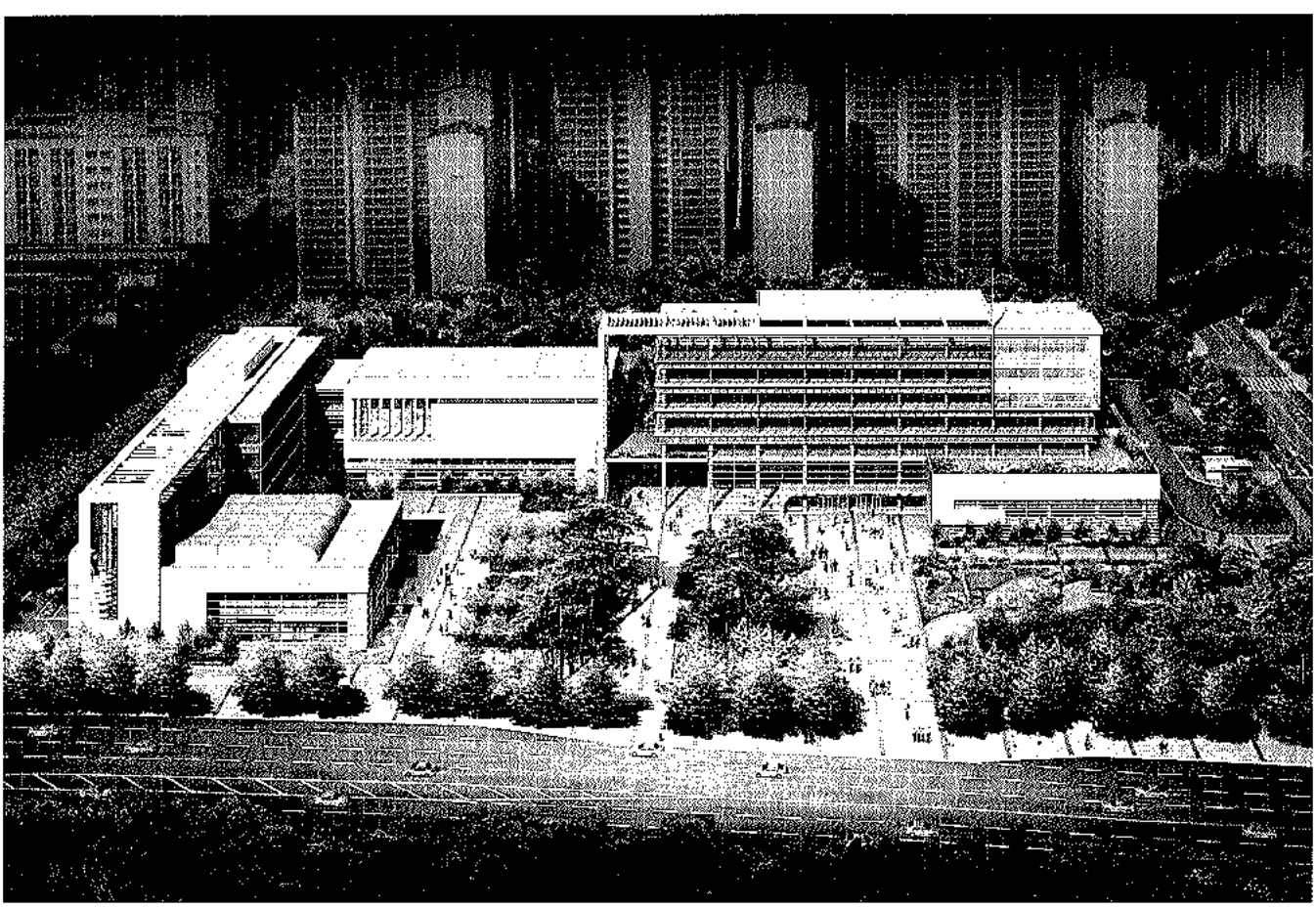
수원시는 전통 및 수려한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계획된 신도시인 화성을 비롯하여 수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하며, 도시의 발생근원이 존재하는 역사적인 도시이다. 또한 대도시가 된 오늘날까지 현대와 조화를 이루는 화성은 4대문을 중심으로 48개 방어시설들이 선형의 배치를 이루는 기본단위 공간 배치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화성의 4대문의 하나이며. 장안구의 상징인 장안문은 석조기단인 홍예문위에 2층의 누각을 올리고, 바깥쪽으로 원형의 옹성을 갖춘 외부로부터 민을 보호하는 형태와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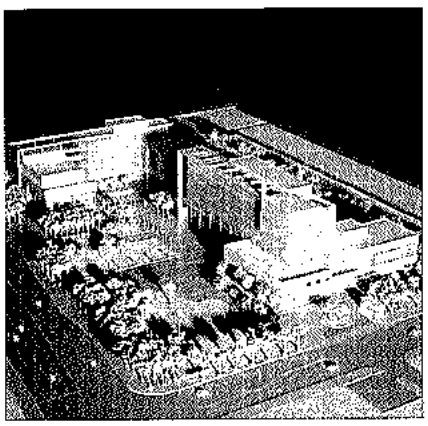
이러한 화성의 선형구조를 배치의 기본구성으로 하고, 석조기단에 얹혀있는 형태인 누각을 현대적인 입면계획에 접목하여 전체적으로 행정과 문화가 공존하는 형태를 본 프로젝트의 기본방향으로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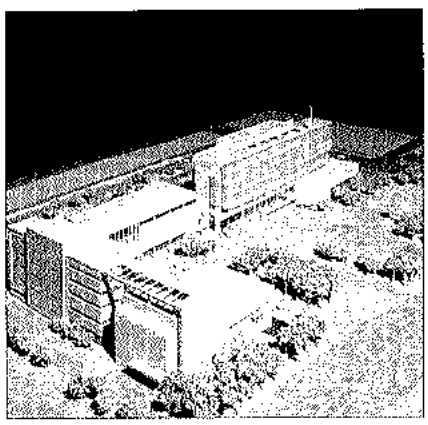
장안구청사는 자치구로서의 발전에 기반이 되는 행정공간과 함께 대화의 장소를 보유함으로서 21c 새로운 수원지역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과 민이 만나 화합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공동의 터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또한 나아가 화성의 옛 역사와 어우러져 수원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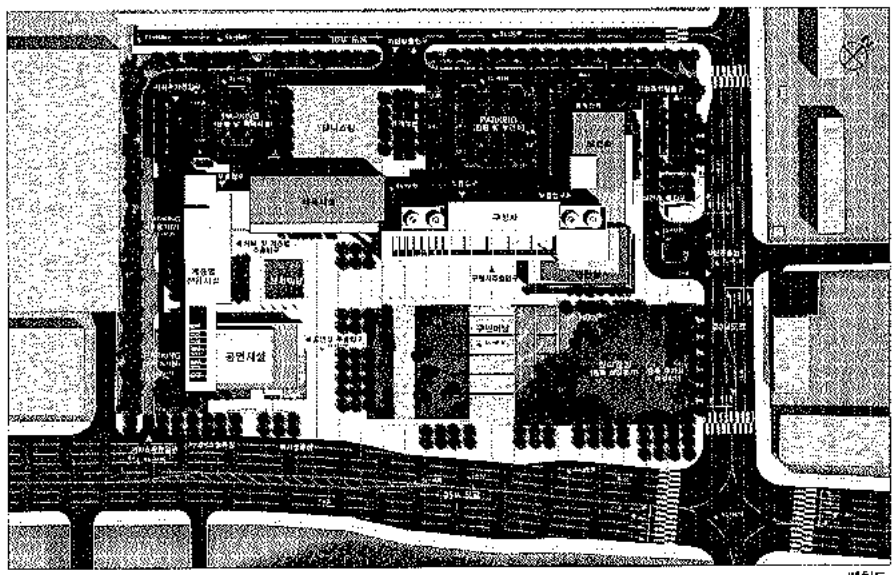
배치계획 :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문화체육 과 행정복지 Zone으로 분리하였으며, 문화체육Zone은 공연시설과 계층별시설, 체육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정복지Zone은 구청사와 보건소로 구성되어져 있다.

대지전면에 가로 130m x 세로 70m의 넓은 전면광장을 계획하여 구민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대지 후면에는 문화 및 체육시설, 구청사 및 보건소 등을 위한 별도의 주차장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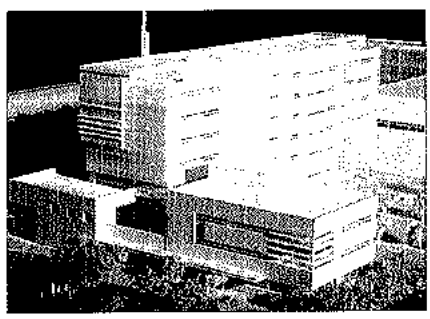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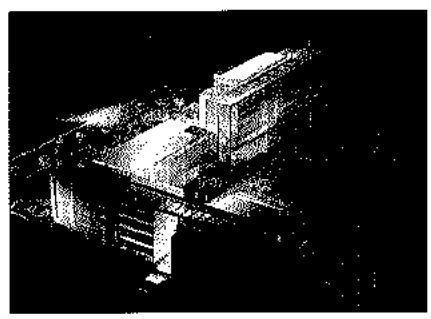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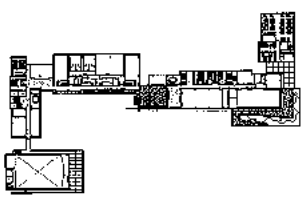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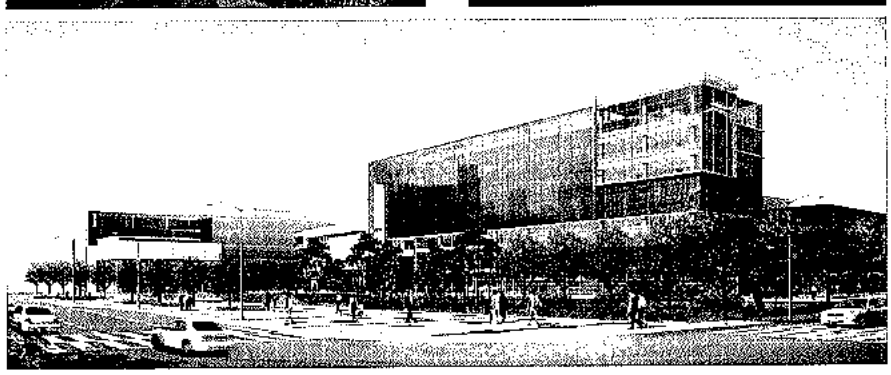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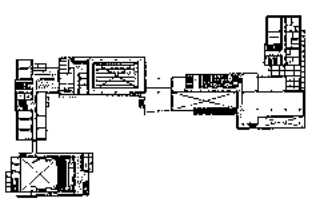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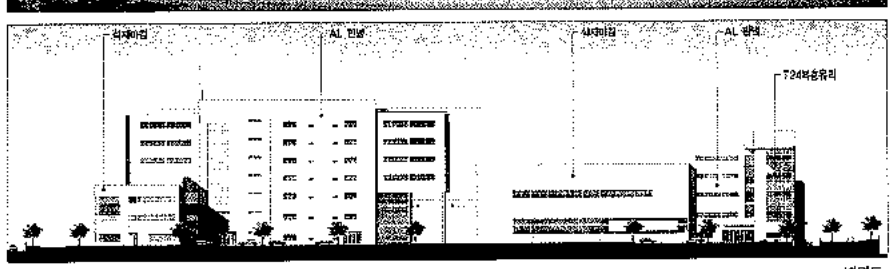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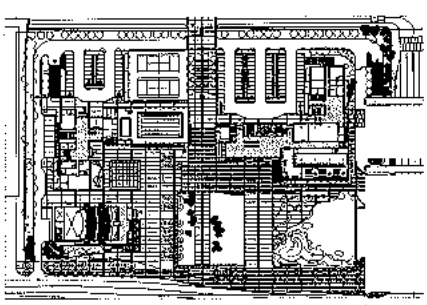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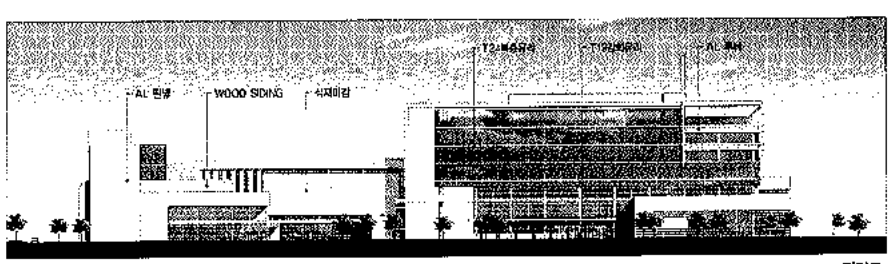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배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청계천문화회관
Cheonggyecheon Cultur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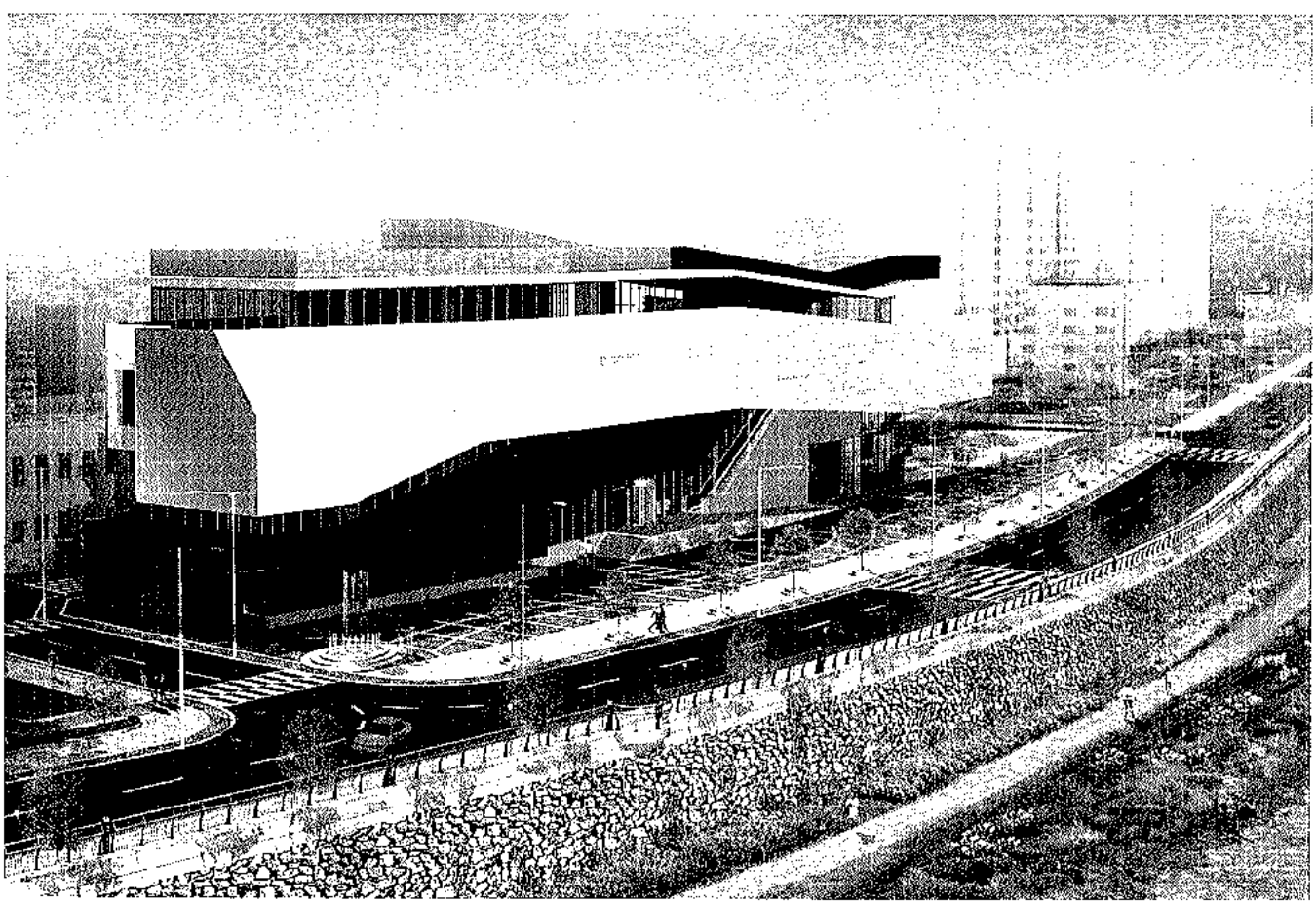
당선작 / (주)정림건축사사무소(박승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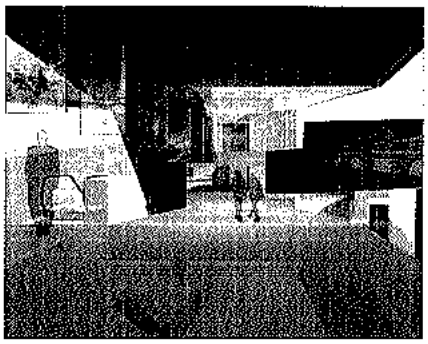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527-4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대지면적	2,037㎡
건축면적	1,020㎡
연 면 적	3,455㎡
건 폐 율	50.43%
용 적 률	118.28%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2층, 지상 4층
주차대수	29대
외부마감	THK24 복층유리, 마천석물길기, 라임스톤, 목재패널/ 알루미늄 패널
설 계 팀	윤백룡, 김연출, 박재범, 이효준, 오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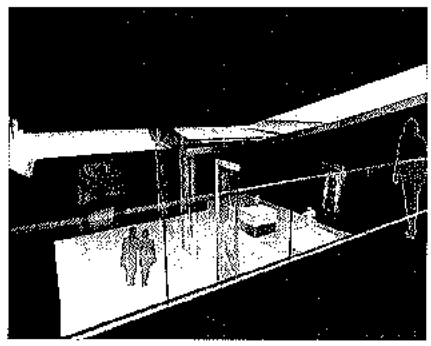
청계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이며, 이 문화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 즉 관람객이다. 관람객의 움직임을 주요 동선으로 하여, 전시를 관람하는 동선을 물 흐르듯 구성하고 그 동선 자체를 전시 공간화 건축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또한 박물관처럼 정적이거나 소위 우아한 분위기 보다는 동적이고 다분히 대중적 성격의 전시공간으로 해석되므로, 경사로를 이용한 흐르는 전시공간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좁고 긴 대지가 갖고 있는 물리적 조건, 전시 / 교육 / 휴식이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청계천 주변을 거닐 불특정 시민, 이 세 가지를 역동적으로 엮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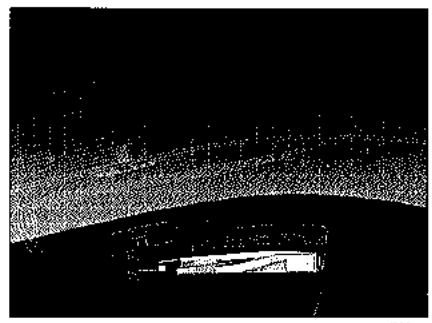
청계천 위에 떠 올려가는 듯한 매스와 외부 전시벽을 보며 접근한 관람객은 펌프로 물을 끌어 올리듯 단숨에 옥외 에스컬레이터와 함께 전망대까지 올라간다. 그 곳은 콘크리트 건물만 볼 수 있던 과거 고가도로 레벨이지만 이제는 푸른 하늘과 맑은 물 그리고 저 멀리 남산을 볼 수 있다.

건물 내부로 들어오면 상설전시가 시작된다. 좁고 긴 전시공간에 경사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구성된 이 곳은 시간을 따라 청계천의 역사와 미래를 읽을 수 있는 'Time Tube'가 되어 흘러간다. 그 속엔 세미나실과 강당의 가변성 및 창을 통해 보이는 또 다른 전시물인 현재의 청계천 풍경 등이 포함된다. 지상층에서 경사진 슬래브를 찢고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한 오브제는 공간을 구획하거나 전시 벽이 되기도 하며 내부공간 속의 외부공간이 되어 상설전시실과 상호작용하는 요소가 된다. 상설전시를 지나면 대나무와 물과 빛이 가득한 아트리움 그리고 1층 진입홀에 다다르게 된다. 이 곳은 독립적인 기획전시실과 면해 있으며 카페로의 접근이 용이한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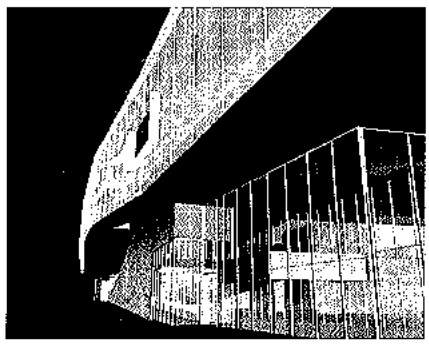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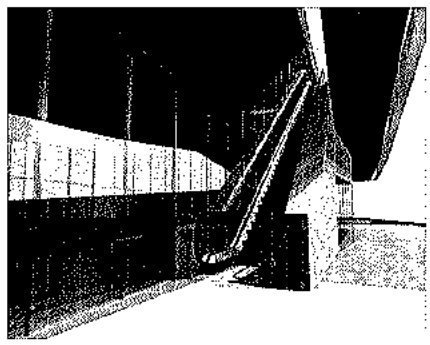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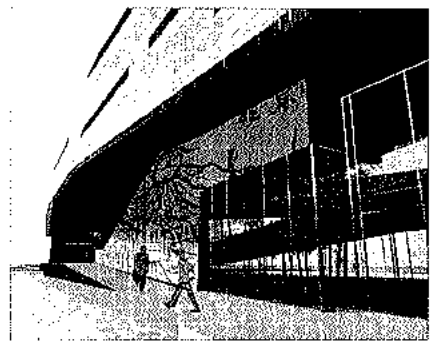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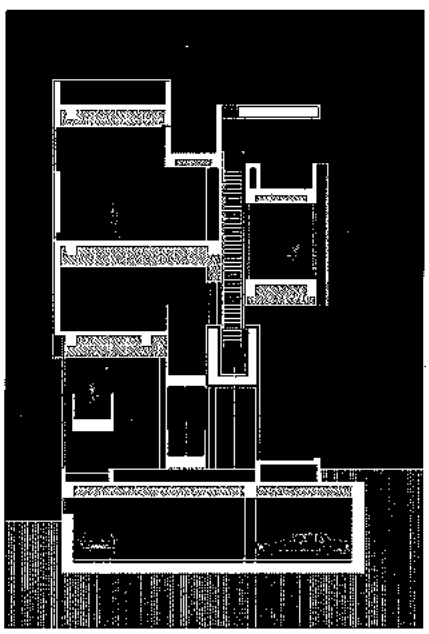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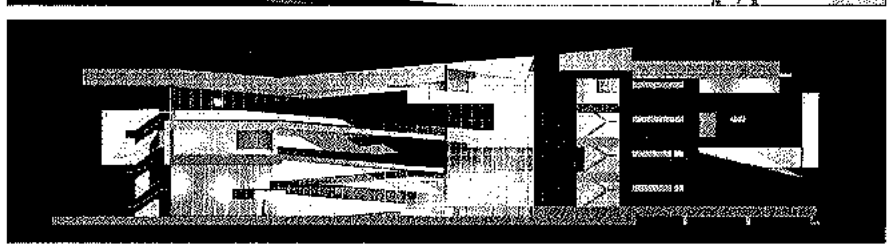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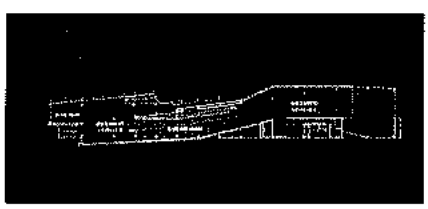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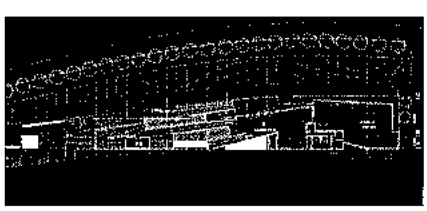
층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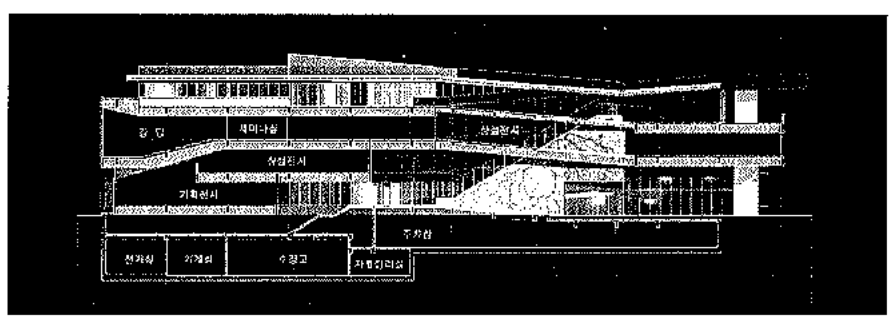
남측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주단면도

청계천문화회관
Cheongcyechcon Cultural Center

참가작 / (주)도시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기범 · 이순석)

대지면적 2,037.60㎡
건축면적 793.82㎡
연 면 적 3,460.18㎡
건 폐 율 38.95%
용 적 률 118.25%
규 모 지하 1층, 지상 6층
구 조 철골 · 철근콘크리트
주차대수 25대
외부마감 라임스톤 / THK24 파스텔복층유리
설 계 팀 조용석, 김현찰, 유상준, 김지훈, 장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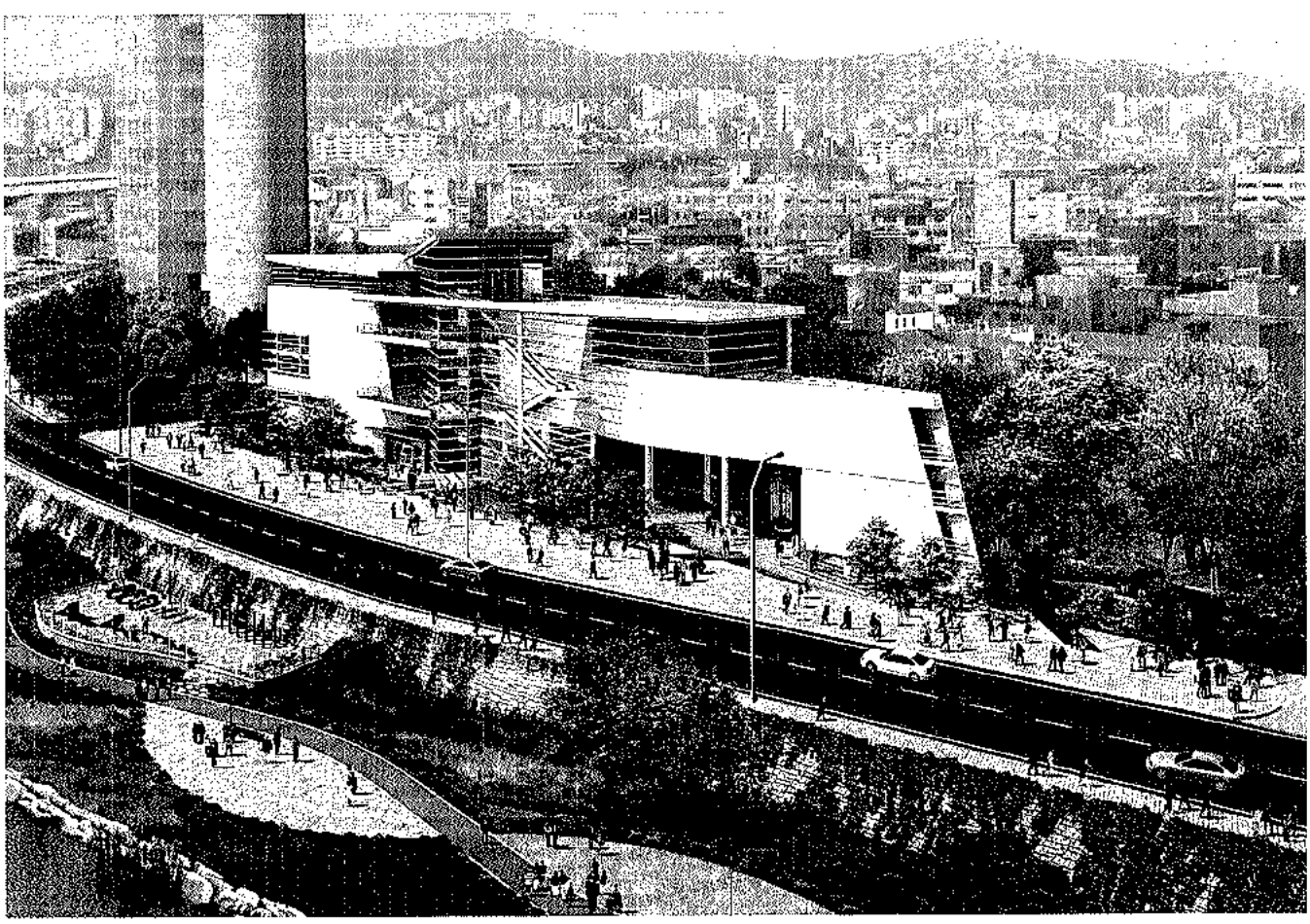
청계천 복원은 서울시 강북의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으로, 도시속의 자연, 자연속의 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역사적 소명이다. 이를 담고자하는 문화관은 주변 도시적 맥락을 수용하면서도 청계천이라는 자연(물 바람 나무 등)의 일부분으로서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와 기능을 찾고자 한다.

청계천 복원공사의 끝자락에 위치한 대지는 그 물길을 거슬러 과거 청계천이 발원되었던 인왕산과 북악의 남쪽 기슭, 남산의 북쪽 기슭을 응시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되살아난 청계'川'이 갖고 있는 역동적인 자연의 모습을 도시빌딩들 사이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조망축(View Axis)이라 칭하고 5층의 상설전시실로부터 시작되어 기획전시 1층 옥외전시로 이어지는 관람자동선과 맞물려 곳곳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청계천은 도심의 수경축(Water Landscape Axis)을 형성한다. 다시금 무교동으로부터 시작되는 청계천은 건물 매스에 사선의 형태로 각인되어 조망축과 함께 청계천이 갖고 있는 역동성을 대지내에서 표현하고자 한다.

좁고 긴 대지의 북측은 청계천에 의한 곡면의 매스와 커튼월이 자연과의 교감을 증대시키고, 남측은 도시의 직교체계 및 건물 등에 의해 드러나는 도시적 형태가 직각의 매스체계로 서로 대응하고 있다.

배치계획
인도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공공의 전시공간 영역을 설정하고 청계천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고려한 지하연결통로를 제고하고, 추후 증축영역 별도 구획

평면계획
조망축과 수경축을 도입한 사선의 평면구성으로



역동적인 공간 구성을 의도하고 영상전시 및 공공서비스 시설(뮤지엄샵, 정보열람실 등), 옥상정원과 옥외전망라운지 등을 통한 전시영역의 가변성 제공

입면계획

입면의 사선요소, 필로티, 투명성 등 천변 이미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면의 역동적인 형태구성 및 도시직교체계에 순응하는 매스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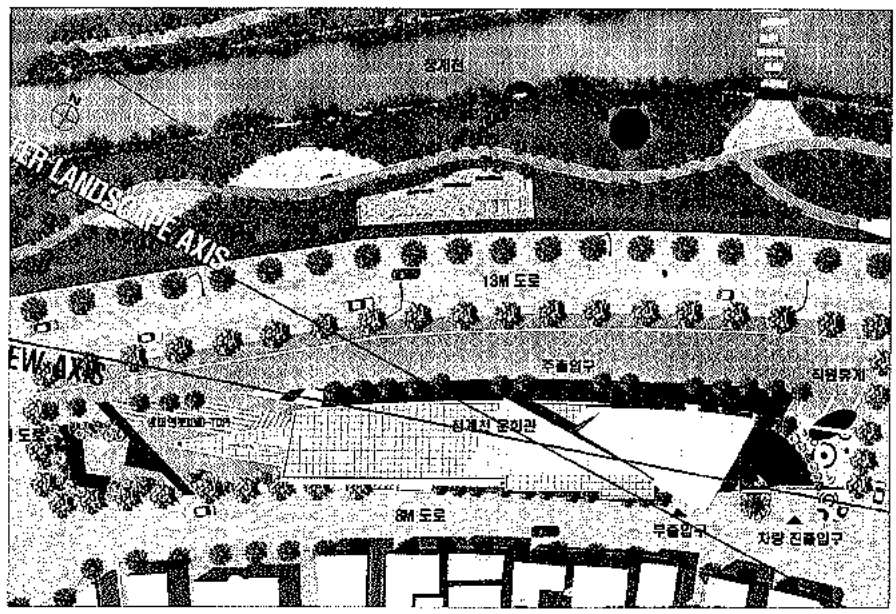
관람 동선상의 전시공간 및 휴게, 홀 부분의 수직 수평의 오픈을 통해 다양한 공간볼륨의 연속성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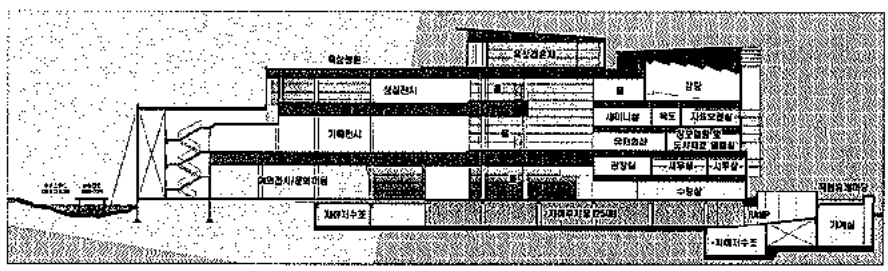
엘리베이터를 이용 지상5층의 상설전시로부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기획전시, 옥외전시로 이어지며, 각각의 전시공간 연결 부분에 옥외공간과 연계한 휴식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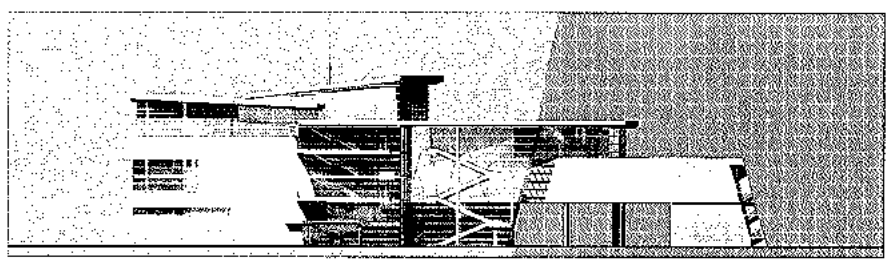
외부공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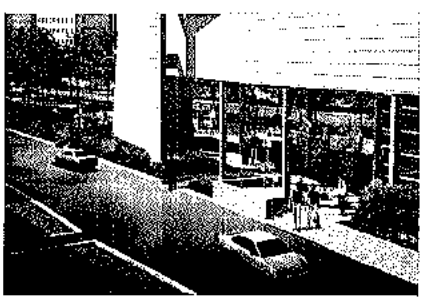
생태연못을 위주로 공공의 공간과 이를 연계한 옥외전시공간 영역 및 직원휴게공간 등 각각의 성격에 따른 영역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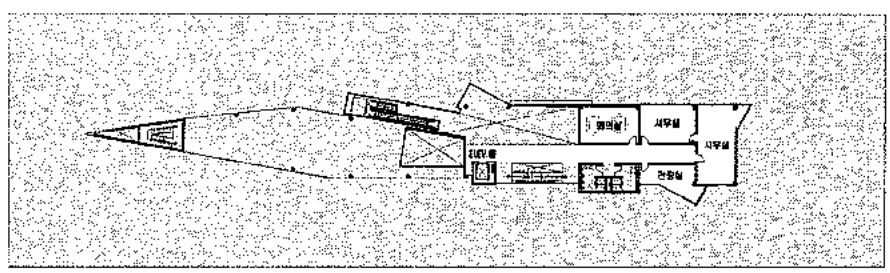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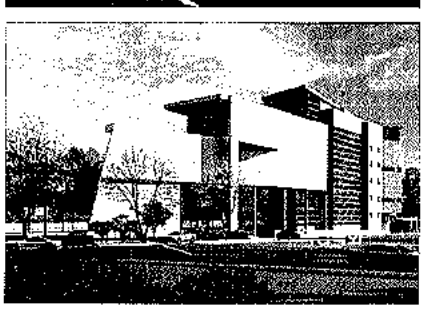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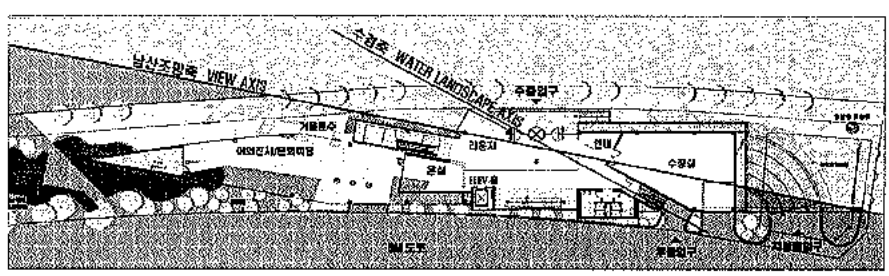

단면도


정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광주 디자인센터
Kwangju Design Center

당선작 / 토문건축사사무소(한남수) + 유탑건축사사무소(오금열) + 장윤규, 김우일(아뜰리에 운생동)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10-7번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대지면적	전체 : 33,056.9㎡
건축면적	3,212.18㎡
연 면 적	17,247.22㎡
건 폐 율	9.72 %
용 적 률	40.35 %
구 조	철근콘크리트 + 철골구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7층
주차대수	103 대 (장애인 3대 포함) - 법정 : 100대
외부마감	THK24 복층유리, 외부용 CRC패널, 석재, AL패널, 편칭메탈, 노출콘크리트
설 계 팀	공성근, 차봉근, 조동호, 김형수, 최윤상, 김창오, 김영철, 김우영

디자인네트워크

문화, 자연, 정보, 디자인 등이 광주라는 도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디자인 네트워크가 구성되게 한다. 문화적 네트워크와 자연적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의 장, 교육의 장, 교류의 장을 구성한다.

랜드스케이프 포디움

첫째, 총체적인 랜드스케이프 개념으로 평평한 대지에 입체적인 인공대지를 조성하여 건물 내외부 공간이 하나로 연결되는 랜드스케이프 포디움을 제안한다. 대지의 입체적 연장인 랜드스케이프 포디움은 디자인 센터의 매인 기능인 전시공간과 로비공간을 여러 다른 프로그램과 레벨로 재구성하는 새로운 대지가 된다. 평지인 계획대지의 풍경을 입체적인 풍경과 조경이 되도록 대지를 구성하기 위하여 대지적 장치의 의미가 있다. 외부공간인 광장과 내부공간인 전시를 포함한 퍼블릭한 성격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입체적인 데크로서의 랜드스케이프 포디움을 구성한다.

디자인 아트리움

디자인 센터의 중심공간인 아트리움을 통해 내부 프로그램을 수직적으로 연결하고, 남측 조경공간과 수평적으로 연계하여 전망과 풍경이 있는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적 공간을 제안한다. 단순히 독립된 아트리움이 아닌 전체 프로그램, 공간, 동선사이를 관통하는 새로운 입체적인 아트리움 장치를 구성한다. 외부에서는 건물전체를 수평적으로 관통하며, 내부에서는 수직적으로 전체 공간을 관통하는 양면성과 효율성을 가진 아트리움공간을 구성한다. 내부에는 홍보관, 카페테리아, 전시공간 등으로 사용되며, 미디어월등에 의한 정

보박스의 역할도 수행한다.

빛조각

대지에 숨어 있는 빛을 발견해내는 작업을 통해 건축적 빛조각을 구성한다. 솔리드한 매스를 조각하거나 틈새를 만드는 작업을 건축에 적용하는 틀을 제안한다. 건축과 조경, 경관 조명의 물리적 요소의 변환을 통해서 빛조각은 발광체가 된다. 건축적 프로그램의 내부의 빛이 야간에 발광체의 빛조각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개념이다. 내부 이벤트와 경관조명에 의해서 다양한 변화에 의하여 〈광주성의 빛〉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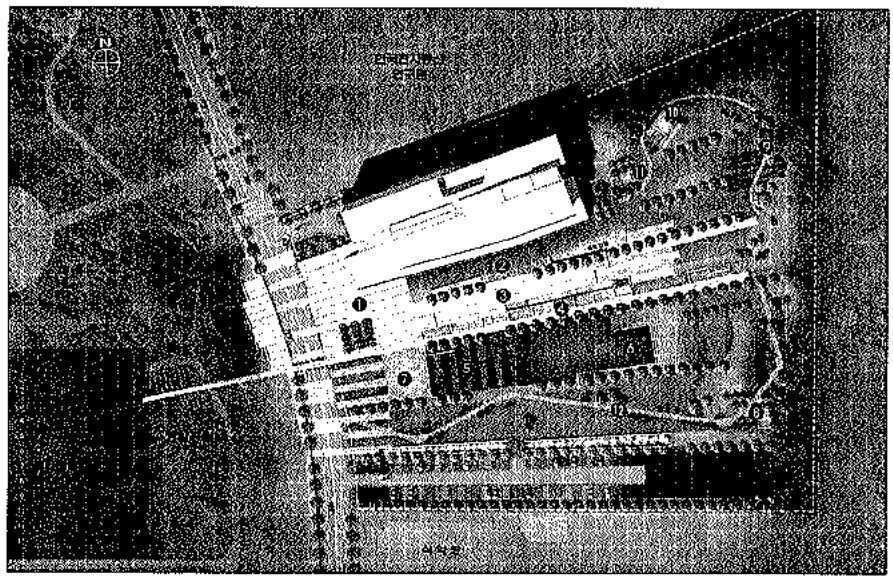
인터액티브 디자인 박스

단순한 기능들의 적층을 변환하는 시스템으로 인터액티브디자인박스의 개념을 적용한다. 다양한 기능과 프로그램이 서로 인터액티브하는 공간을 제안한다. 디자인퍼블릭 / 디자인전시 / 디자인지원과 교육 / 디자인 업무 등의 프로그램이 아트리움를 중심으로해서 교류하고 입체적인 인터액티브가 일어나도록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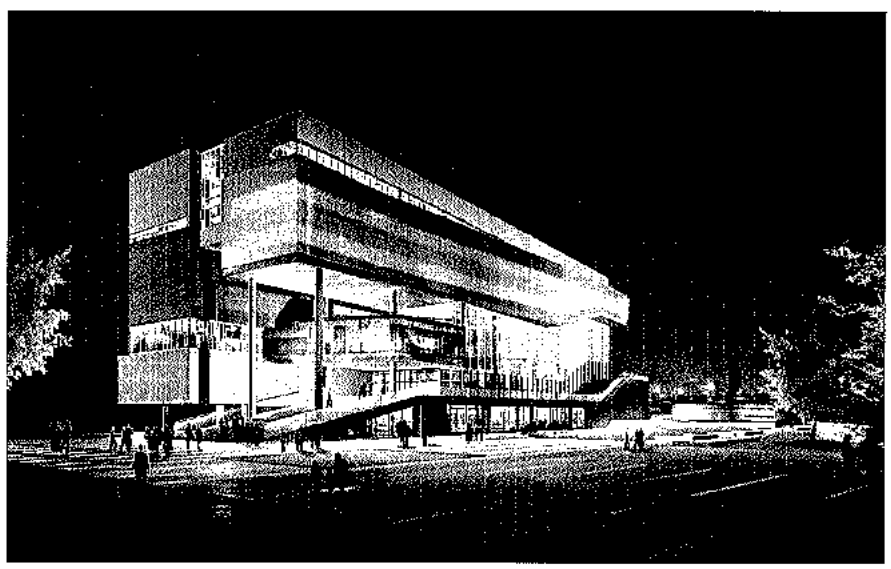
프로그램 스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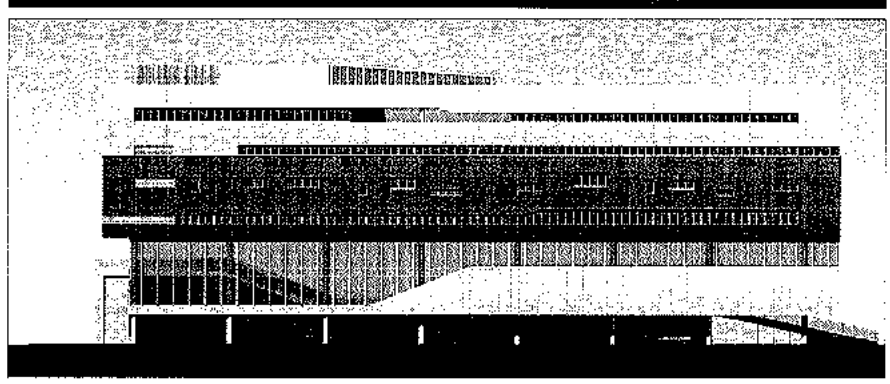
내부적 프로그램이 즉각적으로 입면화되는 개념으로 프로그램스킨을 제안한다. 입면계획은 내부 프로그램을 외부 스킨에 반영하여 공간 기능에 따라 재료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개념을 도입한다. 프로그램에 따라 서로 다른 재료와 물성을 가지게 구성한다. 이 건축적 개념을 대지전체의 조경개념에도 적용하여 프로그램적 조경이 되게 구성한다. 선형의 조경요소들이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록램필드의 개념을 적용한다.

(글 / 장윤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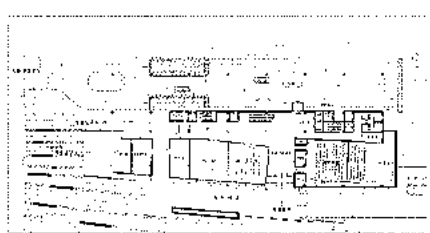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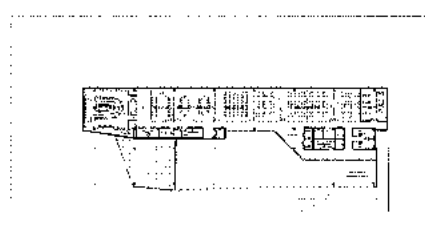




북측면도



1층 평면도



4층 평면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충북지역대학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당선작 / (주)유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종복 · 김환성)

대지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44번지
대지면적	14,270.00㎡
건축면적	2,211.30㎡
연 면 적	6,902.30㎡
건 폐 율	15.50%
용 적 률	46.32%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대수	35대 (장애인용 1대 포함) 법정 : 35대
외부마감	화강석버너구이, T18복층유리, 알루미늄 패널
설 계 팀	신원식(공학박사), 이후근, 유영재, 남궁홍

계획의 방향

계획의 목적

- 충북지역대학 5,000여명의 학생들의 각종 수업과 시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연구시설의 확충
- 본 대학의 특수한 교육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현대화된 지역대학으로서의 기능 확보

계획의 기본방향

1) 기능성

- 대학교육시설의 특성에 맞는 평면 및 동선 계획
-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학습 및 사무공간 제공
- 구조 및 설비의 경제성과 내구성 고려

2) 상징성

- 방송통신대학의 지역적 상징성
- 주변건물과의 조화, 미래 정보화교육의 이미지 창출

3) 장래성

- 장래의 기능변화에 신축적 대응 (증축, 가변성 확보)
- 환경 친화적 시스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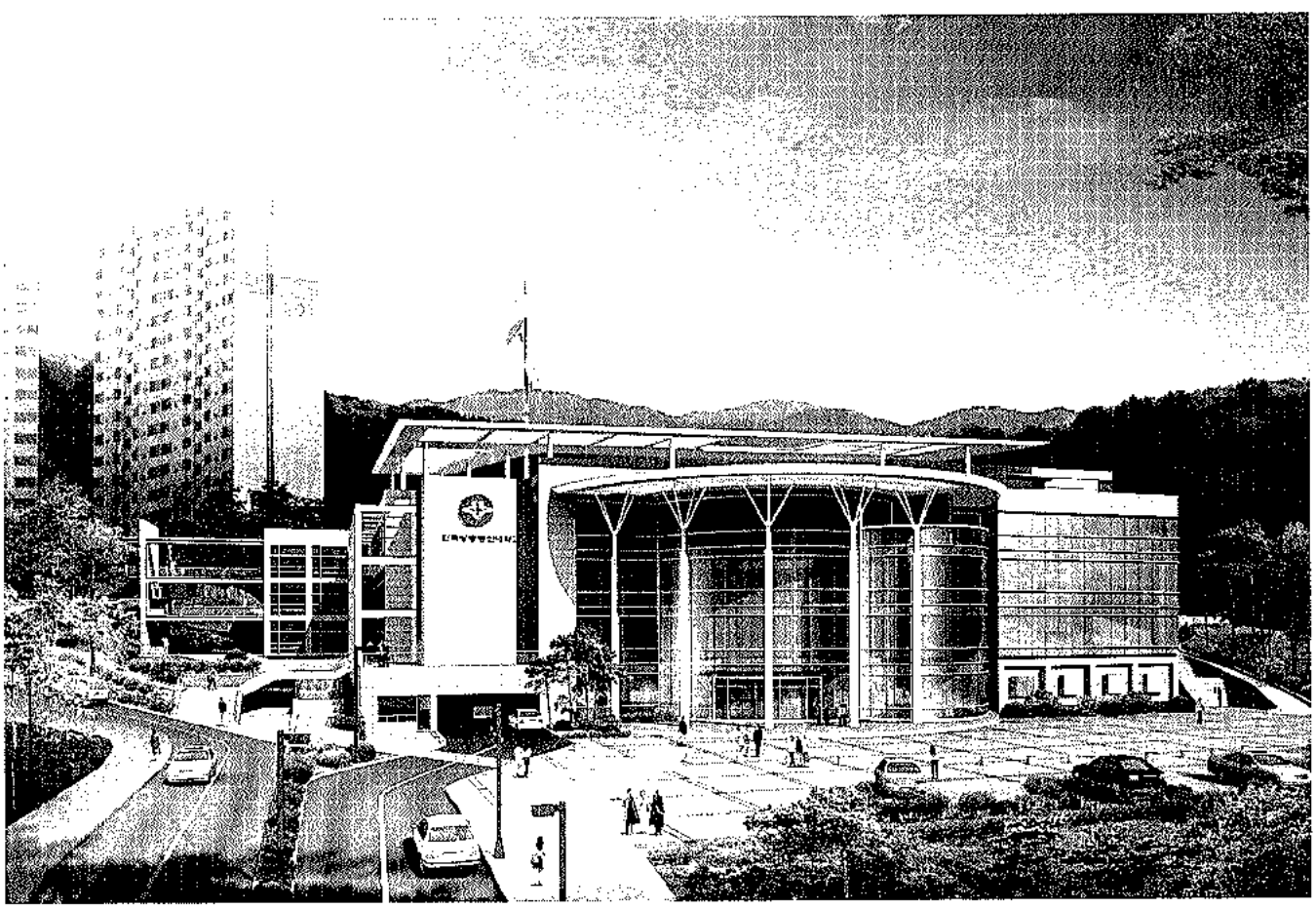
4) 자연친화적 재료사용 / 우수활용방안 제시

조경계획

1) 기본방향

- 기존 수목의 최대한 보존 및 활용 / 자연친화적, 생태적 조경
-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배식 – 중부내륙지방의 기후와 자연생태 고려
- 전체적인 경관이미지 및 공간별 기능과 특징적인 분위기 고려
- 수림대– 지피식물, 초화류, 관목, 교목 등이 어우러지는 다층구조 / 군식, 입체적인 녹화계획

2) 수목선정의 기준



• 공간별 기능과 경관조성에 적합한 수종선택
• 향토수종으로 계절감 및 녹음을 줄 수 있는 수종 선정

3) 공간별 식재 유형

중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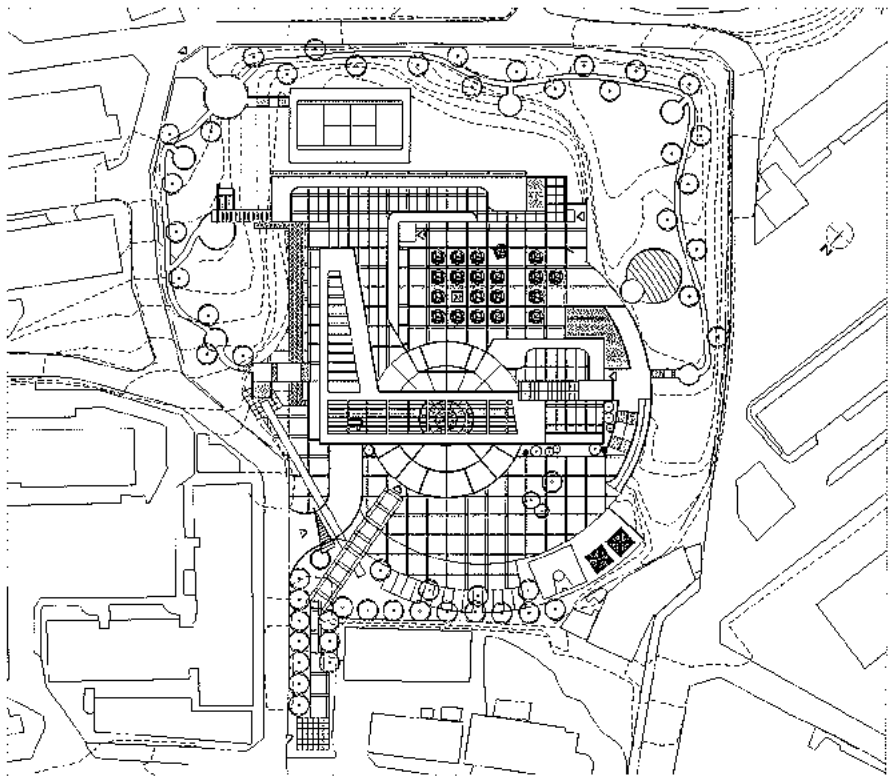
• 휴식, 산책, 학습, 관람
• 소교목 / 자생초화류
• 자연스런 식재(원추리, 복수초, 처녀치마)

산책로 / 외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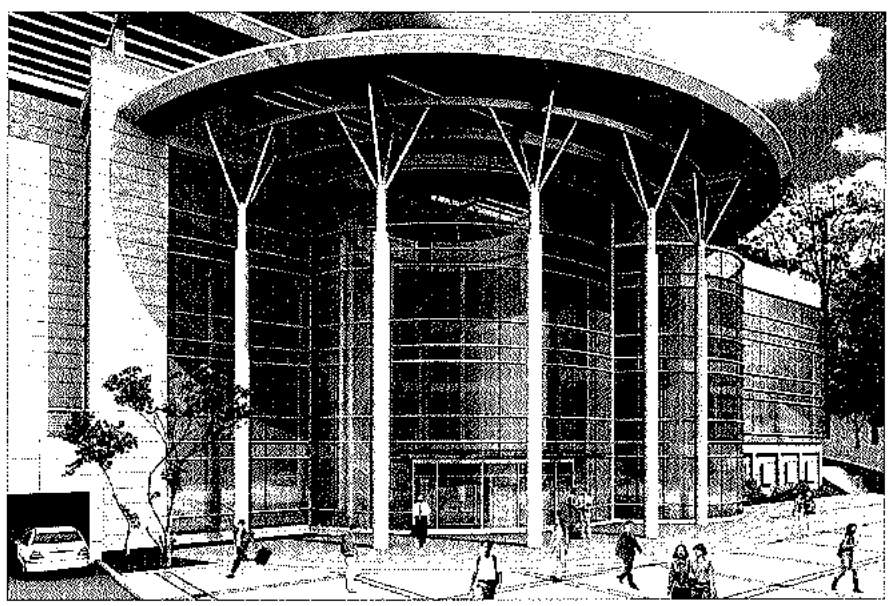
• 산책, 휴식
• 오솔길 / 이용자동선 유도
• 가로식재 / 유도식재
(자작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산수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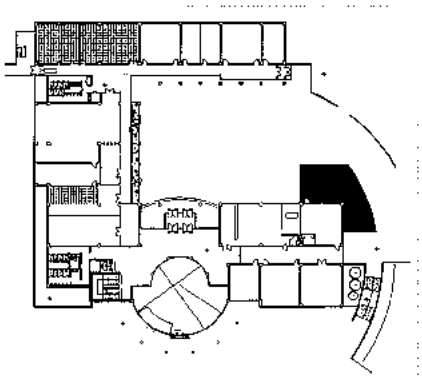
진입광장

• 진입, 모임, 만남
• 입구성, 장소성, 식별성
• 랜드마크적 기능
• 지표식재 특징수 열식 (백목련, 느티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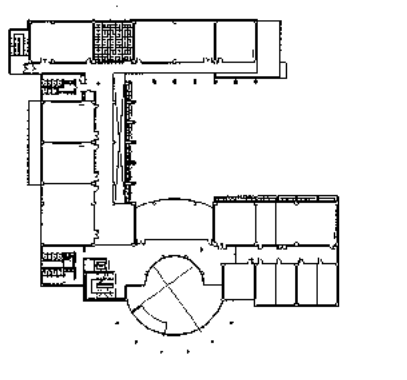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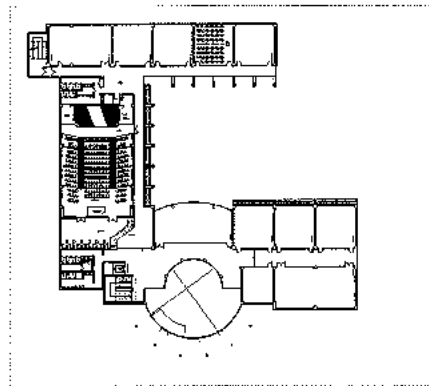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충북지역대학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우수작 / (주)건정종합 건축사사무소(노형래)

대지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44번지
용 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14,270㎡
건축면적	2,907.07㎡
연 면 적	6,609.99 (1,999.52) (지하층면적 1,420.93㎡ 별도)
건 폐 율	20.37%
용 적 률	46.32%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대수	60대 (옥외주차 30대, 옥내 지하주차 30대)
주요마감	THK30 화강석 고운다듬, THK3 일미늄 쉬트
설 계 팀	고종준, 주영준, 최정훈, 허 한, 김동원, 이후공, 권영환, 김진환, 김영주

본 계획은 방송통신대학교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시설의 프로그램과 기존에 배수조가 매립된 곳 위에, 그 구조를 이용하여 건물을 계획해야하는 특이한 상황조건이 전제되었다.

따라서 그 교육방식에 있어서 물리적인 강의공간이 주가 아닌, 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교육이 중심이 되는 특성에 의해, 여타 일반적 대학들과는 다른 프로그램 분석으로 공간의 비중과 위계를 재해석 해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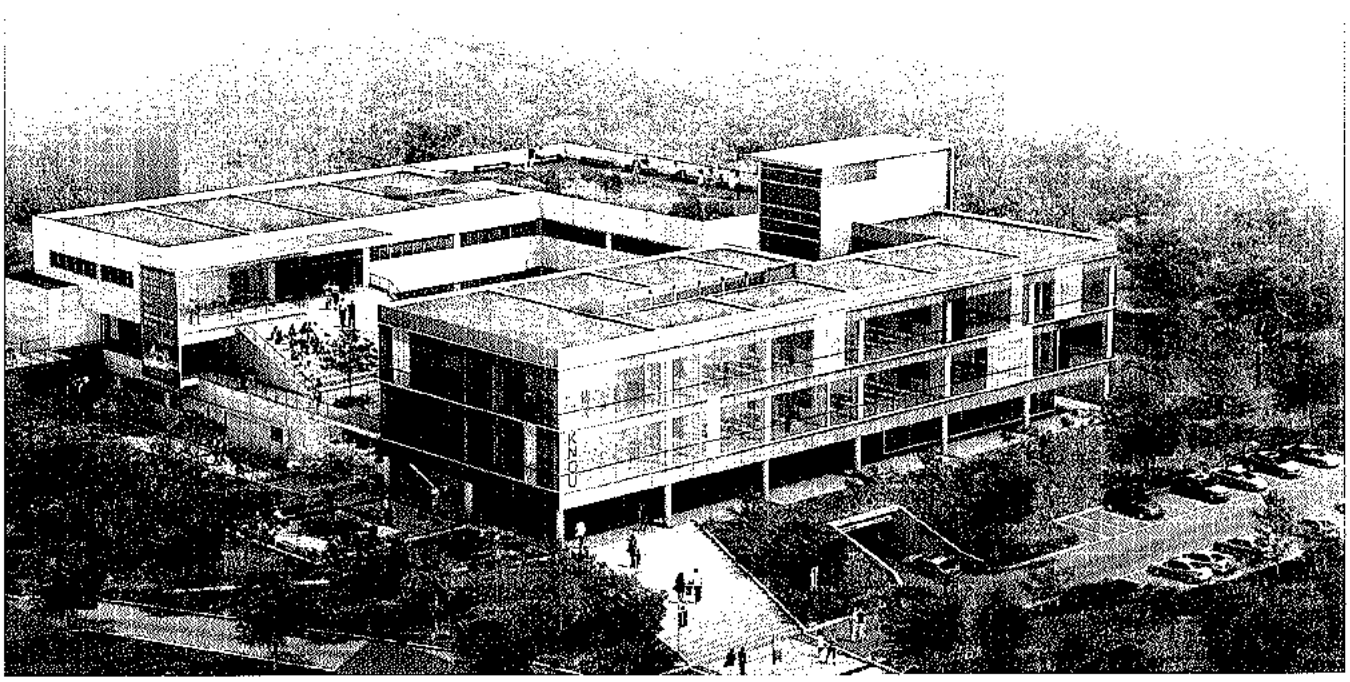
또한 기존 배수조의 구조를 이용한 계획이라는 특성은 이미 그 배치를 결정하고 있었지만, 대지의 진입이 북측에서 강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대지내의 레벨변화가 있었기에 그러한 환경적 요인들은 그대로 디자인에 대한 가능성으로 남게 되었다.

공간의 흐름

우리의 전통건축은 공간이 닫힌듯 하면서도 열려있으며, 열린듯 하면서도 닫혀있는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적절한 채움과 비움에 의해 물흐르듯 흐르는 자연의 섭리에 거스름이 없는 배치 기법이 돋보인다.

본 계획안은 전통건축의 이러한 요소를 차용하여 매스에 의해 자연스럽게 분절되는 외부공간의 적절한 배치와 내외부공간이 상호 관입되는 전통건축의 어휘를 통해 현대적으로 풀어보고자 하였다.

ㅁ자 중정형 매스는 대지 주변을 감싸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이질적인 도시맥락으로부터 교육시설에 대한 환경을 보호하고 정적인 연구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정되었다. 하지만 매스가 가지는 배타적인 이미지는 투명한 커튼월의 입면을 통해 내부의 모습을 투영하는 것으로 반감시키고, 북측을 통해 강한 진입축을 형성하는 동선은 그대로 필로티를 통해 중정으로 직접 진입하게 되며, 그 중심적인 중정공간을 시작으로 프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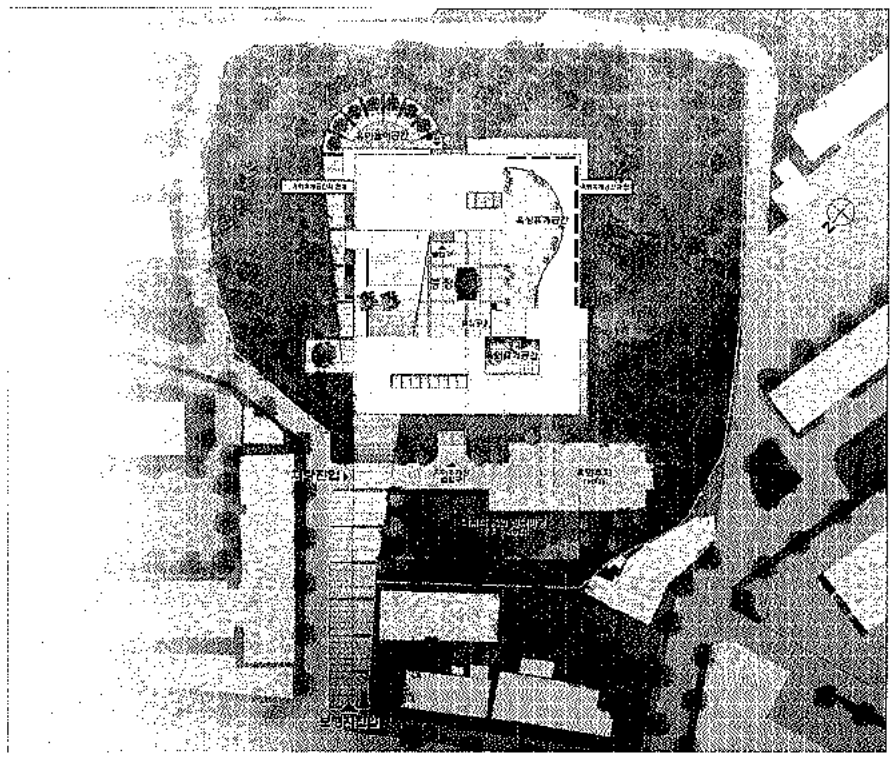
램들이 펼쳐지게 된다. 이때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쓰이고 있는 외부 계단은 그 진입축을 강조하고 폐쇄적인 중정을 관통함으로써 닫힌 중정 공간의 열림을 더욱 극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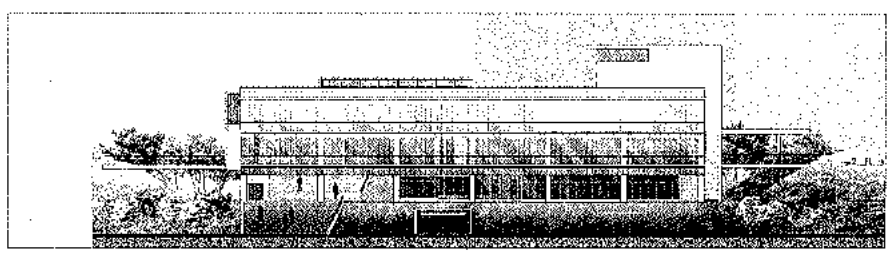
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강의라는 것은 그 교육이 특정시간의 일방적 흐름으로 끝나는 일회성에 있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접속과 반복을 통해 하이퍼 텍스트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보통의 시퀀스를 가지는 선적인 시간과 동선의 흐름을 넘어서, 중심적인 중정을 통해 그 주변환경과 프로그램이 서로 접속하는 양방향의 컨텍스트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대학교라는 시설의 특성상 학사행정을 위한 공간과 학생 자치 활동을 위한 공간이 강의를 위한 공간보다 더 비중있게 다뤄졌으며, 이는 외부공간과 직접 연계되는 학생편의 시설 및 휴게실을 통해 드러난다.

공간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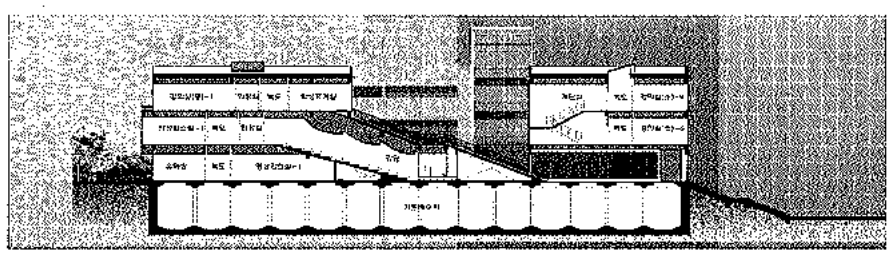
중정을 중심으로 펼쳐진 출입구와 프로그램들은 대지의 레벨에 의해 건물과 맞닿은 곳은 브릿지를 통해 외부로 확장되고, 전면부에 중축을 염두에 둔 주차장 계획을 하였다. 또한 중정에 형성된 진입계단 하부를 이용한 강당 계획으로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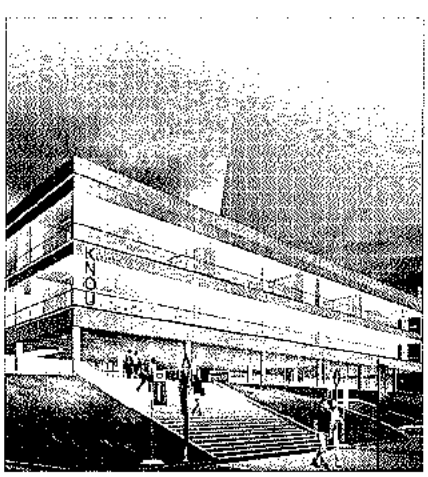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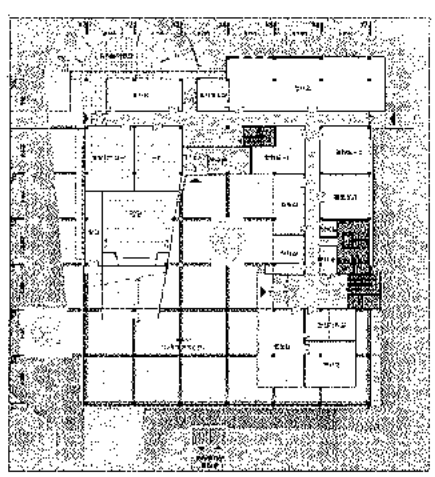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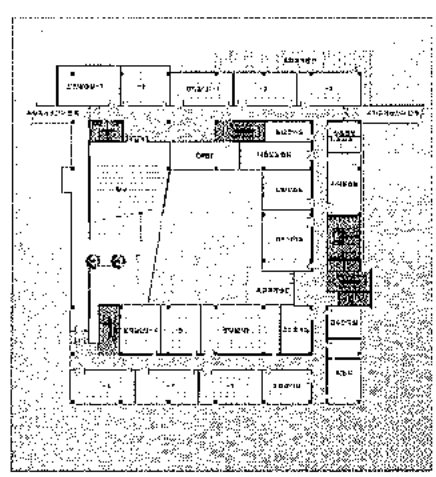


횡단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u 116
신건축 118

a+u

2004년 3월호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데이빗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의 최신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그의 작품은 연속성(Continuity)이란 주제로 노이에스 뮤지엄, 베니스의 산 미켈레 묘지, 살레르노 재판소 등 17개의 작품과 계획안이 소개되었다. 또한 '연속성'이란 주제 켄 타다시 오오시마와의 인터뷰도 게재되었다.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는 시기에 형성된 도시환경에 '연속성'이라는 주제를 갖고 접근하는 그의 건축관을 엿볼 수 있는 특집이다.

■특집: 데이빗 치퍼필드 / 연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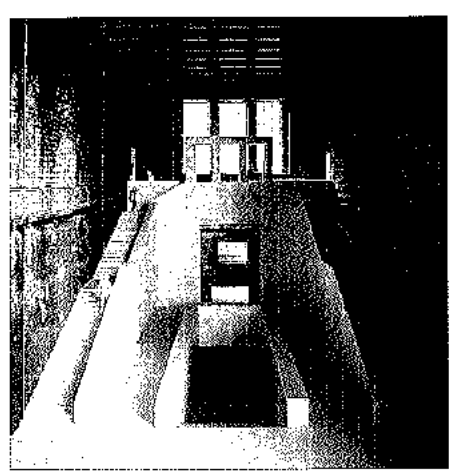
▶연속성(CONTINUITY) – 데이빗 치퍼필드 (David Chipperfi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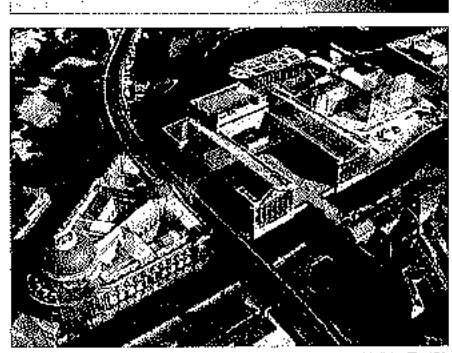
여기서 소개하는 프로젝트의 테마는 연속성(continuity)이다. 컨텍스트라는 개념을 보다 넓게 수용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노이에스(Neues) 뮤지엄이나 베니스의 산 미켈레 공동묘지, 그리고 살레르노(Salerno)의 구시가지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들은 그곳의 어떤 물리적 컨텍스트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사고의 중핵(中核)을 이루는 장소나 건물의 역사적 진화를 고려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노이에스 뮤지엄 프로젝트는 역사적인 폐허와의 대비를 만들어 내는 현대의 개입으로서 생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다 연속성을 지닌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오로지 그곳에 남겨진 물리적 혹은 고고학적인 유물들로부터만 프로젝트를 전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현존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무엇이 현존하고 있지 않는가를 보다 더 아는 것으로 인하여 현존하는 요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의의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우리들이 임하고 있는 것이다. 의미를 추구하기 위한 이와 같은 사고는 3개의 프로젝트 모두에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제안도 실행 가능하며, 허용 가능한 풍조 속에서 새롭다는 점에만 흥미로워할 것이 아니라 물리적, 사회적 혹은 역사적 컨텍스트를 읽어냄으로서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나 형태의 탐구에 의하여 프로젝트를 세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연속성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의미하고자 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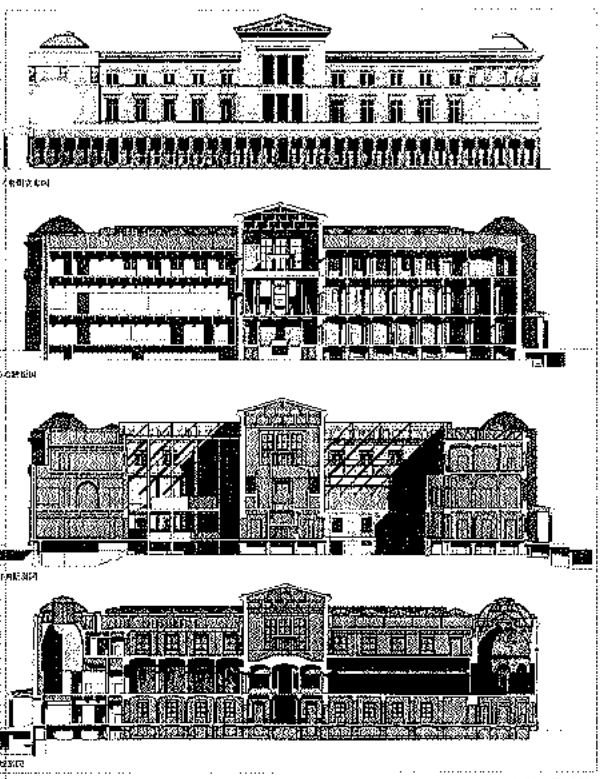
▶노이에스 뮤지엄 (Neues Museum, 베를린, 1997~2009)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슈테라에 의해 1859년 건축된 노이에스 뮤지엄의 복원을 위해 1997년 개최된 국제설계경기에서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최우수상을 획득했다. 이전의 동베를린의 중심부이자 슈프레(Spree)섬에 위치한 노이에스 뮤지엄은 본래 남측에 슈테라의 스승인 칼 프리드리히 싱켈이





노이에스 뮤지엄



노이에스 뮤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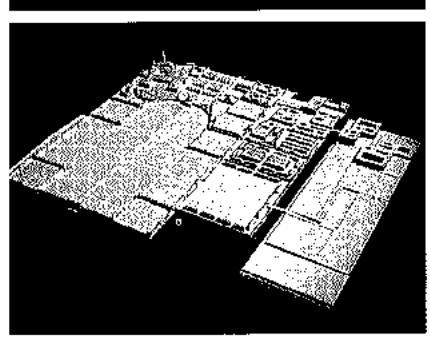
설계한 아르테스 뮤지엄을 확장하기 위해 건설된 박물관이다. 당시 노이에스 뮤지엄은 슈프레섬 전체의 건축계획을 구성해가며 디자인 되었다. 이 계획은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고전(古典)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미술관이나 고고학 박물관군(群)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미술관이나 박물관들로 구성된 노이에스 뮤지엄의 구조와 그 화려한 내장(內裝)은 당시 가장 귀중한 프러시아 건축으로 인식되었다.

그 후 다른 4개의 박물관이 구성되었지만 오늘날 슈테라에 의한 노이에스 뮤지엄은 전후(戰後) 훼손된 그대로 남아있었다. 건물의 각 부분별로 황폐함의 정도는 다양했지만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생겨나는 역사와 쇠퇴의 관념을 실증하는 듯한 대비를 이 건축은 보여준다. 어떤 부분의 내장(內裝)은 정교한 마감이나 천장의 프레스코화가 훼손되지 않은 채 거의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한편, 다른 부분에서는 무너져 내려 커다란 우물처럼 구멍이 뚫려있는 곳도 있었다. 폐허의 힘, 특히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조적조 피막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은 그 조적조 피막 최초로 구상된 지 150년이 지난 지금 픽쳐레스크한 고전의 폐허의 거부할 수 없는 모습에서 존재한다.

감정에 강하게 어필하면서도 가까이 다가서기 힘든 분위기를 갖는 장소인 노에스 뮤지엄은 재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보존이라는 개념에 의해 계획되었다. 즉 건물의 취지나 내무공간의 연속성을 읽어내기 쉽도록 컨텍스트만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 결과 없어져버린 북서측의 윙이나 남동측의 베이가 재건되었고 각 방의 정렬이 복원되었다. 한편 계단이나 중정의 공간에서는 건물의 붕괴를 나타내줄 요소를 남기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새로운 노이에스 뮤지엄과 그 수장품이었던 이집트 유물은 역사를 남겨놓지 않은 재구축 부분과 기념비적으로 보존된 부분과의 사이를 조심스럽게 통과해가게 된 것이다.

▶산 미켈레 묘지(San Michele Cemetery, 베니스, 1998~2013)

국제적인 설계경기의 결과 산 미켈레섬의 개발과 확장을 목적으로 한 베니스의 공동묘지 디자인의 변경을 제안한 데이빗 치퍼필드 팀의 제안이 선정되었다. 이 전통적인 장소는 베니스의 라구나(內海)에 떠 있으며, 섬의 외곽을 15세기에 건축된 교회와 수도원이 둘러싸고 있다. 4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연속과 발달을 이루어왔던 장소이지만 외부에서 보았을 때의 낭만적인 이미지와 섬의 내부에서 느껴지는 어딘가 암울한 분위기가 충돌하여 최근에는 서로 뭔가 엇갈려 있는 인상을 보여주었다. 치퍼필드 팀의 제안에서는 이와 같이 명확한 밸런스의 불균형에 착안하여 묘지가 본래 가지고 있던 건축적, 물리적인 면의 성질을 재정의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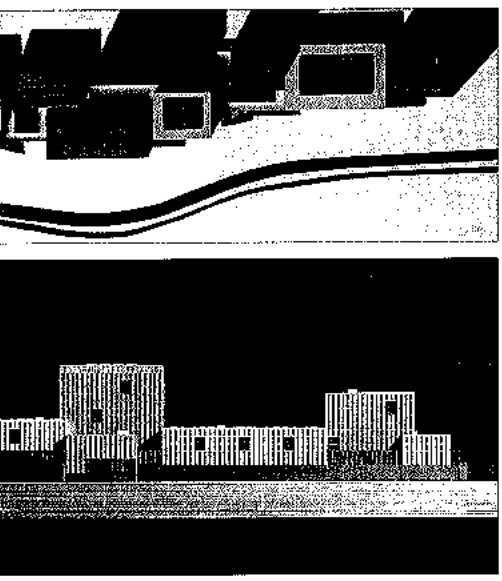
산 미켈레 묘지

프로젝트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1단계로는 현재의 매장지에 새로운 중정, 화장장, 예배당을 추가하는 것이다. 묘석이 줄지어 늘어선 현재의 경관과 대조를 이루도록 계획에서는 건물, 벽, 묘석, 랜드스케이프를 새롭게 재구성해갈 것을 제안하였다. 새롭게 추가된 요소를 빈틈없이 배열(벽과 묘석이 규칙적인 형태를 엄격히 지키도록)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스트럭쳐가 성장하여 구조물과 일체가 되어 이 섬이 보다 넓은 의미에서 뿌리를 내리고 구획된 내부가 될 것을 추구하였다. scorci(풍경), giardini(정원), conti(중정)의 원리에 의해 뒷받침된 유기적인 공간구성을 취하여 산 미켈레섬이 다양한 랜드스케이프를 지니면서 이 섬다운 개성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제2단계에는 새로운 섬의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섬은 이미 존재하는 묘지 옆으로 폭 15m의 운하를 놓으면서 만들어진다. 이 새로운 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4개의 영묘(靈廟, 심플하게 조각된 석비의 디자인)로서, 수면과 동일한 높이의 정원이 펼쳐진다. 수제(水際)보다 높은 장소에 만들어져 주위를 외벽으로 둘러싼 산 미켈레 섬과는 달리 이 새로운 섬은 해방적이고 친숙한 장소가 될 것을 꾀하고 있다. 묘소의 섬으로서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수상 도시 베니스 전체를 위한 장소가 될 것이다.

▶살레르노(Salerno)의 재판소(이탈리아 살레르노, 1999~2006)

이탈리아 남부의 도시, 살레르노에 만들어진 재판소는 시의 중심부에 해당하며, 기존에는 화물 조차장(操車場)이었던 부지에 위치한다. 그곳은 스페인의 건축가 오리올 보히가스(Oriol Bohigas)가 그린 시(市)의 마스터플랜에 포함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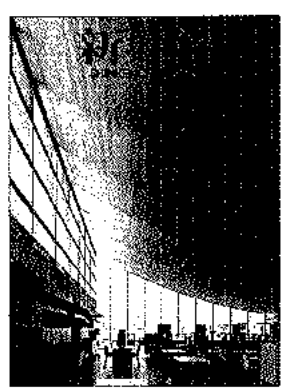
살레르노(Salerno)의 재판소

어 있어 재생과 부흥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곳이다. 데이빗 치퍼필드는 설계경기에서 승리하였으며, 그 제안은 법정이라는 중후한 기능을 기존의 도시기반 속에 융합시킨다는 것이었다. 근접한 주위의 환경, 그중에서도 부지의 동측에 위치한 신설 도로와 서측을 달리는 철도노선, 그리고 남측의 해안으로 시계가 열려진 부지의 말단부분은 이 부지를 구축해간 요소였다.

이 부지 안에서, 그리고 새로운 재판소 계획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소위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법의 정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위협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었다. 따라서 이 건물의 설계 컨셉은 기존의 법정이 지니고 있던 위압감 있는 형태, 즉 전면에 포티코를 배열한 단일 건물로 해석되는 종래의 건물 유형에 반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통례적인 인상과는 대조적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제안된 것은 법정의 볼륨을 몇 개의 소규모 건물을 조합한 것 같은 구성으로 분할함으로써 거대시설이라는 원형의 단편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독립된 작은 건물들은 각각이 단순한 블록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테라코타를 혼입시킨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패널로 마감되었다. 또한 서비스 부분에 해당하는 기단 부분의 수평성과 대조적으로 수직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개구부가 만들어져 있다. 건물 그 자체도, 또한 사회적 의미에서도 이 개방적이고 친밀한 건물이라는 개념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디자인은 개개의 블록을 몇 개의 정원과 주랑을 매개로 연결하여 살레르노의 주변 일대 환경을 활기있게 만드는 공공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법정의 내부를 노출시키거나 개개의 건물을 클러스터 모양으로 연결하는 수법은 바로 이 재판소에서 밖에 볼 수 없는 건축적 실험일 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성장해가는 감각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재판소에 있어서도 또한 살레르노市 전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신건축

2004년 3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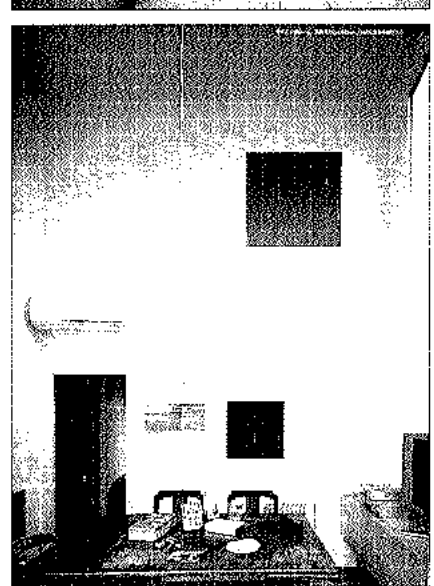
이번 호에 소개된 신작들은 이렇다 할 대규모 프로젝트나 건축계의 관심을 끌어온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는 거의 없다. 그러나 세지마 카즈요(妹島和世)의 「梅林의 집」과 아오키 준(青木淳)의 「뷰로 시나가와」는 각각 극히 소규모의 주택과 대형 아파트먼트라는 서로 양 끝단의 스케일에서 각각 명쾌하고 참신한 컨셉을 갖고 만들어져 주목할 만하다. 건축에서의 변화는 세지마 카즈요가 행한 기존의 형식을 뒤흔드는 공간구성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아오키 준이 지적한 바대로 단 한 가지를 바꾸는 일에서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작품

▶세지마 카즈요(妹島和世)의 「梅林의 집」 – 공간 이라는 것

동경 교외의 조용한 주택지에 서는 가족 5인의 주택이다. 부지는 원래 매화나무가 많아 주택지에서 작은 정원과 같은 역할을 하던 장소였다. 클라이언트가 희망한 것은 집이 지어진 후에도 매화가 꽃피는 풍경을 보고 싶다는 것과 원룸과 같은 이어짐이 있는 공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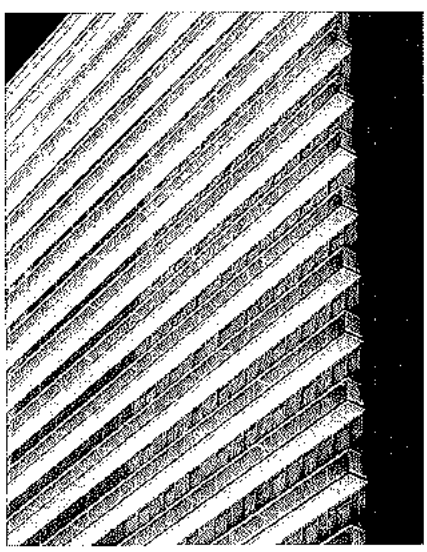
실내에는 가능한 한 많은 작은 방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다실(茶室)과 같은 방을 몇 개 정도 마련하였다. 어린이 방은 베드의 방과 책상의 방으로 나누거나, '헤어짐의 방'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이었다. 이웃하는 방끼리는 주구조체인 16mm의 철판벽으로 구획했다. 여기에 만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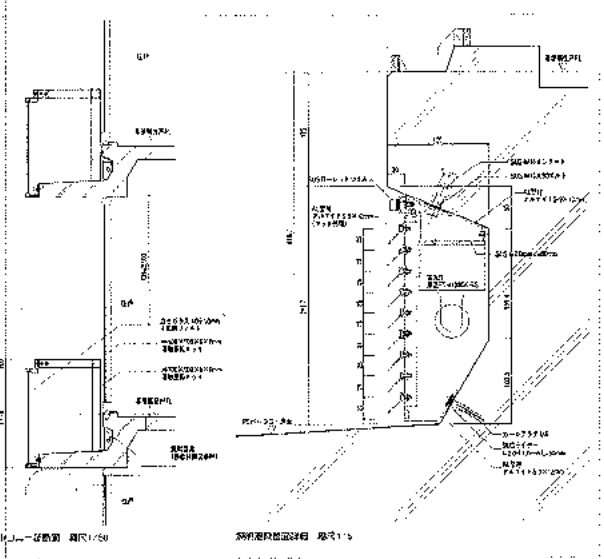


세지마 카즈요(妹島和世)의 「梅林의 집」 – 공간 이라는 것

진 개구부에는 문짝이나 유리가 없다. 창을 열어 두면 집 전체에 바람이 통하고 식당에서 침실로 향해 가족을 부를 수도 있다. 체험적으로는 원룸과 같은 공간인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거주자의 수와 방의 수의 관계가 여러 가지의 선택성을 생성해내고, 각각의 방들은 버퍼존의 역할을 해주어 유연한 관계성을 만들어 낸다.

얇은 벽에는 여러 가지 크기의 개구부가 다양하게 있어 이웃한 방의 풍경은 그 개구부를 통하여 평탄한 회화처럼 비쳐진다. 개구부는 일견 회화처럼도 보이지만 어린이나 가축이 작은 개구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고, 상부의 개구부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일도 가능하다. 각각이 작고 얇음으로써, 창과 출입구, 개구부와 벽의 관계는 애매해진다.





뷰로 시나가와(品川)

개방적이면서 닫혀져 있다. 이러한 인상을 외관과 실내 양쪽에 갖게 하고 싶었다. 이러한 볼륨이 부지에 대해서 애매한 여백을 남기면서 주택으로서 세워진다. 그 여백에는 이식된 매화나무가 자리 잡았다. 봄에는 아름다운 매화가 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단 한 가지를 바꾸는 일로부터

아오키 준(青木淳)의 「뷰로 시나가와」에 대한 에세이

「뷰로 시나가와(品川)」와 「馬見原橋(1995)」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시도였다. 양쪽 모두 그 세계에서 보통 유통되는 것에서 단 한가지만을 바꾸려 한 것이다. 「馬見原橋」에서는 교량트목의 표준적인 구조에도, 디테일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변화를 준 것을 형식뿐. 한편 「뷰로 시나가와」는 그 반대로 아파트먼트 특유의 형식에는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었다. 바꾼 것은 전체의 프로포션과 발코니의 디테일뿐이다. 이 두 가지는 거의 동일한 의식으로 만들어졌다. 그 세계의 상식을 으깨어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의 상식이 통하는 조직체에 바이러스와 같이 침투하여 그 DNA의 단 1개소를 변화시키고, 나중에는 조직체의 일상적인 신진대사가 변형된 DNA를 증식시켜 결국 그 조직체 전체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을 기다리는 일, 이러한 의미에서 디자인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뷰로 시나가와」의 설계에서 침투시킨 바이러스는 발코니의 디자인이었다. 「뷰로 시나가와」의 목표는 '서비스 아파트먼트'이다. 단순히 아파트먼트에 서비스가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어떠한 공간배분과 공간구성의 아파트가 되어야 할 것인가. 공용의 정원, 바(Bar), 레스토랑, 사우나, 휘트니스, 욕장, 회의실이 설치되는 대신 각 주호의 면적은 상당히 컴팩트하게 만들어진다. 그러나 「뷰로 시나가와」에서 침투된 바이러스는 이와 같은 기능적인 면에서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의 것이었다. 즉 생활의 장인 건물에도 구애를 받지 않고 주간에는 투명감을 가진 물체로 보이고, 야간에는 그 생활의 장에 라이트 업(light up)을 공존시키는 것. 그 어느 것도 아파트와 같은 생활공간에는 모순적인 목표이다. 주간에 투명하다면 밖으로부터의 시선은 막기 어렵다. 야간에 라이트 업 된다면 그 빛은 실내의 거주자 입장에서는 눈이 부실 것이다. 적어도 라이트 업과 같은 것은 실내에서는 의미가 없다.

피난 전용의 발코니가 건물의 장방향으로 늘어서 있다. 그 발코니의 유리 난간에는 베이지, 그린, 레드 등의 색선을 첨가해 두었다. 주간에는 거의 투명하게 보인다. 야간에는 주호의 창 아래에 설치해 둔 가는 슬릿으로부터 발코니 바닥으로 조명이 비춰진다. 이 조명에 의한 빛은 발코니 바닥에 한번 반사되어 발코니의 유리 난간 쪽으로 향하게 된다. 유리라는 소재는 결코 투명하지 않으며, 특히 밤에는 더욱 그러하다. 반사가 투명감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주호의 물리적으로 투명한(실제로 안에서 밖이 잘 보인다) 유리 앞쪽으로 발코니의 탁한 유리 난간이 겹쳐지고, 이 반투명한 난간은 외부로부터의 시선은 차단하면서 감각적으로는 역으로 투명감을 부여한다. 야간에는 빛을 받은 유리 난간이 발광체가 된다. 그것이 건물 안으로 향하는 시선을 차단한다. 주호 안에서는 그 빛나는 유리 난간까지 실내가 확장된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아파트의 부착물에 불과한 발코니에 대한 단 한가지의 의미부여가 이 건물 전체의 프로포션을 결정한다. 수평적인 발코니의 열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얇고 가능한 한 가로 폭이 큰 프로포션이 요망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이 발코니의 존재가 아파트라는 조직체의 일반적 양상을 또 다른 양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다. (번역 / 강상훈)

제12차 아카시아 포럼

ARCASIA Forum - 12

대한건축사협회가 회원으로 있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hitectural Regional Council Asia : ARCASIA)는 아시아지역 건축사간 정보교류와 친선도모를 위하여 아시아 건축사 대회(Asian Congress of Architecture : ACA)와 포럼(Forum)을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다. 2003년은 포럼이 개최될 차례로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쉐라톤 호텔에서 제 24차 아카시아 이사회와 제 12차 아카시아 포럼이 개최되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사회와 포럼에 공식대표로 이세훈 회장, 이근창 국제위원장, 김지덕 고문, 민규암 위원, 김홍일 위원과 학생대표로 선발된 이원석(홍익대졸업), 김성훈(홍익대 대학원)군을 파견하였다.

이세훈 회장, 이근창 국제위원장, 김지덕 고문, 민규암 위원은 12월 7일, 8일, 9일 개최되는 이사회와 교육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12월 6일 한국을 출발하였고 필자와 학생대표는 포럼만 참석하기 때문에 12월 8일 출발하였으며, 12월 14일 대표단은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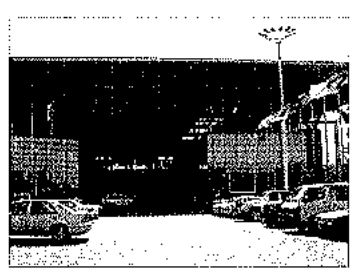


그림 1. 개막식장, 방글라데시-차이나 협력 컨벤션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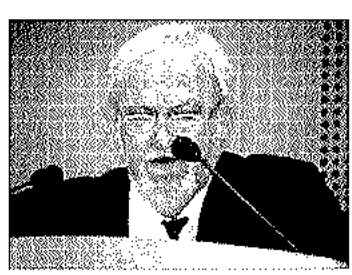


그림 2. 안소니 비들러, 주제발표

포럼 개막식

12월 10일 포럼 개막식은 방글라데시-차이나 컨벤션 센터에서 오스만 파룩(Osman Famuk)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모바쉐르 후세인(Mobassher Husain) 방글라데시 건축사협회장의 인사말을 서두로 배리 윌(Barry Will) 아카시아 회장, 라비울 후세인(Rabiul Housain) 포럼 위원장등 귀빈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개막식 마지막 순서는 현 쿠퍼 유니온(Cooper Union)학장이며 건축역사학자이자 비평가인 안소니 비들러(Anthony Vidler) 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개막식이 끝나고 참석한 건축사들은 루이스 칸이 설계한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 건물을 방문하였다. 현 방글라데시 정부가 국회의사당 건물

그림 3. 국회의사당, 루이스 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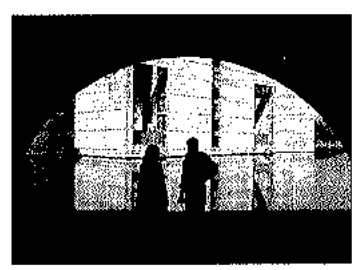


그림 4. 국회의사당, 루이스 칸

그림 5. 악셀 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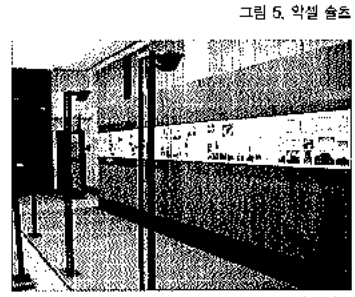


그림 6. 건축전시회

에 증축계획을 하고 있고 방글라데시 건축사협회는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하고자 정부와 반대 입장에 처해있어서 아카시아 포럼 참석 건축사들의 방문은 국회의사당이 세계적인 건축으로 건축사들의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일종의 시위와 같은 방문의 성격을 띠었다.

12월 10일 오후 포럼

금년도 아카시아 포럼의 주제는 "세계화와 아시아건축"(Globalization and Asian Architecture)이며, 다시 6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포럼이 진행되었다. 12월 10일 오후에는 "문화와 정체성(Culture and Identity)"이라는 소주제하에 두개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참여 연사는 제1세션에 카지 카리드 아슈라프(Kazi Khaleed Ashraf), 악셀 슐츠(Axel Schultz), 레이얀 바르리 고르크(Reyhan Varli Gork)가 발표하였고, 제 2세션에는 하비불 하크 콘드커(Habibul Haque Khondker), 카레다 라시드(Khaleda Rashid), 아르만 호세인 쵸드러리(Armaan A Hossain Chowdhury)가 발표하였다.

12월 11일 포럼

포럼은 오전 오후 각 2세션이 진행되었다. 9시부터 시작한 제 3세션은 "도시와 그 배경"(City and its Context) 으로 아시아 건축행사에 빠지지 않고 연사로 등장하는 싱가폴의 태 켕순(Tae Kheng Soon)과 방글라데시의 카뎀 알리(Khadem Ali)가 발표하였다.

제 4세션의 소주제는 "사회적 분열과 책임있는 디자인"(Social Divide and Responsive Design)으로 연사는 터키 건축사 수하 오즈칸(Suha Ozkan), 다카대학교 경제학교수 무자페르 아마드(Muzaffer Ahmad) 그리고 캐나다 맥길대학교 석사과정 학생인 사친 나카르(Sachin Nakar)였다. 특히 나카르는 제3세계 불법거주자들이 많은 도시에 비정부기구(NGO)가 주택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를 인도의 뭄바이시를 들어 설명하였다.

점심 식사 후 제 5세션이 계속되었다. 주제는 "재료와 기술"(Materials and Technology)이었고 연사는 종이를 주제로 건축을 하는 일본의 시게루 반(Shigeru Ban), 방글라데시 건축사 바쉬르 하크(Bashiru Haq) 그리고 마필 아리와 샴스 만수르 가니(Mahfil Ali & Shams Mansoor Ghani)였다. 특히 종이를 구조재로 사용하여 건축을 하는 시게루 반이 재해지역 난민들을 위해 설계한 종이튜브를 이용한 텐트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지구촌에 발생하는 수많은 재해민을 위한 거주공간을 아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림 7. 시게루 반

그림 8. 태 켕순

마지막 제 6세션은 "실무와 교육"(Practice and Pedagogy)이라는 소주제하에 인도의 대표적 건축 중 하나인 발크리쉬나 비트라다스 도시(Balkrishna Vithladas Doshi), 방글라데시 건축사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아드난 모르쉐드(Adnan Morshed), 그리고 엠디 이스티크 자히르(Md. Ishtique Zahir)가 발표하였다.

문화행사

문화행사는 12월 10일 저녁7시부터 다카 구시가지 내에 있는 랄바그 요새(LALBAG FORT)에서 포럼 참석자를 위하여 개최되었다.

랄바그 요새는 무굴제국 오랑제브 아람지르(Aurangzeb Alamgir)의 아들인 벵갈왕 모하마드 아잠(Mohammad Azam)이 1678년부터 건축을 시작하였으며 크기는 약 1082×800피트이고, 요새 안에는 모스크, 목욕장, 왕의 거주공간, 무덤 등이 있다. 이슬람 건축의 전형으로 창살의 섬세한 기하학 문양이 돋보인다.

공연은 레이저광선과 효과음향을 곁들여 무굴제국의 역사를 설명하는 "빛과 소리"(light and Sound)공연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민속춤과 민속노래 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빛과 소리 공연"은 이번 아카시아 포럼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방글라데시건축사협회 창설 이래 처음 있는 방글라데시 최초의 공연이었다고 한다.

그림 9. "빛과 음향"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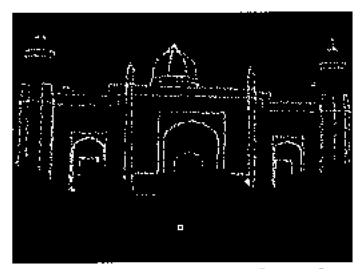


그림 10. "빛과음향"공연

그림 11. 문화의 밤 공연

우정의 밤

12월 11일 오후 7시 30분부터 다카 쉐라톤 호텔 겨울정원에서 아카시아 포럼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와 방글라데시 건축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정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다. 추첨에 의해 순서가 정해지고 각국 대표들은 각자 준비한 장끼를 선보였는데 인도대표의 전통춤 공연은 아마추어의 수준을 넘는 뛰어난 공연이었다.

한국대표단은 몸을 이용한 알파벳으로

KOREA 글자를 만들고 월드컵 축구응원가를 불러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림 12. "우정의 밤" 방글라데시 대표 공연

그림 13. "우정의 밤" 인도대표 공연

아시아 퍼시픽 건축대학특강

아카시아 이사회 진행 중 방글라데시 건축사협회는 건축대학 학생을 위한 특강에 참석한 건축사에게 요청하여, 이근창 위원과 말레이시아의 지미 림 위원이 아시아 퍼시픽 건축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특강을 하였다. 지미 림은 열대기후인 말레이시아에서 건축한 목조 주택을 소개하였고, 이근창 위원은 간략한 한국근대건축의 형성에 대하여 소개한 후 자신이 디자인한 대형 프로젝트위주의 강연을 하였다. 학생들의 열의는

그림 14. 아시아퍼시픽대학 특강, 이근창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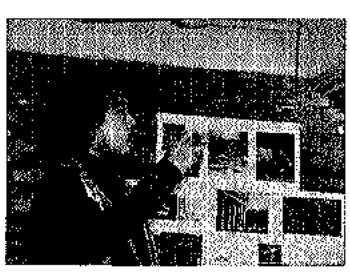


그림 15. 아시아퍼시픽대학 특강, 지미 림

강연 후 다양한 질문으로 이어졌고 외국인 건축사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후기

방글라데시는 경제적으로 발전이 덜 된 나라이다. 시내에 나가면 사람이 끄는 릭샤와 심륜오토바이를 이용한 택시가 주된 운송수단으로 자동차 보다 훨씬 많이 다니고 있다. 이러한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건축사협회는 이번 포럼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대한민국은 이제 아시아의 부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고, 아카시아에서도 영향력 있는 국가의 위치에 있다. 곧 우리도 아카시아회의를 개최해야 될 차례인 국가로서 이번 방글라데시 건축사협회의 행사 진행은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다. (김홍일 / 본협회 국제위원)

제24차 아카시아 이사회

ARCASIA Council Meeting

제24차 이사회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위치한 쉐라톤 호텔에서 2003년 12월 8, 9일 양일간에 거쳐 개최되었다. 본 협회에서는 이세훈 회장, 김지덕 국제위원회 고문, 민규암 위원과 함께 참석하였다.

이번 이사회는 아카시아 회장인 Barry Will의 개막 인사에 앞서, 이사회에 그간 공헌이 많았으나 이제 우리와 같이 하지 못하는 故 이정근 박사에 대한 간략한 프로필 소개와 함께 추모 묵념으로 시작하였다.

회장은 개막 인사에서 세계 곳곳에서의 테러에 의한 정치적인 불안과 아시아권의 불안정한 경제, SARS에 의한 회원국 간의 교류가 급격히 줄고 있지만, 아카시아 회원국 총인구가 세계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을 볼 때 금번 방글라데시 건축사협회에서 선정한 주제는 시기 적절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회원국이 적극 참여해준 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특히 미래의 건축 설계의 가장 큰 시장으로 아시아 국가가 대두할 것을 예측하고 회원국들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였다.

이어 방글라데시 건축사협회의 Hussain 회장은 건축제도가 미비한 방글라데시에서 협회 창립이래 처음이자 최대의 국제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여 본 행사를 통해 정부부처에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각 회원국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또한 다카시내의 최대의 건물이자 건축사의 의지와 작품성이 뛰어난 정부청사 건물(루이스-칸이 설계)의 무절제한 유지보수로 작품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조치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CAA 회장의 환영 축사를 끝으로 개막행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들어갔다. 먼저 이사회의 순서와 2002년 인도 델리 회의록이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되었고, 재무담당으로부터 회비 징수 상황과 함께 재정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

각 Zone별 부회장의 보고에서는 Zone "A" 부회장의 보고만 있었고, Zone "B"와 Zone "C"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Zone "A" 부회장인 인도의 Balbir Verma는 그 지역의 최대의 관심을 서로의 전문 용역업의 문호개방과 더불어 기술교류와 건축사의 사회 기여 등을 강조하였다.

이어 각 회원국별 지난 일년간 있었던 주요사항을 보고하였다. 우리측에서는 건축사의 상호인정과 관련하여 교육제도의 5년제 전환과 이에 따른 교육인증원 신설을 위한 준비, 천재지변시 비상 대책 Program, 새로운 회관 건립을 위한 준비 등을 언급하였다.

인도 건축사협회에서 이사회 안건으로 제출한 WTO-GATS 관련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나, GATS의 정의인 다국적 협상에 의한 최혜국 대우에 대한 내용과 세부사항으로 Mode별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 또는 노동력의 이동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더불어 정책의 기본 협상 방향인 투명성, 국가의 정체성, 최혜국 대우와 함께 양허, 규정, 인정 등을 나열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건축설계와 관련하여 국가간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 의한 인식과 예상 성장률, 국가별 전문영역 등 UIA PPC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여러 항목들을 설명하고 본 회원국의 공조를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각국의 대표들은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본 내용이 UIA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APEC, SARCH 등 서로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활발히 논의하고 있으므로 추이를 보아가며 다루기로 하였다.

말레이시아에서 관리하고 있는 Resource data bank에 관한 보고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과 회원국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분기별 발간되는 아카시아의 건축작품 관련 "Architecture Asia"에 대한 보고에서는 많은 회원국의 게재를 요청하였으며, 2004년 1분기는 교통시설에 대한 내용이 수록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잡지는 현재 각 회원국에서 일정량 무료로 배부되고 있으며, 구입을 원하는 개인에게는 회원국 협회를 통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카시아상 건축 작품 선정에 대한 보고에서는 먼저 각 회원국에서는 정해진 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출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선정을 위한 제반 경비가 약 33,000불 소요되었음이 보고되었다. 추후 아카시아상 경비를 위한 후원업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은 회장을 포함하여 Zone별 3인과 아시아지역 외 건축사인 요르단의 Badran, 비건축전문가인 Anisuzzaman과 아카시아상 Convenor 인 Mr. Wares, 총 6인이었고, 각 분야별 선정 작품은 B1(Commercial/Shopping), B2(Resort building, Hotel, Other recreation), B4(Sport and Air terminal) 부분은 최우수작이 없었고, 본 협회에서는 11개 작품을 출품하였으나 A1(Single family housing) 부분에서 최삼영 건축사 작품 민마루가에 금상, B3(Institutional/School/Religious/Health, Hospital) 부분에서 백문기 건축사의 원당 천주교 작품이 은상을 수상하였다. 아쉬운 점은 규정에 2개 작품 이하를 제출하도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협회에서 제출한 작품은 B3에 5개 작품이 집중되어 제출하였고, 전통건물과 리모델링 부분에는 한 작품도 제출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특이한 점은 일본은 3개 작품을 제출하여 모두 시상 대상에 선정되었다. 더불어 다음 이사회에서 2개 부분(조경설계와 실내건축설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상정하기로 하였다. 본 시상은 2004년도 총회에서 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준비를 마카오 건축사협회에 요청하였다.

이에 2004년 아카시아 총회에 대한 마카오 대표의 준비상황 설명이 있었고, 총회일자는 이슬람 국가의 종교행사기간(라마단)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자문인 홍콩의 Ronald Poon은 회원국의 출입국의 원만한 조치와 문제가 있는 경우 홍콩을 거쳐 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언하였다.

2006년 아카시아 총회 개최지 후보로는 중국과 스리랑카가 유치를 경합하였으나 스리랑카에서 포기함으로서 중국으로 결정되었다. (2005년 아카시아 포럼은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된 바 있음.)

아카시아 Fellowship 의장은 현 의장인 말레이시아의 Jimmy Lim이 재선되었고, 올해 자문회의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자문회의에는 현 회장을 포함한 24명과 함께 방글라데시 내의 학생 대표 3명이 참석하였다.

의장은 금회 방글라데시의 모든 행사를 학생들이 자원하여 봉사하는 모습은 다음 회의를 준비하는 국가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본 자문회의의 주요 사업으로 "Let's touch their young hearts" Program과 "아시아 건축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본 Program의 일환으로 Asia Pacific 건축대학에서 실무건축사의 작품의 접근 방법과 지속 가능한 건축물의 실례를 갖고 본 위원과 자문회의 회장인 Larry Lim의 강의가 3시간에 걸쳐 강의를 하였다. 본 강의는 미리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급조하여 시행하였으나 100여명의 건축 학도들이 경청하였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축관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로 진행되었다. 처음으로 시도된 강의이지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무건축사와 학습중인 학생들 간의 간격을 좁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교육위원장인 일본의 George Kunihiro는 교육위원회 보고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아카시아 Website에 수록하겠다고 하였으며, 회원국내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게재하기로 하였다. 특히 마카오에서 설립 준비중인 건축대한 설립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였다.

기타 안건으로는 UIA와 관련된 모든 행사 또는 공지사항들이 본 이사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회장단에게 UIA에 접촉하기로 하였다. 회장 선출을 위한 정관을 "회장 입후보자는 속해 있는 협회의 추천과 제3협회의 동의에 의해 후보 등록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다.

아카시아 회원국으로 활동하지 않는 아시아권의 일부국가들(라오스, 캄보디아 등)을 접촉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하였다.

다음 회기의 회장은 필리핀의 Yolanda.D Reyes와 스리랑카의 Lakshman Alwis가 경합하였으나 투표 회원국 16개국 중 9표를 득표한 Yoland. D Reyes가 선출되었고 임기는 올해부터 2년이다.

브르나이와 러시아에서 본 기구에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브르나이는 최소 건축사 미달로 러시아는 정확한 정보 미제출로 보류되었다.

본 이사회는 최초로 국제 행사를 치른 방글라데시의 경제수준과 도시환경에 비해 모든 순서 순서를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준비되었다. 특히 Forum 행사에서는 여러 회원국에서 많은 석학들이 참여하여 세계화에 따른 회원국의 연구사례가 진지하게 밤늦은 시간까지 발표되었고, 국제행사에 보기 드물 정도로 국내 건축사와 학생들의 참여가 인상적이었다.

또한 행사 진행을 돕는 도우미들은 건축학을 전공하는 자원봉사 학생을 훈련시켜 투입함으로써 학생의 견문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돋보였다.

방글라데시 건축사협회는 본 행사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를 설득하는 중간 매체로 하였고, 특히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아시아 국가의 건축 활동사항을 홍보하기도 하여 국내 건축사협회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본 협회도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참여하여 국내에 산적한 문제를 함께 풀어 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이근창 / 본협회 국제위원장)

교육위원회 회의

아카시아 교육위원회 회의가 2003. 12. 8~9일 양일간 방글라데시 다카에 있는 쉐라톤호텔 2층 소회의실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홍콩, 마카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의 사회는 위원장인 일본의 조지 구니히로가 맡았고, 몇 가지 안건에 대한 내용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우선 지난번 델리 회의에 대한 회의록이 승인되었으며, 위원장 조지 구니히로에 의해서 ACAE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국가간 정보 교류 및 ACAE의 사업내용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

또 그동안 진행시켜 온 국가간 주요건물의 타임라인 차트를 완성시키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제출된 상태이며, 기타 미제출 국가의 최종 제출을 독려했다. 궁극적으로는 출판사를 찾아서 이 내용을 출판하기로 결정하였다.

APAE(아카시아 건축교육 프로그램): 각 국가에서 원하는 대학을 찾아서 일정과정을 아카시아 건축교육 프로그램으로 명명하기로 하고, 이를 각국의 학생들이 가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유도 가능한 대학의 리스트를 정리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

끝으로 일본 교수 노부아키 푸루야의 UIA/UNESCO 교육평가기준에 대한 최근 소식 및 APEC 건축회의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민규암/본협회 국제위원)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5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3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8 · 종로구건축사회/725-38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65-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6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평택시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6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6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8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8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5-550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 18240호, 2004. 1. 2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나목 및 동항제2호중 "1제곱킬로미터"를 각각 "5제곱킬로미터"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60일(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제안자와 비용분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기간을 제외한다)"을 "60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7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이"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가"로 하며, 동항제7호 본문중 "3년전"을 "5년전"으로 하고, 동항제8호를 제12호로 하며, 동항에 제8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9.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11. 다음 각목의 1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개발용도의 용도지역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의 변경. 다만,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다만, 개발진흥지구 또는 위락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을 제외한다.

라. 다음의 기반시설의 설치

(1) 제5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 · 철도 · 궤도 · 삭도 · 수도 · 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 · 묘지공원 및 유원지를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제24조제1항중 "5제곱킬로미터(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제곱킬로미터)"를 "5제곱킬로미터"로 하고, 동조제3항중 "1제곱킬로미터"를 "5제곱킬로미터"로 한다.

제25조제3항제1호중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인 시설부지"를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5호중 "제46조제6항제2호"를 "제46조제7항제2호"로 하며, 동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 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6조제2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

여야 한다.

제46조제9항(종전의 제8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항제2호 · 제2항제1호 및 제6항"을 "제1항제2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항제1호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10항(종전의 제9항)중 "제3항 및 제6항"을 "제4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단서 및 각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다음 각목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 · 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 · 하천 · 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에 직접 연결될 것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 개발진흥지구 또는 위락지구안에 위치한 경우

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제8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용도지역 ·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 · 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4항 및 제55조 ·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제9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0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9인"을 "14인"으로 한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다.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별표 1 제1호마목 허가기준란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근도로와 연결되는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다만, 관리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외의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적합하게 건축물의 건축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확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7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 ·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별표 20 제1호사목 내지 카목을 각각 아목 내지 타목으로 하고,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제2호차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20 제2호차목 본문중 "경우에는 합계"를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로 하고, 동호카목 내지 파목을 각각 타목 내지 하목으로 하며,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별표 26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업 · 임업 ·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나. 농산물 · 임산물 · 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 · 임산물 · 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규제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별표 2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 다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농원지역안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바목(동물원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학원 · 도서관 · 아동관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농원지역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용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의 경우에는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수시설규모 이하인 것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관망탑 및 휴게소

별표 26 제3호마목중 "적조방지 및 어장정화"를 "적조방지, 어장정화 및 농업에의 사용"으로 하고, 동호바목중 "준설"을 "준설, 준설토 투기장의 조성"으로 하며,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별표 27 제1호바목 내지 자목을 각각 사목 내지 차목으로 하며,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20 제2호차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경우(제2호차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별표 27 제2호카목 내지 하목을 각각 타목 내지 거목으로 하며,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제1항의 표의 오른쪽 칸의 시설용지지구안의 시설에 대하여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고시를 한 경우 당해 시설은 제1항의 표의 왼쪽 칸의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의 처리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56조 및 별표 27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받은 개발행위허가(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 · 개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129호, 2004. 1. 29.)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 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유료화장실"이라 함은 화장실의 설치 · 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 용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 제7호 ·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 · 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제4호 · 제6호 ·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 임시시장 · 상점가 · 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

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8.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9.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 으로서 시 · 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10.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13. 항공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14. 공연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6.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증진 및 위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수립)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당해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 · 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 휴식시설 ·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의 처리는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다.

④ 그 밖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공중의 출입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 ·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 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이동화장실)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 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 · 운영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 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 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시설점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개선명령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제7조의 설치기준 또는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폐쇄명령·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광고물을 표시 및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한 사항

제15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 또는 구에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계획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및 이동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관리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민간위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보고 등)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명령에 불응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 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자

②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기준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률의 개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43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